

□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 장소 : 서울 고궁박물관 강당

· 일시 : 2012. 4. 18(수) 14:00-18:00



주최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주관 : 한국서원학회

□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 장소 : 서울 고궁박물관 강당

· 일시 : 2012. 4. 18(수) 14:00-18:00



주최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주관 : 한국서원학회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의 의의

서원의 세계유산 지정은 기본적으로 유형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1 서원국제학술회의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Benedicts Selfslagh 사무총장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교육유산들이

모두 교육과의 연계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이 유산들은 교육적 가치보다는 다른 가치에 대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가 많았다. ... 확실한 교육유산들은 유서 깊은 마을과 종교건축물 및 단지들이었지만, 그러한 유산들에 대한 등재신청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항상 교육적 연계성이 명백하게 부각된 것은 아니었다.

라는 지적을 통해서 잘 유념하고 있다(Benedicts Selfslagh, 「교육기관들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 P.P. 9-10). 그는 교육유산의 세계유산 지정에서도 탁월한 '유형학적 특성'이나 '건축양식' '건축기술', '경관' 등의 요소가 더 중시되고 주목되고 있으며, 아울러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항상 교육적 연계성이 명백하게 부각된 것은 아니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 그런 추이 속에서 우리들은 한국서원의 세계유산 지정에서 유형적인 건축물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찾아 강조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제2회 워크숍에서 대상으로 하는 기록물이나 역사사실 등은 2차적, 부수적인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국의 서원이 교육과 제향, 지성사적 전통을 근간으로 하여 한국지성문화의 거점이었음을 생각하면, 이들 무형의 자원에 대한 관심이 우선 되어야 하고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들 자료에 대한 재인식과 발굴정리는 서원을 보다 가치 있고 품격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앞에서 소개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베네딕트 사무총장은 이어지는 글에서 기준 제6조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 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를 주목하면서, 실제로 세계유산위원회가 이 기준이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위의 글 P. 12). 이러한 지적과 조언은 매우 긴요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

서 유형의 건조물 이외에도 ① 한국서원이 지닌 오랜 역사와 정신사적 전통, ② 그것을 증거하는 다양한 기록물, 그리고 ③ 무형의 의례나 구전자료 등의 유산들을 함께 정리하여 세계유산 가치를 보장, 강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번 제2차 서원 워크숍에서는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보존·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구체적 대안을 도출하여 세계유산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자 한다(이해준, 「한국 서원 유·무형 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 P.P. 141-153).

이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는 서원 기록문화의 정리, 보존관리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고, 나아가 서원별로 필요한 당면 과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예시(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작업은 한국의 서원문화가 보다 품위 있고 풍부하며, 교육 유산으로서의 탁월한 가치를 인증 받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제3차 워크숍은 “서원의 교육(강학)과 제향의례”라는 주제로 6월 15일 개최가 예정되어 준비 중이다.

2012. 3. 18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한국서원학회



□ 위 크 쏘 일 정 □	
- 장소 : 서울 고궁박물관 강당	
- 일시 : 2012년 4월 18일(수) 14:00-18:00	
사회 : 정만조(국민대)	
14:00-14:10	개회인사 이배용 위원장
14:20-17:50	주제발표 및 토론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이수환(영남대)	
토론 : 정순우(한국학중앙연구원), 김희태(전라남도)	
서원의 기문 및 금석·석각 자료의 정리 현황과 과제...김덕현(경상대)	
토론 : 서정문(고전국역원), 권진호(한국국학진흥원)	
서원자료의 보존 관리, 활용방향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 서병패(문화재청), 강문식(서울대 규장각)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방향 이해준(공주대)	
토론 : 박성진(서원연합회), 박석홍(소수서원)	
17:50-18:00	정리 및 폐회
18:00-20:00	만찬

사회 : 정만조(국민대)

14:20-17:50 주제발표 및 토론

18:00-20:00 만찬

□ 목 차 □

○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의 의의	1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7
이 수 환(영남대)	
서원의 기문 및 금석·석각 자료의 정리 현황과 과제.....	27
김 덕 현(경상대)	
서원자료의 보존 관리, 활용방향	41
옥 영 정(한국학중앙연구원)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방향	59
이 해 준(공주대)	

□ 서원별 자료정리 현황과 과제

- | | | |
|-----------------|-----------------|-----------------|
| 1. 소수서원...(85) | 2. 남계서원...(97) | 3. 옥산서원...(107) |
| 4. 도산서원...(125) | 5. 필암서원...(139) | 6. 도동서원...(165) |
| 7. 병산서원...(179) | 8. 돈암서원...(191) | 9. 무성서원...(205) |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2012. 4. 18)

서원 기록문화의 정리, 보존관리의 현황과 과제

[제1주제 발제문]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

이 수 환

(영남대 국사학과 교수)

1. 서언
2. 서원자료의 전승상태
3. 서원자료 정리 현황
4. 향후 정리의 과제와 추진 방안

1. 서 언

조선시대 서원은 교육 교화의 중심지일뿐만 아니라, 사족들의 정치사회적 활동의 중심지라는 데서 이와 관련된 성리학 관련 서책 및 서원운영과 관련된 필사원본류와 고문서 등 많은 기록자료를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서원관련 자료들은 대원군의 전면적인 서원훼철 때 대부분 소실되었다.

대원군 실각 이후 많은 서원이 복설되기는 하였지만 관계자료는 서원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院任案·入院錄 및 창건과 관련된 일부 자료만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거나 또한 복설되지 못한 경우에는 중요자료 1-2건 만이 후손들에 의해 보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원군때 훼철되지 않았던 서원은 여타의 서원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지만, 이들 서원도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근대화의 과정 등 외부적 영향과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의 도난 내지 소실이 많아 서원에 따라 차이가 많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유교문화를 대표할 만한 일부 서원에서는 오늘날까지 다양한 문화재 및 역사기록물들을 철저히 보존·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본 발표문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9개 서원을 중심으로 기록자료의 전승상태와 정리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본 발표에서의 기록자료의 대상은 서원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필사원본류와 고문서뿐만 아니라 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서책과 책판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2. 서원자료의 전승상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紹修·蕪溪·玉山·陶山·屏山·道東·遯巖·武城·筆巖書院 등에는 여타의 서원에 비해 많은 문헌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들 9개 서원은 조선후기 각 지역의 首院으로써 가장 비중이 크고 영향력이 컸다는 점에서 볼 때 많은 서책과 책판 및 서원운영과 관련한 기록자료를 남겼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이 서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자료는 서원별로 편차가 크다. 옥산·도산·병산서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원은 자료의 망실과 산질이 심한 상태이다.

먼저 기 발간된 보고서와 서원지 등을 중심으로 각 서원에 현전하는 자료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

<표 1> 각 서원별 소장 자료 현황

지역	서원	현전 자료의 수량	정리현황
경북 영주	紹修書院 安珦 1543년 건립 1550년 사액	1. 전적 : 周易傳義大全, 朱子大全, 闡義昭鑑 등 30종 145책 2. 고문서 : 謄錄, 竹溪誌, 雲院雜錄, 雜錄, 院任錄, 入院錄, 居齋錄, 尋院錄, 田畵案, 完議 등 110점 3. 책판 : 竹溪誌, 追遠錄, 家禮諺解, 六先生遺稿 등 4종 428장	소수박물관, 국편, 국학진흥원, 규장각, 계명대도서관 등에 분산소장.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국편,1999)에 일부 등재, 『紹修書院誌』(영남문헌연구소편, 2007)에 전편 수록.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編, 1969), 『紹修書院所藏資料報告書』(紹修書院, 1998)
경북 경주	玉山書院 李彦迪 1573년 건립 1574년 사액	1. 전적 : 三國史記(보물525호), 內賜本, 회재 手澤本 등 943종 3,977책 2. 고문서 : 院任·院生案, 土地·奴婢案, 尋院錄, 都錄, 通文, 所志 등 약 1,156점. 3. 책판 : 晦齋先生文集 등 19종 1,123장.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독락당 어서각, 무침당 등에 분산소장. 『玉山書院誌』(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93)에 선별수록,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04)에 전적, 고문서, 현판, 기타 유물 목록 일괄수록.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編, 1969)
경북 안동	陶山書院 李滉 1574년 건립 1575년 사액	1. 전적 : 퇴계 手澤本, 內賜本, 易東書院藏書 포함 1,026종 4,605책 2. 고문서 : 完文, 尋院錄, 院任案, 土地·奴婢案, 通文 등 2,128점 3. 책판 : 退溪先生文集 등 57종 4,014점	한국국학진흥원 기탁(유교넷으로 서비스) 『陶山書院古文書』(1)·(2)(단국대 퇴계학연구소,1994·1997)로 편간. 『陶山書院古典籍』(국학진흥원, 2006)에 모든 자료의 수량 및 목록 수록.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編, 1969)
경북 안동	屏山書院 柳成龍 1613년 건립 1863년 사액	1. 전적 : 家禮諺解, 西厓集, 艮齋集 등 1,071종 3,039책 2. 고문서 : 書院要覽, 院任錄, 入院錄, 居齋案, 講案, 尋院錄, 土地·奴婢案 등 58점 3. 책판 : 西厓先生文集·別集, 童蒙須知, 陶山及門錄辨訂 등 25종 1,907점	『古文書集成』20(정문연, 1994)에 병산서원 고문서 수록.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編, 1969).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04)에 전적, 고문서, 현판, 기타 유물 목록 일괄수록.
경북	道東書院	1. 전적 : 景賢錄 등 내사본 10종 26책.	『道東書院誌』(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 이들 9개 서원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현풍	金宏弼 1605년 건립 1607년 사액	2. 고문서 : 道東重脩事蹟, 各處通文牒草, 院任錄, 入院錄, 尋院錄, 土地·奴婢案 등 3. 책판 : 景賢錄 1종 71판 4. 기타 : 제기 30점.	1997)에 선별수록.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달성군, 2005)에 고서, 책판, 기타유물수록.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編, 1969)
경남 함양	濫溪書院 鄭汝昌	1. 전적 : 寒州先生文集, 桐溪先生文集 등 147점. 2. 고문서 : 經任案, 院錄類, 哀寶錄類, 田畝案, 秋收記, 通文, 簡札 등 717건. 3. 책판 : 一臺先生文集·介庵先生文集 책판 377점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編, 1969)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문화재청, 2005)에 고문서, 고서, 책판 등의 목록수록. 『濫溪書院誌』(1935, 朴彩箕)에 건립연혁, 배향인물 사적이 있음. 『古文書集成』24(정문연, 1995)에 고문서 수록. 『濫溪書院尊衛錄』(남계서원편, 1962) 준위록 수록.
전북 정읍	武城書院 崔致遠 1615년 건립 1696년 사액	1. 고서 : 直軒集, 肯構堂遺稿, 武城書院誌(1930) 등 8점 2. 고문서 : 泰山書院院(生)儒案, 院生案, 尋院錄, 奉審錄, 完文, 延額記事, 重修日記, 慕賢稷案 등 49종	『武城書院誌』(崔成在 等編, 1884)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문화재청, 2009)에 고서와 정책고문서의 목록이 있음.
충남 연산	遯巖書院 金長生 1632년 건립 1659년 사액	1. 고문서 : 金長生文廟配享教旨, 儒生到記, 院中賭地記, 齋中記簿, 節目, 學稷案, 田畝改量案, 齋任錄, 連山縣 齋任錄 등 10종 2. 책판 : 沙溪先生遺稿, 沙溪全書, 愼獨齋先生遺稿 등 11종 1,841판	『遯巖書院誌』(1958)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2(문화재청, 2007)에 책판만 있음.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編, 1969)
전남 장성	筆巖書院 金麟厚 1624년 건립 1662년 사액	1. 전적 : 家禮輯覽, 經書辨疑, 書傳, 樂學軌範 등 78종 245책(1969) 2. 고문서 : 奴婢譜, 院長先生案, 執綱案, 補講案, 文稷案, 西齋儒案書, 院籍, 長城府使下帖 등 14종 외(보물지정) 3. 책판 : 河西先生文集(舊·新), 草千字, 楷字, 墨竹, 筆法板木 등 7종 616판	문적일괄 14책 64매 (보물 제587호) 『筆巖書院院籍』(1802)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編, 1969) 『筆巖書院誌』(1975)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 서원에서 현전하는 서원자료는 지역에 따라 수량에서 큰 차이가 난다. 즉, 영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전자료의 수가 가장 많으며, 영남권내에서도 퇴계학과권과 남명학과권 간에 차이가 있다. 이는 각 서원에서 생산된 자료의 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원의 관리소홀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서원에서 보면 內賜本과 제향인의 手澤本 등의 전적은 서원측에서도 중요시 여겨 별도의 함을 제작하여 보관해 왔다. 그러나 서원 건립 초기에 자체 구입하거나 개인·관청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 등은 관리소홀로 인해 거의 남아있지 않다. 현재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책은 대부분 19-20세기 초의 것이다. 서원건립 초창기의 전적은 현전하는 傳與記나 書冊置簿記, 書院誌 등을 통해 그 대강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서원에 남아있는 藏書 목록은 대부분 서책과 책판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고문서류는 考往錄, 傳與記, 尋院錄, 重建日記 등과 같이 서원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서책들과 같이 분류하여 보관하고, 기타 문서 등은 중요도에 따라 목궤 내지 잡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하였

다. 서원들은 그 오랜 역사에 비례하여 그만큼의 문서가 작성·보관되었을 것이 자명하지만, 생산된 정확한 수량이나 목록은 기록이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서원운영과 관련된 문서를 비교적 잘 소장하고 있는 옥산서원의 경우에서 보면 모든 문서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원 측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제, 제향, 임원(조직), 관문서(증명서) 등은 文書秩을 두어 목록과 수량을 기록하고 있었다.²⁾ 이들 문서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대궐에는 서원의 재정과 관련된 노비·토지매매문서, 전답안, 노비추쇄안 및 부피가 큰 통문을 보관하였고, 중궐에는 집사기, 홀기, 입원록, 전여기 등 서원 조직·제향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였다. 그 외 명문, 완문, 관문 등은 잡문서로 묶어 보관하되 각종 회계록을 별도로 모아두었다. 심원록·고왕록과 같이 수시로 기록하거나 살펴봐야 하는 것들은 서책과 함께 책장에 보관하였다. 모든 서원에서 이와 같이 보관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서원에서 文書櫃를 별도로 비치한 것으로 보아 문서의 분류와 관리는 비슷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전적은 별도로 소장처인 장서각을 만들거나, 궐에 넣어 동·서재의 별실에 보관하였다. 별실에 보관한 경우는 대개 서원건립 초기에 그러하였고, 이후 장서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보관할 별도의 시설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도산서원의 경우 동서재의 협실에 보관해 오다가 서적수의 증가로 인한 공간부족과 화재의 위험으로 1819년 書庫(光明室)를 신축하였다.³⁾

이들 서적의 관리는 원임들이 담당하였다. 1862년 필암서원의 節目에는 內賜한 서책은 극히 중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보기를 원하면 서원에 와서 소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책을 보관한 經藏閣(藏書閣)의 출입은 執綱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였고, 또 傳與뒤에 서책을 잃으면 새로운 집장이 추심하여 收藏하라고 하였다. 도산서원도 院規에 서책 수장고에 출입할 시에는 三任(원장·재유사·별유사) 입회시 내지 堂會시에만 가능하며 서원의 책은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도산서원 문서가 국학진흥원에 기탁되기 전까지 적용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각 서원들의 전형이 되어 대부분의 서원에서 ‘書籍門外不出’을 원규나 절목으로 제정·시행하였다.

1752년(壬申) 9월의 옥산서원 完文에는 ‘옥산서원에는 宣賜 된 책도 많고 서원 설립시 節目으로 정한 書冊不出院門의 규정이 있어 수백 년 동안 1권의 책도 闕失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관가에서 책자를 보기위해 下帖으로 명하여 빈번히 왕래하면서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기도 했다. 혹은 포쇄를 위해 이동을 하면서 闕失되는 폐단이 있으니 士林들은 원규를 지켜 추후 官長이라도 책을 빌려볼 수 없도록 하라’고 했다. 또한 1792년 치제시 정조는 祭官을 통해 ‘書籍門外不出’이 원규로 성문화 되어있으니 다행이라고 하면서, 양반들의 私家로 빌려가서 보고 있는 책자는 즉시 서원으로 가져오라고 傳諭하고 있다.⁴⁾

이처럼 옥산서원에서의 서책의 열람은 원규로서 서원 내에서만 가능하였으며, 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수령 내지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이 규정이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왕명 이후에도 서책의 闕失은 계속 증가하여 이에 옥산서원은 새로이 서책목

2) 『壬戌(1862) 五月 書冊都錄』(옥산서원 소장).

3) 광명실 신축은 알려진 1819년(己卯)과 치부기의 乙未年이 차이가 있으므로 상고할 필요가 있다(김종석, 『도산서원고전적』 해제편, 2006, pp. 6-8).

4) 「壬申 九月日 府尹完文」, 「壬子 諭旨」 『書冊傳與都錄』(壬戌(1802) 8월).

록을 작성하고 諸生들이 이 규정을 잊지 않도록 판목으로 새겨 걸어 경계토록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실제로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서적이 분실되었으며, 특히 일제시대 이후 서원측의 관리부실이 이어지면서 많은 전적이 유실되었다.

서원은 향촌 내 교육기관으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문고 내지 출판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여 지방문화의 창달에 기여하였다. 사액서원은 일반적으로 사액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전답, 노비와 함께 서적을 하사받았으며, 자비로 서적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후 국가에서는 원생들의 공부를 분발시킨다는 의미로 서적을 인출할 때마다 서원에 頒賜를 거듭하였다. 또한 각 가문내지 院祠에서 印刊된 문집 등이 반질되어 옴으로써 서원은 향촌사회의 유생들을 위한 도서관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백운동서원이 창건된 지 2년 후에 편찬된 『竹溪誌』에 의하면 소수서원에는 이미 42종 500여 책의 서적이 보관되어 있었다.⁵⁾ 옥산서원은 「1862년 書冊都錄」에 394종 2,545책이, 도산서원은 「1890년 傳掌記」에 490종 2,991책이 나온다.⁶⁾ 遯巖書院은 현재 남아있는 서적이 없지만, 현전하는 「齋中記簿」(戊午3월)에 의하면 주역을 비롯한 경서와 사서, 예서, 각종 문집 등이 소장되어 있었다.⁷⁾

1759년에 작성된 「屏山書院書冊目錄」⁸⁾은 서원의 원임 체임시에 작성된 것으로 총 90종이 수록되어 있다. 병산서원은 도산·소수·옥산서원과과는 다르게 서원 인근 명문가들에 의한 院外 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러한 대출은 한편으로 장서의 대량 산실을 야기하여 장서 관리 체계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1673년의 목록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서적이 유실되었으며, 남아있는 것도 낙질이 심하였고 또한 10년 이상 반납을 하지 않은 서적도 있었다. 이 당시 장서의 1/3이 새로 들어온 新書였는데, 이는 18세기 이래 문중, 원사 등을 중심으로 일기와 문집의 출판이 성행하였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769년 목록에서 100종으로 장서가 늘어난 것도 新書의 증가로 인한 결과였다. 그러나 서책의 관리 는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아서 1883년 『院案要覽』의 서책목록조에서 보면 모두 산질되어 10분의 1정도의 서책만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서원은 이러한 지방의 도서관적 역할 뿐만 아니라 서적을 직접 출판하기도 하여 지방출판 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화 창달과 지식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서원에서 간행되는 책은 사서 삼경 등 교육용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서원에 배향된 분 또는 서원과 관련이 있는 분의 문집과 유고 등이었다.

<표 2> 서원별 출판현황

서원명	鏤板考(種)	최근 조사 현황
紹修書院 ⁹⁾	—	4종 428판
陶山書院 ¹⁰⁾	17	28종 3,928판
屏山書院 ¹¹⁾	3	25종 1,907판

5) 周世鵬, 『竹溪誌』 권2, 「順興白雲洞書院藏書目錄」.

6) 유교넷(<http://www.ugyo.net>) 도산서원 고문서 참조.

7) 정현정, 「돈암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8) 朴現圭, 「<屏山書院書冊目錄>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書誌學報』 14, 한국서지학회, 1994 참조.

玉山書院 ¹²⁾	7	19종 1,123판
道東書院	—	1종 71판
濫溪書院	—	5종 377판
遯巖書院 ¹³⁾	3	14종 1,841판
武城書院	—	4종
筆巖書院 ¹⁴⁾	1	7종 616판

위 <표 2>는 1778년 徐有槩가 편찬한 『누판고』에 나오는 9개 서원의 출판현황과 최근 조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¹⁵⁾ 이들 서원에서 출판된 서적은 대부분 주향인 내지 배향인의 문집과 그 후손 내지 문인들의 문집 및 그들의 행적을 엮은 傳記類들이었다. 이 문집류와 전기류는 서원과 연관 있는 선현들의 학문과 사상을 배우려는 후학이나 후손들의 의도로 간행된 것이며, 나아가 가문과 서원의 세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 소수·도동·남계·무성서원 등은 출판된 서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서원 소장 冊錄이나 현전하는 판본을 살펴보면, 소수서원에서는 『追遠錄』 등 10종이 간행되었으며, 도동서원에서는 1771년에 『景賢錄』이 간행되었다. 남계서원에서는 『文獻公實記』(鄭汝昌)의 초·중간이 1635년과 1743년에 있었으며, 『介庵先生文集』(姜翼)이 1686년에 간행되었다. 『누판고』에서는 무성서원에서의 출판사항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후 1834년에 태안현감과 서원유생들이 품의하여 巡營에서 <桂苑筆耕>을 開刊한 사실이 확인된다.¹⁶⁾

따라서 각 서원에서는 이러한 서책 출판을 전담하는 刊所를 별도로 설치하여 승려에게 그

- 9) 이 책록에는 수량을 밝히지 않은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데 『竹溪誌』, 『六先生遺稿』, 『追遠錄』, 『文成公神道碑』, 『洪荷衣草書』, 『岳武穆筆籍』, 『鳶飛魚躍』, 『學求聖賢』 등과 沙州에 있어서 찾아오지 못했다고 기록된 『漁溪集』과 『朱書刊補』가 있다(『紹修書院冊錄』, 1762).
- 10) 『嶠南賓興錄』, 『經書釋義』, 『啓蒙傳疑』, 『退溪言行錄』, 『古鏡重磨方』, 『理學通錄』, 『朱子書節要』, 『松齋集』, 『韓巖文集』, 『雲巖逸稿』, 『溫溪逸稿』, 『退溪文集·續集·年譜』, 『退溪自省錄』, 『耻齋遺稿』, 『月川文集』, 『近始齋文集』, 『溪巖文集』 등의 17종이다(徐有槩, 『鏤板考』(국립중앙도서관소장 古20338) 참조).
- 11) 『懲愆錄』(전16권), 『西崖文集』(전21권, 별집 9권, 연보 3권), 『梧里文集』(전6권, 부록 4권, 속집 2권, 별집 2권, 부록2권) 등이 있다.
- 12) 『求仁錄』·『近思錄』·『大學章句補遺』·『奉先雜儀』·『中庸九經衍義』·『太極問辨』·『晦齋集』 등 7종이 확인된다.
- 13) 『沙溪遺稿』(전 14권), 『愼獨齋遺稿』(전15권), 『沙溪年譜』(전1권) 등이 있다.
- 14) 『河西集』(전 14권, 별집 9권)이 있다.
- 15) 『鏤板考』는 정조가 즉위한 다음 해에 각도에 유시를 내려 조사케 하여 정조 20년에 완성된 것이므로 자세히 조사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당대의 누락된 도서는 물론 그 후에 간행된 도서가 포함 안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김윤식, 「조선조 서원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2008, p.308). 최근 조사현황은 2004년 이래 문화재청과 지자체에서 실시한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를 주로 참고하되, 각 지역에서 별도로 목판조사를 실시한 것도 참고하였다(전남대문화정보연구소, 『전남 서원의 목판』, 1998 ; 2004-2009년 『(비지정)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 : 달성군(도동), 안동시(병산), 경주시(옥산), 논산시(돈암), 정읍군(무성)』 ; 소수박물관, 『소수박물관의 목판과 현판』, 2009 ; 경북지역의 목판자료(1)·(3), 2005·2007. 이상은 <부록>의 각 서원현황을 참고).
- 16) 『武城書院誌』 乾·坤, 「桂苑筆耕開刊記」(1888) ; 이후 무성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는 1931년에 『武城書院誌』(3책), 1939년에 『曹公金鍾遺稿』(曹湍), 『曹金鍾集』(曹南承) 등이 확인된다.

역을 맡기고 또한 재정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옥산서원은 刊所를 별도로 두고 서적을 출간하거나, 경주부 내지 다른 서원의 판목을 보수하는 일도 수행하였다. 특히, 속사였던 定慧寺에는 1670년 14종의 책판이 있었는데, 이중 9종이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주향자인 회재의 문집과 저술들이었다.¹⁷⁾ 이후 『누판고』가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近思錄이 추가로 간행되면서, 옥산서원에서는 총 10종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적출판 비용은 원칙적으로 서원의 기금으로 충당하지만 때로는 문중이나 제자들이 거출한 비용 및 특정유지의 기부금 등으로 印出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손들이나 문인들이 契를 조직하여 그 돈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원이 소장하고 있었던 서책, 책판 및 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필사원본류와 고문서 자료 등은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특히 서원측의 관리소홀로 많이 망실된 상태이다. 현재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19세기 말에 적성된 각 서원의 院誌, 傳與記, 置簿類 등과 비교해보면 도산·옥산서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80% 이상이 망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서원자료 정리 현황¹⁸⁾

1) 목록·해제집 발간

서원자료에 대한 관심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1932년 조선총독부에서는 전국 향교와 서원, 문중에 분포해 있는 고전적을 파악하기 위해 서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처음으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¹⁹⁾

서원자료는 해방 후 다시 한 번 수난을 겪게 된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서원자료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전란을 피해 보존될 수 있었던 자료들도 전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리소홀로 인해 재차 사라져갔다. 실제 돈암서원자료의 경우 현재는 거의 남아 있는 것이 없지만, 1958년의 서원지에는 도서목록이 정리된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개별 서원 장서에 대한 조사는 1956년 한국어문학회에서 도산서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

17) 1670년 정혜사에는 『九經衍義』·『求仁錄』·『金南窓所書元朝五箴及太極問辨』·『大學補遺』·『梅月堂四遊錄』·『奉先雜儀』·『櫟翁稗說』·『益齋集』·『抄漢書』·『太極圖說』·『韓濩所書赤壁賦』·『晦齋文集』·『晦齋所製退溪所書十六詠及元朝五箴』·『孝行錄』 등 14종의 책판이 있었다. (『東京雜記』) 이 중 경주부에서 간행한 『매월당사유록』, 『역옹패설』, 『적벽부』, 『효행록』, 『익재집』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박장승, 「경주소재 서원·사에서 간행한 전적고」 『신라문화』 19, 2001).

18) 이하 내용은 <부록>의 『서원자료 정리의 성과, 현황, 과제』(9개 서원)를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19) 조선총독부, 『朝鮮圖書解題』(조선통신사, 1932). 이후 전국에 산재한 고전적에 대한 종합적 조사는 1970년 독락당과 옥산서원에 보관 중이던 삼국사기 외 여러 종의 귀중본들을 도난 당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서 고전적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환기시켰으며, 이후 중요 고전적에 대한 문화재지정과 전국에 산재한 고전적의 조사·정리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동아일보』 1970년 8월 7일(5면)).

하였다.²⁰⁾ 이후 서원 장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는 1968년 이춘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²¹⁾ 이 조사를 통해 경상도 서원의 자료들이 비교적 잘 보존, 관리되어 왔으며, 특히 옥산·도산·병산서원 등의 소위 퇴계학맥권의 서원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4,300여 책으로 가장 많은 장서를 보관하고 있던 도산서원은 이 서책들 중 일부가 역동서원의 장서로서 도산서원으로 이관·보관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이 역동서원 장서 중에서 퇴계가 직접 수집한 서적 12종 113책은 임란이전 판본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도산서원 장서는 零本이 적고 타 서원문고나 도서관에서 보기 힘든 책들도 상당수 있어 서원문고의 보고라 할 만하다.

이후 개별 서원별로 자료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일부 자료들이 연구자들에 의해 소개되어 갔지만, 서원 소장자료에 대한 일괄 조사는 문화재청이 주관하여 2004-2009년 사이에 진행된 「(비지정)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에서 었다. 이 조사를 통해 옥산·도동(달성군에서 조사)·남계·병산·돈암·무성·필암서원 소장의 전적, 고문서, 책판 및 기타 유물(기문, 현판, 제기 등) 등의 현황 및 목록, 보존실태 등이 보고되었다. 소수·도산서원은 이 사업과는 별도로 자체 조사가 이루어졌다. 도산서원은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서원자료 10,700여 점을 일괄 기탁하면서, 그 목록이 2006년 『도산서원 고전적』으로 소개 되었으며, 소수서원은 자체적으로 1998년에 「소수서원 소장 자료 조사보고서」(3책)을 간행하여 고서, 고문서 및 기타 유물의 목록과 간단한 해제를 함께 수록하였다.

이처럼 서원자료에 대한 조사가 정부, 지자체, 기관별로 진행되어 대략적인 현황이 파악되었지만, 이 조사는 자료의 목록과 일부 자료에 대한 사진 및 간단한 해제만이 제공되어서 연구자 내지 일반인들이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서원지(자료집) 발간

1930년대 이후부터 각 서원별로 서원지 편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先祖에 대한 현창사업의 촉발로 각 문중마다 대원군 당시 훼손되었던 서원과 사우의 복설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기였다. 서원지 발간은 이러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9개 서원의 자료집 간행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수서원 : 최초의 사액서원이라는 상징성과 소장 자료의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일반에게 자료가 소개되었다. 1937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소수서원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정리한 『紹修書院謄錄』을 간행하였다.²²⁾ 이후 1999년에는紹

20) 한국어문화회, 「도산서원 장서목록」 『어문학』 1, 1956.

21)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1969)에 의하면 예안의 도산서원에는 907종 4,338책, 옥산서원 866종 4,111책, 병산서원 1,071종 3,039책, 소수서원 141종 563책, 도동서원 95종 529책, 남계서원 59종 317책, 돈암서원 78종 245책, 필암서원 132종 595책이 있었다. 무성서원은 미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무성서원 자료가 당시까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내용은 <부록>의 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22) 조선사편수회, 『紹修書院謄錄』, 1937.

修書院院錄謄本, 雜錄, 紹修書院講所雜錄, 廟宇重修記事, 田畝案, 退溪笏記, 愼齋笏記 등을 영인한 『朝鮮時代 嶺南書院資料』(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되었고, 2005년에는 영주시에서 『소수서원잡록』을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소수서원은 옥산·도산서원 등과는 다르게 서원자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자료가 소실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었다. 현재 서원측에서 확인한 외부 소장처는 국사편찬위원회, 도산서원(국학진흥원 기탁), 계명대학교 도서관, 개인 3명 등이다. 개인 3명이 소장한 것은 이들이 소수서원에 유물을 일괄 기탁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소수서원은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2007년에 『紹修書院誌』(영남문화연구소간)를 편간하였다.²³⁾ 이 서원지에는 소수서원의 연혁과 건립 및 사액과정과 배향자의 이력, 서원이 소장하고 있거나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수서원 관련 고문서 및 정책류와 고서 등의 목록 및 문집 등에 소재한 소수서원과 관련하여 작성되었던 각종 문자들도 수록하고 있어 소수서원 관련 자료의 현황 파악에 참고가 된다. 그러나 이 서원지에는 이들 자료에 대한 목록과 간단한 소개에 그쳐 자료집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옥산서원, 도동서원 : 두 서원의 서원지는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1993년과 1997년에 각각 『玉山書院誌』와 『道東書院誌』로 발간하였다. 두 서원지는 서원내 소장 자료가 너무 많아 1책에 관계 자료를 모두 정리한다는 원칙을 세워 서원지 편찬의 본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선별하였고, 동일한 자료가 방대할 경우에는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사료를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옥산서원의 경우 서원운영과 관련하여 그때 그때 작성된 필사원본과 고문서가 거의 대부분 소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옥산서원지』에는 都錄, 傳與記, 尋院錄 등 대부분의 필사원본은 대표적인 것을 선별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인 자료집 발간이 필요하다.

3) 도산서원 : 도산서원 소장 자료(고문서)는 1994년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에서 도산서원 소장 자료에 대한 조사를 거쳐 도산서원자료 중 院規, 儀禮, 通文, 日記類 등 일부를 엮어서 1994년과 1997년에 『陶山書院古文書』(1)·(2)로 편간하였다. 여기에 실린 고문서는 모두 원본사진과 正書를 같이 기재하여 연구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후 1999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朝鮮時代 嶺南書院資料』에 단국대 퇴계학연구소에서 간행한 자료집에 누락된 院任錄·遊院錄 등 일부자료가 수록되었다. 도산서원 소장 자료는 2003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이들 자료는 『陶山書院古典籍』(2006)이라는 목록집으로 간행되었으며, 현재 유교넷(<http://www.ugyo.net>)으로 원문이미지와 간단한

23) 소수서원 자료는 각처에 분산·소장되어 있다. 그래서 서원지에 수록된 자료들은 우선, 소수서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소수서원 관련 고문서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 후 여러 기관에서 간행된 <고서목록·해제집>에서 소수서원 관련 키워드(백운동, 소수서원, 경림정, 문성공 등)로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입사록, 심원록 등에 기재된 인물의 저서와 소수서원 관련 연구서와 논문의 인용서목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검색이 어려운 지역의 자료는 영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향교, 서원, 각 성씨의 중중에 통문을 보내 수집하기도 했다. 수집된 자료는 크게 사진자료와 본문으로 구성하였다. 사진자료는 서원의 전경과 건물, 유적, 유물, 시판, 石刻, 影幀 등이 있다. 본문은 창건과 중흥, 제향인물, 원규와 立議, 享祀와 告由, 影幀, 강학, 현판, 詩賦, 散文들, 文獻, 建物, 遺蹟, 遺物, 원문자료(입원록, 원록등본, 원임제명록), 당회와 운영, 연표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嶺南文獻研究所 編, 『紹修書院誌』(2007)의 凡例 참조).

해제를 서비스를 하고 있다.

4) 병산서원 : 병산서원 관련자료는 1994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학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편간된 『古文書集成』 20집에 정리되었다. 현재 이들 자료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한국국학진흥원의 웹사이트인 유교넷(<http://www.ugyo.net>)의 '명문가고문서' - '풍산류씨 충효당' 항목에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자료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고문서자료관에서는 『古文書集成』 20(1994)에 수록되었던 고문서와 성책류 58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남계서원 : 1935년과 1962년 등 몇 번에 걸쳐 서원지의 편찬이 있었으나, 이후 서원 관련 모든 자료는 1995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학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편간된 『고문서집성』 24집에 정리되었다. 현재 남계서원 소장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국가편찬위원회·남명학고문헌시스템·한국고문서 자료센터·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6) 돈암서원 : 1958년에 『돈암서원지』가 발간되었다.

7) 필암서원 : 1949년(1책), 1975년(2번, 4책, 3책)에 『필암서원지』가 발간되었다. 이후 고문서는 1985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한 『古文書』에 정리 수록되었다. 여기에는 보물(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 문적들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8) 무성서원 : 1884년에 『무성서원지』가 발간되었다.

9개 서원의 관련 자료는 서원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몇몇 서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원은 관리소홀로 자료가 대부분 산실되었다. 한편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소수·도산·옥산서원 등의 경우 자료집 성격의 서원지 등이 발간되었지만, 지면상의 문제로 모든 자료를 수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몇몇 서원자료는 전문학술기관에서 정리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지만, 그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4. 향후 정리의 과제와 추진 방안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본산으로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교육, 문화, 지성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유교교육기관이다. 특히 서원은 여론과 공론의 수렴처로서 지역 사립들의 사회·정치활동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자연과 학연별로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자, 각종의 유·무형의 자료가 집약된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해당 서원이 지닌 고유하고, 특별한 성격을 드러내어 이를 현대에 재조명하여 계승·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재조명의 기초 작업이 바로 서원자료와 기록자료의 정리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정선된 서원별 문화사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서원관련 원자료의 확보가 미흡함에 따라 오늘날 콘텐츠 개발의 부진을 초래하여 서원문화의 다양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24) 이해준, 「한국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

서원 기록자료는 3단계를 거쳐 조사·정리·가공되어야 한다.²⁵⁾ 첫째는 자료의 포괄적 수집과 정리며, 둘째는 <서원지(자료집)>의 편찬, 보급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개발이나 스토리텔링, 교육, 체험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서원지를 바탕으로 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소스들은 최종적으로 <한국서원 아카이브>에 집결된다. <서원 아카이브>는 국내외에 한국 서원 문화의 보급과 홍보의 허브로 활용하여 연구, 교육, 관광 등에 활용될 수 있다.

1) 1단계 : 광범위하고 철저한 서원자료의 조사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대다수 서원자료가 관리 소홀과 무관심으로 대부분 망실되거나 散失된 실정이다. 산실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향인의 후손과 원임 및 그들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사지역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부터 시작한다. 대상 서원의 기본적인 연혁과 관련 문증의 구체적 구성과 위상, 연혁과 관련된 시대적 변화, 관련 유적, 주요 성씨와 중심인물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 파악이 그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9개 서원은 각 지역의 首院으로서 역할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많은 서책과 서원운영과 관련된 필사원본과 고문서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각 서원의 관계자료는 소실된 것을 제외하고도 서원측의 관리소홀로 후손가 내지 서원 관계자(원임)들에게 분산된 것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각 서원자료의 종합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소수서원 자료는 한국전쟁으로 상당수가 소실되거나 이후 散失되었다고 한다(『동아일보』 1969년 7월 5일(5면)기사). 그러나 2007년에 발간된 『소수서원지』에서 보면 국사편찬위원회, 계명대 도서관, 국학진흥원(도산서원소장본)에 중요한 소수서원 자료가 보관되어 있고, 특히 개인이 소수박물관에 기탁한 유물속에 서원관련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옥산서원의 경우에서도 보면 배향자의 후손가(무침당, 독락당)에서 서원관련 많은 중요한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옥산서원 문서는 이외에도 제향자의 후손가에 많이 소장하고 있음이 양동마을 일반동산 문화재 일괄 조사때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소수·옥산서원의 예에서 보듯이, 서원관련 자료가 배향자의 후손 또는 서원의 운영을 담당했던 원임들의 후손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 또한 현재는 규장각, 장서각, 한국국학진흥원 등의 학술기관과 대학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소장 자료들이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의외의 자료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서원자료의 종합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문집에 수록된 관련자료도 조사가 필요하다.

2) 2·3단계 : 서원지(자료집) 편찬과 아카이브 구축

25) 이하 내용은 이해준 외, 『서원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0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서원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 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원지(자료집) 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에 발간된 『옥산서원지』 『대도동서원지』 등은 상세한 해제와 원자료의 영인을 통해 서원지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모든 자료를 수록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자료만 선별·수록하였기에 활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 발간된 『소수서원지』(영남문화연구소편, 2007)는 서원의 창건과 운영, 제향인물, 건물연혁, 소장 자료, 토지, 건물, 서적, 유적, 유물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과 현황과악이 용이토록 하필요소수서원에 대한 홍보와 연구에 근거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는 목운영, 간행. 기존 그래서 기존 서원지들에 비해 다소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반인들을 창건국한문 혼용체의 사용과 事蹟, 記文, 詩文, 碑文, 簡札 등의 번역문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다만, 지면의 제약으로 원자료들을 영인하지 못하고 入院錄, 院錄謄本, 院任題名錄, 任事錄 등의 일부 자료만 탈초·수록하고, 나머지 자료는 목록과 현 소장처만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이들 서원지는 서원별 내지 연구자들의 기초자료의 선별 기준이 달라서 수록내용의 편차가 심하다.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 목차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²⁶⁾ 서원에 전승된 (성책)고문서는 매우 다양하며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 고문서 분류에 대한 논의는 현재에도 정리되지 못한 채 규장각, 장서각, 국학진흥원 등의 중요 기관들에서는 각기 다른 분류안을 채택하고 있다. 서원고문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각 기관에서의 분류안에 따라 서원고문서를 분류하면 문서들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렇기에 서원자료는 그 종합적인 특징에 주의하여 실제 관리와 연구의 편의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서원 (성책)고문서를 이해준의 견해에 따라 내용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⁷⁾

- ① 창건과 연혁 : 考往錄, 事蹟, 日記類, 上樑文, 記文, 書院誌, 官撰資料(列邑院宇事蹟, 書院可攷, 書院謄錄, 邑誌 등)
- ② 조직과 운영 : 院任案, 院生案, 執事分定記, 謁廟錄, 稷案, 鄉約, 儒生案 등
- ③ 경제운영 : 土地·奴婢案, 田畓案, 身貢案, 守護軍案, 院屬案, 用下記, 傳與記, 都錄, 屬寺, 屬店, 書院村 文書, 牌旨, 賜牌文書 등
- ④ 교육·제향 : 講案(講規), 書院規約, 立議, 節目, 完文, 學規, 書冊都錄, 笏記, 致祭文, 告由文 등
- ⑤ 향촌사회사자료 : 尋院錄, 時到記, 扶助記, 通文, 回文, 上書, 所志, 萬人疏, 簡札 등

이러한 서원지 편찬에는 서원관계자, 연구자, 활용자(교육자, 개발자, 관련 공무원 등) 등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구성한 후, 분야별 서원 연구자(인문, 경관, 건축, 문서, 기타)가

26) 서원별로 자료의 유무내지 수량에서 차이가 나지만, 공통된 목차가 갖춰진다면 개개 서원의 공통성과 고유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외에도 개별 서원자료의 검색과 비교가 편리해질 것이다.

27) 이해준은 서원 기록자료를 크게 ① 서원관계 관찬자료, ② 서원지와 제향인물의 문집, ③ 서원고문서로 나누고, 복합적 성격을 가진 서원 고문서는 주제에 따라 ① 창건과 연혁, ② 제향인물, ③ 조직과 운영규약, ④ 경제, ⑤ 향촌사회사 자료로 세분하였다.(이해준, 「한국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

집필해야 하며, 서원지는 자료집의 성격으로 향후 제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서원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과 함께 탈초와 번역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종합하는 <한국서원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원문화의 대중화를 통한 한국 유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서원지 편찬과 아카이브 구축에는 서원측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들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서원자료를 이용한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서원이 가지는 정신사적, 문화적사적 위상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9개 서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역사적 위상이나 현존 서원자료를 통해서 볼 때 학제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2011년부터 <한국 유교문화 심층연구>의 일환으로 도산서원 자료를 활용한 학제간 ‘서원포럼’을 진행 중이다. 서원정신과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이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과제라고 볼 때 이러한 사업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다만 각 서원별로 이러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원측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지자체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각 서원별로 이러한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서원의 홍보,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되어 그 문화사적 의미들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 李朝書院文庫考-』, 국회도서관, 1969.
 강주진, 「서원과 그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배현숙, 「退溪 藏書의 集散考 -個人文庫의 書院文庫化의 一例-」 『서지학연구』 10, 1988.
 이해준 외,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朴現圭, 「屏山書院書冊目錄」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書誌學報』 14, 한국서지학회, 1994.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전형택, 「조선후기 筆巖書院의 경제기반과 재정」 『전남사학』 11, 1997.
 조상순, 「필암서원연구」 『문화재』 31,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李樹健 外, 『朝鮮時代 嶺南書院資料』, 국사편찬위원회, 1999.
 박장승, 「경주 소재 書院·祠에서 간행한 典籍考」 『신라문화』 19, 2001.
 윤희면, 「전라도 장성 필암서원의 정치사회적 기능」 『전남사학』 17, 2001.
 이수환,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大丘史學』 65, 2001.
 이흥재·이해준 외, 『향교와 서원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 문화정책개발연구원, 2001.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 『한국의 서원과 학맥연구』, 국학자료원, 2002.
 裴賢淑,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書誌學研究』 31, 2005.
 김종석, 『도산서원 고전적-해제편-』, 한국국학진흥원, 2006.
 嶺南文獻研究所 編, 『紹修書院誌』, 紹修書院, 2007.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연구』, 경인문화사, 2008.
김윤식, 「조선조 서원문고에 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2008.
윤희면, 「경상도 함양의 濶溪書院 연구」 『남명학연구』 26, 2008.
박종배, 「병산서원 교육관계 자료 검토」 『교육사학연구』 18-2, 2008.
이해준 외, 『고서·고문서 조사편람』, 문화재청, 2009.
이해준 외, 『서원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0.
문화재청,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2010.

※참고 사이트

국가기록유산 : <http://www.memorykorea.go.kr>
국가전자도서관 : <http://www.dlibrary.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 <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고전번역원 : <http://www.itkc.or.kr>
한국학자료센터 : <http://www.kostma.net>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 <http://e-kyujanggak.snu.ac.kr>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 <http://www.ugyo.net>

서원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정 순 우

(한국학대학원 교수)

이 교수님은 그 동안 옥산서원이나 도동서원의 서원지 발간 작업을 주도하면서 서원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류, 간행에 관한 매우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셨다. 이 교수님의 본 발표문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9개 서원의 자료 현황에 대해 전체적인 윤곽을 알려 주고 있어 추후 관련 작업에 매우 요긴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록으로 첨부된 9개 서원의 상세한 자료 목록은 해당 서원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요긴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에 참여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본문에서 밝혔듯이, 옥산·도산·병산서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원은 자료의 망실과 산질이 심한 상태이다. 비교적 충실하게 자료가 보관되었다고 하는 도산서원만 하더라도 자료의 편재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가령 교육관련 자료나 각종 제의 관련 자료도 시대적 변천과정이나 운영의 전모를 알기에는 매우 부실한 모습을 보여 준다. 병산서원의 경우에도, 남아 있는 고문서로는 서원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제대로 구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자료상의 어려움이 제대로 된 서원지의 발간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이해된다. 따라서 지금 연구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지금 잔존된 자료들을 최대한 집적하여 최선의 선본을 제공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이번에 이 교수님 팀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한 미 발굴 자료들도 망라하여 수집하고 체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예로 각 서원별로 관련된 인물의 사상, 행적, 교류양상 등을 알려 주는 다양한 사료들, 예로 아직도 산재되어 있는 문집자료나 일기자료 혹은 금석문 등에 대한 포괄적인 수집이 요청된다고 본다. 9개 서원의 경우, 지금 보고된 자료들만으로 서원지를 간행한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또한 충실한 서원지 발간을 위해 학계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혹은 해야만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길 바란다.

2. 본문에서 이 교수님은, 현재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19세기 말에 적성된 각 서원의 院誌, 傳興記, 置簿類 등과 비교해보면 도산·옥산서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80% 이상이 망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자료가 모두 남아 있어도 그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잔존된 자료들을 가지고 서원의 역사적 실체를 구명하는 작업은 더욱 지난한 일이다. 이 교수님은 소수·옥산서원의 예와 같이 서원관련 자료가 배향자의 후손 또는 서원의 운영을 담당했던 원임들의 후손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

다.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나, 과연 얼마나 충실한 자료들을 발굴할 수 있을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논평자의 경험으로는 오히려 서당이나 서재 혹은 향교에 관련된 자료들에서 서원과 관련된성을 알려 주는 다양한 사례들이 목도된다. 새로운 사료의 발굴을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짧은 기간 내에 새로운 서원지를 작성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3. 서원 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정만조 교수님이 이끄는 국민대 팀에 의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 향후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기존 국민대 팀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교수님이 파악하기에, 종래 국민대 팀에서 시행한 서원 아카이브 사업의 장, 단점은 무엇이고, 향후 동 사업을 계승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4. 서원이 가지는 정신사적, 문화사적 위상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을 동의한다. 아직은 미온적인 문학부분이나, 철학, 미술사 분야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나 서구에서의 관련 연구자들과의 교류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님이 제작하고 있는 영남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연구센터가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서원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김 희 태

(전남도청 문화재전문위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에는 10개 항목 등재 기준에서 문화유산 6개 항목 중 아래와 같이 4개 조항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vi)항은 기록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고, 서원의 여러 부분[특히, 건조물]이 수리·정비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ii)항과 iii)항도 기록으로 증빙되어야 한다. 재건축은 완벽하고 상세한 기록문건에 기초할 때만 진정성²⁸⁾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iv)항에 명시한 ‘유가(儒家)의 천인합일사상’ 역시 기록자료로 설명되어야 한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있어 기록자료는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ii) 기준 :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 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설정 : 한국의 서원은 유교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한 후, 성리학의 보급에 합당한 한국 특유의 서원 건축 형식을 형성하였다.

iii) 기준 :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설정 : 한국의 서원 건축은 조선시대 사학(私學) 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증거(testimony)를 보여준다.

iv) 기준 : 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설정 : 한국의 서원 건축은 주변 경관과 조화하는 특유한 공간 유형(type)을 창출하였다. 서원의 전면(前面) 경관은 성리학자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산수 자연미의 전형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유가(儒家)의 천인합일사상을 반영한다.

vi) 기준 :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설정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지방 문화와 교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문집과 문헌을 남겼다. 이들 서원은 향촌사회의 여론과 공론을 집약하는 지성들의 집회소 역할, 제향과 강학 기능을 통한 사회교육의 장소, 그리고 도서관과 출판기능을 수행하였다.

28) 진정성(authenticity)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문화재의 가치가 형태와 디자인, 소재와 재료,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 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무형적 자산, 기풍과 저서 및 기타 내·외부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 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된 경우에 한한다. 특히 고고학적 유적이나 역사적 건축물, 시가지의 재건축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재건축은 완벽하고 상세한 기록문건에 기초할 때만 허용 가능하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은 예술적, 창조적 우수성에 관한 것이며 진실과 진짜를 강조하고 있다.(<세계유산 협약을 위한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베니스 헌장」,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등 참조)

“한국의 서원”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계기로 서원 문화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서원이 조선시대의 교육, 교화, 출판과 정치 사회 활동의 중심지로서 그 정신과 현장, 자료에 대하여 연구·활용·계승하는 일도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문화재 관리 현장에 종사 해온 필자로서는 더더욱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터라,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학계 제현께 감사 를 드린다.

이수환교수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는 서원자료의 전승 상태, 서원자료의 정리 현황, 향후 과제와 추진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다양한 서원 자료 가운데에서도 그 중심이라 할 기록자료에 대한 현황·문제점·과제를 제시하여, 앞으로 세계유산추진은 물론 서원문화의 보존·전승·활용에 시급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교수의 자세한 정리를 통하여 많은 공부가 되었음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논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토론을 하기 보다는, 함께 고민해야할 방향을 제언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물론 이수환교수의 제안 내용과 중복된 것도 있다.

1. 서원자료의 종합화, 표준화, 목록화, 연표화

서원에 대한 개별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를 종합화 할 필요가 있다. 기초조사부터 진행해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지만, 시일이 가더라도 집성해야 한다. 서원지 발간과 아카이브로 제안된 내용에도 있다. 그리고 다양하면서도 개별적인 대상을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종합화된 자료를 비교 연구할 수 가 있고, 세계유산이 추구하는 인류적 활용도 가능하다. 또한 목록화와 연표화도 필요하다. 연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연표화는 한국의 서원 기록자료를 횡으로 종으로 연계하여 세밀하게 연표를 작성해 봄으로서 시대, 지역, 유형, 인물, 자료의 연계성을 찾아 내 보자는 것이다. ‘연속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2. 보존관리체계의 확대와 관련 법규 정비와 적용

보존관리나 법규정비는 기록자료 차원에서만 예시해 본다. 필암서원 기록 자료 조사현황을 정리하다가,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 문적의 범주에 들어갈 문적이 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필암서원 배향인물인 하서 김인후의 교서, 교지, 서경장, 치제문 등은 필암서원과는 별도로 문중에 보관되어 오다가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되어 있다. 그리고 서원 제례는 무형의 유산이지만 홀기, 제관분정기, 제수 치부록, 치제문, 고유문, 제기 등은 지금의 문화재관련 법규로 치자면 유형문화재나 민속문화재[제기류]이다. 다른 서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기록자료와 유사한 대상이 더 있는가 하면, 분산되어 있고, 문화재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두가지를 제안해 본다.

하나는 동종(同種) 전수 조사 형식으로 문화재 지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문화재청에서

초상화, 불교조각, 고지도, 옛글씨[서예] 등을 대상으로 종별당 1~3년간에 걸쳐 문화재 조사와 지정(보물)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이를 확대하여 서원유물이라는 틀에서 추진했으면 싶다.

다른 하나는, 기록자료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문화재 분류체계인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을 뛰어 넘는 범규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민간 산실이라는, 조선의 유교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이었던 ‘서원 문화 구성요소’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틀에서는 건조물은 기념물[사적, 시도기념물]과 유형문화재[국보, 보물, 시도유형문화재]로, 제례는 무형문화재로, 제례의 구성 요소인 제기(祭器)나 홀기(笏記) 등은 민속문화재로, 전적이나 고문서·목판 등은 유형문화재[국보, 보물, 시도유형문화재]로 각각 나눠 지정 관리됨으로서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구성요소가 해체화, 개별화 되어 버린다는 맹점이 있다. 하여 ‘서원문화유산’이라는 큰 틀에서 공간과 시간, 인간과 자료를 아울러 관리할 수 있는 단일체계로의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의 서원 [기록]자료총서 집대성과 연구총서 발간

조사정리 자료는 보존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기록자료는 분산, 산일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진행될 필요도 있긴 하지만, 총서 형태로 집대성 되어야 한다. 자료 총서만이 아니라 연구총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서원 [기록]자료총서를 500책쯤 계획하고 연구총서를 100책쯤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힘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 학계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는 등재가 종착역이 아니라 등재를 통한 인류의 활용과 후손에의 전승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연속 유산으로서의 세계유산 기본자료 활용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전국 6개도 8개 시군에 소재한 9개 서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속유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속유산’이란 측면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중요한 몇개 서원의 전국 분포’라는 단순성이 아니다. 따라서 서원 기록자료를 포함한 개별 서원 자체의 특성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연계되는 가치와 특징도 찾아내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왜 ‘연속유산’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료는 결국 기록 자료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민간 부문 산실로서 연계성이라는 큰 틀은 있지만, 그것이 시기별로 서원별로 연속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연속유산’이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자료로서 고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세계유산 추진에 있어서 기록자료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서원이나 서원 기록자료는 현재 국가 사적이나 국보·보물·시도 유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보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존관리 차원에서 단일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연속유산으로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보존관리도 중

요하지만, 생성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진정성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자료로서 고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유산 협약을 위한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의 진정성 설명 가운데 다음 항목이 참고가 된다.

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능력은 이 가치에 대한 정보의 원천이 신뢰성과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고 이해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정보의 원천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문화유산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특성과 이후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특성, 그리고 이들의 의미와 연계하여 진정성의 전 국면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 토대를 구성한다.

이수환 교수가 제안한 과제나 각 서원별로 기록자료를 정리하면서 제안한 과제, 그기록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서원자료의 종합화·표준화·목록화·연표화, 보존관리체계의 확대와 관련 법규 정비와 적용, 한국의 서원 자료총서 집대성과 연구총서 발간 등은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 과제이다. 나아가 세계유산 등재와 인류적 활용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안고 가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2012. 4. 18)

서원 기록문화의 정리, 보존관리의 현황과 과제

[제2주제 발제문]

서원 기문 및 금석·석각자료 정리현황과 과제

김 덕 현

(경상대 지리교육과 교수)

1. 의 의
2. 시각적 기록자료의 중요성
3. 서원별 시각적 기록자료 현황
4. 시각적 기록자료 현황과 조사보존관리 방향

1. 의 의

1) 자연 친화성으로 한국 서원의 진면목을 함축

○ 지금까지 한국 서원을 소개하는 자료나 논문에서, 석각 · 현판 · 그림은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번 서원 기록자료 워크숍을 위하여, 9개 서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서원 기록 자료에서도 석각이나 현판 등에 관한 자료는 매우 적었다. 이는 해당 서원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이런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예 조사 정리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 과연 서원을 방문하는 일반 사람이나 외국인들에게 서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석각이나 현판, 그림이 무의미한 것일까?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소수서원은 방문한 사람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는 경림정에서 바라본 죽계천의 붉은 색 칠한 경(敬)자 바위가 있다. 이 ‘敬’자를 죽계천 작은 시냇가 바위에 새겨두고자 했던 주세붕의 뜻을 알게 한다면, 소수서원은 특별한 기억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도산서원에서는 퇴계선생이 “이 대(臺)에서 자연의 활발한 운행을 보고 오묘한 하늘 뜻을 깨달으며 하루 종일 마음의 눈을 열었다(流行活潑妙天淵, 江臺盡日開心眼)”고 기뻐한 천연대(天淵臺)가 있다. 이 천연대 석각은 도산서원 정비사업 이후 보이지 않는 벼랑에 방치되어 있어 아무도 보지 못한다. 천연대 표시석이 주 인행세를 하고 있다.

병산서원 만대루(晩對樓)에서 비취빛 앞산과 낙동강을 바라보는 경치가 가장 좋다고 한다. 여기에 ‘晩對’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면 감동은 더 깊어지고, 참으로 해질녘 강산을

감상하는 누각에 어울리는 이름이라 생각할 것이다. 옥산서원 앞 큰 바위 벽에 새겨진 세심대(洗心臺)라는 글자를 주목하고 그 의미를 새기며 서원으로 들어간다면, 가슴 속은 더 시원해지고 마음도 경건해질 것이다. 그러나 세심대와 그 주변은 거의 관리되고 있지 않아 아무런 주의를 끌지 못하는 장소가 되어 있다. 도동서원 문루이름은 수월루(水月樓)인데 왜 ‘水月’이 되어야 하는지, ‘가을 달이 찬 강물을 비춘다(秋月照寒水)’에서 왔다는 설명이 없다. 이 말이 한훤당(寒暄堂) 김굉필선생의 정신세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이미 함축을 알면, 도동서원에서 북쪽으로 내려다보는 낙동강이 한결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정읍의 무성서원이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속에 있는 것을 보고는 누구나 의아해 한다. 그러나 서원이 이름 ‘무성(武城)’은 論語에 나오는 고을 이름이고, 제자 子游가 이 작은 고을을 예악으로 다스린 것을 알게 된 聖人 공자가 곧바로 제자에게 사과한 사연을 알려 준다면, 문루 이름 현가루(絃歌樓)는 새삼 의미 깊게 느껴질 것이다. 장성 필암서원은 시원하게 넓게 트인 전망이 자랑이다. 이 전망은 문루 확연루에 올라서면 가장 잘 감상된다. 확연루(廓然樓)는 군자의 학문은 “확 트이게 넓혀 크게 공정하게 하고서, 사물이 다가오면 의리에 맞게 순응한다(廓然大公 物來順應).”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이 문루 현관의 함축적 의미를 알면, 시원하게 트인 전망 경치가 廓然의 의미와 서로 통하고, 이 확연루가 필암서원의 선비들을 無私公正 物我一體의 天人合一 경지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서 김인후의 ‘成己成物’의 도학정신과 탁 트여 막힘없는 廓然大公의 전망경관, 그리고 문루 廓然樓가 일체가 된 것이 필암서원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자연과 일체화된 입지 경관

○ 유형 문화유산으로서 9개 한국서원은 거대함을 자랑하는 세계의 다른 종교적 건축물과 시각적 탁월성을 경쟁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서원이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진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 서원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깊고도 넓게 배여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등재대상 9개 서원 가운데 무성서원을 제외한 8개 서원은 신유학자 곧 성리학자를 제향하는 서원이다. 유교는 仁을 추구하며, 인의 체득은 송나라 이후 신유학의 전통에서 天人合一을 산수자연에서 지각적으로 감통 감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서원이 신유학의 본거지이며, 관학인 향교를 제치고 서원이 신유학의 본거지라고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 천인합일을 느낄 수 있는 서원의 자연경관이다. 조선시대 스승을 찾아 배움을 얻는 일을 ‘유학(遊學)’으로 불렀다. 이 유학은 유교의 학습과 토론이 항상 자연 경치의 즐기는 즐거움, 즉 ‘인지지락(仁智之樂)’과 동반되었다는 점을 말한다.

2. 시각적 기록 자료의 중요성

○ 문제는 9개 서원이 세계유산적 가치를 고유하고도 진정성 있게 지니고 완전성 있게 보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서원 관계자나 한국의 전문가가 아닌, 외국인 전문가에게 인정받는 방법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선인들이 서원에 유학하면서 추구했던 천인합일의 경지를 나타내는 증거, 특히 누구라도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시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 유교문화의 고유한 특성인 자연과의 친밀성이 9개 서원에서 어떻게 차별화되어 다양하게 나타나는가를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한다.

○ 한국 서원에서 확인될 수 있는 유교문화의 자연친화성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둔 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여 이름, 시문, 그림을 새겨 넣은 방식이 석각(石刻)이다.²⁹⁾ 이는 인간의 정신이 자연의 일부가 되는 ‘문화의 자연화’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둔 채 거기에 유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즐겁게 감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방식을 대표하는 장소는 누각·정자이며 그 시각적 기록 자료는 현판(懸板: 당호扁額과 記文, 詩板 및 柱聯을 포함)이다. 이는 자연을 문화적으로 즐기는 ‘자연의 문화화’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현판에는 자연을 감상하는 것과 거리가 먼 윤리적 격언을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셋째는 자연의 이미지를 취하여 유교문화의 가치 관념을 표현하자 하는 회화 방식이다. 산수도에 포함되는 서원도는 ‘문화의 자연적 투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에는 자연 이미지와 는 거리가 먼 인물화·개념도 등이 포함된다.

○ 세계유산 등재추진 대상 9개 서원은 입지와 경관에서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이 개성은 각 서원의 제향인물과 강학전통의 특성을 반영한다. 각 서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시각적 기록 자료는 앞의 분류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즉 석각·현판·그림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시각적 자료를 조사 보존 활용함으로써, 한국 서원의 자연친화적 고유성 · 진정성을 전문가든 물론 탐방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29) 석각이란 대체로 자연석에 새긴 경구나 지명 등이 많다. 석각의 의미는 3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불변성과 연속성이다. 이는 금석의 기본적 특성으로 비석에 비해서 자연석이 더 영속적이라 한다. 비석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파내거나 파괴되는 등 부침을 겪는데 반해서 석각은 힘들게 깎아버리지 않은 한 원래의 장소에 남아 여러 사람들의 뇌리에까지 각인된다. 둘째는 높은 상징성이다. 자연석에 새기는 글자는 숫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간결하고 함축적 의미를 가진 글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징화는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상징성은 다시 의미를 재생산한다. 셋째 석각은 공표성을 가진다. 각석은 보이기 위해 새긴 것이다. 얼마나 드러내고 싶으면 돌에다 새기기까지 하겠는가. 종합하면 각석은 일종의 宣言이다. 우선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남을 향하여, 나아가 세상을 향한 선언이다. 개인적 정치적 신념과 사상, 그리고 자연과 주체 자아의 일체화를 나타내는 선언이다. 徐廷文, 2011, “韓國 書院의 石刻文化,” 中國 湖南大學 岳麓書院, 岳麓書院 創建 1035周年 國際學術研討會 <書院文化的 傳承과 開拓> 논문집, 189-200.

3. 서원별 시각적 기록자료 현황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이 되는 9개 서원의 시각적 기록 자료를 분류하고 현황 정리를 통해, 조사와 보존관리의 방향 탐색을 시도해 보았다.

발제 자료는 이번 서원기록문화 워크숍을 위해 각 서원별로 전문가에 의해 보고된 내용을 참조하였으나, 이 분야는 내용이 너무 소략해서 발표자가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종합한 것이다. 다만 본 발표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수집 정리된 시각적 기록 자료의 분류와 현황은 매우 거친 것이 되었다.

따라서 이번 발제의 용도는 앞으로 자료의 수집정리와 보존활용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여 토의하는 참고자료에 그친다.

1) 소수서원

(1) **석각** : 소수서원의 대표적 석각은 경(敬)자 바위이다. 경림정에서 죽계를 바라보는 전면의 바위에 경(敬)자를 새기고 그 위쪽에는 백운동(白雲洞)이라고 각자하였다. 경자를 새기게 된 내력에 대하여 주세붕의 자세한 설명이 있다. ‘白雲洞’자에 대하여는 주세붕의 시에 설명이 보인다. ‘敬’자는 붉은 색을 입혔고 ‘白雲洞’자는 흰색을 칠했는데, 한국의 석각이 중국과 달리 색을 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한 사례이다.

오래된 비로는 제월교비가 있다. 최근에 안축의 <죽계별곡(竹溪別曲)> 5장을 5개의 자연석에 각자하여 죽계천변에 각각 세웠다. 또 1973년에 세운 소수서원 중수기적비(重修記蹟碑)가 있다.

(2) **현판** : 소수서원 연구자가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소수서원의 많은 현판들은 현재 소수박물관에 기탁 보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건물관련 편액으로는 ‘白雲洞’, ‘文成公廟’, ‘日新齋’, ‘直方齋’, ‘學求齋’, ‘至樂齋’, ‘景濂亭’(1), ‘景濂亭’(2), ‘文宣王影幀室’, ‘儒道教育館’, ‘遺物館’ 등 13점이 있으며, 名言·名句 관련 편액으로는 ‘學求聖賢’(1), ‘學求聖賢’(2), ‘學求聖賢’(3), ‘鳶飛魚躍’(1), ‘鳶飛魚躍’(2), ‘鼎山幽居’, ‘仁者無敵’, ‘雙坪’, ‘承家輔國’ 등 9점이다.

그러나 위 소수박물관에 기탁된 편액 가운데, 현판 ‘鳳棲樓’, ‘迎鳳樓’, 과 기문 ‘鳳棲樓重營記’(1), ‘鳳棲樓重營記’(2)은 소수서원이 아니라 조선시대 순흥도호부 객사 문루 ‘鳳棲樓’의 현판과 기문이다. 또 위에서 열거한 것 외 취한대(翠寒臺), 광풍정(光風亭) 편액이 영남문화연구소 편(2007) <소수서원지>에 수록되어 있다.

기문과 시판: 위의 자료에는, 記文에 해당되는 것으로 ‘白雲洞紹修書院記’, ‘白雲洞安文成公祠堂記’, ‘紹修書院童蒙齋重建記’, ‘紹修廟宇重修記’ 등 6점이 있으며, ‘白雲書院榜’, ‘學規’, ‘白雲洞書院令’ 등 公用文 3점과 ‘文成公享祀執事’도 보존되어 있다. 위에 제시된 기문 외 지락재, 일신재, 학구재의 기문도 건물에 시판과 함께 건물에 걸려 있다. 죽계를 바라보는 경치가 있는 경림정과 지락재에는 시판이 많이 걸려 있다. 또 최근 소수서원 측에서 복원을 추진 중인 제월루 관련 기록과 상량문이 <소수서원지>에 나타난다.

<소수서원지>에 기문과 건물에 관련된 수많은 시문을 번역 게재하였으나, 건물의 이름 관련

현판에 대한 해설이 없는 것이 아쉽다.

(3) **그림** : 소수서원의 입지 경관에 관한 그림이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제향인물인 안향 · 주세붕 · 이원익의 초상화 영정이 있다. 이덕형 · 허목 · 채제공 등의 초상화는 봉안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없다.³⁰⁾ 다른 서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자의 영정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大成至聖文宣王殿座圖)>와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 소묘화(素描畵)가 소수서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원래의 그림은 중국 원나라 시대의 것이며 안향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도산서원

(1) **석각** : 현재 도산서원 경내의 석각의 대부분은 1970년대 도산서원 정비 사업 이후 제작된 표시석(標示石)으로 보인다. 서체와 돌의 크기 · 모양이 획일적이어서 진정성이 약하다. 한국 서원 중에서 외면적으로 가장 많이 정비된 서원이 도산서원이다. 그러나 이 정비과정에서 도산서원의 경관 원형이 매우 심하게 훼손되었다. 정비공사를 통해 원래의 서원 진입로가 매몰되고 새로운 진입로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옛날 길가에 많이 존재했을 석각이 매몰되거나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원형이 보존된 석각은 천연대(天淵臺) 각자가 있고, 심하게 마모되었지만 석간대(石澗臺) 바위에 새겨진 퇴계선생의 시가 대표적이다.

(2) **현판** : 도산서원의 여러 당호와 전교당에 걸려 있는 잠(簾), 치제문(致祭文)의 대부분이 현판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고, 해설서도 출판되었다.³¹⁾ 다만 출판된 해설서가 형식과 내용에서 교육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누정 기문에 해당하는 기문은 편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지 못했다. 퇴계선생이 직접 도산서당 인근의 장소와 경치를 읊은 <도산잡영병서>나 서원 경내의 많은 장소에 대한 시문도 현판으로 제작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도산서원에는 다른 서원의 문루에 해당하는 건물이 없어 경승을 읊은 기문이나 시를 걸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림** : 보존된 산수도 풍의 다양한 도산서원도가 보존되고 있어, 변형되기 전 도산서원의 경관원형을 추정해볼 수 있다. <陶山圖>란 이름으로 金昌錫, 鄭澈, 姜世滉의 그림이 있고, 작자 미상의 <陶山圖>도 4종이나 전한다.³²⁾

4) 병산서원

(1) **석각** : 병산서원의 석각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2) **현판** : 병산서원의 현판은 단조롭다. 서원 건물의 당호 현판으로, 정문에 해당하는 復禮門, 이충누각 晩對樓, 강당 立教堂, 사당 尊德祠이다. 창석 이준이 지은 기문 ‘屏山尊德祠復享

30) <소수서원지>에 따르면, 소수서원에 봉안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유실되었다 한다.

31) 권영한 편, 1998, 도산서원과 현판, 도서출판 한빛

32) 한국국학진흥원 · 예술의전당, 2001, 한국서예사특별전21 퇴계선생탄신오백주년기념 퇴계이황,

記'가 입교당에 걸려있다. 서원 누문 가운데 가장 큰 평가를 받고 있는 만대루의 조성 내력을 알 수 있는 기문이나 상량문 자료가 조사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

(3) 그림 : 하회마을 박물관에 하회 일대를 그린 산수화가 보관되어 있다. 병산서원은 탁월한 입지경관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기문 등 기록 자료로 확인된 '원형 문화콘텐츠'는 많지 않다. 경관 감상에 관한 자료도 대부분은 최근에 현대인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기술한 내용이다. 병산서원의 자연경관은 유교적 세계관 자연관과 관련하여 해석될 때, 그 진정성과 탁월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옥산서원

(1) 석각 : 독락당박물관에 전시된 자료에 의하면, “1531년(중종26) 회재 이언적이 독락당 주변 경승 10곳에 이름을 지었는데, 사산(四山) 오대(五臺)와 용추(龍湫)가 그것이다. 사산은 독락당 북쪽의 도덕산, 남쪽의 무학산, 동쪽의 화개산, 서쪽의 자옥산이다. 오대는 계정 아래 관어대, 그 맞은편의 영귀대, 관어대 북쪽의 탁영대, 더 북쪽 상류의 징심대, 그리고 옥산서원 앞의 세심대이고, 용추는 세심대 앞의 폭포이다. 이 중 자옥산·용추·관어대·세심대·탁영대·징심대·영귀대 7개 장소는 퇴계 이황에게 부탁하여 큰 글씨로 써 받았는데, 지금 독락당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하였다.

서원에 인접한 대(臺)에는 석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사진 자료가 있는 석각은 서원 앞의 퇴계의 글씨를 각자한 '洗心臺' 뿐인데, 확인이 필요하다.³³⁾ 옥산서원 입구에 잘 보이는 장소에 위치한 세심대 석각은 “마음을 씻어내는 곳”이라는 의미를 연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관리상태가 부실하다. 회재의 神道碑가 강당과 사당 사이에 있다.

(2) 현판 : 옥산서원에는 亦樂門, 無邊樓, 동서재인 敏求齋, 闇修齋, 강당 求仁堂, 그리고 體仁廟 등이 각각 당호를 편액으로 걸어 놓았다. 정문인 亦樂門을 지나면, 2층 누각인 無邊樓가 나오는데 이 현판은 한호의 글씨이다. 무변루에는 許曄이 쓴 '玉山書院記'가 현판으로 걸려있다. 강당에 걸린 '玉山書院' 현판은 두 개인데, 이산해와 김정희가 각기 썼다. 전면의 것이 화재 후 다시 사액된 김정희의 글씨이고, 강당 안의 현판은 최초 사액 당시의 이산해의 글씨이다. 강당 좌우 방의 당호는 兩進齋와 偕立齋이다. 강당에는 '傳教謄書'라는 현판이 있고, 또 '御製祭文'이라는 현판이 있다.

옥산서원 당호 현판의 특징은 당호 글씨 좌측에 짧은 해설문을 적어두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無邊樓 글씨 왼쪽에 “靡欠靡餘 罔初罔終 光與霽與 遊于太虛(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처음도 없고 끝도 없구나. 마음이 광풍제월처럼 맑고 빛나, 태허의 경지에서 노니네)” 하여 황정건이 지은 濂溪先生 -六先生畫像贊의 風月無邊에서 뜻을 취한 것임을 알고 있게 한다.³⁴⁾ 이 해설문은 현판으로 게시된 당호의 함축적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주목된다. 활용성

33) 용추도 각자가 있다고 한다.

34) 濂溪先生 -六先生畫像贊: “濂溪先生 -六先生畫像贊: 道喪千載 聖遠言湮, 不有先覺 孰開我人, 書不盡言 圖不盡意, 風月無邊 庭草交翠(염계 선생께서는, 도가 천년 동안 없어진 뒤에 나셨으니, 성인(공자)과 떨어져 그 말씀도 가물가물했네. 선생 같은 선각자 없으셨다면, 누가 우리 후인들을 열어주었으리. 『易通』에서도 말을 다하지 못하셨고, 太極圖에서도 생각을 다하지 못하셨네. 광풍제월 같은 마

이 높은 자료이다.

옥산서원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獨樂堂에는 퇴계 글씨의 ‘玉山精舍’와 이산해 글씨의 ‘獨樂堂’ 현판이 있다. 독락당에는 <獨樂堂十四詠>을 비롯한 많은 시판이 걸려 있다. 또 시내에 면한 溪亭에는 ‘溪亭’ 현판과 맞은 편 온돌방 벽에 ‘養眞庵’ 현판이 있다. 계정은 한호, 양진암은 퇴계 글씨이다. 그리고 시내를 내려다보는 뒷마루 뒷 벽에는 ‘仁智軒’ 현판이 걸려 있다. 계정에는 시판들이 걸려 있다.

옥산서원과 독락당, 그리고 옥산서원 유물관에 보존된 자료를 포함하면 옥산서원 현판자료를 방대하다. 그러나 현대인이 함께 그 의미를 이해하여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번역 해설한 자료 제작은 매우 부족하다.

(3) 그림 : 조사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5) 도동서원

(1) 석각 : 자연석 석각은 조사된 내용이 없다. 최근에 서원에 들어오는 길목에 해당하는 다람재 전망대에 최근 김굉필의 시 ‘노방송(路傍松)’을 새긴 석각이 있다. 그 옆에 다람재 표시석이 있다. 도동서원 앞에는 이 장소로 서원 이설을 주도한 한훤당 김굉필의 외증손 한강정구가 심었다는 큰 은행나무가 있다. 우측에 신도비가 있고, 좌측에 근래 세운 국역신도비가 있다.

(2) 현판 : 수월루(水月樓), 환주문(喚主門), 道東書院(강당 전면과 내부 후면에 각각 1개), 강당 중정당(中正堂) 현판이 걸려 있다. 동재인 거인재(居仁齋), 서재인 거의재(居義齋)가 있다. 강당 중정당 안에 특별히 자세한 ‘道東書院規目’, 기문으로 옥산서원과 마찬가지로 傳敎가 걸려 있다. 문루인 수월루에는 ‘水月樓重建記’, ‘水月樓重修上樑文’, ‘水月樓重建顛末小記’가 걸려 있다.

(3) 그림 : 도동서원 사당 안에는 인상적인 벽화 두 폭이 그려져 있다. 그림은 중앙칸 벽체 상부 왼쪽 북벽에 <雪路 長松>, 오른쪽 남벽에 <江心月-舟>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한훤당 집안에서 소장했다는 안건의 그림 병풍과 관련된 이해도 있다.³⁵⁾ ‘설로장송’이나 ‘강심월일주의 그림 주제나 내용은 도동서원의 경관과 흡사할 뿐 아니라, 김굉필이 시로 읊은 주제이다.³⁶⁾ 이 그림을 통해서, 도동서원 제향인물 김굉필의 정신세계가 도동서원 입지와 경관에 투영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수월루가 뜻을 취한 ‘寒水照月’이나 그림의 ‘江心月一舟’와 같은 자연 이미지는 김굉필의 정신세계를 상징한다. 따라서 자연경관을 보면서 상징적 이미지를 취해서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다시 그림 이미지를 통해서 도학자의 관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림은 도동서원의 자연경관과 한훤당의 정신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음 한없이 넓으셨으니, 딸의 풀에 푸른 생기 짙어지는 것 어찌 말하리.’

35) 유홍준, 2011, 나의문화유산답사기 6, 창작과비평, 224-226

36) “배는 하늘 위에 앉는 듯 물고기는 거울 속에 노는듯, 술 마신 후 거문고 끼고 돌아가니 강 가운데 달빛이 배 하나 가득하구나(船如天上坐, 魚似鏡中遊. 飲罷休琴去, 江心月一舟 -‘船上’-寒暄堂先生記念事業會, 『國譯景賢錄』, 2004.

6) 남계서원

(1) 석각 : 서원 경내에 묘정비(廟庭碑)가 있다. 서원 앞에 최근에 건립한 <문헌공정여창선생추모비>가 거대한 규모로 서 있다.

(2) 현판 : 풍영루(風咏樓) · 준도문(遵道門) · 명성당(明誠堂) · 동서재인 보인재(輔仁齋)-영매헌(詠梅軒), 양정재(養正齋)-애련헌(愛蓮軒) 등이 있다. 영매헌과 애련헌은 각각 그 앞에 조성된 방지(方池)와 관련된 명칭이다. 강당 명성당 건물 전면에 ‘濂溪’, ‘書院’ 두 현판이 좌우로 분리되어 걸려 있는 것이 특성이다. 명성당 좌측 방에 ‘居敬齋’, 우측 방에 ‘集義齋’ 현판이 걸려 있다.

기문으로 강익의 강당에 걸린<濂溪書院記>, 풍영루에 정환필의 <風咏樓記>, 奇正鎭의 <風咏樓重建記> 기문이 걸려 있다. 기문에 인근의 경치에 대한 기술이 자세하고, 이 경치를 즐기며 風咏하는 즐거움과 같을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풍영루는 남계서원 앞에 전개된 경치를 바라보는 느낌과 통하고 一壺가 지리산 유람을 다녀오며 지은 頭流詩 내용과도 상통한다.³⁷⁾

(3) 그림 : 강당 明誠堂은 단청이 화려하고, 윗벽 기둥에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다. 그림 주제는 호랑이 그림 등 신선사상과 관련된 것이 많다. <濂溪書院圖>가 있다.

7) 돈암서원

(1) 석각 : 돈암서원이 창건될 당시에는 지금의 연산면 임리 숲 말에 소재하였는데, 서원 서북쪽에 ‘돈암(遯巖)’이라는 큰 바위가 있어 이름을 ‘돈암’이라 하였다고 한다. 논산시 연산면 임리 하림에 ‘遯巖’이라는 석각이 있다. 기타 자연석 석각은 조사 확인하지 못했다.

묘정비 양성당 정면 앞 마당에 遯巖書院院庭碑(1669년, 송시열 찬; 재목은 連山遯巖書院碑記), 遯巖書院移建碑文(1903년, 송병선 찬)이 있다. 최근에 세운 <黃岡金先生靜會堂史蹟碑>가 서원 문 앞에 서있다.

(2) 현판 : 당호 현판으로 문루 山仰樓, 入德門(遯巖書院:1660년, 현종 1), 강당 凝道堂 · 養性堂, 靜會堂, 사당 唯敬祠(崇禮祠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이다. 양생당 좌우 방에는 居敬齋, 精義齋 현판이 있다. 최근에 중수한 문루 山仰樓가 있다. 산양루 누각에는 <吟諷弄月>, <浩然之氣>이라는 편액과 시판도 있는데 최근의 것으로 보인다.

沙溪 金長生의 ‘養生樓記’에 나오는 “仰而樂山。俯而觀水 觸物悟理。涵泳優游”의 ‘仰而樂山’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³⁸⁾ 산양루의 “仰而樂山 俯而觀水”이라는 서원 입지와 경관 특성은 현재 서원이 아닌 과거 서원의 입지 경관이다. ‘仰而樂山’은 과거 서원 자리에서 멀리 남으로 大屯山과 북으로 鷄龍山을 바라보는 경관이다. 또 ‘山仰’은 “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 길을 따라간다(高山仰止 景行行止 - 『詩經』).”하는 孔子의 仁에 대한 志向을 연상시킨다.

37) “風蒲泛泛弄輕柔, 四月花開麥已秋, 看盡頭流千萬壘, 孤舟又下大江流”

38) “若早尋初服 仰而樂山。俯而觀水 觸物悟理。涵泳優游。則未必無助於心地上工夫” 『沙溪先生遺稿』 卷5, 記養性堂記.

기문으로 書揭遯巖書院(송시열), 雅閑亭題詠, 養性堂記(김장생 찬), 養性堂記(1603년, 정업 찬), 養性堂後記(1883년 김상현 찬), 憶沙溪先生有感(이유태), 從享遯巖書院(김집), 題凝道堂壁右(유일준), 藏板閣記(1926년, 李商永), 遯巖書院上樑文(1633년, 김상헌), 遯巖書院重修記(1955년 군수 박유진), 遯巖書院重修記(유사 황택수), 養性堂重修記(1956년), 양성당 이진기(1971년, 송재성), 양성당 이진기(1978년, 김영완), 산양루중건기(2006년), 산양루중건상량문, 柱聯은 응도당과 양성당 각각 여섯 개 기둥에 걸려 있다. 그러나 <돈암서원지>에 게재된 응도당 사진에는 주련이 없어 응도당의 주련은 최근에 새로 걸린 것으로 보인다.

(3) 그림 : <遯巖書院全圖>가 있다.

8) 무성서원

(1) 석각 : 자연석 석각은 확인하지 못했다. 流觴臺 각자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원 마당에는 묘정비를 비롯하여 기적비 등 비석이 많다.

(2) 현판 : 絃歌樓, 武城書院, 講修齋, 泰山祠 등의 당호가 현판으로 걸려 있다. 서원의 이름 ‘武城’은 공자의 제자인 子游가 다스리던 邑 이름에서 취한 것이다. 문루 絃歌樓는 ‘絃歌之聲’을 의미한다. 다른 서원의 문루가 신유학의 天人合一의 의미를 함축하는 내용인 것과 달리 絃歌樓는 원시 유학의 현실 참여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강당에 <武城書院集賢氣> 등 기문이 여럿 걸려 있다. 현가루에는 기문 <武城書院絃歌樓重建記>, <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 <絃歌樓重建記>가 걸려 있다. 강당 여섯 기둥에 모두 주련이 있다. 齋에 해당하는 강수재에도 기둥마다 주련이 있다. 사당 내삼문에도 ‘聖朝額恩 士林首善’ 등의 주련이 있다.

(3) 그림 : 사당 태산사 안에 채용신이 그린 최치원 영정이 있었다. 이 영정은 하동 쌍계사에서 1784년(정조 8)에 가져온 것이라 한다. 지금은 전북박물관에 별도 보관하고 있다. 絃歌樓 가로 기둥에 산수화 풍 그림과 난 그림이 그려져 있다. 泰仁 고현 읍치 지도에 무성서원이 성황산 아래 중심적 위치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무성서원은 등재 대상 9개 서원 가운데 매우 특이한 서원이다. 서원이름·제향인물·서원의 입지 등에서 그렇다.³⁹⁾ 공간구조도 특이한데, 강당이 앞뒤의 문루와 사당과 양쪽으로 모두 개방된 대청을 가진 것이나 재사가 사당과 강당의 축선에서 벗어난 곳에 배치되어 있다. 무성서원은 주련이 강당·재·사당 삼문에 모두 걸려 있는 것도 특이하다. 도학적 엄숙으로 권위적인 다른 서원과 달리 무성서원은 대중적이어서 친근감을 주는 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무성서원이 다른 서원과 차별화되는 고유성을 더욱 진정성 있게 보존, 홍보할 필요가 있다.

9) 필암서원

39) 무성서원이 입지한 성황산 아래는 보통 군현의 관아가 입지하는 곳이다. 관아 자리에 서원이 있는 것은 한국에서 예가 없다.

(1) **석각** : 필암서원이 현재 위치한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번지 일원(조선시대 전라도 장성부 서일면 필암리)는 두 차례의 이진 과정을 거친 제3차 입지 장소이다. 따라서 1, 2차 서원이 입지한 곳이나 그 연고지에도 시각적 기록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 사례가 필암이란 이름의 유래가 된 김인후 태생지의 붓바위이다. 붓바위에는 윤봉구(尹鳳九, 1681~1767)가 썼다고 알려진 ‘筆巖’이라는 글씨 석각이 있다.

현재의 필암서원은 평지에 입지하고 주위에도 암석이 없어 자연석에 새겨진 석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필암서원 사당 우동사 앞 묘정(廟廷)에는 특이한 비석이 있는데 필암서원 계생비(繫牲碑)이다. 제물로 쓸 가축을 매어 놓는 비이다. 맥동마을 난산에는 하서 김인후 망곡단(望谷壇)과 난산비(卵山碑)가 있다.

(2) **현판** : 필암서원의 현판은 확연루를 비롯한 건물의 당호를 쓴 편액과 상량문 중수기 등 기문류, 그리고 시판 등 3 가지로 구분된다. 대표적 편액으로 확연루는 송시열, 강당 청절당과 동재 진덕재·서재 송의재은 모두 송준길, 필암서원은 윤봉구가 썼다고 한다. 장경각 편액은 정조 임금의 어필이다. 우동사 편액은 주자 글씨를 집자한 것이라 한다. 확연루에는 김시찬의 ‘확연루기(1960년)’와 송명흠(宋明欽, 1705~1768)의 ‘중수상량문(長城筆巖書院廓然樓重修上梁文)’ 등 기문이 걸려 있다. 확연루에도 시판이 있는데 제목이 ‘筆巖樓前方塘’이다. 주자의 讀書有感 시를 모방한 듯한데, 필암서원 앞에 방당이 있음을 암시한다. 강당인 청절당에는 필암서원 중수기와 松江·淸陰의 시와 이를 차운한 시판 여러 개가 걸려 있다.

(3) **그림** : 필암서원 장경각에는 인종임금이 하사한 묵죽도와 묵죽도 판이 보관되어 있다. 사당인 우동사에는 김인후의 천명도가 복사된 병풍이 있고, 벽면에는 학·용·연꽃·봉황·잉어·매화·국화·소나무 등 절개와 장수를 상징하는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사당안의 병풍이 조야하게 복사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쉽고, 그림은 그 유래를 설명하는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 [필암서원지, 1975]에 <필암서원전도>가 실려 있으나 산수화 풍의 서원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필암서원은 최근 대규모의 정비사업을 끝냈다. 정비사업의 결과 廓然하게 전망되었던 전면 경관이 키 큰 나무로 가려져 廓然하지 못하게 변했다. 하드웨어 정비가 크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廓然樓記를 비롯하여 시판 등이 아직 정식으로 번역 소개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앞으로 과제이다.

4. 시각적 기록자료 현황과 조사·보존관리 방향

<표> 서원의 시각적 기록자료 분류 체계

구분 서원	시각적 기록 자료									조사 수집	보존 관리
	석각			현판				그림			
	자연 석	비 석	표시 석	편액 (당호)	기 문	시 판	주 련	산수 화풍	기타		

소수									안향영정		
도산								도산도			
병산											
옥산											
도동								설로장송, 강심일월주			
남계									서원도		
돈암									서원도		
무성								태인고현도	최치원영정		
필암									서원도		

- ① 표시석이란 현대에 새로 만든 것으로, 규격화된 방식으로 돌을 깎아서 획일화된 서체로 새겨 넣은 석각을 말한다.
- ② 서원에 공통적으로 걸려 있는 현판으로 원규, 제집사분정기, 악록동규 등이 있다.
- ③ 서원도의 경우 현재의 공간 구조와 달라진 내용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다.
- ④ 자연석 석각은 서원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조사와 보존조치가 필요하다. 서원이 이전된 경우 이전 입지 장소의 석각 등을 확인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 서원 시각적 기록자료 조사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논의 주제

1. **석각 자료** : 자연석 석각자료의 조사 수집 및 훼손 방지 보존관리 대책, 표시석 유형의 석각 자료의 획일성 개선방안, 비석의 지나친 거대화 욕구와 서원 정면·내부 설립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2. **현판 자료** : 당호·시판·기문 현판의 함축적 의미를 일반인이나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번역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현장에 게시하고, 출판 및 영상 자료화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3. **그림 자료** : 역사적 기록 자료의 조사 활용 뿐 아니라 회화 영상 부분에서 현대적 자료를 새롭게 적극 개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현재 유교문화원형 사업은 인터넷 등 매체기반형 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서원 현장 중심의 장소기반형 사업과 체험지향형 사업이 삼위일체형으로 함께 진전되어야 한국서원 문화의 국제화와 현대적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
5. 시각적 기록자료 보존과 활용이 서원문화로 대표되는 유교문화의 장소친화적·자연친화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이 된다.
6. 유교문화의 기록 자료는, 다른 종교적 전통문화와 달리, 대형화·획일화·통속화·번잡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7. 전체적으로 시각적 기록 자료의 중요성과 활용성에 대한 서원 관련자들의 공감 확산이 필요하다.
8. 우선적으로 서원의 시각적 기록 자료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다.

「서원 석각·현판·기문 자료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서 정 문

(한국고전번역원)

1. 논문의 개요

- “서원 석각 현판 기문 자료의 현황과 과제”는 한국 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조사와 그에 대한 연구로 수행된 것임.
- 서원의 석각, 현판, 기문을 시각적 기록 자료로 성격 규정을 하고, 이것이 한국유교문화의 특징인 자연과의 일체성, 즉 천인합일의 정신이 어떻게 구현되고 특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함.
- 이런 연구를 통해 석각, 현판, 기문 자료에 들어있는 콘텐츠가 적극 개발되어 서원문화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지는 서원시각자료의 정리 연구 활용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2. 서원 석각의 범주와 대상

- 서원 석각은 서원과 관련하여 자연석에 일정한 글자를 새김으로써 그 자연석을 중심으로 한 자연 경관, 사물을 서원의 한 구성물화 하는 일종의 연결매체임.
- 따라서 비석, 표지석 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동일한 범주에 넣은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연석을 가져와서 각석을 한 경우도 비석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임)
- 하지만 서원이 이런 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치가 중요한데, 현재 조사를 해보면 그런 서원이 많지 않아 대상의 확장성이 떨어짐. 따라서 서원을 중심으로 한 일정 지역의 석각을 두루 포함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임.

3. 제언

- 서원의 석각 자료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계당국의 지속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임.
- 관계당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서원 석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원 석각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수행되고, 그런 연구들 더욱 다양화되어 서원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발표된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드시피, 서원 석각은 그 수량이 많은 것도 아니며, 또 모든 서원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조명을 받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단순히 서원에 부속된 석각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서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명승 등을 포괄하는 서원문화지구를 구상하고, 그 지구에 포함된 석각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서원석각문화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서원 석각·현판·기문 자료의 현황과 과제」 토론문

권 진 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실장)

1. 본 논문은 먼저 세계유산 등재추진 대상 9개 서원의 석각, 현판, 기문 자료의 의의와 가치를 몇 가지로 개괄한 뒤, 구체적으로 9개 서원의 시각적 자료를 분류하여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에 시각적 기록자료의 조사 및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2. 懸板은 글씨나 그림을 나무판·종이·비단에 쓰거나 새겨서 문 위에 거는 액자류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판은 건물에 거는 모든 목판을 지칭하며, 扁額은 건물 정면의 문과 처마 사이에 거는 목판을 일컫는 것으로, 현판보다 좁은 의미로 쓰여진다. 아울러 현판에는 편액, 시문판, 주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우리 선현들은 건물의 공간에다 성현이 남긴 경전이나 유명한 학자들의 글에서 인용하여 명칭을 부여하고, 당대 이름난 사람의 글씨를 받아 목판에 새겨 건물에 게시하였다. 여기에는 선현들의 독특한 현판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몇 글자 안 되는 현판(편액)의 의미를 알면 그 건물의 기능과 용도, 그리고 건물 안에 생활했던 선현들의 삶의 지향 및 가치관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판(편액)의 글씨를 통해 서예사를 복원할 수 있고, 글씨의 시대정신을 엿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날 선현들이 남긴 문화유산(서원)에 대한 참된 의미를 찾으려면 우선 현판(편액)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다.
4. 서원과 관련된 기록자료, 이를테면, 현판, 시문, 상량문, 주련 등을 조사, 수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번역을 하고, 그에 따라 의미와 해설을 덧붙이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현판일 경우에는 현판이 지닌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단편적으로 각 현판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향인물과 관련하여 건물 현판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아울러 서원을 소재로 읊은 시들을 문집 속에서 찾아내어야 한다. 우리는 이 시들을 통해 선현들의 산수애를 발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원을 찾은 사람들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어 또 다른 尋院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6. 이를 토대로 각 서원의 현판의 의미를 상호 비교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형지세에 맞는 건물의 배치와 구조, 배향인물의 가치관에 따른 건물의 명명 등을 대조해보면 그 서원만이 지니는 독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2012. 4. 18)

서원 기록문화의 정리, 보존관리의 현황과 과제

[제3주제 발제문]

서원자료의 보존 관리, 활용방향

옥 영 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 교수)

1. 서 언
2.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의 현황과 보존처리
3.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의 방향과 활용방안
4. 결 언

1. 서 언

서원의 고문헌은 건물이나 조경, 입지 등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달리 서원의 정신적 유산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당서원의 연원, 당시의 시대적 상황, 제도, 인맥 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사료가 된다. 서원 자료의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곧 서원의 소프트웨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며 현 시점에서 옛 선비의 생활과 가치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선조의 지혜에 좀 더 다가가는 것이다.

서원의 고문헌자료는 크게 고서, 고문서, 책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곧 보존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의 보존관리는 발굴한 자료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에만 관한 것과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병행되는 것을 말한다.

각 서원에 소장된 고문헌의 이동 상황을 점검하고,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는 우선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목록작성과 동시에 보존관리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목록자료를 바탕으로 삼아 유물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많은 자료가 발굴되고 목록이 작성되었어도 소장자료에 대한 지속적 보존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애써 작성한 목록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고비용의 보존처리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원 고문헌의 올바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목록의 작성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미 목록이 작성되어 알려졌지만 제대로 보존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곳은 현대식 시설에 자료를 기탁하고 있는 몇몇 서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한두 군데에 불과하다. 각 서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문화재급은 국가가 제공하는 보관장치에 수장되기도 하고 기타 중요한 자료는 도난 방지장치도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원 고문헌은 별다른 훼손방지 시설이나 장치 없이 일반 물품과 같이 보관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문중의 기록물과 섞이는 경우도 많으며 엉뚱한 곳에 흩어져서 소장된 경우도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서원의 고문헌은 도난이나 유물의 손상에 방치된 상태로 보존관리에 관련된 국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글은 서원의 기록물로서 고문헌으로 구분되는 고서, 고문서, 책판 등의 자료에 대하여 보존관리를 위한 방법과 종합적 체계를 위한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부터 차례차례 해결해나감으로써 세계문화유산급 가치에 부합하는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 체계를 구상하여 기준적인 내용을 제시해보는데 의미가 있다. 이 발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 동산문화재의 사례에 따라 보존관리 조사표, 보존처리표, 목록 해제 등과 함께 서원 고문헌 관리의 전반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통한 체계의 수립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의 현황과 유형

1) 서원 고문헌의 보존 관리 기록

서원의 고문서나 고서, 책판의 보존관리 기록으로 잘 알려진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과 경주 양동 옥산서원의 기록이 있다. 각 서원마다 고서와 책판에의 관리를 위하여 목록을 작성하였고 원규에 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정하기도 하였다. 보존관리 전통의 계승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서원자료 보존 관리를 위한 선조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소장 고문헌의 목록을 작성하고 원규에 규정을 정하여 유출을 막은 것이다.



그림 5 “來讀院中 勿出院門”이 墨書된 서원 소장 고문헌

소수서원의 경우 소장 서적 현황은 서원에서 작성한 여러 종의 장서목록이 있는데, 1653년

(효종 4)의 『院中書冊置簿』에는 122종 및 追錄 21종, 1698년(숙종 24)부터 1761년(영조 37)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書冊目錄」에는 서적 168종과 책판 7종 및 추록 27종, 1796년(정조 20)의 『兵陣八月三十日修整紹修書院冊都錄』에는 129종과 책판 6종이 수록되었고, 1891년(고종 28)까지 16종이 증가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또한 소수서원은 소장하고 있는 각 책 본문의 마지막장에 “來讀院中 勿出院門”이라 墨書하였으며, 傳掌記 등을 작성하여 그 보관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였다.

옥산서원의 경우 『書冊現在都錄』의 完文(1862년 5월 작성)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서원 서책 ‘院門外不出’에 대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이 완문의 내용을 판각하여 經閣의 門楣에 달아 경계토록 하고, 任司가 열람한 날짜와 사람, 책명을 기록한 후 직접 돌려받고 혹 그 책을 잃어버리면 임사가 반드시 다른 것을 구하여 돌려놓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책판의 경우에 서원에서 관리한 기록이 상당 수 남아있다. 이는 조선시대 편찬한 각 지방의 읍지에 수록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영남지역 읍지의 경우 각 읍지에는 특별히 보관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나 서원, 향교, 사찰, 관청, 사가 등의 유형으로 표시한 경우도 자주 보인다. 이 중에 서원은 소장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인다. 이는 서원의 성격상 강학기관이면서 동시에 건물 구조로 볼 때 장판각을 갖춘 경우가 많았으므로 책판의 보관처로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경주의 西岳書院, 玉山書院, 상주의 道南書院, 西山書院, 興巖書院, 玉成書院, 近巖書院, 일선(善山)의 金烏書院, 예안의 陶山書院, 용궁의 三江書院, 함안의 德巖書院, 西山書院, 松汀書院, 함천의 新川書院 등으로 그 처소가 다양하다. 이 가운데에는 경주의 옥산서원, 상주의 도남서원과 홍암서원, 예안의 도산서원과 같이 현재 장판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장판각이 남아 있지 않거나 당대 장판각의 존치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읍지의 기록으로 서원 가운데 가장 많은 책판을 보관한 곳은 경주의 옥산서원으로 총 18종이 확인된다. 이 책판은 「淨惠寺所藏板」 조에 ‘今移在玉山書院’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본래부터 옥산서원에 소장되었던 것이 아니라 『金鰲勝覽』이 간행된 1930년대 초에 정혜사의 책판이 가까이에 위치한 옥산서원으로 이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19세기 영남 각읍의 책판 소장서원

소장처 구분	소장서원
書院 (15개 지역 44개 서원 122종)	尙州:道南書院(1)·玉成書院(3)·興巖書院(2)·西山書院(2)·近巖書院(3)·道南書院(1), 善山:金烏書院(3)·洛峯書院(4)·松山書院(3)·松山書院(1), 密陽:禮林書院(2), 龍宮:三江書院(1), 安東:周溪書院(3)·屏山書院(6)·虎溪書院(2)·三溪書院(1)·默溪書院(3)·魯林書院(6), 禮安:陶山書院(24), 永川:臨臯書院(4)·梅谷書院(2)·道岑書院(5)·橫溪書院(1), 咸安:西山書院(3)·德巖書院(1)·松亭書院(1), 星州:柳溪書院(1)·晴川書院(2), 靑松:松鶴書院(1), 咸陽:藍溪書院(2)·柏淵書院(2)·唐洲書院(1), 咸昌:栗谷書院(3), 州:龜江書院(1)·玉山書院(8)·龍山書院(1)·東江書院(1)·西岳書院(1), 淸道:紫溪書院(2)·西巖書院(1), 晉州:德川書院(2)·宗川書院(2)·龍塘書院(2)

표에서 보듯이 19세기에 영남 각읍의 책판 소장기관은 서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총 15개 지역의 44개 서원에 122종의 책판이 보관되어 있었고 서원에서 서적 간행의 직·간접적인 참여로 인해 다수의 책판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말에 작성된 『누판

고』에 의하면 전국의 서원중에서 도산서원은 가장 많은 책판을 보관하고 있었다. 서원에서 『擊蒙要訣』과 『嶠南賓興錄』 책판을 보관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 17세기 인조 때 전라도 순천부와 해서의 석담서원에 있는 책판으로 『격몽요결』을 인출하여 올려 보내겠다는 예조의 계문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홍재전서』의 「군서표기」에 나와 있는 『嶠南賓興錄』의 간행에 대한 기록도 도산서원에 책판을 보관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⁴¹⁾ 도산서원의 책판관리 기록은 『陶山書院傳掌記』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도산서원전장기』는 도산서원에서 관장한 물품을 기록한 자료로 17세기초부터 20세기초까지 기록되었다. 한 해 안에도 여러 번 점검하고 작성하였으며 이것을 다시 정리한 것도 있다. 그 중에는 책판의 종류와 수량을 기입해 놓은 것도 있으며 초기의 기록은 책판의 수량은 기록하지 않고 종류만 기록하였는데, 17세기 초에 도산서원에서는 『啓蒙傳疑』, 『古鏡重磨方』, 문집 책판, 『陶山十二曲』, 『漁父辭』 책판 등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처럼 서원에서는 다른 물품과 함께 책판의 소장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시기별로 꾸준히 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목록과 보존관리 실태

서원 고문헌은 위의 예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선조의 노력에 의해서 각별히 지켜져 왔지만 현재 남아있는 고문헌의 보존관리의 상태로 본다면 소장 문화재 안전관리, 보존 등의 대책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물 및 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소장처는 대체로 보존을 위한 유물각을 설립하여 보존관리가 진행되기도 하고 훼손된 자료의 경우 보존처리를 한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후손별로 자료가 분산되거나 별도의 관리시설을 마련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서원 자료를 위한 별도의 보존시설은 거의 없다. 표-2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 예정인 9개 서원의 고문헌 소장현황과 자료조사연구, 보관장소 등을 표시한 것이다.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보존환경의 편차가 심하고 목록작성의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적인 보존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서원 외에 대부분의 서원 고문헌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목록작성이 된 고문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하며,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흩어져서 수록되기도 하여 전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 관련 연구자들도 학술적 자료 활용 외에 보존관리에는 거의 무관심하여 서원자료의 보

40) 『국역승정원일기』 인조 7년(1629) 8월 17일 기사 ; 홍명구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지금 右相 李廷龜의 말을 들으니, 『擊蒙要訣』을 인출하여 반포하는 일도 탐전에서 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은 거행 조건으로 내지 않은 탓에 본조에서 알지 못하여 복계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 책은 실로 아동을 교육하는 데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冊板이 전라도 順川府와 海西의 石潭書院에 있다고 하는데 張數가 많지 않아 인출하는 일이 큰 工役은 아니니, 본도로 하여금 각각 수백 件을 인출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41) 『弘齋全書』 卷184 羣書標記六〇命撰[二] 嶠南賓興錄二卷, "刊本復命道臣取傳敎祭文 及閣臣差備官座目 入格榜目 入門收券數爰 入格試券中優等四作 倣瓊林聞喜錄凡例 刊印以進 藏其板于陶山"(...다시 도臣에게 명하여 傳敎, 祭文, 閣臣과 差備官座目, 入格榜目, 入門하고, 收券한 수효, 入格 시권 중에 우수한 것 4편을 취하여 『瓊林聞喜錄』의 범례를 본떠 간행하여 진상하고, 그 冊板은 陶山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존, 관리주체, 체계가 없는 상태로 지속가능한 관리 인력의 지원과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더군다나 습기와 충해로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가 많고 도난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보존처리가 이루어진 것 중에 책판의 보존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고, 고서·고문서의 사례와 논저 검토결과 대부분 문화재급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만 이루어지고 그 방식은 지류유물의 보존처리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비슷한 공정을 거친다. 하지만 비지정 유물을 소장한 곳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 창고에 쌓아두거나, 종이상자나 궤에 넣어 다락방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관장소의 대부분이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벌레 및 설치류 등의 피해로 해당 유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기도 하다.

서원의 장판각이나 문서고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지만 대부분이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장소에서 오래 된 궤짝이나 상자에 넣어두고 먼지가 쌓인 상태로 방치되거나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된 채로 밀폐되어 있다. 또한 보관함과 문서 크기차이로 유물이 구겨진 상태로 보관되기도 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소장된 것은 대부분 도난에 무방비 상태다.

함에 보관하는 것도 내부의 습도나 온도가 높아서 하절기에 습기와 곤충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 온·습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훼손유형을 감안할 때 서원 소장 고문헌의 지속적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다. 서원 소장처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향온·향습에 필요한 설비의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종이상자에 보관하는 방식은 평상시 보관하기에는 수월하지만 고온다습한 여름철 장마 후에 습기를 한번 머금을 경우 건조에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는 오히려 곰팡이 생성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고서나 고문서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제작된 것이어서 유물의 크기가 큰 것은 구겨짐이 발생하고 작은 크기의 것은 상자 내부에서 흐트러져서 순서가 뒤바뀌거나 구겨진다.

보존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소장 문화재 안전관리, 보존 등의 대책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난 대비 시설과 설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서 보존하고 있던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난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다량 소장처에 대해서는 적어도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고문헌은 화재에 취약하여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전체가 소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개인 소장자들이 자동소화설비를 갖추고 전적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유물 소장자의 인식, 과학적 보존처리에 대한 이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보존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6> 주요 서원의 기록물 보존관리 현황

서원명	소장현황		자료조사연구		보관장소
			조사보고	타기관소장	
소수서원 (1543)	고서	141종563책(1969), 30종 145책(1997)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소수서원소장자료조사보고서(1998) 소수서원지(2007)	국사편찬위원회 계명대 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소수서원사 료전시관 소수박물관
	고문서	110점	소수박물관의 목판과 현판(2009)		

	책판,기타	4종 428장	도지정 동산문화재 실태조사보고서(2011)		
남계서원 (1552)	고서	59종 317책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 처실태조사(2005)		
	고문서	717점			
	책판,기타	377장			
옥산서원 (1573)	고서	330종 2197, 503종 2847책(1969) 943종 3977책(2005)	한일관계사연구(1920)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옥산서원지(1993) 영남고문서집성2(1992) 고문서집성65(2003)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 보고서(2005)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위 작성각 각 문중 종택	옥산서원 유물 전시관 (2010)
	고문서	1156점			
	책판,기타	19종 1121장, 기타24종			
도산서원 (1574)	고서	907종 4338책(1969), 1026종 4605책(2010)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도산서원고문서1,2(1994, 1997) 조선시대 영남서원자료(1999)		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2128점			
	책판,기타	57종 4014장(책판28종 3928장)			
필암서원 (1590)	고서				
	고문서				
	책판,기타				
도동서원 (1605)	고서	10종 26책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 보고서(2005) 도동서원지(1997)		금고, 장판각, 유물전시관
	고문서				
	책판,기타	1종 71장, 기타28점			
병산서원 (1613)	고서	6174점(동산문화재), 3689점(전적및 현판)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문화재관리국(1991) 고문서집성20(1994)		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책판,기타	25종 1907장			
돈암서원 (1634)	고서		비지정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 (2007)		
	고문서	10종			
	책판,기타	1841 장			
무성서원 (1696사액)	고서	8종	무성서원조사보고(2010)	전북대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고문서	49종			
	책판,기타	기타51			

* 원문제공 사이트

남계서원 :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남명학교문헌시스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한국고문서자료관,
옥산서원 : 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진행중)
도산서원 : 유교넷
도동서원 : 도동서원지 원문 DB서비스
병산서원 : 유교넷, 한국고문서자료관

3) 고문헌 훼손의 유형과 보존처리방식

(1) **훼손의 유형**⁴²⁾ : 고서·고문서 자체에 관한 훼손은 대부분 보존방식이나 보존을 위한 시

42) 종이유물 훼손의 유형에 관한 내용은 주로 박지선, “지류문화재 보존”,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국립문화재 연구소 편,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2004.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것이다.

설, 장치 등의 미비에 의한 것이다. 이는 온·습도, 빛, 생물에 대한 유지·차단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종이의 열화와 관련이 있다.

대부분 종이로 만들어진 고서·고문서는 온도, 습도, 빛에 의하여 열화(slowfire)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가 진행되며 종이는 진한 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부스러지는 등 종이 태워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물질간의 화학반응을 촉진시키거나 재질의 강도를 떨어뜨리고, 습도변화는 물체의 빈 공간에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열화를 촉진시킨다. 고문헌 보존관리는 이런 열화가 진행되기 전에 시설 장치를 통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이미 열화가 진행된 유물에 대하여 보존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은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의 상황으로는 그 훼손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 확실하며 원상태로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보존관리가 될 경우 나타나는 훼손의 유형은 온·습도, 빛과 열, 생물 등에 의한 훼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보존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온·습도에 의해서 종이가 손상될 때 나타나는 표시는 종이가 약화되고 부스러짐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산성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존처리에서는 중성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서 고문서의 산성도유지는 온·습도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야 장기간 보존될 수 있다. 아울러 색변화와 물의 번짐 흔적이 발생되고 채색된 것일 경우 안료가 탈색된다. 물리적으로는 종이가 휘고 주름이 잡히며 서로 붙는 현상까지 생기게 된다. 다량소장처마다 빠짐없이 나타나는 훼손유물의 대표적 사례로서 모두가 온·습도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종이유물에 가장 적합한 온·습도조건으로 온도는 18~20℃, 상대습도는 45~55%이며, 허용 온·습도조건은 온도 21~22℃, 상대습도 50~55%이다. 종이 습도가 높아져서 습도 65% 이상이 되면, 종이의 함수율이 10%가 넘게 되어, 곰팡이균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 곰팡이균의 유기산이 종이 위에 장시간 남아 있으면, 종이의 재질인 셀룰로오스가 서서히 절단(酸分解)되어 종이가 열화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미생물에 의한 종이유물의 변질은 오랜 시간동안 방치할 경우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고온 다습한 여름철 기후를 반드시 거치게 되고 이 기간에 습도조절을 통한 유물의 습기 제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훼손의 정도가 점점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침습에 의하여 젖은 지류 유물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곰팡이의 서식지가 되고 그대로 붙어서 굳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소장처마다 최소한의 장치로서 장마기간이 끝난 후에 습도 조절에 필요한 제습기 등을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 조명이나 햇빛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열과 자외선은 종이의 화학결합을 손상시킨다. 특히 자외선의 흡수는 종이의 산화와 산성화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보관 장소는 빛을 차단한 곳이어야 하며 창문이 있을 경우 암막커튼이나 자외선 차단 필터를 사용하여 완전히 가려야 한다. 빛에 의한 열도 종이에서 셀룰로오스 섬유소를 탈수시켜 종이가 가진 탄력과 인장강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빛이나 열에 의해서 종이에 손상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표시로는 종이가 약화되고 부스러지며 노란색(흰색)에서 갈색으로 색 변화가 발생된다.

구겨지거나 접힌 고문헌을 펴는 작업에는 평평하고 무거운 물건을 얹어서 평판작업을 한

후에 중성지를 놓고 종이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

세 번째로 생물에 의한 훼손에서는 설치류와 곤충의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서·고문서가 있는 장소를 항상 청결히 유지시켜야 한다. 수장고나 서가 등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관리하며 보관장에 넣어 보관할 경우에도 안에 넣어서 먼지가 앉지 않도록 주위의 청소는 물론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고서나 고문서, 책판의 해충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빗살수염벌레(권연벌레), 책좀(Bookworm, silverfish), 흰개미 등이 있다. 빗살수염벌레는 지류유물 내부를 관통하여 구멍을 내거나 배설물에 의한 오염이 생기게 된다. 또 벌레가 뚫고 지나간 자리가 접합되어 페이지가 펼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곤충에 의해서 종이에 손상이 발생될 때 나타나는 표시는 종이 표면에 작은 구멍과 같은 천공이 발생되고 조각파편이나 가루가 떨어진다.

설치류에 의한 훼손은 종이를 갉아내고 둥지를 만든 것이 대표적이며 종이 표면에 갈색, 흑색 또는 붉은빛을 띤 얼룩점이 발생되기도 한다. 다량소장처 중에 문서고나 창고에 보관된 고문헌 중에는 설치류의 서식지가 되어 손상되고 배설물 등에 오염된 사례를 빠짐없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잘못된 보관과 보수에 의한 훼손이 있다. 화학성접착제에 의한 훼손은 접착테이프나 일반접착제에 묻은 화학성 접착물질이 종이를 손상시키며 변색된 종이는 원상태로 복구하기 어렵다.

(2) 고문헌의 보존처리방식 ;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류유물의 형태적 보존처리 순서는 대체로 해체→클리닝→배접→결손부메움→건조→평판작업→장황→보관상자 제작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대로 된 보존처리를 받을 때 과정이다.

하지만 서원 고문헌은 위의 과정을 모두 거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현실적인 긴급처리를 수행한 후에 본격적인 유물의 보존처리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서원자료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보존처리기관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종이유물의 보존처리방식을 살펴보면

① 해체는 보존처리 작업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정된 실, 종이 심, 표지, 구배접지 등 원래의 장황형태를 분리하는 작업이다.

② 클리닝은 붓질이나 水洗을 통하여 오염 및 산화 정도를 완화하는 작업이다. 수침작업의 여부에 따라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한다. 다량소장처에서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긴급처리는 건식클리닝 단계이며 습식클리닝이후 부터는 보존처리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구배접지 제거와 배접은 본래 원문이 아닌 다른 종으로 배접되어 오염되거나 배접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이를 제거하고 새로운 종으로 본래 종이를 받쳐주기 위해 덧대어 주는 작업이다.

④ 결손부 메움은 배접하는 것 보다는 크기가 작은 경우에 쓰이는 방법으로 유물의 결실부분을 소맥전분풀과 준비된 종이를 사용하여 메우는 작업이다.

⑤ 건조과정은 클리닝, 배접, 메움 작업 후 건조시키는 작업이다.

⑥ 평판작업은 구김, 주름, 접힘 등의 물리적 손상을 복구시키는 작업이다.

⑦ 장황은 책, 두루마리, 족자, 병풍 등으로 꾸미는 작업이다.

⑧ 보관상자의 제작은 중성매트와 종이폴더, 오동나무 등으로 상자를 만드는 작업이다. 중성매트의 경우 유물의 크기별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원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곳에서 건식클리닝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수행할 수 있는 보존관리방안이다.

이와 같은 보존처리의 내용은 보존처리의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유물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유물의 훼손 정도에 따라 처리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과정은 생략되기도 한다.

날장으로 대부분 남아있는 고문서는 해체나 장황작업 없이 클리닝과 결손부 메움, 배접, 건조, 평판작업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밖에 장황된 족자나 두루마리 등은 배접과 장황에 보다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책판의 형태로 남은 자료는 위의 보존 처리 과정 중에서 ① 보존처리 전 크기 및 손상상태를 파악하는 조사 및 사진촬영, ② 붓으로 표면의 먼지 등을 가볍게 털어주는 건식클리닝, ③ 생물에 의한 훼손 유무점검과 훼손 정도에 따른 소독 조치가 필요하다. 마구리가 훼손된 책판의 경우 뒤틀림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완과 함께 내부가 손상된 목재유물의 안전조치도 필요하다. 아울러 온·습도가 적합한 보존환경에 보관한 후, 적절한 시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완전한 보존처리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존관리조사표의 작성과 활용⁴³⁾ :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를 위한 방법과 체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록작성과 함께 보존관리조사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보존관리조사표는 소장처 단위로 작성되는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 시설조사표”와 보존처리가 필요한 개별 유물별로 작성되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서원고문헌 실태조사표”를 구상해 볼 수 있다. 서원 고문헌에 관한 보존관리는 유물자체의 형태적인 보존처리와 시설을 비롯한 보존여건의 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조사표를 작성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표의 구상안은 표-3, 표-4와 같다.

“보존관리 시설 조사표”는 고서, 고문서, 책판 등의 수량과 보관장소, 보존처리 환경으로 각종장치의 설치, 인력, 도난의 이력 등을 간단히 체크하고 전체적 보관상태를 정하고 소장자와 조사자의 간단한 의견을 작성하는 것이다. 표의 순서에 따라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그 내용은 ① 소장자 사항 ② 유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 ③ 유물의 보존 관리사항 ④ 소장자와 조사자 의견사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유물의 보존 관리사항은 유물의 보관시설과 장소, 각종 시설물의 유무와 수량, 인력배치의 여부, 과거 도난의 유무 전체적 보존관리 상태 등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보관시설과 장소로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고 보관함의 유형을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 보존관리 상태는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등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조사자가 표시하도록 한다.

43)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 조사표는 필자의 기존 연구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방향」, 『서지학보』 34(2009. 12) p.260-263.의 보존관리조사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혀 둔다. 일반적인 고문헌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기반으로 서원 고문헌에 특화하여 적용해 본 것이다. 이는 서원 고문헌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조사자의 의견사항은 주로 보존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전체적 보존관리 상태와 관련하여 보완할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후에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며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표 8>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 시설 조사표(안)

소장자 (서원명)		기증유물						
		기탁유물						
주소	원소장처							
	현소장처	OO서원						
연락처	원소장처	보존관리 담당기관			유	무		
	현소장처	연락처						
유형과 수량		고서	고문서	책판	민속		기타	
		○건(책)	○점	○판	○점			
보관장소		문서고, 장서고	유물전시관	캐비닛, 금고	벽장	궤짝	종이상자	기타
보존관리 환경		감시카메라	항온항습기	경보장치	소화기	제습기	방충장치	기타
인력배치여부		상근인력	비상근인력	기타				
과거 도난여부		있음	없음	기타				
전체보관상태		매우양호	양호	불량	매우 불량	기타		
소장자 의견								
조사자 의견								

“보존처리가 필요한 서원 고문헌 실태조사표”는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중에 보존처리가 실제로 필요한 개별 고문헌에 대한 조사표이다. 그 내용은 ① 유물명과 일련번호 ② 유형과 재질 ③ 훼손관련 사항 ④ 보존처리대책과 의견 사항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훼손관련 사항은 고문헌의 훼손 정도와 범위, 상태 등을 표시하는 항목으로 실태조사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훼손상태, 훼손범위, 훼손 정도를 표시하고 훼손상태는 물리적 손상과 화학적 손상 그리고 기존에 잘못된 수리에 의한 손상으로 구분된다.

보존처리대책은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한 조치를 1차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종이상자에 의한 보관, 건식크리닝, 습식크리닝, 복원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보존처리의 각 단계에 따른 대책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종이상자나 나무상자에 의한 보관은 가장 기본 적인 처리대책에 해당한다. 물리적 손상의 경우 건식크리닝과 평판작업만으로 대부분 처리될 수 있으며 습식 크리닝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의 화학적 손상과 물리적 손상 중에 결손이나 충식부분의 메움, 잘못된 수리에 의한 손상 등이 해당된다. 복원은 문화재급 유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벌레나 설치류에 의한 물리적 손상은 보존관리시설이나 장치와 연관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화학적 손상이 온·습도에의 한 경우이므로 앞서 살펴본 온·습도, 빛, 충식 중에 해당되는 유물의 상태를 잘 살펴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8> 보존처리가 필요한 서원 고문헌 실태조사표(안)

일련번호										
유물명										
유형	고서	고문서	책판			민속유물		기타		
수량										
규격										
재질	종이류	직물류	목재류			짚풀류		기타		
	저지, 죽지, 마지, 화지, 기타	비단, 삼베, 무명, 기타	소나무, 느티나무, 황양목, 박달나무			짚, 갈대, 기타				
훼손범위	상단	오른쪽	중간	왼쪽		기타				
	중단	오른쪽	중간	왼쪽		기타				
	하단	오른쪽	중간	왼쪽		기타				
훼손상태	물리적손상	긁임 주름 접힘 찢김 말림 마모 낙서 굵힘 충식								
	화학적손상	그을림 불에 탐 기름 접착제 음료에 의한 오염 분비물 누습								
	잘못된 수리에 의한 손상	배접 들뜸 변색 굵힘								
훼손정도		매우 큼	큼	중간	약함	매우약함	기타			
보존처리 대책	종이상자 중성시트	건식크리닝		습식크리닝			유물재질조사필요유무		복원	
				일부배접		전체배접				
기타 의견										

3.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의 방향과 활용방안

1) 보존관리체계의 종합적 수립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체계적 관리기관의 운영, 시설, 장치,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보존관리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고문헌 자체에 관한 것과 관리 여건 조성에 관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즉 고문헌 자체에 관한 것으로 온·습도, 자외선, 곰팡이, 해충 등에 관한 주의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장치 등 환경조성을 하고 목록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문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문헌 보존을 위해서는 주위 환경을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은 중

이를 쉽게 퇴색시키고 곰팡이의 번식은 높은 습도의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벌레나 설치류도 종이유물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것이므로 환경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공기순환을 잘 시켜 곰팡이 생성을 억제하고, 상대습도도 50-55% 정도로 유지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존 관리의 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보존 관리시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건물로서는 시설을 갖추었으나 감시카메라·녹화기·경보기·자동소화시설·항온항습시설·감시모니터·감지기·무인경비시스템·상근 관리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갖추 수 없으므로 시급하게 필요한 보관처를 중심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서원 기록자료의 보존 매뉴얼의 작성이나 기록화사업, 유물목록, 보존관리 시스템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전문화, 고령화되어가는 소장문화재 관리 인력에 대하여 전문화, 보존대책 필요해진다. 이는 자료가치, 정리방법, 보존대책, 활용방향에 대한 정기교육도 필요하다.

유물의 조사자는 처음에 목록을 작성하는 시점부터 설치된 관리시설과 필요한 관리시설을 살펴보고 이를 점검하여 조사표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 작성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보존관리의 정책과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만들어지는 “보존관리 시설 실태조사표”는 보존환경조성과 보존관리체계를 수립하는데 근거자료가 되며 고문헌 목록과 함께 종합적인 보존관리에 활용되는 것이다.

한편 고문헌 소장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료의 보존처리 방향과 연구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매우 제한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소장처는 유물각 등을 설비하여 보존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지정 유물을 소장한 대부분의 서원 고문헌 소장처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 창고나 다락방에 쌓아두거나, 통풍되지 않는 켜짝, 누습에 무방비한 종이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장소는 습기가 많고, 벌레 및 설치류 등의 피해로 해당 유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기도 하다.

모든 서원 고문헌 소장처마다 보존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줄 수 없는 사정이므로 최우선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적 보존관리 물품이나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하고 각들에게 종이나 목재의 열화원인에 대해 주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보존당사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료의 보존처리 방향과 연구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하여 보존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후속세대를 육성하도록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다. 교육 참여자에게 보존관리 관련물품을 지급하거나 보존처리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기관에 기증 기탁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자체별로 위탁관리시설을 건립하여, 소장자들이 일반 동산문화재들을 수증하거나 수탁하여 공동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서원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에게 항온·항습설비, 무인경비시스템, 자동소화설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별로 유물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문화재를 기증 내지는 기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국의 서원 고문헌을 종합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유물관의 건립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원 고문헌을 소장

하고 있는 개인이나 문중에 대해 자료의 소실 및 도난을 방지하고 기증·기탁을 통해 과학적 보존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 근거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장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기증·기탁 조건에 최우선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

서원 고문헌에 대한 훼손의 방지와 훼손자료에 대한 보존처리를 통해 특화된 보존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효과적인 보존관리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결국 고문헌 목록 및 해제의 강화와 함께 종합적인 보존관리 체계의 구축에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 목록, 해제, 원문서비스의 강화와 서원 고문헌 목록의 통합

고문헌의 기초연구는 분류, 목록, 해제, 원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문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목록도 필요하다. 잘 만들어진 고문헌목록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그 목록을 읽는 것으로도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의 기초 요소로 처음부터 잘 유지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고 향후 구성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에 핵심역할을 하는 것이 고문헌목록인 것이다.

목록의 기술요소는 고서의 1차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으로 일정한 체계의 틀에서 기술하는 것이며, 크게 구분하여 볼 때 서명·저자사항, 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서원소장 고문헌 중에 해제를 갖추었거나 문화재관리국 주관으로 작성된 일부 목록을 제외하고 서원 소장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고서목록들은 연구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발간된 서원 소장 고문헌의 목록에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요약해서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목록 작성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분류체계, 서지적 구성, 목록기술의 방식 등이 일관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서지정보의 전달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산문화재 조사에서 작성한 최근 몇 군데의 소장목록을 제외하고 많은 서원 고문헌의 목록이 서명과 저자명, 간행시기, 분류(등록)번호, 크기 등을 기록한 간략목록만을 작성하고 있거나 아예 작성되지 않은 것이 많다. 이는 판본 감정과 시기 추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정이 틀리거나 간행시점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간행이나 필사년대가 미상으로 처리된 자료에 대한 연대비정, 미해독 장서인의 해독, 서명이 잘못 기재된 것의 수정 등 시급히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이 남은 것이다.

둘째, 각 서원 자료의 특성을 목록상에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서원 유생안, 원규, 고문서, 책판 등 주기사항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많은 고문헌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서나 문집에 적용되는 목록의 방식을 적용하여 정작 연구자에게 필요한 특징적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 기술 형식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주기사항에 대한 언급이 결여된 점이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기존의 목록을 재정비하면서 종합화하는 것은 서원 고문헌의 연구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목록으로 정리되지 않은 소장자료에 대한 조사 정리도 필요하며 기존에 발간된 고서목록과의 관

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제집의 작성에도 소장자료 전체에 대한 기초, 일괄해제의 필요성이 있다. 분야별 해제집이 소장자료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해제의 방식이나 기준이 책마다 달라서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 원문이미지 자료의 구축과 공개방식의 일원화

고문헌 기초연구의 기반은 원문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1차적인 마무리가 된다. 물론 원문 이미지를 바탕으로 탈초, 정서, 표점, 번역 등 2차적인 기반연구가 필요하지만 서원 고문헌의 경우 1차단계만 이루어져도 연구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웹사이트를 통해서 원문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는 일부 서원 고문헌은 대부분 그 이미지 자료의 해상도, 밝기, 색상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소장처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제공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제공하는 이미지의 방식이나 해상도 등이 다르므로 연구진행을 위한 “원문이미지 작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원문이미지가 제공되는 것은 대부분 각 소장처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지만 제공되는 이미지의 전체분량이나, 해당자료가 전체자료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 규모 등을 알려주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4) 종합적 보존관리 시스템의 개발

고문헌의 목록과 해제, 이를 기반으로 삼아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큰 목적은 영속적으로 자료를 보존하는 것과 함께, 자료의 공개성과 보편성 확보로 연구가 활성화되고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시·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 대학과 각급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여 고문헌 DB를 구축하고 있다. 서지DB의 구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일부기관이나 도서관은 참조서지링크나 MARC 정보, 색인,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원문DB는 컴퓨터 저장용량, 전송속도 등의 발달로 최근 들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디지털화된 서원 고문헌의 목록작성은 이상과 같은 목록기술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형 목록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원 고문헌과 관련된 일부 DB 시스템은 독립된 서원 고문헌 DB로 보기 어렵다. 아직까지 종합형 서지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서원 고문헌의 종합적 보존관리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서지목록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서지목록을 중심으로 용어사전, 편저자색인, 소장기관, 서명색인, 관련연구논저, 해제, 원문 등의 DB를 상호간 링크시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구현해보는 것이다.

서원 고문헌의 목록기술 내용 가운데 서명, 저자사항, 형태사항, 판차사항, 주기사항, 소장사항 등에서 단어나 구를 선택하면, 책자형태로 발간된 해제집 DB, 해당 고문헌의 작성자 저자에 관한 DB, 국역된 자료, 원문, 고문헌 소장기관, 용어사전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

합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기 구축된 디지털 자료가 이곳 저곳에 산재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보존관리와 보존처리 조사표는 종합적 보존관리체계의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목록이 작성되는 시점에 기록된 보존관리 조사표를 전산화하여 DB를 구축하게 되면 보존관리 조사표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 규모의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5) 서원 고문헌의 활용

서원고문헌의 종합적 보존관리체계의 구성과 함께 고문헌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자료의 적극적 활용자원화 의지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활용지원 정책이나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였고 각 서원의 특성에 맞는 발전적 활용의지가 부족하였다.

이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원자료에 많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의례 공간으로만 쓰인 경향이 많으며, 각 서원 마다 차별성 없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됨으로서 보다 제대로 된 서원의 가치를 투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다양한 서원 역사문화 자료 정리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자료를 고증하고 활용하는 비중과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

서원 고문헌 자료의 활용은 하드웨어 활용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던 서원의 활용방식에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보탬으로서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활용지원 정책 및 콘텐츠,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야하며 각 서원의 특성에 맞는 발전적 활용의지를 갖추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본다면 서원의 일반 고문헌 중에 귀중본으로 구분하여 별치한 고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하여 당시 서책을 하사 받은 기록과 그 책의 영향으로 지속된 관습의 형성을 파악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해제의 방식도 이러한 귀중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서원의 장서로서 당시 하나의 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료군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서원 장서문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원에서 간행된 고문헌의 편찬 제작과정의 재현이나 서원의 의례와 함께 유지 전승되었던 유생의 참여행사에 대한 고증도 의미있을 것이다.

책판의 보존관리와 관련해서 본다면 선조의 전통적 방식과 생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책판제작 당시의 보존체계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판을 기존의 문중이나 주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책판 중심의 연구 방향을 설정해 볼 필요도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책판의 제작연대를 기준으로 100년 또는 200년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책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행사를 개발하여 시도해보는 것이다. 예컨대 “00책판 판각(제작) 100(200)주년 기념 전시회 및 학술회의”가 구성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당시 작성과정과 함께 참여인물, 관련문중,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등 그 책판이 만들어낸 다양한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가치를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개별 책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동일한 해에 제작된 목판을 동시에 기념할 수도 있다.

4. 결 언

현재까지 드러난 서원 고문헌의 보존 관리 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도 극히 일부의 서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소규모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고문헌 보존의 선결조건인 고문헌 목록작성은 문화재청 및 전문연구기관의 서원 고문서 조사와 시·도 단위의(전남·충남 등) 서원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전문연구기관의 서원 고문서 조사의 경우 서원의 소장 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로 현황, 수량, 자료의 종류 파악되었지만 고문서를 단순히 유물정리방식으로만 조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자료 정리결과가 서원문화사로 종합되거나 활용,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이고 통합된 서원 고문헌 목록시스템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시·도 단위의 서원고문헌 조사에서도 지역별로 서원을 분류하여 조사하여 서원의 종합적 성격을 밝히는 시도로 의미 있지만 서원자료 심층 조사에는 시간과 예산부족으로 무리가 따른다.

서원 고문헌의 올바른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처음 발굴에서부터 고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발굴시 현장 정보, 묶음 형태의 유지가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보존관리로 응급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문화재청이나 조사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존지원책으로는 복원, 1차적 보존처리, 중성지, 제습기, 보관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도난,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 많으므로 소장자가 기탁, 기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응급처리 방식 외에 본격적인 복원이나 과학적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앞서 언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서원 고문헌조사표”를 작성해볼 수 있다.

보존관리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고문헌에 대한 안정적인 보존관리 기반이 확립되는 의미가 있으며, 보존지원을 통하여 국가적 문화유산관리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유실 위기에 처한 문화재에 대한 내용적인 영구보존을 도모하여 장기적인 연구자료 축적과 보존처리를 위한 정보 확보가 가능해진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물의 훼손 단계별로 유형화시키고 각 유형별로 보존상황에 따른 체계적인 보존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와 활용방향」에 대한 토론문

강 문 식(서울대 규장각)

옥영정 선생님의 연구는 전국 가지의 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헌 자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신 논문입니다. 서원 소장 고문서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서원 관계자분들이나 연구자들이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옥 선생님의 연구는 향후의 보존·관리 대학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본 지침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옥 선생님께서 논문을 통해 제시하신 내용들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 내용들이 속히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논문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논문을 읽으면서 느낌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은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서원 중에서 보물 및 도지정 문화재를 소장한 곳에서는 유물각을 설립하여 자료를 보존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요(4쪽), 이와 같은 유물각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보존·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확인하신 사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옥 선생님께서 논문을 통해 제시하신 여러 가지 보존·관리 대책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별로 서원 유물관을 건립하고 기증·기탁을 통해 지자체 내의 서원 소장 고문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문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를 각 서원별로 설치하는 것은 재원 조달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첨단의 고전적 보존 시설을 갖춘 유물관을 지자체별로 설립하고 이곳에서 각 서원의 소장 고문헌을 수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물관의 보관·관리 설비는 문화재청 등 중앙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각 유물관이 통일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서원 고문헌의 활용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고문헌의 보존 처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장기적인 고문헌 관리 대책의 하나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옥 선생님께서 논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원 소장 고문헌의 상당수는 이미 일정 정도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또 향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학적 보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고문헌 보존 처리를 담당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장치적인 계획을 가지고 고문헌 보존 처리 인력을 양성하고 또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와 활용방향」에 대한 토론문

서 병 패 (문화재청 전문위원)

서원은 강학과 선현을 향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지방의 학술 문화 발전의 구심점이었다. 서원의 고문헌들은 교학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목표와 교육내용과 부합되는 강학용으로 사용되었던 도서이다. 왕이 하사한 내사본을 비롯하여 지방의 감영이나 부, 목, 군, 현에서 간행하여 관할 지역 내 각 기관에 보낼 때 서원에도 유생교육을 위해 보낸 도서 및 서원 자체에서 간행되었거나 개인, 문중, 서원의 기증 도서, 그리고 서원의 운영이나 입학한 유생들의 명단, 방문자, 소유재산, 향사관련 등의 필사본이다. 이 고문헌들은 전반적인 서원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고 알리는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필사본 자료는 1차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는 점이 특징이다.

옥교수님이 논문에서 제안한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와 활용방향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비지정 고문헌 관리에도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본문에서 서원의 고문서, 고서, 책판의 보존관리는 소수서원과 옥산서원, 도산서원에 남아 있는 문헌을 통하여 예시한 대로 장서목록을 작성하였고, 유출방지를 위해 원규로 정하여 그 보관과 인수인계도 철저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열립 또는 포쇄하면서 관리하는 이외에 보존관리에 대한 문헌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가운데 소개해 줄만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랍니다.
2. 서원 고문헌은 문화재청 및 전문연구기관의 서원 고문서 조사와 시·도 단위의 서원조사 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종합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종합적이고 통합된 서원 고문헌 목록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3. 따라서 목록, 해제, 원문서비스, 원문이미지 자료구축 및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하고, 공개 방식은 일원화하여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문화재청의 국가기록유산 : <http://www.memorykorea.go.kr> 와 같이 고유 사이트를 운영해야 여기에 따른 콘텐츠도 개발되므로서 서원 고문헌의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2012. 4. 18)

서원 기록문화의 정리, 보존관리의 현황과 과제

[제4주제 발제문]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 편찬방향

이 해 준

(공주대 사학과 교수)

1. 머 리 말
2. 서원 기록문화의 활용 필요성
3. 서원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 현황과 문제점
4. 편찬 추진과정과 유형별 구체안
5. 맺 음 말

1. 머 리 말

이번 제2차 서원 워크숍의 목적은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보존·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구체적 대안을 도출하여 세계유산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다.⁴⁴⁾

본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는 서원 기록문화의 정리·보존관리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고, 나아가 서원별로 필요한 당면 과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예시(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의 논의들을 통하여 한국의 서원문화가 보다 품위 있고 풍부하며, 교육 유산으로서의 탁월한 가치를 인증 받는데 좋은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워크숍의 4개 주제 중에서 제1, 2주제는 기록자료의 확보와 연구에 대한 것이라면, 제3주제는 보존과 관리 문제를 다룬다. 필자가 다루는 제4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유산적 가치를 전승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원의 기록자료를 정리한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 부분이다. 이 부면의 논의는 문화유산의 탁월한 가치, 보존관리와 함께 ① 전승주체의 문화유산 이해와 관심(참여), ②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이라는 세계문화유산 지정의 평가 요소와 직결되는 중요과제이기도 하다.

물론 서원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교육, 홍보자료들을 발간한 바가 있고, 또 현재 기획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회에 필자는 (1) 서원 교양해설, 홍보자료의 유형과

44) 이해준, 「한국 서원 유·무형 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 P.P. 141-153

현황을 우선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2) 기획, 편집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3) 편찬 추진의 로드맵과 효율적인 편찬시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서원별로 바람직한 교육·홍보자료의 편찬이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필자의 이 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대한다.

2. 서원 기록문화의 활용 필요성

앞선 제1주제(이수환 교수), 제2주제(김덕현 교수)의 발제에서 확인되듯 서원의 기록문화 자료들은 내용과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체계화할 기초자료들로 400-500년의 오랜 역사를 증빙하면서 한국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강할 데이터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귀중한 서원의 기록자료들이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기록물 연구 조사는 주로 학술논문의 자료로, 혹은 연구자 중심 단순 유물조사로 그쳐 널리 홍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그리하여 전문연구서나 학술자료집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편적인 홍보 브로슈어는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

한편 최근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① 기존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치되거나 선후 갈등이 있던 논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며, “자원의 활용과 유지”에 관심을 둔다는 점, ② 官 주도의 보존일변도에서 민간 주도 및 상호협력(지원), 효율적 활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즉 [보존 ⇒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재 ⇒ 문화유산], [官 주도 ⇒ 민간 주도 및 상호협력]의 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서원도 이런 점에서 결코 다르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새로운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서원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후손이나, 지자체, 그리고 관련 연구전문가들에만 집중되었다. 또 서원관계자나 후손, 일부 전문연구자들만이 서원의 가치와 내용을 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가치와 의미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다수 일반인들’은 방관하는 형태가 문제라는 것이다. 즉 보다 큰 목표는 서원문화유산이 현재에 살아 숨쉬고, 보다 폭넓은 일반인들이 그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계승하려는 의지, 나아가 이를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다.⁴⁵⁾

그리고 이들 서원기록문화 자료들은 그러한 활용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귀중한 기초자료원이 되어 줄 것이다. 다만 이들 서원의 기록문화 자료들이 알기 쉽고 가치 있게 인식되고 계승되려면 현재보다 몇 배 이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용을 위한 마인드가 준비될 필요가

45) 이해준, 「서원 기능의 보존과 올바른 활용방향」, 『2010 서원연합회 발제문』, 2010

이해준, 「유교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활용」, 『옛사람들의 학문과 생활-충남의 유교문화-』, 2011.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있다.

‘자랑스런’, ‘미래의 경쟁력이 될’ 한국의 브랜드 가치인 서원문화. 그것을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은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또 알리고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을까? 나아가 자부심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혹평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향 중심의 서원 기능, 건축물의 복원과 정비, 제향인물의 행적 소개로 비쳐진 측면이 더 크고, 그래서 서원문화가 지닌 정신사·지성사적 품격과 수준, 문화적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다.

특히 이는 요즈음 서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서원스테이와 체험이 확대되는 추세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즉 이 과정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서원별 차별성과 특성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요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서원문화는 교육, 체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소재들을 많이 포함한다. 서원별로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특징으로 지니고도 있다. 서원의 이러한 활용가능성, 경쟁력을 고려할 때 그 활용실태는 기본적으로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서원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한 연구에 의하면 ① 제향, 각종의례, 문중행사 등으로 활용 층의 제한 ② 예절, 한문, 인성교육,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천편일률적 운영 ③ 수직적 교육중심의 정적인 분위기 형성 ④ 문화재, 인물 중심의 서원문화이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⁴⁶⁾

물론 현재 성균관과 서원연합회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도산서원·소수서원 등 일부 규모 있는 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험과 순례 프로그램이 비교적 높은 호응을 얻는 편이지만, 아직도 서원문화 소재의 적극적 활용이나 아이디어 개발 측면에서 숙제가 많다. 다양한 수요층에 따른 맞춤형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가장 필요한 과제이며, “서원 스테이의 효율적 운영 - 서원별 특성이 부각된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자원의 활용방법”은 하나로 연결된 고리인 것이다. 그래서 서원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의지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⁴⁷⁾ 더 욕심을 부려 본다면 이와 겸하여 효율적인 교육 체험을 위한 자료집의 개발, 제작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서원 교육, 홍보자료 편찬 현황과 문제점

1) 유형별 편찬 현황

46)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47) 교육, 체험프로그램(콘텐츠)들을 개발 공모하거나, 발표회를 정례화하고 선정된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 서원과 인접한 관련 종가(고택), 정려, 누정, 인물유적, 집성촌 등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과 철학, 일화, 전설, 그리고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교육 체험프로그램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서원의 교육, 홍보용 발간(편찬)물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자료모음 성격의 서원지 편찬, ② 전문 연구학술서, 그리고 ③ 홍보용 브로슈어가 대중을 이룬다. 물론 이들 이외에 극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향후 추구해야할 ④ 교육, 체험 자료집을 편찬한 특별한 경우도 있다.

(1) 書院誌, 書院資料集 ; 전통적인 한적본 형태로 각종 서원자료 자료(원문)들을 모아 수록한 유형과 서원고문서 자료를 모아 간행한 유형이 있다. 전통적인 書院誌의 전형을 이룬 주세붕 편찬의 『竹溪志』를 시발로 『迎鳳志』, 『吳山志』 등으로 이어진 16-17세기의 서원지의 전통은⁴⁸⁾ 19세기말 20세기에 이르러 『무성서원지』(1884, 1936), 『남계서원지』(1935), 『소수서원등록』(1937), 『돈암서원지』(1958), 『필암서원지』(1975)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유형의 전통을 이어 20세기 후반에 편간되는 서원지들은 서원연혁, 제향인물 관련 중요 자료원문을 수록하고 이를 번역하는 정도에 그치고 편찬 당시의 활동상과 규약과 의례, 재산과 물품 등등의 현황을 추가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다만 『돈암서원지』(1994)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연구논문(해설) 형태로 ‘서원의 기원과 역사’, ‘한국유학의 기호학파’, ‘건물’, ‘제향인물’ 등을 함께 수록하여 돈암서원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경우도 있다.

한편 지역별로 서원을 총괄하는 형태로 『전남의 서원·사우』(1988, 전남도·목포대), 『충남의 서원·사우』(1999, 충남도·충남발전연구원), 『경기도 서원총람』(2006,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등이 편찬된 적이 있고 고을별로 향교와 서원을 정리해 편찬한 경우도 적지 않다⁴⁹⁾. 그런가하면 한국서원연합회는 2011년에 『한국서원총람』 상·하권을 2,500면의 방대한 분량으로 발간한 바 있다. 대개 이들의 내용구성을 보면, ① 연혁, ② 제향인물의 행적, ③ 건축현황, ④ 관련유적과 유물, ⑤ 기타 등이고, 원고의 분량도 한 서원당 50매 내외의 분량이어서 아주 개략적인 소개 수준을 넘지 못한다.

끝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문연구자들에 의하여 편찬된 자료집 형태의 서원지들이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서원 고문서 자료집성 형태의 서원지가 바로 그것이다.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는 옥산서원(1993), 도동서원(1997) 자료를 영인, 출간하였는데 이들 자료집은 기존의 연혁관련, 제향인물 관련 자료 이외에 서원의 사회적 위상과 활동상, 조직과 운영, 경제실상 등등 서원문화의 생생한 자료들을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들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해제만이 이루어지고 이를 활용한 서원문화사의 종합 정리까지는 진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⁵⁰⁾

48) 정만조, 2006, 「조선시대 書院志 體例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제29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조준호, 2010, 「書院志 分析을 통해 본 初期 書院의 性格」, 『한국학논총』 제33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49)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서원, 한국 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예문서원, 2000 ; 한국국학진흥원, 『서원을 찾아서』, 2005.

50) 다만 옥산서원의 경우는 자료집의 앞에 서원의 역사, 사회·경제적 기반, 정치·사회적 기능, 소장자료의 해제를 수록하고 있음.

소수서원에서 편찬한 『紹修書院誌』(2007)의 경우는 각종 서원관련 문서자료를 창건과 중흥, 제향인물, 원규와 입의, 향사와 고유, 영정, 강학, 현판·석각, 시부, 산문, 문헌, 건축물, 유적, 유물, 임원록, 당회와 운영 등으로 나누어 관련 자료 원문을 번역 편찬하였다.⁵¹⁾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고문서집성』으로 서원소장 고문서를 영인하여 편간하였는데 제20책으로 병산서원(1994), 제24책으로 남계서원(1995), 제25책으로 덕천서원(1995), 제29-30책으로 용연서원(1996), 제50-51책으로 용산서원(2000) 등을 발간한 것이 그것이다.⁵²⁾

(2) 연구학술서 ; 9개 서원의 경우 의외로 서원의 종합적 성격을 주제로 다루면서 학술서로 발간된 경우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龍山書院⁵³⁾, 화양동 서원⁵⁴⁾ 등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서원의 격이나 위상보다 전승주체나 의지가 큰 곳에서부터 이런 노력이 시도되었다.

물론 9개 서원의 경우 제향인물 관련 행적과 사상, 추송활동을 다룬 학술세미나는 서원별로 대부분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과물도 적지 않은 양이 나왔다.⁵⁵⁾ 이들 제향인물의 사상이나 행적연구는 전문서로서 풍부한 내용과 높은 수준을 대변하지만, 너무 전문적이거나 일반인이 접근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고, 전문연구의 더 큰 문제점은 연구 분야별로 극히 정밀한 주제와 대상들을 다룸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는 서원의 종합가치, 이해 교육, 전승의지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문체나, 편집형태, 그리고 디자인의 면에도 무신경하여 너무 경직되어 있으며, 분량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울 만큼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다.

즉 전문적인 글, 특수한 분야,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를 일반인의 입장, 식견으로 객관화하여 이해하기란 결코 용이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러한 자료를 보고 해당 서원의 역사적, 문화적 성격을 종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이같은 연구와 학술세미나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곧바로 이들이 전승, 이해, 교육, 활용에 연계될 것이라 보는 것은 무리라는 점이다. 오히려 자칫 편견과 거부감, 경외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래서 더욱 관심권

51) 필암서원의 경우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2007, 국립광주박물관)이라는 특별기획전 도록에 김인후의 가계와 출사, 인종과의 만남, 조선 성리학과 하서, 선비정신과 시세계, 하서와 필암서원, 하서의 문묘배향 등 기획연구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52) 고문서나 전적 등 서원소장 자료들을 모은 자료집의 경우는 목적이 학술자료용으로 수요층이 전문 연구자들이므로 별도이다. 이에 대하여는 앞의 이수환 글에서 보다 상세하게 언급될 것이다. 본 발표초록의 [부록] 서원별 자료정리 현황을 참조

53) 한국학중앙연구원, 『龍山書院』, 2005, 집문당. 학술논문집으로 연구주체는 慶州 龍山書院 재지사족의 향촌지배(李樹煥), 慶州 龍山書院 運營과 慶州崔氏家の 역할(安承俊), 龍山書院과 教育活動(丁淳佑), 朝鮮後期 書院의 財政運營 문제에 관한 一試論(鄭萬祚), 朝鮮後期 書院의 特性과 行政官廳(朴丙鍊) 등이다.

54) 국립청주박물관, 『화양서원 만동묘』, 2011, 통천문화사. 전시도록인데 논고로 화양동서원의 역사(이해준), 조선성리학과 만동묘(지두환), 화양구곡의 현양과 상징, 화양구곡도(윤진영), 우암선생 瀛州訣書와 만동묘 건립(박준호) 등을 수록하였다.

55) 필암서원의 경우처럼 하서 김인후의 추송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하서 학술재단은 1986년 창설된 이래 각종 학술회의 개최와 하서의 학문과 사상연구, 하서전집 발간, 연구서 발간, 연구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대표적 인물관련 연구서로는 각책마다 10여 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수록한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화』라는 연구총서를 4책이나 발간하였다.

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국학진흥원의 국학교양총서 발간 사업은 이 같은 연구서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예컨대 『안동서원기행』이나 『퇴계인 물씨리즈』(이황, 유성룡, 김성일, 정구, 조목, 장현광, 정경세, 이현일, 이만부, 이상정, 류치명, 이진상 등)같은 기획물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3) 홍보용 브로슈어 ; 마지막으로 홍보 브로슈어가 있다. 현재 우리가 현지에 가서 접하게 되는 서원안내자료(관광 홍보 브로슈어)는 우선 매우 소략하고, 건물과 문화재, 제향인물 중심의 해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이 있다.

물론 일반인의 서원 이해와 관람에 기초적, 사전적 지식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도움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서원의 홍보용 브로슈어들을 보면 거의 모든 서원이 비슷한 체제와 내용이며, 차이가 있다면 아주 욕심을 부려 적은 면수에 너무 많은 자료를 넣으려는 경향과, 반대로 다소 무성의한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듯 한국 서원의 크고 웅대한 가치와 의미가 너무 소략하게, 것처럼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서원은 다른 문화유산에 비하여 무형적인 역사와 정신, 교육, 의례 등을 포함하는 유산이어서 내용구성과 자료선별, 전달의 방식 등 편집에 많은 아이디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내용구성상의 문제점이다. 내용구성상 대부분이 제향 인물 중심의 행적사이거나, 건축물 중심이다. 우리의 문화재 정책이 유형문화재 중심이어서 주로 서원 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설명문, 안내문도 모두 건축물 중심으로 해설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물론 제향인물의 설명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서원의 종합적인 문화사와 연계 설명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제 새로 만들어질 교육, 홍보자료에는 이러한 건축물과 제향인물 중심에서 벗어나 경관, 제향이나 교육의례, 정신과 사상, 기타 무형의 유산까지로 그 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일반인을 대상한 서원해설, 교양서의 편찬 필요

☞ 간략한 가이드 북, 교육 보조재료의 편찬 필요

2) 문제점과 과제

(1) 내용 구성상의 문제점 :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서원교육, 홍보자료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개 다음의 4가지 문제점을 요약할 수가 있다. 즉 ① 내용 구성 ② 대상(수요층) ③ 전문연구의 주제 분산성 ④ 교육, 홍보, 편집의 마인드 등에서 보여지는 문제점들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서원을 홍보하는 책자들의 가장 먼저 지적되는 내용 구성문제는 대부분은 연구서, 학술서의 경우 제향인물의 사상이나 행적을 다룬 것, 혹은 서원의 건축물을 다룬 것들이라는 점이다.

물론 각 서원의 문화특성과 연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향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인물 추송의 성향으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제향인물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해당 서원의 교육, 문화적 성격을 축소하게 된다면 문제이다. 영웅적, 전기적인 제향인물 설명 일변도에서 벗어나 서원의 역사와 정신에 연관되는 부분의 비중을 높여 의미가 더욱 고양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원의 다양한 역사와 성격은 제향인물의 생존했을 때와 사후 문인이나 후학들의 배출과 그들의 추승활동, 나아가 정치, 사회, 문화적인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향인물에만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는 자칫 이같은 서원의 역사와 변천, 다양한 성격을 소홀히 하거나 논외로 하기가 쉽다. 더 많은 이야기꺼리와,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원의 소개는 유형적인 건축물, 문화재 중심 경향이 일반적이다. 물론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분명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강조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서술의 내용이 서원의 경우에는 가구 기법이나 형태에 더하여, 성리학 적 경관개념, 위계와 배치구조, 교육·강학·제향·거점 등 서원 기능과 연관되는 의미 등이 함께 이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물과 서원공간의 가치는 역사와 인물, 시대정신을 떼어 놓고 그 의미를 살필 수가 없는 까닭이다.

서원은 주지하듯이 저명한 성리학자를 추승하고 제향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즉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과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었던 곳이었다. 서원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존재하며, 이들 모두가 내용에 포함, 혹은 종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서원의 건축물과 공간은 조선시대 해당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 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선비들의 활동무대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선비들이

- 여론 및 공론의 결집처로서 사회사적 활동
- 교육, 강학, 제향 및 각종 사회 교화
- 도서출판 및 도서관적 기능
- 학맥의 거점으로 학문적 이론과 행동양식
- 향약, 의병, 상소, 당쟁, 학문토론 등등 역사적 사건의 장소

등등으로 활용했던 유적·유물, 정신들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알리고 느끼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불명확한 수요층(대상) : 다음은 수요층(대상)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없이 불특정 다수, 수요층을 무작위로 하여 자료를 배포하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문제이다. 예컨대 서원관련 교육, 홍보자료로 편찬·간행된 전문연구서, 인물추승 자료, 관광안내 브로슈어 등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제공될 자료는 없거나, 아주 기초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연구서를 보면서도 어렵다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제향인물 관련 도서를 보면서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지-서원과 연관된-를 구분하지 못한다.

실제 이러한 수요층(대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자료를 편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원을 보는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 일반시민들의 수준과 관심, 유림들의 수준과 관심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는 마치 불특정한 모든 대상들에게 하나의 밥상을 차려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과 다름없다. 어쩌면 일방향의 획일화된 자료로도 서로 다른 생각(수준)의 사람들을 모두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물론 어렵지만 주요 대상, 수요층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선정하고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서원을 바라보는 주요 대상(수요층)을 선정하고 대상에 맞는 교육 및 홍보자료를 편찬하는 것이다. 대상(수요층)에 따라 인식과 관심(기대)이 다르다는 것과, 그에 따르는 적절한 접근 방식과 자료 선정, 구체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도 어려운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서원의 교육과 홍보를 생각하면서 서원 관련 연구자, 후손, 유림의 경우를 일단 논외로 하면, 우리가 수요층으로 손꼽아 볼 대상은 대개

- 가) 서원과 유교문화에 부정적 이해를 가진 일반인
- 나) 서원과 유교정신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일반인
- 다) 초중등 학생들
- 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지도자들(문화해설사)

정도가 아닐까 싶다. 결국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보면 “서원의 교육과 홍보”의 대상이 비단 이런 학생들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층위의 수요층들이 서로 다른 눈으로 서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음으로는 과연 우리가 주된 수요층을 이들 중 대체 어느 층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아마 우리의 현실로 보면 ① 초등, 청소년층(중고생)이 가장 먼저일 듯하고, 다음으로 ② 서원과 유교정신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일반인,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③ 서원의 정신과 가치를 전달할 교사(해설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하나만 선택하여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각 서원과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동시에 추진할 수도, 또 여건이 안되면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이 선정되면 대상의 요구와 수준, 기호에 맞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효율성 있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⁵⁶⁾

☞ [서원자료집 - 인물 연구서 - 홍보브로슈어] 사이에 브루오션이 있다.

56) 사실은 서원연합회나 서원학회가 이런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교육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①의 초등, 청소년층(중고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교육용 해설서(간략한 가이드북, 30-50면 정도 분량)가 합당할 것이고, ②의 서원과 유교정신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일반인이 대상층이라면 당연히 전문서의 내용을 축약하고 알기 쉽게 해설한 서원소개, 해설서(일반교양서, 250-300면 정도 분량)가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③의 교사(해설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육보조 자료(교육교재)의 편찬이 계획되어야 마땅할 듯하다. 이들의 체제와 성격에 대하여는 다음절에서 그 대강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3) 교육, 홍보 마인드의 부족 : 끝으로 서원의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문제이다. 잘라서 말한다면 현재의 서원은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나, 그 어려움에 대하여 큰 고민을 하지 않는 듯하다. 어쩌면 적당히 만들거나 진행하더라도, 알아서 좋아하고 당연히 좋아해야 한다고 믿는 것도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과 상상, 도덕과 인성에 무지한 부류로 팔목상대라도 할 기세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아마도 서원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느끼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것도 무시 못할 사실이다. 물론 그들이 유교문화의 본질을 너무나도 모르거나 편파적으로 이해해서 생긴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 이유는 유교문화가 전근대적, 보수적, 공리공론, 비실용적, 당파성, 추상적, 관념적이어서 극복의 대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유교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제 식민사관의 의도적인 평가절하와 악평, 민족주의 인사들의 自省論, 여기에 더하여 서구화·산업사회화가 진전되면서 그 가치가 폄하, 왜곡, 굴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서 더욱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모든 부정적 요인들의 진원지가 바로 ‘서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한편 서원과 같은 인물, 유교문화유적은 다른 유적에 비하여 경쟁력도 떨어진다. “靜的・教育的”이라는 인상이 강하며 그런 까닭으로 지루함을 유발하고, 그리고 재 방문 비율이 가장 적은 문화유산자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즉 흥미롭거나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유적도 아니다. 오히려 “정신과 학문, 내면적 문화를 가치로 하는 유교문화 유적”을 머리 아픈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이는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문화”나, 우리가 강조하는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방법을 준비하지 않은 채, 건축물, 특정 인물(조상자랑), 혹은 전통의례나 한학 중심의 문화 개념이 강조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수요자에 대한 배려나 전달 방식, 전승 활용할 대상 자료의 선정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또 그런 이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극복할 의향이나 아이디어의 창출에 무신경, 소극적이었던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양하고 풍부한 서원의 문화자료들을 다양한 수요에 맞게 잘 포장하여 재생 활용하여야 하고, 그래야 이들 문제점과 한계가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만 한다면 스토리텔링, 교육과 체험의 다양한 소재로 활용할 흥미롭고 새로운 콘텐츠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교육가, 자원 활용전문가가 함께

모여 연계하고,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연구자라도 활용 방법이나 기술이 미흡할 수 있고,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활용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해지는 것이 바로 해설, 교육자료의 충실한 편찬, 수요자의 수준에 맞는 정확한 맞춤형 편찬과 제공이다. 예컨대 누가 찾아올 것인가? 무엇을 보여주고 느끼게 할 것인가? 다시 찾고 계승할 주체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서원의 가치와 문화가 후대로 올바르게 계승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두가 노력이고, 아이디어이며, 투자일 수 있다. 복원은 돈으로 가능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머리로, 가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4. 편찬 추진과정과 유형별 구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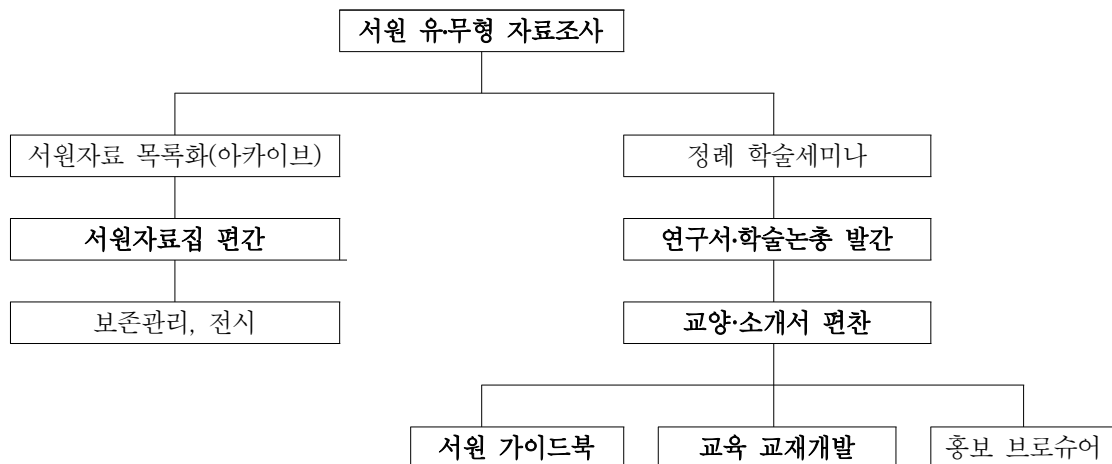
이상에서 교육·홍보자료 편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끝으로 편찬 추진의 과정과 유형별 바람직한 구체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필자가 본고에서 제시하는 추진 방안 예시들이 여러 서원의 자료 편찬에 참고가 된다면 다행이겠다.

등재신청과 관련하여 등재추진단에서는 2012년도 예정사업으로 한국서원문화 학술연구(『한국의 서원』)⁵⁷⁾와, 등재서원 특성 학술연구(『한국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⁵⁸⁾ 및 책자 발간을 기획 추진 중이다. 또한 기록문화(문헌) 자료와 무형문화(의례, 제향) 자료정리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이에 대하여는 앞의 이수환 서원지 편찬 논의를 참조). 그리고 교육과 제향 의례 부분은 제3차 서원워크숍(6. 15일 개최 예정)에서 방향을 정하여 진행될 것임]. 따라서 이들 작업과 연계선 상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작업은 한국의 서원 전체를 묶는 작업으로 서원별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서원의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교육·홍보자료 기획·편찬이 요청된다.

편찬물의 유형은 수요층에 따라, 그리고 분량, 내용수준에 따라 여러 종류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교육, 홍보물의 편찬 유형으로는 ① 전문학술·연구서, 자료집, ② 교양·소개서, ③ 가이드 북, ④ 교육프로그램 교재, ⑤ 홍보 브로슈어 등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은 대상층과 편찬 목적에 따라 각각 내용 구성(체제)과 편집방식이 달라야 할 것이다.

57) 『한국의 서원문화』는 한국서원의 문화사적 가치와 의미를 10개 분야로 나누어 총정리하되 학술 논문형식이 아닌 개설, 해설, 교양서로 집필하여 1책(350-400면 내외)을 출간할 예정이다. 수록내용은 서원총론(이배용) / 역사와 변천(정만조) / 자연경관(김덕현) / 건축문화적 특징(이상해) / 교육과 강학(정순우) / 성리학파 시문(권오영) / 제향의례(정승모) / 운영과 경제기반(이수환) / 향촌사회와 서원(이해준) / 장서(도서관)와 출판문화(옥영정) 등이다.

58)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라는 제하에 한국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표상하는 9개 지정대상 서원별 특성을 구체화하여 한 책으로 묶어 간행하며, 필진은 서원 특성에 따라 2-4명이 분담 집필할 예정이며, 350면 내외의 분량으로 기획하고 있다. 내용 구성은 한국서원문화의 특성(총론) / 소수서원 / 남계서원 / 옥산서원 / 도산서원 / 필암서원 / 도동서원 / 병산서원 / 돈암서원 / 무성서원 / 한국서원의 현황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1) 전문학술·연구서, 자료집⁵⁹⁾

교육, 홍보자료가 제대로 편찬되려면, 이에 앞서 다양한 서원관련 유형·무형의 자료를 완벽하고, 종합적으로 조사·정리하는 일과, 서원의 가치와 역사를 학술적,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일이 필요하다.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하고자 하는 9개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으로 유·무형의 다양한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는 이들 각 서원에 남아 전하는 자료, 일부 분산소장된 자료, 문헌으로 검색되는 자료 등등 서원관련 유형 무형의 모든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편간하거나 아카이브화 하는 일이 우선적,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⁶⁰⁾.

결국 이들 조사 정리된 자료들은 해당 서원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유인할 것이고, 연구와 조사 성과가 교육과 홍보의 대상 폭, 내용의 질을 결정하며, 나아가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의 원형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많은 학술회의가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서원문화의 종합, 집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순도가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로 제향인물 연구에 집중되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주제를 보다 넓혀 서원의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야 한다. 가능하다면 서원별로 매년 정기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서원이 지닌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성격을 밝히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 관련 연구단체나 지역의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도록 기획하면 좋을 것이다.

학술세미나의 주제는 서원 제향인물의 사상과 학맥, 정치적 활동, 서원의 경관과 건축특징, 유·무형 서원문화유산 등등으로 정하여 정례적인 연구를 진행시켰으면 한다. 학술회의를 통

59) 이 중 서원자료집의 경우는 서원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이수환 교수의 논의에서 언급될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60) 이해준, 「한국 서원 유·무형 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 P.P. 141-153.

해 도출된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그 결과는 서원학술총서(연구서, 논문집) 형태로 발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특히 연구주제와 연구분야 선정에서 가능하다면 9개 서원 중에서 해당 서원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차별성 있는 키워드를 부각하여 알리고, 이를 현재적으로 재조명, 계승, 활용하려는 아이디어가 중요할 것이다.

예컨대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병산서원의 장서 기능,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제향 의례 전통, 도산서원·옥산서원·병산서원의 학술논쟁과 학맥, 옥산서원과 도동서원의 다양한 서원 운영 조직, 경제관련 고문서, 무성서원의 향학당 사적, 최치원 영정과 문집발간, 한말 의병과 향약(동약), 필암서원의 서원고문서와 장판들 등등은 별도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될 정도로 특징이 부각된 예들이다.⁶¹⁾ 바로 이러한 각 서원의 특징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학술세미나가 기획된다면 좋을 것이다.

다만 이들 전문적인 연구서나 자료집 편찬은 전문연구자의 수요와 기대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들의 서원에 대한 관심 충족과 이해, 가치 바로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인의 수준과 기대치, 알고 싶은 내용이 전문가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① 서원 교양·소개서, 교육용 ② 서원 가이드 북, 교육, 체험 및 스테이의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③ 교육 보조 교재 발간 같은 교육과 홍보용 자료의 편찬이 후속될 필요가 있다.

2) 서원 교양·소개서(○○서원의 역사와 문화)⁶²⁾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문학술서는 일반인에게 서원의 가치와 문화성격을 일목요연하게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홍보 브로슈어로는 서원의 가치, 특성을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그 같은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서, 즉 서원의 성격과 문화사를 알기 쉽게 종합정리한 교양·소개서(해설서)의 편찬을 기대한다. 서원정신과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이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과제라고 볼 때, 서원 교양·소개서는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서원 교양·소개서는 대상층을 일반인으로 하여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수준이면 이해할 정도의 평이한 문체와 사진·삽도 및 자료가 많이 수록된 정감 있고 흥미로운 체제이어야 한다. 그리고 편집과 디자인을 전문 기획자에게 맡기거나, 아예 유가지로 편찬하여 판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⁶³⁾ 그래서 체제와 분량은

61)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잠정목록신청서(2011) : 紹修書院(1543년) ; 최초의 서원, 제향의식과 의례(장서, 유물, 건축 시원형), 蕪溪書院(1552년) ; 향촌교화, 玉山書院(1573년) ; 다양한 운영주체, 서원경제, 건축기록 (장서, 문서, 경관), 陶山書院(1574년) ; 퇴계 이황과 강학 전통(학통, 강학자료, 경관), 筆巖書院(1590년) ; 서원 문서와 제향인물 유적 유물(학맥, 정치), 道東書院(1605년) ; 경관과 변천사 자료, 屏山書院(1613년) ; 자연과 조화된 서원 건축경관의 전형, 서원건축, 遯巖書院(1634년) ; 호서 예학의 산실(학맥, 출판), 武陵書院(1696년) ; 향민교육과 강학, 향약, 한말의병(최치원, 강습례, 의병) ()의 내용은 필자가 추가한 것으로 향후 연구의 진전을 기대].

62) 『○○서원의 역사와 문화』 『퇴계 이황과 도산서원』 같은 방식도 좋을 것이고, 서원별 문화 특성과 강점(경관, 건축, 인물, 강학, 제향, 자료 등등)이 책의 타이틀로 강조되면 이상적인 것임

- 신국판 변형, 300면 내외
- 원색, 2,000부(유가 판매 : 3,000 - 5,000부)
- 학술논문형식이 아닌 개설, 해설, 교양서로 집필(고교졸업생 정도의 이해 수준)
- 기존 연구성과 요약, 정리. 충실한 자료 예시(사진 · 삽도 · 자료의 비중 30-40%)

로 하고, 집필진은 해당 서원의 문화사적 특성에 따라 서원연구의 분야별 전문가(지리, 경관, 건축, 역사, 교육, 의례, 사상, 고문서, 기타)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내용과 체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해당 서원의 역사와 문화사적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되, 기본적으로 포함할 내용(목차, 주제)은

- 화보
- 서원 입지와 경관, 풍수
- 창건과 역사변천
- 제향인물의 행적
- 서원의 건축물과 배치
- 교육, 강학, 제향 의례
- 조직과 운영, 서원경제
- 사죽활동(학맥, 정치)
- 장서와 출판
- 전적, 고문서와 유물
- 현판, 금석기문
- 서원 관련 문화유적
- 일화와 전설
- 주요자료 원문 / 연표 / 기타

등을 참조하여 서원의 성격에 맞게 추가 보완하면 좋을 듯하다.

한편 한국의 대표서원으로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는 9개의 서원은 공통적으로 수려한 경관과 전통 있는 건물들, 제향 인물의 학문·사상·행적, 서원의 지성사·사회사적 활동, 제향의례의 전통, 각종의 문화유산 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해당서원이 지닌 보편적 성격(서원의 역사·인물·건축·교육·제향·활동 등 종합)과 여기에 각각의 서원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격(해당 서원의 지역별, 학맥별 다양한 교육·문화적 특성)⁶³⁾, 그리고 유·무형의 자원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원별 자료의 정리과정에서 특성을 좀더 부각할 주제들도 구상이 가능하다고 생

63) 그리고 이 작업은 가능하면 有價 販賣할 계획으로 기획 편찬하는 방안이 좋을 듯싶다. 팔리는 책, 사서 보는 책이 될 만큼의 경쟁력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팔린다는 것은 경쟁력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일정 부수를 구입, 배포하는 MOU를 편집 기획(출판)사와 맺고 유가 판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집필자 선정과 원고작성을 서원(지자체)가 맡고 편집디자인만을 이들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다.

64) 앞의 주 14) 참고.

각한다. 예컨대 무성서원 같은 경우 무성서원의 역사와 변천사를 살펴보면

- 孤雲 崔致遠의 생사당과 丁克仁의 향학당 · 申潛의 5부학당과 생사당
- 도내 유생의 청액상소와 연액 의절 · 최치원 영정 이안과 桂苑筆耕 발간
- 武城 액호와 絃歌樓 · 무성서원의 강습례 전통 · 勉菴 崔益鉉의 의병 창의와 무성서원

등과 같이 무성서원만의 특수한 역사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해당 서원만의 주제어들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⁶⁵⁾ 이런 특성이 예감되는 독특한 서원문화사 주제들에 대하여 자체 학술세미나를 통한 정리를 한 후 교양서의 편찬에 반영하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이상에서 교양·소개서의 편찬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서원의 가치와 의미, 특성 종합)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수요층, 대상의 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집의 기술(편찬, 기획)의 중요성이 강조된 셈이다.

결국 수요층에 따라 알기 쉽고 다양하게 정리되어 전달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시급한 후속 작업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 즉 위에서 살핀 전문연구서나 종합적인 교양 해설서를 활용한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이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인 활용 자료집으로 발제자는 (3) 서원 가이드 북, (4) 교육, 체험 및 스테이의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교육 보조 교재 발간이 후속작업으로 병행되기를 기대한다.⁶⁶⁾

3) 서원 가이드-북(유가 판매도서)

앞에 제시한 일반인을 위한 교양·소개서는 상세하고 종합적인 300면 내외의 저서 형태라면 이를 원본 텍스트로 하여, 간략하고 알기 쉽게 축약한 40~50면 정도 분량의 『○○서원 문화 가이드 북』을 편찬했으면 한다. 이 서원 가이드 북은 홍보 브로슈어의 단편성을 보완하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서원 문화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요약해서 알리는 전달 매체로 이용되었으면 한다.

내용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자료와 앞에 제시한 서원 교양·소개서를 활용하되, 일반인이나, 교사, 학생, 유림, 전문가들에게 ‘알고 싶은 서원 지식’ ‘알리고 싶은 서원문화’ 아이টে을 조사하여 이들 중 수요자 수준에 맞는 소주제를 8~10개 정도(Q&A) 선정하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가이드 북의 경우 [서원문화]와 [제향인물]을 나누어 제작하는 방안도 유용할 듯하다.⁶⁷⁾

65) 필자는 돈암서원의 경우도 · 정회당, 아한정, 양성당의 강학 전통· 사계 김장생의 실천 예학과 호서산림 · 17세기 기호사림의 首善之地 · 정묘의병과 문인들의 참여, 활동 · 문집과 예서의 출판사업(장판각 자료) · 대표적인 서원건축(응도당) · 개화기 근대학교로의 일신(찬명학교)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6) 또한 이 과정에서 새로운 홍보 브로슈어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67) 필암서원의 경우 『하서 김인후 선생이야기』(울산김씨 문정공대종중·대동문화재단, 2007)라는 책자를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제작하였다. 분량이 신국판 220면으로 좀 많으나 전기, 소설형식으로 평이한 문체, 흥미로운 목차 구성, 다양한 삽화(사진, 그림) 등으로 좋은 사례가 되어 준다. 이

그리고 서원 가이드 북은 무엇보다 편집상 간결하고 쉬운 문체, 삽도·자료·사진의 다양한 수록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보는 책이었으면 한다. 가능하면 편집기획자, 교사(만화, 문학, 문화)들이 반드시 참여하여 수요층의 기대와 호기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 편집과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편집의 경우 좀더 확실한 경쟁력의 확보, 편찬기획의 수준의 담보, 일반교양인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어쩌면 전문출판사와 함께 3,000원~5,000원 정도의 유가 판매용으로 기획 출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직하다.

4) 교육 보조재료 개발

끝으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보조재료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특히 최근 들어 서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서원 스테이가 일반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목표,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사실 교육과 홍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서원의 특징, 개성적인 문화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명목)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육·체험 목적에 맞는 적절한 교육자료의 제작, 수요층에 맞는 주제별 교육·체험 자료를 먼저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원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선도기관인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학생, 성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비문화체험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비문화체험 수련, 도산서원』(문화체육관광부, 2009)를 편간한 바 있다. 이를 보면 초, 중등학생 (2박 3일, 1박 2일, 1일), 대학생 체험과정 (1박 2일), 외국인 다문화가정 체험과정(2박 3일, 1박 2일), 외국인 체험과정(2박 3일), 그리고 성인일반 체험과정⁶⁸⁾ 등으로 대상에 따른 체험이 진행되며 각기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수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글로벌 인재양성전통과 현대의 접목, 예절 인성교육을 통한 도덕적 인간양성,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문화적 자긍심 고취라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도산서원에서 보는 것과 유사하게 다양한 체험 대상과 일정을 마련하여 한문·예절·인성·역사탐방·전통놀이 등의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서원 교육자료』(소수서원, 예문관 선비촌, 2009)라는 체험교육 지침서를 만든 바 있고, 2010년에는 박석홍 편의 『선비문화를 찾아서』(영주시, 52면)라는 교육보조 자료를 책자로 발간한 바 있다.

한편 서원연합회도 최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원스테이와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운영하면서 공통 자료집으로 『서원문화체험(2010)』과 『서원스테이(2011)』를 편찬 보급한 바 있다⁶⁹⁾ 이밖에도 퇴계학연구회가 주관한 “유교문화체험 연수교재 및 콘텐츠 개발회의”라든가, 필암서원에서 교육관인 집성관을 준공한 이후 선비학당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책자의 독후감을 시상하기도 하고, 독후감 모음집(2007)도 발간하였다.

68) 성인 일반을 대상으로 체험에는 문화단체(전통예절), 교원 공무원 기업인, 학부모, 사회단체, 가족 체험 등이 이루어진다.

69) 서원연합회, 『서원스테이 사업(6개서원)』, 문화체육관광부, 2009

위하여 노력하는 것 등등이 모두 이러한 필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⁷⁰⁾

그러나 이들 자료들을 보면서 느끼는 아쉬움들도 적지 않다. 그것은 교재의 내용과 대상별 교육과정의 철저한 점검이 없이 어찌면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 상태에서, 어찌면 요령 있는 교사나 지도사, 그런가하면 스타급 해설자가 모두를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듯도 느껴진다.⁷¹⁾

다음에 직접 9개 서원의 예는 아니지만, 몇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예시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예감하여 보고자 한다.

(1) 『白鹿洞書院』과 『嶽麓書院(史話)』: 발제자는 이 대표적인 중국 서원의 교육 및 홍보 자료에서 우리의 교재 개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 『白鹿洞書院』(黎華 편)은 백록동서원의 홍보 브로슈어 형태로 변형 4.6배판 24면의 분량이다. 수록내용은 연혁개요, 100년전 옛사진, 白鹿洞賦, 저명인의 詩文, 柱聯, 書畫, 朱子白鹿洞教條, 朱子家訓, 金石文, 朱熹讀書法, 白鹿洞의 역대 명인 肖像, 현대 풍광, 주요활동(학술활동) 등이다. 이 책을 예시한 것은 수록 내용들이 모두 백록동서원의 역사와 정신, 전통을 설명할 때 직접 확인해야할 사진이나 원자료(원문)를 가능하면 충실하게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다. 발제자가 보기에는 홍보물을 겸한 교육 교재로 이용이 가능할 만한 것으로 우리의 경우도 현재의 서원 홍보 브로슈어의 분량을 좀더 늘려서(16절 → 4절), 해설, 설명시에 시각 자료로 예시하면 어떨까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嶽麓書院(史話)』(朱漢民, 鄧洪波 著, 2009, 호남대학출판사)는 악록서원의 보다 분명한 색깔을 가진 교육 교재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64면의 분량이지만, 글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량이고 대부분이 삽도 사진, 자료들이다. 전체적인 내용구성은 서원의 역사에 따라 創建(북송) 鼎盛(남송) 延續(원명) 再興(청대) 變革(學制)의 5시기로 구분하고 각기 3-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간략한 해설과 자료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물 고적이라 하여 유적 유물을 수록하였다.

이 책자는 소개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사, 지도자(안내자), 해설자용 자료집으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록된 자료는 중요 관련 유적(사진), 암각서 금석문(탁본), 시문 원문(책자, 비문), 고문서(원문), 유품, 영정(사진), 전적의 주요내용, 옛사진, 원규 등등이다. 특히 수록된 다양한 자료들이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없는 자료, 없어지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료, 꼭 내용을 소개하여야 하는 특별한 자료들까지 성의 있게 수록하여 준 것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자료의 성격과 전승 상황에 따라 사진, 상상도, 사료, 탁본, 회화, 고문서, 유물, 삽화 등으로 다양하게 편집한 아이디어도 활용할 점이다.

9개 서원의 경우 자료량이 충분하므로 조금만 유의하면 핵심, 중요, 특기할 자료를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프로그램 운영 지도서로서, 혹은 교보재 모음과 해설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교육(워크숍)을 받은 교사, 안내, 해설자가 수요층(대상)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선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놓은 '자료집'의 성격이면 좋을 것이다.

70) 필암서원, 『山仰會報』 제15호, 2010.

71) 월봉서원, 『월봉서원 생생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청, 2009.

(2) 소수서원 『선비문화를 찾아서』 : 두 번째로 소개하여 예시를 삼고자 하는 자료는 소수서원의 『선비문화를 찾아서』 (영주시, 박석홍 편, 2010, 52면)라는 책자이다.

이 책자는 청소년용으로 4.6배판 52면의 원색으로 만화, 삽화, 사진 등을 혼용하여 주제별로 구성한 책자이다. 솔직히 대상층(수요층)이 분명하지 않고, 너무 많은 량, 모두 다 수록하려는 욕심 때문에 다소 방만하고 핵심 컨셉과 키워드가 분산된 느낌이다. 또 편집상의 기교나 매끄러움에 문제가 없지 않으나, 수요층의 기호나 관심을 유발하려는 노력과 아이디어는 대단하다. 수록대상 유적은 소수서원(1-20면), 선비촌(21-27면), 소수박물관(28-34면), 선비문화수련원(35-38면), 순흥권의 문화유적(39-51면)을 망라하여 영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20면 정도의 소수서원 부분에는 전경, 약사(년표), 경관, 건물, 영정, 전시유물, 제향인물(안향, 주세붕, 이황, 안축, 안보) 등이 다양한 사진, 삽화, 자료, 일화의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향후 개정판을 낸다면, 서원만 소개하는 자료로 분리하고 편집상의 욕심을 줄여 약간 번다하거나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면 어떨까 한다. 분량도 2배 정도 늘려 40~50면으로 한다면 편집의 산만함과 답답함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산정과 편집 기획을 함께 논의할 편집(기획)위원회를 조직하여 중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편집위원회에 자료를 잘 알고 동원하는 전문가(연구자, 서원유림)와, 수요층별로 적절하게 선택하여 전달할 교사나 해설자, 편집기획자, 그리고 삽화, 사진 같은 작업을 도와줄 예술인(교사)가 함께 참여한다면 훨씬 완벽한 교육, 체험의 교육재료가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Q&A 형식의 기획 개발도 고려)

(3) 『하서 김인후 선생이야기』 : 이 책자는 필암서원의 제향인물인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행적을 정리한 전기물로 울산김씨 문정공대종중과 대동문화재단에 의하여 2007년에 기획 발간된 것이다. 신국판 220면, 원색으로 김병효가 짓고 백정환이 삽화를 그렸다. 소설 형식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문체이며, 사진·삽화가 많아 글의 분량도 많지 않다. 편집 기획도 정겨우며, 목차도 ‘전라도 장성 맥동에 큰별 내리고’ ‘스승 면앙정 송순과의 인연’ ‘대과에 급제하던 날’ ‘인종이 선생에게 목죽을 내린 사연’ ‘난산에 통곡소리 애절히 번지고’ ‘백년초해를 지은 뜻은’ 등으로 흥미롭고 평이하다.

이 책자는 전기이면서, 교육체험의 독후감 작성용 텍스트로 만들어 졌다. 그리하여 부록편에 필암서원과 하서에 관한 자료들을 수록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책자를 읽고 제출한 독후감을 뽑아 시상하기도 하고, 『독후감 모음집(2007)』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사례로 파주문화원에서 발행한 『큰스승 육곡 이이의 삶과 사상(2007)』 『명재상 방촌 황희의 삶과 사상(2007)』도 마찬가지로 평이한 문체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반이 알기쉽게 구성 정리한 것임을 편집자는 밝히고 있다.

물론 이들의 경우는 200여 면이 넘는 적지 않은 분량이다. 많은 학생들이 읽고 체험하는 교육자료로는 다소 분량이며, 가능하다면 다른 서원의 경우 교육재료로 만들려면 50면 내외로 축약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⁷²⁾

72) 약간 다른 경우이지만, 체제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백일헌 이삼 전

(4) **교육 콘텐츠의 개발** : 또 이와 관련하여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자와 인력을 동원하여 개발한 콘텐츠의 선례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kostma.net>)의 병산, 남계서원 원문자료 제공이 있다. 그런가하면 한국국학진흥원의 조선교육 한마당 ‘기록 자료로 본 서원’에서는 교육, 재정, 규범, 운영, 제향 등의 자료를 소개하고 있고 서원 창건, 강학일기를 활용하여 서원의 창건과 강학절차 등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도 탑재되어 있다. 유교문화박물관에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자료를 만나는 박물관 자료마당이 마련되어 있다.⁷³⁾

주지하듯 서원문화는 교육, 체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소재들을 많이 포함한다. 서원별로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특징으로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소재하는 콘텐츠의 개발, 자료의 온라인 소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가능하다.

활용가능성, 차별화, 경쟁력을 고려한 이들 서원별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더욱 효율적인 서원교육과 체험을 약속할 것이다. 물론 현재 성균관 산하에서 결성된 서원연합회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도산서원이나 소수서원 등 일부 규모 있는 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험과 순례 프로그램이 비교적 호응을 얻는 편이지만, 서원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의지 및 지원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수요층에 따른 맞춤형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가장 필요한 과제이며, “서원 스테이의 효율적 운영 - 서원별 특성이 부각되고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자원의 활용 방법”은 하나로 연결된 고리인 것이다.

더 욕심을 부려 본다면 교육, 체험프로그램(콘텐츠)들을 개발 공모하거나, 발표회를 정례화하고 선정된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 서원과 인접한 관련 종가(고택), 정려, 누정, 인물유적, 집성촌 등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과 철학, 일화, 전설, 그리고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교육 체험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5. 맺 음 말

발제자는 서원의 교육과 홍보 마인드에서 가장 우선하고 중시하여야 할 것이 고품격과 지성사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는 서원문화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과 현재적 의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자, 계승 활용의 시의성과 당위성을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일부 부정적 인식도 없지는 않지만 3-400년 전의 유교문화는 어쩌면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자, 미래 사회의 화두인 ‘지성사’와 ‘정신사’의 본질적 모습을 지닌다. 서원문화자원은 무엇보다 도덕과 지성, 교육의 장이었다는데 가치가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저변

기)』(백제군사박물관, 2007)같은 경우 전기 형식으로, 초등생용이며, 아주 간결, 작은 분량(독후감, 발표용)이다. 삽화(사진)와 글의 비중이 반반 정도이며 4.6배판 60면 분량인데, 이런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73)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http://edu.ugyo.net>), 유교문화박물관(<http://www.confuseum.org>)

에 물질과 경쟁 중심의 의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유교·서원문화 유산은 도덕성 결여나 교육과 정신문화의 황폐화 등 현실을 극복하고 도덕, 인성, 사회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이다. 어느 문화자원보다도 훨씬 “내면적 특징과 지성적 품위”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 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하는 선비문화는 현대와 미래사회에 더욱 필요한 핵심 덕목으로 더욱 중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문토론, 사회교육, 비판과 실천 등의 측면에서도 재생과 활용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

다음으로는 서원이 도덕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활용, 계승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평과 자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서원문화는 권위적 건축물의 복원과 정비, 특히 가문 선조의 추숭이나 경쟁 모습으로 홍보되고 활용되었다. 인물 추숭은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았고, 때문에 그 인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도 퇴색해 버리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아무리 의미와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특정 가문이나, 집단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현재 수많은 서원들이 남아 있고, 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경쟁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더욱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비 복원사업이 진행된 경우라도 그 활용률은 10% 정도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제는 자원활용의 우선 순위에 따른 활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들 다양하고 서원별 특성이 내재된 문화유산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 관리하여 서원문화의 현대적 가치 계승 및 문화자원으로 지속적인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

필자는 서원의 문화와 그 기능을 단순한 제향 공간으로 自足하거나, 혹은 차별성 없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을 잃는 것을 보면서, 서원문화의 지속가능한 활용, 혹은 현대적인 계승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다양한 서원 역사문화 자료 정리가 그 단단한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 정만조, 1997,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이흥재·이해준 외, 2001, 『향교와 서원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 문화정책개발연구원
 이수환, 2001, 『조선후기서원연구』, 일조각
 이상해, 2002, 『서원』, 열화당
 윤희면, 2004,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이해준, 2009,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이해준, 2009, 「유교문화 자원화를 위한 연구방법론」 『충청학과 충청문화』 9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수서원, 2009, 『소수서원 교육자료(체험교육 지침서)』, 예문관선비촌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9, 『유교문화체험프로그램 활성화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도산서원, 2009, 『선비문화체험 수련, 도산서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원연합회, 2009, 『서원스테이 사업(6개서원)』, 문화체육관광부
 월봉서원, 2009, 『월봉서원 생생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청
 Benedicts Selfslagh, 2011 「교육기관들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위원회
이해준, 2011 「한국 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
브랜드위원회
Milan Hejumanek, 2011, 「조선시대 지방정치와 문화의 핵심기지로서의 서원」 『한국서원의 어제
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위원회
이해준, 2011, 「서원스테이의 과제와 바람직한 운영전망」 『2011 서원연합회 발제문』, 서원연합회
이코모스, 2011, 『한국 서원의 국가브랜드화 방안 및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국가브랜드위원회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 편찬방향에 대한 토론

박 성 진(한국서원연합회 상임이사)

1. 이해준 교수의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 편찬방향에 관한 논문은 한국 서원 전체의 교육 홍보자료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시금석을 제공

- 근대적인 기록문화 정리 방식에 문제점 제시
- 개괄적 교양서적에 대한 미비점 정리
- 서원 역사성과 가치에 대한 문화컨텐츠로의 스토리메이킹 부족
- 건물과 인물 중심의 편향된 브로슈어
- 체험가이드북의 서원별 특화 미비

2. 서원 교육 홍보자료의 구비와 연구 필요 (9개 서원 중심)

○ 연구적 차원

- 9개서원 소장자료 총서의 집성 필요 : 기관선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학진흥원, 영남대 등 산재된 자료 종합)
- 서원관련 각종 학술 연구논문 집성의 필요 : 한국서원학회 주관
(아카이브와 연계)

○ 세계문화유산 지정 대비 교육 홍보자료 연구제작 비치

1) 서원지 편찬(자치단체에서 주도하여 2013년까지 완비)

- 근대적 서원지가 아닌 현대적 목차와 내용구비
- 목차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서원 관리운영매뉴얼이나 다음카페 '한국서원이야기'제공 목차 참조
- 기본 서원별 사료집성은 소수서원지 참조

2) 서원 소개서 발간의 필요

- '한국서원의 가치'와 '한국의 대표서원' 책자발간
2종의 개괄서 출간 ; 한국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위 발간
- 서원별 300면 규모의 교양소개서 ; 당해서원이나 지자체 출간
스토리와 화보 중심으로 발간(유가 판매형태)
- 서원문화가이드북 발간 : 교사나 문화해설사를 위한 상기 서원교양서 축약본 발간
(40~50면 규모)

3) 홍보브로슈어의 제작

- 한국의 서원 브로슈어 : 한국서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어 종합 브로슈어 제작
(한국서원연합회)
- 9개서원 공동브로슈어 : 한국대표서원 9개소를 중심으로 한 국제어 브로슈어 제작
(등재추진위 제작)
- 각 서원별 브로슈어 제작 : 8면정도로 제작하되 각 서원이나 지자체에서 제작(국제어)

3. 서원 아카이브의 구축(문화재청, 서원학회, 서원연합회, 자치단체, 해당서원 공동구축)

- 한국의 전체서원 수록(서원연)
- 9개 서원 중심의 서원지 내용 포괄(자치단체)
- 서원 관련 출판 서적들의 내용 포괄(서원학회)
- 한국서원 관련 각종 연구 논문(서원학회)
- 대표서원에 현황에 대한 번역자료 수록(국제어, 등재추진위)
- 지속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 서원 관련자료 소장 기관의 네트워크구축으로 효율화와 저비용 아카이브 구축(공동)

4. 기타항목

- 서원지 편찬예산은 각 자치단체별 확보 추진 필요(등재 추진위 예산 미반영)
- 서원별 교양서, 서원별 브로슈어 제작 각 서원이나 지자체별로 예산 편성 제작 필요
- 각종 자료 제작에 필요한 서원별 위원회 구성(소재 서원의 역사, 조경, 건축, 의례, 서지, 행정 등에 밝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위원회)하여 원지와 교양서, 문화가이드북, 브로슈어 등 제작에 대한 공동협의 진행해야 할 것임.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 편찬방향에 대한 토론문

박 석 홍(소수서원 · 소수박물관 학예연구원)

1. 서원교육과 홍보자료편찬 필요성

- 세계유산 지정의 유리한 조건 확보를 위해 먼저 대안을 제시해준 이해준 교수님의 논지는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함.
- 그간 해당 서원과 지자체의 간행자료는 전문성과 학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단순 홍보물(팸플렛, 브로슈어)이었음.
- 인쇄업체에 맡겨 임의 제작한 차별화가 안 되는 천편일률적인 면이 있었음.
- 이런 사례를 들어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색깔 있는 시안물로 홍보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2. 서원기록문화의 활용 필요성

- 그 동안 문중 유림과 지자체의 접근제한으로 정적(靜的)인 관리가 사실이었음.
- 다중의 숨결이 묻어나는 활용적 보존관리로 수준 높은 서원문화의 재창달을 위한 동적(動的)공간으로 거듭나게 된 것도 사실임.
- 서원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한 만큼 이에 걸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
- 서원연합회 주관 소수서원 서원스테이나, 도산선비문화 수련원의 선비체험순례 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따라야 한다는 데도 같은 생각을 가짐.
- 이런 의미에서 해당 서원의 교육체험 사례(운영자의 입장과 체험자의 입장)를 모은 자료집 발간이 피드백 자료로 필요하다고 봄.

3. 서원교육 홍보자료 편찬현황과 문제점

- 요즘 서원마다 서원지 간행 붐이 일고 있음.
- 그동안 한문으로 된 서원지의 활용 폭을 넓히고자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 국역간행하고 있음.
- 간행된 서원지가 서원 소장자료의 실전·빈약으로 흩어진 사료를 모은 묶음집 성격인 것이 대부분임.

- 특히 일부 서원지는 국역 오류가 심해 시비곡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되고, 분량만 늘어놓아 알맹이 없는 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음.
- 앞으로 증보 간행으로 개정판이 나온다면, 전문분야의 권위자로 하여금 동참케 하여 국역자의 주관적인 식견을 배제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함.

4. 편찬추진과정과 유형별 구체안

• 전문학술서 간행 (소수서원 사례)

- 「소수서원」 「성리학」 「제향인물」 등을 주제로 그동안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 학술포럼을 여러 번 가진 바 있음.
- 이때 발표된 논문을 모아 학술전문지 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홍보용 브로슈어(Brochure) 제작

- 지자체(또는 서원)가 제작한 홍보물 대부분이 다양성과 전문성이 배제된 단순 홍보물임.
- 예산 한계로 쪽수 늘림도 어려움이 있음.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내용 구성의 한계도 있음.
- 앞으로는 받아가고 싶은 자료로, 활용하고 싶은 매뉴얼-북으로 제작되어야 함.

• 홍보마인드의 개선

- 관광수요 창출의 전방위 역할을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하므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스토리텔링 기법의 지속적인 개발과 전수가 필요하다고 봄.
- 서원은 관광지가 아닌 역사문화유적이며, '정신문화의 텃밭'임을 소개하여 문화적 향수를 가슴에 담아가는 곳으로, 다시 오고 또 오도록, 와서 보고 느끼고 새기는 오감체험형 도장으로 홍보

• 서원교육 보조자료 개발

- 기존의 '선비문화를 찾아서' 등은 지적인대로 향후 성격별·주제 별로 분리 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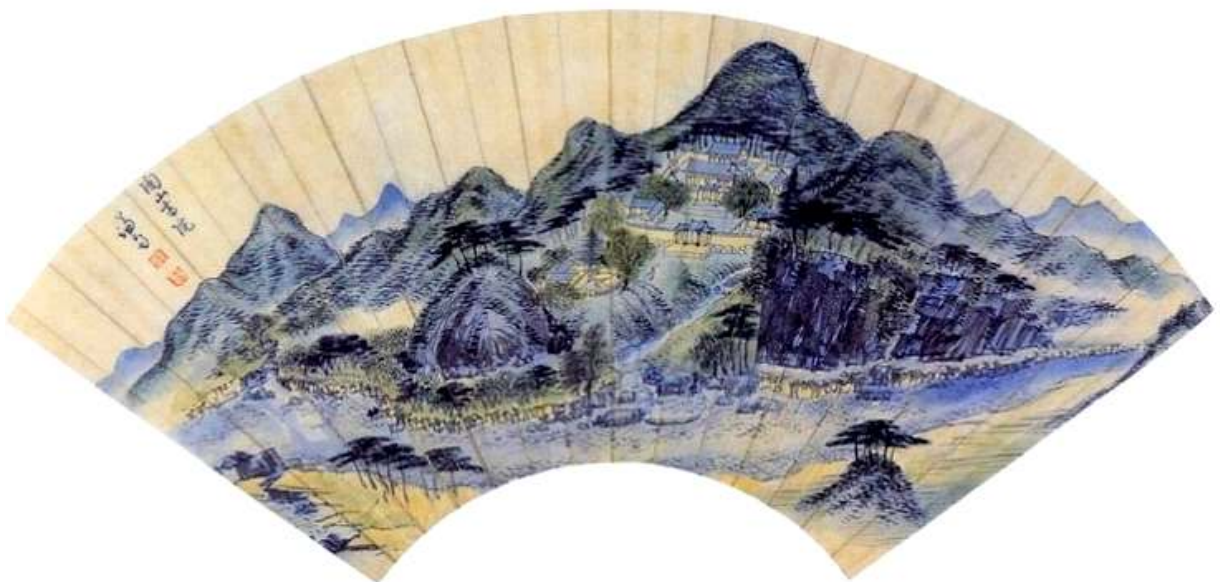
• 교육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

- 다양한 수요층에 걸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호응이 이어지도록 각 서원의 기초 자료로서 역사와 문화가 잘 정리되어야 함.
- 이제부터는 「서원학회」 전문가들과 「서원연합회」 관계자 그리고 서원 관련 문중·유림·해당 지자체가 독립적 관계에서 상호 유기적 관계로의 협력이 요구됨.

□ 부 록 □

9개 서원자료의 정리 현황과 과제

1. 소수서원...(85)
2. 남계서원...(97)
3. 옥산서원...(107)
4. 도산서원...(125)
5. 필암서원...(139)
6. 도동서원...(165)
7. 병산서원...(179)
8. 돈암서원...(191)
9. 무성서원...(205)



소수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 현황 · 과제

이 광 우

(영남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1. 소수서원의 연혁 개략

紹修書院은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安珦 · 安軸 · 安輔 · 周世鵬을 배향하고 있는 서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초로 국왕이 이름을 지어 내린 賜額書院이다. 소수서원이 건립되던 시기는 官學이었던 鄉校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향교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지역의 재지사족들에 의해 대체 교육기관이 건립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서원이었으며, 소수서원은 이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것이다.

소수서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에 의해 처음으로 慶尙道 順興(훗날 단종복위운동으로 풍기군에 병합)에 건립되었다. 원래 소수서원이 건립된 위치는 그 이전까지 宿水寺라는 사찰로 안향이 어린 시절 공부하던 곳이었다. 당시 주세붕은 고려말 성리학을 보급했고 평소에 흠모했던 순흥 출신의 안향을 제사지내는 사당을 건립하여 했다. 이에 1542년(중종 37) 숙수사 자리에 그의 영정을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는 晦軒祠堂을 건립하게 되었다. 이어 이듬해에는 사당 동쪽에 學舍를 지어 서원의 골격을 갖춘 다음, 안향의 영정을 서원의 사당에 봉안하고 최초의 서원인 白雲洞書院을 건립하였다.

소수서원이 명실상부한 지방의 사립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국왕으로부터 사액을 받게 된 데에는 퇴계 이황의 역할이 매우 컸다. 퇴계는 일찍이 서원을 향촌교화와 인재 육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1548년(명종 3)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는 그 이듬해인 1549년(명종 4) 경상도관찰사 沈通源에게 소수서원이 사림의 교육과 풍속의 교화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액이 필요함을 청원하였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 백운동서원은 지금의 소수서원으로 사액이 되었으며, 조정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당시 퇴계의 노력은 사액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도학을 천명하고 밝히는 실천 도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종 제도들을 마련해 나갔다. 그는 서원 특유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이는 受學, 居齋, 교수실천요강, 독서법 등을 규정한 院規를 만들어 훗날 세워지는 다른 서원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즉 퇴계가 소수서원에서 마련하였던 각종 시스템은 우리나라 서원의 기본 운영 지침이 되었던 것이다.

최초 소수서원 창건 시 배향자는 안향뿐이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배향자는 추가되었다. 먼저 1544년(중종 39)에는 순흥 출신으로 안향의 후손인 안축과 안보를 배향하였다. 이들은 각각 고려 충렬왕과 충목왕 대의 유학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어 1633년(인조 11)에는 소수서

원을 창건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세붕이 마지막으로 배향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이라는 위상은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興宣大院君 집권 시 있었던 서원철폐령(1864~1871) 때에도 소수서원은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전국 47개 서원 중 하나로 남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소수서원에는 조선시대 때 건립된 여러 건물과 각종 자료들이 보존될 수 되었으며, 1963년에는 그 일대가 사적 제55호로 지정 되었다. 한편, 소수서원의 공식 명칭은 2011년 11월부터 ‘영주 소수서원’으로 변경된 상태이다.

2. 소장 자료의 전래와 현황

1)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이었던 만큼 서원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다른 영남 지역의 유력한 서원과 마찬가지로 많은 자료가 소장되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상당수의 자료들이 유실된 상태이다. 그러한 까닭에 소수서원 관련 자료의 경우 원소장처가 아니라 여러 기관에 분산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산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발굴과 파악이 일차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소수서원은 건립과 사액부터 조정과 지역의 사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비교적 후기의 그 어떤 서원보다 교육적 기능을 성실히 수행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런 와중에 많은 서적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수집되거나 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액 이전 白雲洞書院 시절의 소장 전적 자료는 서원 창건 이듬해인 1544년(중종 39) 간행된 『竹溪誌』에 그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竹溪誌』의 「白雲洞書院藏書錄」에는 43종 525책의 책자가 소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리학 경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향촌사회에 성리학이 한창 보급되던 시기의 도서 소장 분위기를 짐작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목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장서 목록이다.

1550년(명종 5) 사액된 소수서원은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 나라에서 印出된 서적 중 일부를 頒賜 받을 수 있었다. 사액 이후 서적의 증가는 1602년(선조 35)에 작성된 『紹修書院書冊置簿』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이 책자는 107종 1,678책을 수록하고 있으며, 소장 서적을 ‘內賜’와 ‘道上院備’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사액 후 국가로부터 頒賜 받은 것이고, 후자는 도에서 기증된 서적이다. 당시 내사본 중에서는 『續綱目』 『朱子大全』 『精忠錄』 『朱子語類』 『四書諺解』 등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조선후기의 소수서원 소장 서적 현황은 서원에서 간행된 여러 종의 書目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1653년(효종 4)의 『院中書冊置簿』에는 122종 및 追錄 21종, 1698년(숙종 24)부터 1761년(영조 37)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書冊目錄」에는 서적 168종과 책판 7종 및 추록 27종, 1796년(정조 20)의 『兵陣八月三十日修整紹修書院冊都錄』에는 서적 129종과

책판 6종이 수록되었고, 1891년(고종 28)까지 서적 16종이 증가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소수서원은 많은 서적들을 수집할 수 있었는데, 서원 측에서는 藏書 每冊 表紙裏面에 “來讀院中 勿出院門”이라 墨書하였으며, 傳掌記 등을 작성하여 그 보관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였다.

그러나 1917년에 작성된 『丁巳九月日現存書冊目錄』에는 129종과 책판 6종이 수록되어 있으며, 1951년(단기 4284)에 작성된 『辛卯五月十六日書冊引受現存目錄』에는 94종 574책만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969년 國會圖書館에서 간행한 『李朝書院文庫目錄』에 따르면 상당수의 서적이 落帙本으로 141종 563책이 조사되었음이 나타난다. 그 중 반 이상이 문집류이고 나머지는 경서 및 역사서로 완질본은 거의 없다.(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國會圖書館, 1969) 그런데 여기에는 1966년 石板으로 간행된 『辨整錄』도 수록되어 있으므로 1951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서적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창기 이후 지속적으로 서적이 누적되고 있었으나, 유실과 반출로 인한 미회수의 증가로 20세기 이후에는 망실서적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특히 『紹修書院書冊置簿』에 수록된 서적은 단 32종 243책만 수록되어 있어 약 85%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구나 임진왜란 전 내사본은 21종 663책이었는데 이춘희가 조사한 1969년에는 4종 123책만 남아 있었다. 1891년까지 197종이 수장되어 있었고, 이후에도 약간의 증가분이 있었을 것인데, 없어진 서책이 많으니 소수서원의 망실 규모는 상당했던 것이다. 『紹修書院書冊置簿』에 수록된 분실본과 수장본의 비율로 전체 분실 서적수를 추측한다면 대략 2,600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이춘희,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 景仁文化社, 1984) 훼손 되지 않은 사액서원임을 감안한다면 유출 규모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20세기 이후 서적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해 유출이 심하였고, 유출본에 대한 회수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막심하였던 것이 수량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적의 유실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7년 南權熙의 조사에 따르면 모두 30종 145책만 수장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관리가 매우 부실했음을 알 수 있다.(南權熙, 『紹修書院 所藏 古書 및 古文書 解題(소수서원 소장자료 조사보고서3)』, 紹修書院, 1998) 현재는 소수서원 사료전시관 등에 남아 있는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다.

3)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이었던 만큼 적지 않은 책판이 이곳에서 제작되어 많은 서적들의 출판이 이루어졌다. 소수서원의 책판 제작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攷事撮要』가 있다. 이 책자는 조선 최초의 책판 목록으로 임진왜란 이전 출판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는 『竹溪誌』가 수록되어 있는데, 풍기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六先生遺稿』도 소수서원에서 간행한 것이지만 1730년(영조 6) 편찬 『慶尙道冊板』과 1740년(영조 16) 편찬 『冊板置簿冊』, 1760년 편찬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에는 순흥판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책판이 소재한 고을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한편, 1762년(영조 38)에 편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紹修書院冊錄』의 권말에는 수량을 밝히지 않은 책판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竹溪誌』 『六先生遺稿』 『追遠錄』 『文成

公神道碑』 『洪荷衣草書』 『岳武穆筆籍』 『鳶飛魚躍』 『學求聖賢』 이 있다고 하였고, 『漁溪集』 과 『朱書刊補』 는 沙州에 있어서 찾아오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1979년에 간행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韓國冊板目錄總覽』 에는 『竹溪誌』 『家禮諺解』 『追遠錄』 등이 서원 소재지인 순흥 수장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일부가 소수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수서원에서 제작한 책판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책판들 중 남아 있는 것은 소수박물관으로 이전되어 보관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1호로 지정되어 있다.

4) 소수서원이 소장했던 고문서와 각종 성책류는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높은 사료적 가치를 가진 것이 많다. 그런 면에서 많은 고문서와 성책류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가 않다. 다른 서적자료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이후 관리 소홀과 6.25 전쟁 등으로 유실된 것이 많다.

다만 서적과는 달리 고문서와 성책류의 경우 작성지가 뚜렷한 관계로 유출된 것 중 일부는 소장 위치가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유출된 것으로 여겨지는 상당수의 소수서원 고문서 및 성책류와 소수서원의 사료관에 전시 또는 보관되어 있던 고문서 및 성책류는 소수박물관에 기탁되어 자료가 집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경로로 인근 문중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07년 간행한 『紹修書院誌』 에는 소수서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고문서와 성책류를 조사하여 수록해 놓았다. 여기에는 소수서원의 것이나 타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 소수서원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것, 소수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분류해 놓았다. 소수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기탁한 기관이나 문중도 명기하였다.(嶺南文獻研究所, 『紹修書院誌』, 소수서원, 2007)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소장처	문서 종류
소수서원	紹修書院院財産管理委員會任案, 紹修書院任事錄三, 紹修書院任事錄八 紹修書院任事錄九, 紹修書院執事錄
국사편찬위원회	書冊目錄 丁巳九月日現存, 居齋錄, 居齋雜錄, 紹修書院雜錄(2종) 雜錄(2종), 雜錄 氣味乙丑庚子重修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紹修書院田畝案, 紹修書院田畝量案, 紹修書院奴婢案, 紹修書院書冊錄 紹修書院冊錄, 紹修書院秋收記
소수박물관 (소수서원 기탁)	紹修書院田畝案, 觀察使關文, 紹修書院膳錄, 書冊目錄 書冊目錄 丙辰八月修錄, 書冊目錄 乙亥七月日, 紹修書院書冊目錄 紹修書院 影幀處變時事蹟, 紹修書院廟宇重修記, 紹修書院立議 紹修書院 文書傳掌冊 己亥三月初八日, 紹修書院 傳掌記 丁丑六月日 傳掌記, 傳掌冊 甲寅四月日掌匣, 傳掌冊 庚子 辛丑 紹修書院秋收記 庚午年度, 紹修書院秋收記 丁亥年度, 賃貸料收納簿 紹修書院狀況調查 壬子十月十五日, 紹修書院財團管理所管理所則 備品台帳, 紹修書院院財團管理所役員名簿, 入院錄 第二, 居齋雜錄 紹修書院 入院錄(2종), 通讀雜錄 辛酉, 鄉飲酒禮詩律訓約, 都圈點秩

	院任題名錄, 紹修書院任事錄一, 紹修書院任事錄二, 紹修書院任事錄四 紹修書院任事錄五, 紹修書院任事錄六, 紹修書院任事錄七, 面分類(4종) 面分錄 癸酉七月二十日, 面分類 時用 丙子秋還復古規後修正 時用面分類(2종), 紹修書院 尊時錄, 雲院雜錄(2종), 雜錄 雜錄 庚子臘月日改粧, 紹修書院雜錄, 尋院錄(32종)
소수박물관 (金守恒 기탁)	紹修書院三所田畝膳錄, 紹修書院朔望講都目, 謹次紹修書院講會韻 仰高臺楔帖, 紹修書院雜錄
소수박물관 (清道金氏 기탁)	雲院齋錄 壬子臘月初吉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고문서)	入院錄, 紹修書院院錄膳本 丙戌五月十三日
梅鶴堂 종택 (영주시 부석면)	紹修書院聖幀改摹日記

3. 자료조사 현황과 기타 기록자료

1) 소수서원 소장 자료는 20세기 이후 적지 않게 유출되었다.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많은 서적과 고문서, 성책류가 유출된 것이다. 이 중 고문서와 성책류의 경우 자료의 특성상 내용 분석을 통해 작성처가 소수서원인 것을 알 수가 있기에, 이에 대한 활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일반 서적은 유출 이후 원소장처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괄 정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 소수서원이 과거 소장했었던 서적의 규모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에 간행되었던 『竹溪誌』(1544)를 비롯한 각종 書目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 書目은 현재 성책류로 소수박물관 등지에 보존되어 있어 과거 서적의 규모를 확인 할 수가 있는데, 지금과 비교한다면 그 유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편이다.

20세기 이후 간헐적으로 書目이 작성되었으나 본격적인 소장 전적에 대한 조사는 1969년 李春熙에 의해 이루어졌다.(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國會圖書館, 1969) 이 조사에서는 모두 141종 563책이 조사되었음이 나타나나 거의 대부분이 落帙本이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鑄字本으로 『朱子大全』 등 乙亥字本 5종 128책, 甲辰字本 『麗語編類』 15책, 丙子字本인 『朱子語類』 27책, 그 밖에 戊申字本 2종 2책, 丁酉字本 1종 1책 등 모두 10종 173책이 전한다. 그 중 반 이상이 문집류이고 나머지는 경서 및 역사서로 완질본은 거의 없다.

임진왜란 이전의 내사본은 21종 663책으로 확인되지만 1969년 당시 남아 있는 것은 4종 123책에 불과하다. 1602년의 『紹修書院書冊置簿』와 비교한다면 모두 82%의 책자가 분실되었음이 확인된다. 당시 조사된 자료 중 약 200여 책이 임란전 판본이며, 그 중 『朝鮮賦』(癸丑字覆刻本)가 유일본으로 전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조선시대 서원의 기본사료라 할

수 있는 『紹修書院騰錄』이 전해지며, 그 밖에 서원 경영과 관련된 『田畓案』 『傳掌記』 『書冊目錄』 등의 필사본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소수서원 고서와 고문서, 책판 등에 대한 조사 목록은 1997년에 간행된 紹修書院 所藏 古書 및 古文書 解題(소수서원 소장자료 조사보고서3)』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자료 유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서적의 경우 모두 30종 145책만 수장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南權熙, 『紹修書院 所藏 古書 및 古文書 解題(소수서원 소장자료 조사보고서3)』, 紹修書院, 1998)

한편, 소수서원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과 책판에 대한 변천 사항은 2005년에 발표된 裴賢淑의 논문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는 소수서원 문고의 성립과 변천, 대출·점검·서목 편찬 등의 관리 실태, 소수서원 간행의 서적과 책판 현황, 藏書의 특성 등이 설명되어 있다.(裴賢淑,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書誌學研究』 31, 2005)

3) 소수서원에 소장된 고문서와 성책류로 외부로 유출된 자료 가운데 중요한 것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가장 먼저 간행된 것은 소수서원 운영 전반에 관한 기록을 엮어 놓은 『紹修書院騰錄』이다. 이 책은 서원 연구에 있어 그 자료적 가치가 주목되어 1937년 朝鮮史編修會에서 영인본으로 간행하여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

한편, 소수서원이 위치한 영주시에서도 소수서원 관련 주요 성책류에 대한 국역 및 간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005년 『國譯 紹修書院雜錄』이 간행되었다.(榮州市, 『國譯 紹修書院雜錄』, 2005) 여기에는 당시까지 소수서원이 소장하고 있던 『雲院雜錄』 『雜錄』 『講所雜錄』 등 3종의 잡록을 엮어 놓았다. 이 자료들은 조선시대 소수서원의 대소사를 엮어 기록해 놓은 것으로 영인본과 국역본을 함께 수록하였다.

4)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소수서원 소장 주요 성책류에 대한 영인본 간행작업을 실시하였다.(李樹健 外,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國史編纂委員會, 1999) 이 책에는 소수서원과 관련된 고문서 및 성책류에 대한 간단한 해제와 더불어 영인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소수서원 자료로는 『紹修書院院錄騰本』 『雜錄』(院中完議) 『紹修書院講所雜錄』 『癸酉正月廟宇重修記事』 『紹修書院田畓案』(1767) 『退溪笏記』 『愼齋笏記』가 있다.

5) 책판과 현판에 대해서는 소수박물관에서 간행한 『소수박물관의 목판과 현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소수박물관, 『소수박물관의 목판과 현판』, 2009) 이 책에는 현재 소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과 현판을 모두 소개한 것이다. 소수서원에서 보관되어 오던 책판과 현판이 소수박물관에 기탁된 관계로 이 자료집을 통해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6) 소수서원과 관련된 연구는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이라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다. 관련 자료에 대한 소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朝鮮史編修會가 1937년 간행한 『紹修書院騰錄』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자료의 유출이 비교적 심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자료 보관이 잘 되어 있는 다른 주요

서원의 경우 자료 반출의 어려움 때문에 자료 소개와 연구가 비교적 늦은 편이었다. 이에 반해 소수서원의 자료는 20세기 이후 유출된 것이 많았으며, 주요 자료 가운데서는 국사편찬위원회나 대학 도서관에서 입수한 것도 적지 않아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였다.

지금까지 출간된 연구 논문과 서적, 보고서, 자료집 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朝鮮史編修會, 『紹修書院謄錄』, 1937
- 尹武炳, 「紹修書院 講堂 上樑記」 『考古美術』 9 제2권 4호, 考古美術同人會, 1961.
-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國會圖書館, 1969.
- 정순목, 『한국 서원교육제도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9.
- 渡部學, 「16世紀 朝鮮朝 書院의 3類型-書院의 動態的 研究를 위한 一試論-」 『第1回 韓國學 國際學術會議 論文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이수환,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 소수(紹修)·옥산(玉山)·도산서원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2·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 鄭相元, 「紹修書院의 復原에 대한 研究: 講堂을 中心으로」, 영남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尹熙勉, 「紹修書院 罷格論爭」 『李基百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下, 李基百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刊行委員會 편, 一潮閣, 1994.
- 南權熙, 『紹修書院 所藏 古書 및 古文書 解題(소수서원 소장자료조사보고서3)』, 紹修書院, 1998
- 張極奉, 「紹修書院의 教育史的 意味에 관한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李樹健 外,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國史編纂委員會, 1999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서원 한국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예문서원, 2000.
- 榮州市, 『紹修書院 講學堂 및 文成公廟 實測調査報告書』, 2003.
- 尹熙勉,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교육 사례」 『歷史教育』 92, 歷史教育研究會, 2004.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 裴賢淑,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書誌學研究』 31, 2005
- 榮州市, 『國譯 紹修書院雜錄』, 2005
- 장영훈, 『조선시대의 명문사학 서원을 가다』, 담디, 2005.
- 송정숙, 「『紹修書院 入院錄』 분석-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34, 書誌學會, 2006.
- 이호일, 『조선의 서원 - 살아 있는 역사의 거울, 조선의 서원을 찾아서』, 가람기획, 2006.
- 노대환, 「雜錄을 통해 본 소수서원 -『雲院雜錄』·『雜錄』·『講所雜錄』」 『조선시대 문화사 (하) - 시대정신과 인간의 대응』, 일지사, 2007.
- 송정숙, 「『紹修書院 任事錄』 연구-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38, 書誌學會, 2007.
- 嶺南文獻研究所 編, 『紹修書院誌』, 紹修書院, 2007.
- 전재강, 『선비문학과 소수서원』, 박이정, 2008.
- 소수박물관, 『소수박물관의 목판과 현판』, 2009
- 소수박물관, 『소수박물관 소장유물도록』, 2009.
- 權五貞, 「紹修書院 景濂亭詩 研究」,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2011.

7) 소수서원과 관련하여 발간된 자료집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07년 嶺南文獻研究所編의 『紹修書院誌』이다. 이 책자에는 소수서원의 연혁과 건립 및 사액과정과 배향자의 이

력, 서원이 소장하고 있거나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수서원 관련 고문서 및 성책류와 고서 등의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그 외 소수서원과 관련하여 작성되었던 각종 문자들도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선시대 여러 학자들의 문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간된 소수서원 관련 자료집 가운데 가장 방대한 양의 자료와 자료 목록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4. 전승 자료의 내용과 특성

○ 고서 현황

20세기 이전까지 소수서원은 막대한 양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관리의 소홀과 6.25 전쟁을 겪는 동안 상당수 유실되었다. 1969년 조사에서는 141종 563책이 보고되었는데 대부분이 낙질본이었으며, 1997년 조사에는 30종 145책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9년 이춘희의 조사에서 內賜本과 주목할 만한 活字本을 나열하였으나, 그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다. 한편, 2007년도에 나온 『紹修書院誌』에는 주요 고서로 91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969년 조사 때 주목할 만한 고서로 지목된 것 가운데, 현재 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귀중본

- 『周易傳義大全』 胡廣(明)等撰. 木板 11책(零本). 주기 : 內賜紹修書院, 來讀院中.
- 『朱子大全』 朱熹(宋)著. 古活字 33책(零本 1책 파손). 주기 : 來讀院中 勿出院門.
- 『儷語編類』 趙仁奎(明)著. 古活字 1책(零本). 주기 : 白雲洞書院相, 來讀院中 勿出院門.
- 『闡義昭鑑』 英祖(朝鮮)命編. 古活字 1책(零本, 전후 파손).

○ 고문서 현황

소수서원이 소장하였던 고문서와 성책류에 대해서는 2007년에 간행된 『紹修書院誌』에 그 목록이 소장처 별로 정리되어 있다.(嶺南文獻研究所 編, 『紹修書院誌』, 紹修書院, 2007.)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그 수를 파악하면 전답문서 4점, 노비문서 1점, 관문 2점, 도서목록 7점, 일기·사적 3점, 입의·회계·운영 문서 15점, 입원·거재·강회 문서 14점, 원임·집사·회원 명부 21점, 잡록 11점, 서원 방문 기록 32점 등 모두 110점이다. 이 중 주요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紹修書院謄錄 : 소수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 필사본 자료. 서원 운영 내용을 월·일별로 나누어 1546년부터 1670년까지의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 그중 주로 1546·1547년의 기록이 집중.
- 雲院雜錄 : 소수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 자료로. 원본이 있으며, 이를 복사한 사본도 전해지고 있다. 원본은 훼손 또는 낙장이 심하다. 사본은 1658년 이후 일괄 필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창건 초기부터 1600년도 초기까지 서원에서 생성된 기록물과 기사를 망라해 놓은 것이다.

- 院任題名錄 : 소수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 자료로 1542년부터 1718년까지 소수서원 원장 등 각 직책을 맡았던 院任들의 인사기록을 엮어 놓았다.
- 紹修書院任事錄(9책) : 소수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 것으로 1542~1718년, 1708~1794년, 1794~1897년, 1898~1914년, 1916~1931년, 癸酉三月日, 甲申三月日, 1969~?, 丙子八月日의 소수서원 역대 원장 등을 기재해 놓았다. 조선조 서원 원장의 성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이다.
- 入院錄 : 4책이 전해지고 있는데, 1543~1696년의 것은 도산서원의 고문서로 소장되다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됨. 나머지 3책은 1660~1691년, 1721~1760년, 1725~1846년의 것으로 소수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16~19세기 소수서원 원생의 인적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 尋院錄(32책) : 모두 소수박물관 기탁됨. 16세기~20세기 후반의 소수서원 방문인사들의 명단.
- 紹修書院田畝案 : 소수박물관에 기탁된 1766년의 자료이다. 설립초기부터 1738년까지 전답의 증가현상을 기록한 것으로, 18세기 말 書院田의 확대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 雜錄(9책) : ‘紹修書院雜錄’ 또는 ‘雜錄’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다. 1626~1678년, 1667~1720년, 1712~1718년(이상 3책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1720~1759년, 1759~1832년(이상 2책은 소수박물관 기탁), 1794~1795년, 1799~1900년(이상 2책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의 것이 있으며 나머지 2책은 19세기 및 20세기 초반의 기록으로 소수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소수서원과 관련된 고문서 및 고문서 형태의 각종 글들을 엮어 놓은 것이다.
- 紹修書院講所雜錄 : 소수박물관 기탁 자료로 1826~1828년까지 이루어진 소수서원의 강학 내용을 엮어 놓은 것이다.
- 居齋錄 :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1780~1793년까지 소수서원의 교육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 居齋雜錄 :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1761~1780년까지 소수서원의 교육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 紹修書院院錄謄本 : 도산서원 고문서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서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잡문서, 서원 입원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책판 현황

소수서원에서 제작되었던 책판의 경우 현재 소수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모두 4종이 전해지고 있는데, 4종 모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331호로 지정되었다. 2011년에 조사된 『도지정 동산문화재(전적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竹溪誌』 117장, 『追遠錄』 302장, 『六先生遺稿』 5장, 『家禮諺解』 4장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도지정 동산문화재(전적류) 실태조사 보고서』, 2011)

○ 현판 현황

소수서원의 현판들도 책판과 함께 현재 소수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먼저 건물관련 편액으로는 ‘白雲洞’, ‘文成公廟’, ‘日新齋’, ‘直方齋’, ‘學求齋’, ‘至樂齋’, ‘景濂亭’(1), ‘景濂亭’(2), ‘鳳棲樓’, ‘迎鳳樓’, ‘文宣王影幀室’, ‘儒道教育館’, ‘遺物館’ 등 13점이 있으며, 名言·名句 관련 편액으로는 ‘學求聖賢’(1), ‘學求聖賢’(2), ‘學求聖賢’(3), ‘鳶飛魚躍’(1), ‘鳶飛魚躍’(2), ‘鼎山幽居’, ‘仁者無敵’, ‘雙坪’, ‘承家輔國’ 등 9점이 있다.

그 외 記文에 해당되는 것은 ‘白雲洞紹修書院記’, ‘白雲洞安文成公祠堂記’, ‘鳳棲樓重營

記'(1), '鳳棲樓重營記'(2), '紹修書院童蒙齋重建記', '紹修廟宇重修記' 등 6점이 있으며, '白雲書院榜', '學規', '白雲洞書院令' 등 公用文 3점과 '文成公享祀執事'도 보관되어 있다.

○ 소수서원 소장 자료의 가치

-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이었던 만큼 그 운영에 있어서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수서원 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의 내용은 우리나라 서원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유실이 심해 인근 주요 서원보다 자료는 적지만, 소장 자료의 의미와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소수서원 소장 자료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성책류이다. 소수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맞물려 서원 연구에 있어 이 자료들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紹修書院謄錄』을 비롯해 각종 雜錄은 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여러 문서들을 엮어 놓은 것이다. 서원이 건립되고 사액되기까지의 운영 양상, 서원 운영의 기본 규정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들 규정은 소수서원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지역의 서원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 것들이기에 특히 주목할 만하다.

- 서원의 일차적인 운영 목적이 교육에 있음에도, 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다른 서원에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소수서원에서 작성된 『入院錄』과 『居齋錄』 등의 성책류는 실재 서원에서 원생들을 선발하는 방법, 교육과 관련된 각종 운영 규정을 파악하는데 가치 있는 자료가 된다.

- 소수서원도 출판의 기능을 소화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책판은 4종 밖에 없으나 그 중에서는 회소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竹溪誌』 책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지 책판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추원록』 책판은 현재까지의 고서목록들에서 찾아 볼 수 없으며, 그 印本이 없는 판목인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5. 향후 활용의 과제

이상으로 소수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성격과 가치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소수서원은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으로 의미 있는 자료가 많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리의 소홀로 20세기 이후에는 적지 않은 자료가 유실된 상태이다. 비록 그 중에서도 유출된 자료가 일찍 공개되어 자료를 활용한 의미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분산된 자료의 종합과 발굴은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1) 자료의 발굴

소수서원이 소장하고 있었던 자료는 대부분 소수박물관에 기탁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국학진흥원, 계명대학교 동산박물관 등에 소장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기에 소개가 되었고, 그 중 일부는 간행되어 연구자와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부로 유출된 자료의 규모나 소장처는 아직도 불분

명하다. 고서의 경우 유출된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나, 작성처를 알 수 있는 고문서와 성책류 등에 대해서는 자료의 발굴과 소장처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紹修書院誌』(2007)가 고문서와 성책류를 현 소장처 별로 명기하고 목록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사업과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큰 역사적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시대 교육사적 의미도 매우 크다. 이러한 역사·문화적 성격이 반영된 학술세미나와 정기적인 학술회의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서원을 건립한 본연의 정신을 밝히고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아카이브 구축과 자료의 DB화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의 유실로 소수서원이 보유하고 있던 고문서와 성책류 등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남아 있는 자료들이 비록 몇몇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재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현재 소개된 자료들에 대한 DB화를 이루고 이를 여러 연구자와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소수서원은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며, 조선시대 유교교육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징성을 높이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소수서원의 경우 인근에 선비촌이 구성되어 있어 이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매우 용이한 편이다.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전통 교육의 체험 : 예절 교실, 한문 교육, 전통 의례 교육 등
- 전통 문화의 경연장 : 서예 대회, 전통 놀이 대회의 개최 등
- 기타 전통 문화의 체험장 : 다도, 과거시험 재현, 국궁, 농악 등

남계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 현황 · 과제

백 지 국

(영남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1. 咸陽 濫溪書院⁷⁴⁾의 연혁⁷⁵⁾

濫溪書院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남계서원길 8-11)에 위치하고 있다. 一蠹 鄭汝昌(1450-1504) · 桐溪 鄭蘊(1569-1641) · 介庵 姜翼(1523-1567)을 배향한 서원이다.

남계서원은 정여창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지방민의 유학교육을 위해 1552년(명종 7)에 강익이 주창하고 지방유림과 및 함양군수 등 官의 협조 하에 건립되었다. 1559년(명종 14) 대부분의 건물이 완성되었고, 1561년(명종 16)에 사우의 완성과 함께 봉안하였다.

1566년(명종 21) <濫溪>의 편액을 받아 사액서원으로 승격 되어 공인과 책 등 경제적 지원을 받으나⁷⁶⁾ 정유재란(1597년)으로 서원의 건물이 모두 소실되었다. 6년 뒤 1603년(선조 36) 羅村으로 옮겨 지었다가 1612년(광해 4) 옛 터인 현재의 위치에 중건하였다.

1634년(인조 12) 別祠를 건립하여 강익을 제향하고 1642년(인조 20) 유효인과 정운을 병향하였다. 정운과 강익은 1677년(숙종 3), 1689년(숙종 15)에 本祠로 올려 배향하였다. 1820년(순조 20)에는 정홍서를 별사에 제향하였다.

남계서원은 소수서원에 이어 조선시대 두 번째로 창건된 유서 깊은 서원으로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이 내려 졌을 때 훼손되지 않고 존속하였다.

남계서원서원의 건립과정과 초기 운영은 南冥 曹植의 문도들이 주도하였는데, 이는 南冥學派의 對社會活動의 첫 개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계서원의 창립을 주도했던 姜翼, 林薰, 吳健, 盧禎, 金字顯 등은 모두 남명의 핵심 문도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德川書院의 초기 원생으로 입록 된 鄭述, 河渾, 安熹, 文景虎, 鄭慶雲 등도 남계서원에도 동시에 입록된 인물들이다. 그들은 이 지역 유학자로서 명망이 높았던 정여창과 조식을 선배 혹은 선생으로 받들어 道統淵源을 삼는 동시에 사림세력의 결집하고 향촌사회 내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74) 서원의 공식명칭은 <咸陽濫溪書院>이나 이하 본문에서는 편의상 남계서원이라 표기한다.

75) 본장은 『고문서집성』 24(1995) · 『경남의 서원』 (구산우, 2008) 등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76) 『明宗實錄』 33卷, 21年, 6月 15日(甲戌) : 慶尙道觀察使姜士尙【不營產業 康素可取 然於國事 無特拔建明之稱】馳啓曰 咸陽居進士姜翼等三十餘人狀告曰 謹按 儒先鄭汝昌【成廟朝名儒也】乃吾鄉人也… 汝昌學行 不獨爲一鄉之儀表 足爲學士之矜式 故褒贈之典 特隆於先朝 而士子之景慕 蔚起於今日 實出於人心之同好 而不能已也 若不上達朝廷 賜額崇獎 則終爲一邑青衿之私設 揆諸事理 反爲未安 而難於永久 今方追孝繼述之日 倘賜旌額 廣布恩典 則庶幾上以成先王之美意 下以助風化之鼓舞矣 上下其議于禮曹 禮曹請賜額賜書, 以示獎勉 上從之 賜號曰 濫溪書院(禮) 【濫溪院傍水名】

이밖에 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 정여창의 본손인 하동정씨를 비롯하여 풍천노씨, 진주정씨, 나주임씨, 동래정씨, 남원양씨 등이 있다. 남계서원의 원장은 영남우도의 명망유림 중에서 선출되었으나 무신난 이후에는 중앙 노론계 학자와 관직자 중에서 선출되었다.

한편 남계서원 경내의 건물로는 祠宇・典祀廳・明誠堂・養正齋・輔仁齋・愛蓮軒・詠梅軒・風咏樓・廟庭碑閣・庫直舍 등이 있다. 1974년 2월 16일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 보호되다가 2009년 5월 26일 사적 제499호로 승격되었다.

2. 소장자료의 전래⁷⁷⁾

1) 서원은 도서를 보관하고 간행하는 도서관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남계서원도 건립 초기부터 서적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원장인 강익은 유사를 임명하여 책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서를 늘여갔다.

2) 남계서원의 「서원보부록」에는 기증, 院備, 內賜 등의 방법으로 서적을 마련한 방법과 서책의 목록, 권수가 기재되어 있다. 정유재란으로 소실되기 전까지 소장한 서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마련방법	기증자	서명과 책수
(기증)	경상감사, 충청감사, 도사, 밀양부사, 함양군수, 담양군수, 장성현감, 나주목사, 都事, 상주목사, 진주목사, ○○현령, 찰방, 正字, 典籍 등 23인(실인원 19인)	주자어류, 주자대전, 예기, 언행록, 史略, 심경, 좌전, 이락연원록, 맹호연집, 통감, 통감소전, 당감, 성리자의
(기증)	유학 정업 등 함양사림 25인	춘추, 근사록, 송감, 논어, 주자대전, 격양집
院備		시전, 가례, 주자실기, 주자서절요, 속홍야매잠, 추강집, 황명명신언행록, 속몽구
內賜	(사액 받을 때)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추가?)	주자대전, 주자어류, 先儒錄, 精忠錄, 언해소학
		이상(千秩)

<표>에서 보듯 기증은 지방관과 중앙의 관료, 함양의 사림들이었고, 사액을 내릴 때 교육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나라에서 내려준 내사본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서원에서 돈을 마련하여 구입한 서책들이었다. 특히 지방관들이 기증한 책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나 고을 수령이 순행이나 부임 인사로 서원에 들러 알묘하면서 책을 기부하였고, 서원에

77) 이하의 내용은 「경상남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남명학연구』 26(윤희면, 2008)을 정리한 것이다.

모셔진 선현의 후손이나 외손 등 혈연 관련이 있는 고을 수령들이 책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지방관이 보낸 책은 자기의 책일 경우도 있고, 현직에 있을 때 관권을 이용하여 간행한 책인 경우도 있고, 또한 예전에 고을에서 간행해서 관아에 보관하고 있는 책을 보냈을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⁷⁸⁾

3) 서적의 종류는 논어, 시경 등 경전류, 근사록, 주자대전, 주자어류 등 성리서류, 사략, 통감, 춘추 등 역사서, 그리고 문집류 등이었다. 서원도서가 경서류, 문집류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서의 편파성, 편당성, 학문 경향의 침체성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이는 유교사회인 조선 시대에 양반들의 학문 경향과 사회 지향을 보여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4) 남계서원의 도서들은 정유재란 때 왜군들의 분탕질로 모두 약탈되거나 불타버렸다. 심지어 내사 받은 서적도 분실할 정도였다.⁷⁹⁾ 전란 뒤에 도서 확보에 노력을 하여 향교의 서적을 옮겨오기도 하고, 지방관의 기증, 사림들의 회사, 서원에서의 구입 등의 방법으로 도서를 확보해 나갔다. 그리고 종이를 구입하다가 판본이 있는 전라도 고을에 보내 책을 찍어오기도 하였다.⁸⁰⁾

5) 남계서원에서는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서적관리에 유의하여 습기 찬 책들을 햇볕에 내어 쬌어는 曝書를 하기도 하였고⁸¹⁾, 간혹 도서를 간행하기도 하고⁸²⁾ 간행한 목판을 보관하는 장판각도 갖추고 있었다.

3. 소장자료 조사 현황 및 발간

1) 남계서원은 경남지역 내 중요한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 서원 중 하나이다. 남계서원에 대한 대표적인 조사는 다음과 같다.

2) 1969년 국회도서관에서는 당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서원 소장 도서의 목록을 조사하여 『李朝書院文庫目錄 : 李朝書院文庫目錄考』를 간행하였다. 성균관대학의 이춘희 교수가 전국을 실지 답사해 가며 조사·정리한 것이다. 대원군의 서원철폐 당시 전국에 남겨둔 47곳의 서원 중 1969년까지 대한민국에 존속하고 있는 서원은 모두 36곳이었다. 이 중 강원도의 褒忠祠와 忠烈書院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실재 현존 서원 수는 34곳 이었다. 지방별로 보면 경상도가 14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기도 11곳, 충청도 5곳, 전라도 3곳, 강원도 3

78)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기능 연구」 『역사학보』 186, 2005

79) 정경운, 『고대일록』 권2 을미(선조 28년) 8월 28일

80) 『남계서원지』 서원보부록(『고문서집성』 24, 282쪽)

81) 『고대일록』 권2 을미(선조 28년) 7월 10일

82) 『개암집』 卷記에 “介庵先生文集 卷下終 崇禎甲申後丙寅仲春日 咸陽 藍溪書院 開刊”이라 하여 숙종 12년(1686년)에 강익의 문집을 간행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32, 2005.

곳 순이다. 34곳의 서원중 실지 답사하여 서책의 유무를 확인한 곳은 17곳, 서신에 의해 확인 한 곳은 서원이 4곳으로 총 21곳의 서원에서 藏書를 보유하고 있었다. n가로

남계서원의 경우 59種 317冊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목록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해주는 『李朝書院文庫目錄：李朝書院文庫目錄考』의 원문D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최근 남계서원 소장 자료에 대해 조사한 것 중 가장 상세한 것은 2005년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것이다. 당시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는 경상남도 10개시·군의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44곳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마산시·밀양시·산청군·양산시·진해시·창녕군·창원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 1·2와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책판목록』 3 총 3종의 조사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계서원에는 『寒州先生文集』·『桐溪先生文集』·『松灘集』 등 여러 학자들의 문집류를 포함한 고서류가 147건, 각종 장부와 통문, 간찰 등의 고문서가 717건, 현판을 포함한 민속·유물자료가 5건, 『일두선생문집(一蠹先生文集)』·『개암선생문집(介庵先生文集)』 책판 377건이 소장되어 있다. 희귀한 자료가 많은 것은 아니고 주로 근현대에 만들어진 자료가 많다.

3) 광복이후 남계서원 소장 자료 발간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서 명	저작자	발행자	발행일
1	濫溪書院尊衛錄	濫溪書院 編	濫溪書院	1962
2	咸陽濫溪書院尊衛錄	濫溪書院 編	濫溪書院	1962
3	濫溪書院誌	濫溪書院 編	濫溪書院	1962
4	李朝書院文庫目錄 ：李朝書院文庫目錄考	李春熙 編	國會圖書館	1969
5	古文書集成. 24：남계서원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輯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6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1·2·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문화재청	2005
7	古文書集成. 77-91, 93-98	-	韓國學中央研究院	2005-2010

4. 소장자료 종류

□ 문화재 지정 기록자료

- 『일두선생문집(一蠹先生文集)』 책판

소재지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남계서원길 8-11)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166호 (1979.12.29)
수량 / 면적	368매
소유 및 관리	남계서원

- 『개암선생문집(介庵先生文集)』 책판

소재지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남계서원길 8-11)
지정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1979년 12월 29일)
수량 / 면적	186매
소유 및 관리	남계서원

□ 이밖에 남계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서·고문서 자료를 유형 및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83)

1) 서원의 조직·운영 관계자료

서원의 조직·운영 관계자료는 남계서원지(藍溪書院誌)를 비롯하여 경임안(經任案)·원생록(院生錄)·원록(院錄)·부보록(褒寶錄⁸⁴⁾), 그리고 이들 단회성(單回性) 기록을 종합한 존위록(尊衛錄) 등이 있다.

① 『남계서원지(藍溪書院誌)』 ;

- 필사본으로 남계서원 건립연혁, 배향인물 등 사적(事蹟)을 기록하고 있다.
- 일제시대 서적간행에 대한 검열이 심할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치안담당관의 「출판허가(出版許可)」의 검인이 찍혀있으며 내용 중간에 검열한 흔적이 엿보인다. 일본의 출판문에 대한 검열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 범례에 의하면 원지는 1875년(乙亥)에 처음 만들어 졌으며, 남계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두번째로 편찬된 것이다.
- 내용은 권 1·2(一·二)로 나누어져 있다. 권 1에는 지명연혁·서원사적, 권 2에는 별묘사적(別廟事蹟)·선생사실절략(先生事實節略)·뇌계선생사실절략(潘溪先生史實節略)·개암선생년보절략(介庵先生年譜節略)·동계선생년보절략(桐溪先生年譜節略)·송탄선생사실절략(松灘先生事實節略) 등이 실려 있다.
- 남계서원에서는 이상의 『남계서원지』 외에 2종의 남계서원지를 소장하고 있다.

※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남계서원지』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藍溪書院誌』 (등록번호 : a44013242;y01)
- 남명학교문헌시스템 소장 『藍溪書院誌』 (소장번호)

② 經任案類 : 經任案은 院任案 또는 院任錄이라고도 하며 院長·有司·典穀有司 등 서

83) 이하의 내용은 2005년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 : 마산시·밀양시·산청군·양산시·진해시·창녕군·창원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 1·2·3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84) 부보록은 치부기록(置簿記錄類)에 포함될 성질의 문서이나 서원운영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남계서원에서 존위록을 편찬하면서도 경임안·원록·부보록을 하나의 연결되는 문건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함께 조직·운영 관계문서로 파악하였다.

원 임원을 지낸 인물들의 명단으로 서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인물들이 실려 있다. 경임안은 成冊된 분량만큼 명단을 追記하다가 문서가 마멸, 혹은 훼손이 있을 경우 다시 別冊을 正書하였다. 1612년(광해 壬子)~1682년(숙종 壬戌) 71년간의 경임안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전란으로 인해 이때의 기록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③ 院錄類 : 院錄은 院生錄·入院錄·書院儒生案이라고도 하는데 서원에 入籍한 인물들의 명단이다. 초기의 원록을 보면 정구에 하응도·박이장·하혼안도·문경호·정경운 등 南冥의 핵심 문도들이 망라되어 있어 남계서원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④ 哀寶錄類 : 哀寶錄의 용도와 그 모금 경위에 대해서는 1565년(명종 20) 강익의 43세때의 연보에 비교적 자세히 밝혀져 있다.⁸⁵⁾ 「哀寶」란 서원운영을 위해 서책과 재물을 모으는 뜻으로 부보록은 일종의 기부금 장부라 할 수 있다. 부보록에는 「加寶」란에 그 명단 및 기부금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부보한 내역을 살펴보면 벼, 콩, 書籍, 奴婢, 魚物, 鹽, 종이 등 다양하였다. 남계서원에 있어서 부보의 관행은 서원의 경제적 측면, 그리고 교육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⑤ 尊衛錄類 : 남계서원의 역대 사적 중 원생안(원록)·경임안·부보록 3편을 각각 정리하여 묶은 책이다. 존위록은 「朝野縉紳」 및 嶺南名門 태반이 입록되어 있는 서원의 400년 事蹟 보존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존위록은 1961년(辛丑) 겨울에 院議로써 간행에 착수하여 1962년(壬寅) 가을에 완성, 배포하였다. 편찬은 각 문중별로 정단을 통해 이를 편집, 간행하였다.

존위록은 모두 4종류가 있는데 먼저 제출한 單子를 편차를 거쳐 편집한 草稿本,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정서한 抄本(本書 掲載), 그리고 이것을 활자로 찍은 인쇄본이 있다. 跋文에서도 밝혀 두었듯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웅만한 인물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⑥ 參祭錄類 : 參祭錄은 서원의 春秋祭享 때 獻官·大祝·執禮·判陳·執事·學生 등 職任을 맡은 사람을 기록한 명단이다.

2) 각종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

각종 置簿記錄類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量案에 기재된 남계서원 소유 전답의 내역을 기록한 문서 2건(藍溪書院田畝量按謄書·藍溪書院田畝量案)과 일제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藍溪書院田畝量案) 1건이 있다.

1910년대 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70여 년 간의 秋收記가 있다. 토지 소재지·斗落·소작

85) “書院에 學徒들이 모여 講業하고자 했으나 書籍이 없고 財穀이 많지 않았다. 先生(姜翼)이 人才를 기를 수 없음을 걱정하여 徒庵 盧祿를 書冊을 마련하는 책임을 맡게 하고, 竹庵 梁弘澤으로 하여금 財寶을 모으는 책임을 맡겼다. 始終 協力하여 마침내 이일을 成就하니 서적이 모두 一〇〇여 질이 되었고, 財穀이 선비를 供養하기에 남음이 있었다. 선생이 이에 玉溪 盧禎, 九拙 梁喜 두 선생과 상의하여 서원의 財穀을 境內의 書堂 및 洞內에 나누어 주어 이것으로써 그들의 婚姻과 喪禮, 그리고 春秋講信禮를 행하는데 보태게 했다. 마침내 이것이 一鄉의 定式이 되었다. 院中學徒 交集講業 而書籍無存 財穀不多 先生大懼無以養育人才 以盧徒庵祿 掌備書之任 以梁竹庵弘澤 典哀寶之責 終始協心 克有成就 書秩百餘卷 財穀有裕於供士 先生乃與玉溪九拙兩先生定議分院財 各授境內書堂及洞內 使之各助其昏喪 而春秋講信禮 遂爲一鄉定式”(『介庵集』 下, 〈年譜〉 韓國文集叢刊(民族文化推進會) 三八, p. 二二一.)

인·소작료 등을 차례로 기재하였다. 소작료 액수를 제외한다면 量案의 작성 방식과 유사하다. 토지는 주로 함양 인근에 분포되어 있다. 일제시대를 전후한 시기의 추수기가 연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에 관한 사례 연구 자료로 활용가치가 높다.

3) 其他文書로 濫溪書院完文·濫溪書院門樓上櫟文·上櫟時執事錄·風咏樓重修記·景一齋記·濫溪書院春秋享禮儀節·院規·小作契約書·書院建置圖·蓮桂案·咸陽鄉案 등이 있다.

4) 이밖에 「한국고전종합DB」(한국고전번역원) 및 『영남문집해제』(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에 수록된 남계서원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 姜翼, 『介庵集』 上, 初建濫溪書院. 「濫溪書院記」 下 附錄, 「濫溪書院奉安時告文」.
- 盧相稷, 『小訥集』, 卷17, 「濫溪書院諸公」.
- 盧禎, 『玉溪集』, 卷2, 「濫溪書院春秋享祭」.
- 宋啓欽, 『湖隱集』, 卷1, 「濫溪書院士林」.
- 鄭汝昌, 『一蠹集』 一蠹先生遺集, 卷3, 附錄. 「濫溪書院春秋享祝文」, 「濫溪書院廟庭碑」, 「濫溪書院請額啓」·「濫溪書院記」.
- 趙南琥, 『畏庵漫錄』, 卷1, 「濫溪書院僉座」.
- 李滉, 『退溪集』 退溪先生文集攷證 卷3, 第四卷詩 「濫溪書院」.

5. 향후활용과제

1) 학술적 활용 방안 : 서원 소장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일록류 혹은 관찬자료들이 보여주지 못한 당대의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서원소장 자료를 통해 다양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는 사정이지만 남계서원의 경우 아직까지 학계의 연구 성과는 적은 편이다. 남계서원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노재현, 2009, 「치(置)와 화(和)의 개념으로 분석한 남계서원의 경관짜임」 『韓國造景學會誌』 37. 韓國造景學會.
- 박기용, 2004, 「교육 : 전통교육의 현장을 찾아서 ; 도학적 이상세계를 회구한 정여창-남계서원 편」 『선비문화』 2, 남명학연구원.
- 송준식, 2003, 「남명학파의 서원건립운동」 『남명학연구』 15, 남명학회.
- 윤상기, 2005, 「경남 함양군의 서원 판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32, 서지학회.
- 윤희면, 2008, 「경상남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남명학연구』 26, 남명학회.
- 이정희, 1984, 「16·17세기 함양지역 재지사족의 동향」 『이화여대사학』 2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 정기철, 2000, 「남계서원의 건축사적 의미」 『동양예술』 1, 한국동양예술학회.

역사·건축 등의 분야에서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함양 지역사회와 조선시대에 향촌사회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계서원 소장 자료를 활용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남계서원 소장 자료의 발간사업은 다른 서원에 비해 부진한 편이다. 지속적인 조사·정리 작업을 통해 書院誌등 소장 자료에 대한 발간사업이 요구된다.

2) 교육 및 전시 : 조선시대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향촌사회 교화와 여론의 형성에도 지식의 전달을 위해 서적을 출판하고 문고를 두어 서책과 문헌을 보존하여온 도서관적 기능도 담당하였다. 서원의 사고는 우리나라 도서 및 인쇄, 서적의 集散 보존 등 출판문화와 도서관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우리나라 도서관의 역사를 비롯하여 출판·인쇄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장으로서 서원사고는 그 활용가치가 높다.

한편, 남계서원의 경우 소장 자료를 보관 할 뿐 따로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원 소장자료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료이다. 전시장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남계서원 소장 자료를 공개·전시함으로써 방문객들에 건축물 외에 고문서에 남겨진 조선시대 함양인들의 삶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전시장을 통한 관광효과도 기대된다.

3) 원문 DB작업 : 현재 남계서원 소장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국사편찬위원회·남명학 고문헌시스템·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중 한국고문서 자료관에서 제공되는 이미지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서명	발행일	소장처
1	1552~1687년 濫溪書院經任案	1552	남계서원
2	1552~1913년 哀寶錄	1552	남계서원
3	1552년경~1705년 經任案	미상	남계서원
4	1552년경~1705년 經任案	미상	남계서원
5	1555~1559년 乙卯年書院哀寶錄	1555	남계서원
6	1651, 1658, 1671년 院錄	1651	남계서원
7	1733~1737년 濫溪書院田畓量案謄書	1733	남계서원
8	1740년 咸陽郡 濫溪書院田畓量案	1740	남계서원
9	1777~1795년 經任案	1777	남계서원
10	1795~1852년 經任案	1795	남계서원
11	1843년 濫溪書院完文	1843	남계서원
12	1846~1886년 參祭錄	1846	남계서원
13	1849년 上樑時執事錄	1849	남계서원
14	1849년 河龍圖 濫溪書院門樓上樑文	1849	남계서원
15	1881년 張時杓 京一齋記	1881	남계서원

16	1886~1917년 經任案	1886	남계서원
17	1888~1910년 參祭錄	1888	남계서원
18	1910년(?) 蘆溪書院田畵案	1910	남계서원
19	1911년 辛亥秋捧記	1911	남계서원
20	1915년 乙卯院畵秋收記	1915	남계서원
21	1917~1993년 經任案)	1917	남계서원
22	1919년 己未秋捧記	1919	남계서원
23	1920~1930년 蘆溪書院地稅分排收斂	1920	남계서원
24	1922년 壬戌年院畵秋收記	1922	남계서원
25	1923년 院規	1923	남계서원
26	1923년 鄭在輦 小作契約書	1923	남계서원
27	1924년 秋收記	1924	남계서원
28	1928년 許吉五 小作契約書	1928	남계서원
29	1930년 蘆院地稅半額收納冊	1930	남계서원
30	1931년 地稅收捧冊	1931	남계서원
31	1933년 金錫九 蓮桂案	1933	남계서원
32	1933년 地稅收捧冊	1933	남계서원
33	1935년 蘆溪書院誌	1935	남계서원
34	1940년 閔丙承 風詠樓重修記	1940	남계서원
35	1941년 辛巳年度蘆溪書院秋收記	1941	남계서원
36	1942년 昭和十七年度秋收記	1942	남계서원
37	1962년 經任案正單	1962	남계서원
38	1962년 院錄	1962	남계서원
39	1962년 鄭淳永 哀寶錄正單	1962	남계서원
40	1969년 咸陽鄉案	1969	남계서원
41	蘆溪書院春秋享禮儀節	미상	남계서원
42	書院建置圖	미상	남계서원

한편 한국고문서 자료센터에서는 소장처별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함양 남계서원 및 남계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유물과 유적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해도를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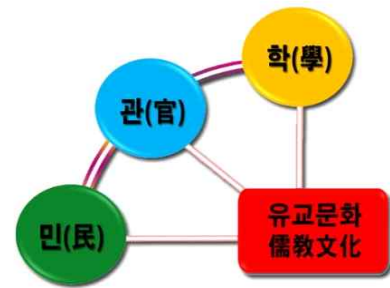
원문제공 서비스는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장 자료의 일부분만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원문 이미지 제공 사이트 역시 각각 운영되는 탓에 자료의 중복 및 남계서원의 어떠한 자료가 웹상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목록 또한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4) 경남 유교문화의 허브(hub) 남계서원

서원을 비롯한 유교문화산업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하지만 경남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경북에 비하여 유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남계서원

을 중심으로 지역 내 혹은 인접한 타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들을 활발한 상호교류·협력을 통한 산업적·문화적·관광적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남계서원의 경우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이자 남명학 및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서 이 지역 유교문화 클러스터(cluster) 산업의 허브(hub)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



<남계서원의 경남유교문화 허브산업>은 경남 전체를 총괄 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민·관·학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계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는 남계서원 및 경남지역 유교문화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를 통한 DB구축·유교문화원형 개발·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남계서원 및 지역 주민 역시 지자체 및 대학 등의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지원을 하며 서원을 비롯한 지역의 유교문화 현황조사·자료조사·다른 주민의 참여 유도 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옥산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 현황 · 과제

이 병 훈

(영남대 국사학과 강사)

1. 옥산서원의 연혁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번지(구: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 옥산서원)에 위치하고 있는 玉山書院은, 대원군의 서원 궤철시에도 존속한 47개 서원 중 하나로 도산서원과 더불어 영남지역의 首院 역할을 해왔다.

옥산서원은 회재 이언적의 학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1572년에 회재의 평소 藏修之地였던 紫玉山 아래에 서원을 건립하게 되었다. 이곳은 회재가 別業을 짓고 학문에 힘썼던 곳으로서 회재 사후 내외손, 향촌사림(權德麟 외 13인), 지방관(府尹 李齊閔, 朴承任)의 상호 협조 하에 건립되었다. 이때 경주부윤 이제민은 서원 인근의 定惠寺와 斗德寺 및 沙器, 水鐵, 冶鐵 各店을 서원에 소속시켜 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573년 2월 서악서원에 봉안되어 있던 회재의 위판을 이안하고, 같은 해 12월 監司 金繼輝의 啓達로 賜額을 받았다. 또한 주향자인 회재가 1610년 東方5賢의 한 분으로 文廟에 종사되자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옥산서원은 엄격한 기준으로 유생을 선발하여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경주지역 유림들의 공부를 위한 도서관적 역할 및 유생교육 교재·문집 등 서적을 직접 출판하기도 하여 지방출판문화의 중심지로서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1577년과 1590년에 四書六經과 性理書을 宣賜받음으로써 가능하였다. 또한 서원 측에서는 서책출판을 담당하는 刊所를 별도로 설치·운영하였다.

옥산서원은 경주유림들의 근거지로서 유생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등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별, 집단적 정치·사회적 활동에 구체적인 물질적 지원을 담당하기도 했다. 즉, 옥산서원은 동서·남북 분당이후 이언적이 이황과 함께 남인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으면서 퇴계를 배향하는 도산서원과 함께 영남남인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인식되었다.

옥산서원은 1967년 사적 제154호로 지정 되었으며, 서원에 보관 중인 『三國史記』(9책)는 보물 제525호로 지정되었다. 주변에는 회재의 별장이자 서재였던 獨樂堂(보물 제413호)과 屬寺였던 정혜사의 터가 남아있는데, 독락당 어서각의 『續大學或問』(1책)·『李彥迪 手稿本一括』(13책)은 보물 제586호로 지정되어 있다.

옥산서원은 공부하는 장소인 求仁堂이 앞에 있고, 제사를 지내는 體仁廟가 뒤에 위치한 前學後廟의 형식이다. 체인묘는 앞면 3칸·옆면 2칸으로, 지붕 옆면이 人자 모양을 하고 있는 맞배집이다. 안에는 이언적의 위패를 모셔 놓았다. 구인당은 앞면 5칸·옆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1839년에 화재로 사라졌다가 다시 지어진 건물로 ‘玉山書院’ 현판은 이산해와 김정희가

각기 썼다. 그 외에도 정문인 亦樂門을 지나면, 2층 누각인 無邊樓가 나오는데 그 현판은 한호가 쓴 것이다.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서재인 敏求齋와 闇修齋가 있다. 강당과 묘우사 사이에는 회재의 神道碑(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6-1호)가 있는 비각이 있으며, 이외에도 經閣(御書閣), 文集版閣, 典祀廳, 庫直舍, 庖舍, 마구간 등의 건물이 있다. 서원 동남쪽에 1972년 후손들이 세운 유물전시관인 ‘淸芬閣’이 있었지만, 2010년에 <玉山書院遺物展示館>을 지으면서 헐어버리고 모든 유물을 신축한 유물전시관에 보관하고 있다.

2. 소장 자료의 전래와 현황

1) 옥산서원은 도산서원과 더불어 현재까지 가장 많은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서원 중 하나이다. 1862년 5월에 작성한 『書冊現在都錄』의 完文에는 서원 서책을 ‘院門外不出’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것으로서 퇴계가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1862)에 이르러 도서의 분실이 잦은 까닭에 이 완문의 내용을 판각하여 經閣의 門楣에 달아 경계토록 하고, 任司가 열람한 날짜와 사람, 책명을 기록한 후(『丙午 4月 書冊借去錄』, 1책이 남아있음) 직접 돌려받고 혹 그 책을 잃어버리면 임사가 반드시 다른 것을 구하여 돌려놓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도서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썼기에 오늘날 많은 서적이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옥산서원에서는 經閣(御書閣)과 文集版閣, 定惠寺에 각기 서적, 문서와 목판(冊版, 詩板)을 구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1834년 屬寺였던 정혜사가 화재로 전소되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책판은 모두 옥산서원으로 옮겨졌다. 또한 회재의 별업이었던 독락당에는 이전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오면서 회재가 개인적으로 宣賜받은 서적과 그가 보던 手澤本, 후손이 수집한 서적 및 고문서, 19세기 이후 제작된 목판(『관서문답록』, 『잠계선생유고』 등)이 보관·전승되어 오고 있다. 독락당 소장 자료들 중 內賜本과 手澤本을 제외한 서적류는 1972년 淸芬閣을 지으면서 모두 옮겨왔으며, 옥산서원에서도 경각에 보관하던 전적과 고문서, 문집판각의 시판 및 기타 유물 등을 옮겨서 일괄 보관해 왔었다. 그런 가운데 유물의 훼손방지와 도난예방 및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2010년에 <옥산서원유물전시관>을 신축하여 현재, 서원 소장 전적과 고문서, 유물 및 목판(책판, 현판, 시판) 등을 최신 설비의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3) 옥산서원에는 (刊所)傳與記(46책), 書冊傳與記(1책), 書冊傳與都錄(2책), 書冊都錄(2책), (玉山書院)書冊記(3책), 書冊借去錄(1책), 獨樂堂 書冊都錄(1책, 甲寅 4월) 등과 같이 書名은 다르지만 任司의 인수인계나 포쇄시에 작성한 문건이 남아있다. 이 성책류들의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宣賜本과 古文書의 연대로 추정해보면, 18세기 중반이후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20세기 이전 옥산서원과 독락당에 소장되어 있던 전적, 고문서 및 유물 등을 파악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연도가 확인되는 1862년 5월의 『書冊都錄』을 보면,

당시에 宣陽本 20종 346책과 院備本 374종 2,199책 등 총 394종 2,545책이 확인된다. 또한 이들 서적과 문서는 다양한 크기의 櫃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문서의 경우 모든 기록이 일괄적이지는 않지만, 대개 대궐에는 『정서등록』과 노비·토지매매문서, 통문, 전답안, 노비추쇄안, 定惠寺 및 각 店所관련 문서 등 주로 서원의 재정(경제) 및 사회활동과 관련된 문건을 보관하고, 중궐에는 執事記, 笏記, 入院錄, 傳與記 등 서원 제향 및 임원, 인수인계 관련 문서를 보관하였다. 그 외의 명문, 완문, 관문, 통문, 추수기, 관문, 각종 회계록 등은 잡문서로 묶어 보관하였다. 또한 유사한 문건은 여러 장을 1권으로 묶어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한 문서의 수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서적은 책장에 보관하였는데 尋院錄, 書冊記, 攷往錄도 같이 관리하였으며, 내사본은 별도의 金櫃에 보관하고 있었다.

4) 옥산서원 고전적은 몇 가지 경로를 통해 조성되었다. 우선, 옥산서원이 사액될 때 나라에서 내린 ‘內賜本’이 있다. 이것이 옥산서원 전적의 기초가 되었다. 이후로도 1577년, 1590년 등 수시로 내사가 이루어졌다. 서원 소장 『서책도록』·『전여기』 등을 통해 확인되는 내사본은 『周易』·『詩傳』·『書傳』·『春秋』·『禮記』·『論語』·『御定春秋四傳』·『論語諺解』·『孟子大文』·『孟子俱解』·『中庸俱解』·『性理大全』·『朱子大全』·『鄉禮合編』·『國朝儒先錄』·『御定朱書百選』·『朱子語類』·『御定奎章全韻』·『御定五經百編』·『御製雅頌』·『御製大學續或問』 등이 있다. 둘째, 지방관아와 감영에서 도서를 간행하여 보낸 경우로서 관아에서 간행했거나 비축하고 있던 도서를 보낸 경우이다. 일례로 경주부에서는 『東萊先生音註唐鑑』을, 慶尙監營에서는 『書傳大全』·『二倫行實圖』·『孟子諺解』·『孟子集註大全』 등을 보내왔다. 셋째, 인근의 서원이나 문중에서 간행하여 보낸 경우이다. 『帝王曆年通攷』는 서악서원에서 인쇄하여 보낸 것으로 주기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많은 도서가 상호 교환 형식으로 기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향교나 사찰에서 기증한 것도 있었다. 개인이 기증한 도서로는 이언적이 內賜 받은 『二倫行實圖』·『埤雅』·『皇華集』 등이 서원 장서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외에는 대부분 문집이나 傳記類의 도서로서 후손들로부터 기증되었다. 넷째는 서원 자체의 판단에 의해 간행하거나 구입한 전적들이다. 구입도서는 주로 교육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小學, 四書五經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史書와 詩文의 도서가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체 간행본으로 『晦齋先生年譜』, 『晦齋先生集』, 『漢史列傳抄』, 『太極圖說』, 『續大學或問』, 『奉先雜儀』, 『中庸九經衍義』, 『金南窓所書元朝五箴及太極門辨』, 『晦齋所製退溪所書十六詠及元朝五箴』, 『求仁錄』, 『近思錄』, 『大學章句補遺』, 『太極書齋集辨誣錄』, 『晦齋年譜』와 19세기 이후 『無忝堂文集』, 『龜峯先生遺集』, 『蒙庵先生文集』, 『晦齋別集』 등을 간행하여 총 19종이 있다. 주로 성리서와 회재문집을 직접 간행하였는데, 19세기 이후부터는 후손들의 문집을 주로 간행하였다.

5) 『傳與記』 冊版帙에서는 작성 당시에 보관하고 있던 책판을 소개하고 있다. 『전여기』의 작성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책판의 출입이 언제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힘들지만 『東京雜記』(1670), 『鏤板考』(1796), 『金鰲勝覽』(1936)을 통해 그 대강은 확인할 수 있다.

옥산서원에서는 서적을 출판하기 위해 별도의 刊所를 두어 운영했는데, 간행에 사용한 책은 문집판각과 屬寺였던 정혜사에 나눠서 보관하였다. 1670년 정혜사에는 『九經衍義』·『求仁錄』·『金南窓所書元朝五箴及太極問辨』·『大學補遺』·『梅月堂四遊錄』·『奉先雜儀』·『櫟翁稗說』·『益齋集』·『抄漢書』·『太極圖說』·『韓濩所書赤壁賦』·『晦齋文集』·『晦齋所製退溪所書十六詠及元朝五箴』·『孝行錄』 등 14종의 책판이 있었다. 이중 경주부에서 간행한 『매월당사유록』, 『역옹패설』, 『적벽부』, 『효행록』, 『익재집』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1796년에는 옥산서원에 소장된 책판으로 『求仁錄』·『近思錄』·『大學章句補遺』·『奉先雜儀』·『中庸九經衍義』·『太極問辨』·『晦齋集』 등 7종이 확인된다. 1936년 『금오승람』에서는 1670년 정혜사 소장 책판 14종 외에 『東史纂要』, 『晦齋別集』 등이 새로 확인된다. 이중 『동사찬요』는 1609년 경주부에서 간행한 판본이며, 『회재별집』은 필사본으로 전해오던 것을 1934년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 『금오승람』에는 정혜사 소장 책판이 옥산서원으로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834년 정혜사가 화재로 전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옥산서원 소장된 각종 『전여기(도록)』 등에 보이는 책판을 모두 망라하면 『九經衍義』(345판), 『晦齋先生文集(舊)』(106판), 『晦齋先生文集(新)』(184판), 『大學章句補遺』(23판), 『近思錄』(126판), 『求仁錄』(77판), 『奉先雜儀』(223판), 『大元朝五箴』(81판), 『十六詠』(8판), 『太極問辨』, 『漢書』(77판) 책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東京誌』(97판), 『益齋集』(90판), 『櫟翁稗說』(33판), 『益齋畫像』, 『漢書板』(77판), 『孝行錄』(25판), 『心經』(73판) 등이 있었다. 이 중 『효행록』, 『심경』, 『익재집』, 『역옹패설』, 『익재화상』 등은 慶州府에서 판각한 것으로 정혜사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 改版을 위하여 잠시 옥산서원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附記되어 있다. 그러나 『동경지』는 입수 경로를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옥산서원에서 간행된 책판은 옥산서원과 정혜사 등에 分藏하고 있었으며, 인쇄내지 改版을 위하여 수시로 옮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부에서 간행한 일부 책판도 이 두 곳에 보관되기도 했는데, 정혜사 화재를 전후한 시기에 益齋와 관련된 책판은 양월의 구강서원으로 옮겨지고 옥산서원에는 화재와 관련된 책판만이 남게 되었다. 특히, 『회재집』은 1575년 경주부에서 初刊한 이래 1600년에 다시 重刊하였고, 이후 3刊(1624)부터 10刊(1926)까지는 옥산서원에서 간행하였다.

3. 자료조사 · 연구 현황과 기타 기록자료

1) 옥산서원 소장 자료는 크게 고서, 고문서(성책류 포함), 목판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서원의 교육과 출판(도서관) 및 행정(경제), 사회·정치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원 측에서는 일찍이 院規로서 소장 자료의 접근을 제한하고 傳與(掌)記, 都錄 등을 만들어 이를 전승, 관리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서원 측에서 중요시 한

것은 藏書와 서원 운영과 관련된 자료에 국한함으로써 그 외의 수많은 문서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중도에 망실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1980년대 들어 고문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이전까지 계속 되어왔으며, 이전까지의 서원 자료에 대한 정리(목록화)작업 또한 藏書(전적)가 우선시 되었다.

2) 옥산서원 자료에 외부의 조사는 1930년대 조선총독부에서 전국 문중 및 원사에 소장된 藏書를 파악한 것이 시초이다.(『朝鮮圖書解題』, 1932) 그러나 옥산서원의 藏書만을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한 것 아니었다. 이외에는 1920년에 일본인 松田甲이 옥산서원 등을 방문한 후 듣고 확인한 것을 간략히 서술한 것이 있다. 당시 옥산서원에는 내사본으로 『詩傳』(20책:2질), 『書傳』(15책), 『春秋』(10책), 『禮記』(15책), 『禮記』(10책), 『御定春秋四傳』(27책), 『論語』(14책:2질), 『論語講解』(4책), 『孟子大全』(4책), 『孟子俱解』(4책), 『中庸俱解』(4책:2질), 『大學俱解』(4책:2질), 『性理大全』(25책), 『朱子大全』(95책), 『御定朱書百選』(3책), 『朱子語類』(75책), 『五經百編』(5책), 『鄉禮合編』(2책), 『國朝儒先錄』(4책), 『御定奎章全韻』(1책) 등 총 20종 341책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장서도 많아서 앞의 내사본과 합하여 약 330종 2,197책이 있다고 했다.

- 松田甲, 「경주의 玉山書院」 『韓日關係史研究』, 1920.
- 조선총독부, 『조선도서해제』, 조선통신사, 1932.

3) 옥산서원 장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69년 이춘희 등이 陶山, 玉山, 紹修, 屏山書院을 현지 조사하여 『李朝書院文庫目錄』(국회도서관, 1969)으로 간행한 것이 시초이다. 이들이 조사할 당시의 옥산서원 장서는 御書閣(經閣)(503종 2,847책)과 獨樂堂(363종 1,264책) 두 곳에 分藏되어 있었는데, 두 곳의 藏書는 모두 866종 4,111책이었다. 특히, 독락당은 회재의 개인 서재였던 만큼 회재에게 하사된 내사본을 위시하여 그의 眞蹟과 手澤本들이 많이 있었다. 실제, 鑄字本은 모두 40종 730책이 있었으며, 이중 1513년 乙亥字로 간행된 『正德癸酉 司馬榜目』(보물 제524-1호)은 현존 사마방목으로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다. 반면, 옥산서원 장서각(경각)에는 약 60%정도가 문집류이며, 내사본인 『주자대전』, 『주자어류』 등의 거질본들이 낙질없이 보존되어 있었다. 이러한 옥산서원 장서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경주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을 파악하면서 부수적으로 진행되거나, 특정 판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국회도서관, 1969.
- 문화재관리국,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1, 1986.
- 박장승, 「경주소재 서원·사에서 간행한 전적고」 『신라문화』 19, 2001.
- 김건우, 「〈관서문답록〉의 간행과정과 훼손사비」 『장서각』 14, 2005.
-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지역의 목판자료(3)』, 2007.
- 남권희, 「조선시대 경주 간행의 서적」 『신라문화』 33, 2009.
- 윤상기, 「경주 옥산서원판본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활동』, 청주고인쇄박물관, 2009.

4) 옥산서원 書院誌 편찬은 1993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玉山書院誌』가 있다. 이 책에서는 古書籍을 제외한 필사원본(성책고문서)류와 고문서들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그 연구편에서 서원소장 고문서류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해 놓았다. 이를 보면, 성책고문서는 攷往錄, 尋院錄, 奴婢案, 都錄類 등을 합쳐 총 691책이 있으며, 특히 경제관련 성책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문서는 通文, 書目, 明文 등을 합쳐 총 653건인데, 이중 통문이 211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回文(83건), 祭需單子(77건)와 所志(23건)의 순이었다. 옥산서원 고문서를 활용하여 서원운영, 경제적 기반, 사회·정치적 기능 등을 연구한 것은 다음이 있다.

- 이수건, 『경북지방고문서집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 이수환, 「서원의 정치·사회사적 고찰」 『교남사학』 창간호, 1985.
- 이수환, 「조선후기의 서원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32, 1992.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 이수환, 「회재 이언적과 옥산서원」 『경주사학』 16, 1997.
- 손병규,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 16, 1999.
- 이수환, 「18-19세기 경주 옥산서원 원입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고문서연구』 16·17, 2000.
- 손병규,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 17, 2000.
-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2.
- 이주연, 『조선후기 서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고찰 :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손병규,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후기시대사학보』 35, 2005.
- 오경후, 「조선후기 경주지역 寺院의 수적 추이와 성격」 『신라문화』, 2007.
- 이수환, 「이언적 문학의 창작현장과 유적」 『대동한문학』 29, 2008.
- 이수환, 「경주지역 손이시비의 진말」 『민족문화논총』 42, 2009.
- 정기숙, 「조선후기 서원의 회계제도와 경영」 『한국 전통회계와 내부통제시스템』 1, 민속원, 2011.

5) 옥산서원 자료와 더불어 빠트릴 수 없는 것이 회재 후손가의 전승 文籍이다. 대표적으로 독락당과 양동마을 내 소장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회재의 별업이었던 독락당은 그의 아들 李全仁에게 상속되어 오늘날까지 후손들이 잘 관리해 왔기에 수많은 장서와 고문서가 남아있다. 이들 자료는 1972년 청분각을 지으면서 회재 수택본과 내사본, 고문서, 목판(『關西問答錄』(1811, 25판), 『潛溪李先生遺稿』(1847, 33판))을 제외한 기타 藏書들이 옥산서원으로 이전되었다. 독락당 소장 고문서는 『영남고문서집성 2』(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2)과 『고문서집성 65』(한국학중앙연구원, 2003)으로 영인되어 소개되었는데, 2012년부터 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독락당 고문서 원문이미지와 해제를 웹서비스 하고 있기에 현재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열람이 가능하다. 양동마을은 회재 이언적의 후손들이 세거하는 곳으로 그들이 옥산서원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 결과, 회재 종가인 무점당을 위시한 제 집안에는 옥산서원과 관련된 문서(通文, 『玉院事實』

등)들이 일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문화재청, 2003년 조사보고서 참조).

- 옥산서원청분각건립위원회 편, 『회재선생과 옥산서원』, 1972.
- 이동걸, 『옥산서원과 양동마을』, 우리출판사, 1987.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고문서집성』 (2), 영남대출판부, 1992.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65, 2003.
- 옥산정사, 『옥산서원 독락당』, 2003.
- 문화재청, 『경주 양동민속마을 동산문화재 현황파악 학술조사 보고서』, 2003.

6) 문화재청에서는 2004년에 경주 옥산서원 소장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일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이전까지는 없었던 고서, 고문서(성책류 포함), 목판, 현판, 기타 유품 등 모든 유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당시에 조사된 것을 보면, 고서 943종 3,977책, 고문서 1,156점, 책판 19종 1,123장, 기타 유물 24점 등 총 3,246점이었다.

- 문화재청,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 2004.
- 문화재청·경상북도, 『2005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 2005.

7) 옥산서원과 관련한 연구는 자료의 반출과 열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황도 파악되지 않았기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옥산서원 장서에 대한 목록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원 소장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연구는 서원 관련 자료집과 보고서가 출간된 후인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연구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관광도시인 경주의 문화재를 소개하면서 일부 언급되거나, 건축물과 서원 주변의 자연경관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과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 관광소개 및 문화재 조사

- 황호근, 『경주의 고적 : 신라고도안내』, 계몽출판사, 1959.
- 조선총독부, 『조선사료집진』, 한국고전개발학회, 1970.
- 문화재관리국, 『한국관광자원총람』, 1978.
- 신영훈, 『한국의 삼대서원』, 교학사, 1986.
- 월성문화원, 『월성문화유적지』, 1988.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북부지역지표조사보고서 2 : 건축유적·민속문화 편』, 1997.
-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경북동부지역 문화유적답사」 『인문과학연구』 17, 1998.
- 경상북도, 『문화재대관』, 2003.

▷ 회재 이언적과 (세계문화유산)양동마을 소개

- 이동중, 『옥산서원어서각중건시집』, 한국한시연구원, 1972.
- 이호일, 『한국의 서원』, 가람기획, 2006.
- 박우인, 『경주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 <UNESCO>선정 세계 10대 사적지』, 드라이브사, 1995.

- 김환대, 『경주양동, 안동 하회마을 -한옥과 자연이 숨쉬는 500년 전통 마을 이야기』, 지식과수꾼, 2010.
- 경주시, 『세계문화유산 경주양동마을』, 2010.
- 이수환,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다. 경주, 회재 이언적 종가』, 예문서원, 2011.

▷ 서원 건축 관련

- 이연노·주남철, 「옥산서원 구인당 중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 2001.
- 송영인, 『옥산서원 배치형태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신상섭, 「하회·양동마을에 작용된 환경설계원칙과 문화경관상」 『한국환경과학회지』 12, 2003.
- 손봉균, 『사림학파의 당쟁을 통해 본 서원건축의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노송호, 『향교와 서원의 입지 및 외부공간 분석을 통한 한국적 교육환경 모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최미경, 『영남지방 서원루의 건축계획 : 자연경관 해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8) 옥산서원 관련 기타 기록자료.

① 문집에 散見되는 옥산서원 관련 글들은 대부분 영남지역을 유람하면서 옥산서원에 잠시 들리거나 留宿하면서 그 감회를 읊은 시와 致祭한 후 쓴 글로 크게 나뉜다. 이들은 회재의 문인 내지 후학들이 대부분이며, 정조와 같이 왕실의 인물들도 있다. (「한국고전종합 DB」 및 『嶺南文集解題』(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참고)

- 姜 瑋, 『古歡堂收艸詩稿』 권2, 發弭餘草 「玉山書院」.
- 權以鎭, 『有懷堂先生集』 권1, 「癸巳三月初六日 棄雞林歸 出宿玉山書院 歷六臣祠 檜淵書院 桐谿墓 俱有詩記之」.
- 權斗經, 『蒼雪齋先生文集』 권3, 「玉山書院謁晦齋先生祠」.
- 權德麟, 『龜峯集』 권2, 「玉山書院記略」, 「玉山士林答陵齋通文」, 「刊役時玉山書院通南學文」.
- 權復興, 『五慕齋實紀』 권1, 「玉山書院答通」
- 琴蘭秀, 『惺齋集』 권1, 「玉山書院罷會後 書示僚友李汝誠」.
- 金尙容, 『仙源遺稿』 上, 五言律詩, 「同體察使李議政住玉山書院餞歲酒席 次接伴使金相公暉 韻」, 「同體察使李議政住玉山書院餞歲酒席 次接伴使金相公暉 韻 二首」.
- 金邁淳, 『臺山集』 권3, 「祇拜玉山書院 退宿溪亭 臨歸書贈主人」.
- 金道和, 『拓庵集』 권9, 「玉山講義」.
- 金止男, 『龍溪遺稿』 권3, 「玉山書院十四詠 次蘇齋韻」.
- 盧守愼, 『蘇齋先生文集』 권7, 「玉山書院諸額贊」.
- 都聖俞, 『養直先生文集』 권1, 「謁玉山書院 五言」.
- 陶山書院, 『汾李辨誣事變日錄』 권1, 「玉山書院答通」.

- 陸大欽,『茶山集』 권2, 五言古詩「玉山書院 次五峯韻」.
- 朴旨瑞,『尼溪集』 권1,「玉山書院」.
- 朴申慶,『能阜集』 권5,「答玉山書院通文」.
- 朴珪壽,『礪齋先生集』 권8, 書牘「與溫卿」.
- 沈東龜,『晴峯集』 권3, 七言律詩「玉山書院 次趙日章綱韻」.
- 孫起陽,『聲漢先生文集』 권1, 排悶錄「玉山書院 食筭謝主人李慶山浚」.
- 成近默,『果齋先生集』 권1,「會海隱姜先生于玉山書院 講太極圖 西銘 玉山講義及仁說 敬次先生韻」.
- 成海應,『研經齋全集外集』 권56, 筆記類 蘭室譚叢「朱子大全永樂本」.
- 安德文,『宜庵集』 권2,「玉山書院」.
- 安鼎呂,『晦山集』 권6,「玉山齋」.
- 宋近洙,『龍湖閒錄』 1,「一二八, 慶州玉山書院 文元公 李彥迪致祭文」.
- 李安訥,『東岳先生集』 권11, 月城錄「玉山書院 書示諸儒生」,「題畫竹扇 贈玉山書院儒生」,「玉山獨樂堂 次李佐郎 宜活 見贈韻」,「玉山獨樂堂 贈主人李僉知浚 用五峯李相公韻」.
- 李 栽,『密菴先生文集』 권1,「玉山書院」.
- 李萬敷,『息山先生別集』 권4, 地行錄10「玉山」.
- 李 滉,『退溪先生年報』 부록 권4,「同月初三日傳教」.
- 李衡祥,『瓶窩集』 권10,「玉山士林」.
- 李能允,『谷圃集』 권4,「玉山書院體仁廟重建日記」,「玉山書院任案」.
- 李野淳,『廣瀨集』 권7,「玉山講義圖」.
- 李彥迪,『晦齋先生集』 부록,「玉山書院記」(許曄).
- 吳 翹,『天波集』 권4,「遊玉山書院記」.
- 俞 泓,『松塘集』 권1,「玉山書院 次盧相公韻」.
- 俞漢雋,『自著』 古詩,「玉山書院」(戊戌).
- 尹 拯,『明齋先生遺稿』 권2,「訪玉山書院 謁晦齋先生祠 有感」.
- 張顯光,『旅軒先生續集』 권2, 書「答玉山書院士林」,「與玉山書院士林」,「答玉山書院士林」; 答問目「答玉山書院」.
- 趙 靖,『黔澗先生文集』 권1,「宿水雲亭」.
- 趙秀三,『秋齋集』 권4,「玉山書院」.
- 趙寅永,『雲石遺稿』 권2,「玉山書院」.
- 正 祖,『弘齋全書』 권22, 祭文4「玉山書院 致祭文」; 권184, 羣書標記六 命撰二「嶠南賓興錄二卷」.
- 丁範祖,『海左先生文集』 권3,「次遊玉山書院韻」.
- 鄭克後,『雙峯先生文集』 권2,「與玉山書院諸生」; 권3,「代玉山書院士林 通曲江書院文」.
- 鄭襲明,『滎陽實記』 권4,「玉山書院事蹟」.
- 蔡準道,『石門集』 권3,「玉山講義少」.
- 許 曄,『草堂先生文集』 記,「玉山書院記」.
- 許 傳,『性齋先生文集』 권19,「吏曹參判李公墓碑銘」,「權江東墓碣銘」.

② 타 기관에 소장된 자료로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용산서원(15점), 지산종택(7점), 한양조씨 옥천종택(1점), 진성이씨 향산고택(1점), 농암종택(1점), 풍산류씨 북촌택(1점), 안동 갈전 순흥안씨 정봉종택(1점), 독락당(8점), 도산서원(1점) 등이 확인된다. 이들 자료는 <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이외에 서책으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慶州府校院書冊目錄』(규7720), 『書目』(규7923), 『嶠南賓興錄』 권1, 「御製祭文(玉山書院)」 등이 있다.

4. 전승 자료의 내용과 특성

1) 옥산서원 소장 고서

옥산서원 고서는 도산서원 장서와 더불어 우리나라 현존 서원문고 중 그 보존이 가장 잘 되었으며, 임란 때에도 별 피해를 입지 않았던 곳이다. 오히려, 옥산서원은 1599년 임란의 피해를 입은 홍문관에 四書五經, 『朱子大全』, 『國朝儒先錄』, 『小學諺解』, 四書諺解本등의 내사본을 보내고 있다.(『列邑院宇事蹟』, 경상도 옥산서원)

1960년대 조사에 따르면, 옥산서원은 503종 2,847책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2004년의 조사에서는 943종 3,977책으로 나타난다. 이는 1972년 청분각 건립 후 독락당에 소장된 고서들의 일부가 옥산서원으로 옮겨오면서 고서 책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淸芬閣建立誌』(옥산서원 소장, 필사본), 1976). 옥산서원 장서는 문집류가 300여 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經書·歷史·傳記·儒家類로 이 중에서도 전기류가 70여 책으로 제일 많다.

옥산서원 고서 중 주목되는 것은 보물 525호로 지정된 『三國史記』이다. 이 책은 1573년 경주부가 인출하여 옥산서원에 보낸 것으로 현재 전래되는 몇 안 되는 완질본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조선전기 대종을 이루던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들이 있는데 『晉書』, 『埤雅』, 『唐柳先生集』, 『漢書』 등의 갑인자본과 『大廣益會玉篇』, 『翻譯小學』, 『小學集說』, 『朱子大全』 등의 을해자본이 그것이다. 또한, 『주자대전』(95책)과 『朱子語類』(丙子字本, 75책)는 1577년에 內賜된 것으로 完帙이 보관중인데, 이는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에만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귀중본으로 분류될 만한 전적이 많이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희귀, 귀중본 목록

『三國史記』(1573 소장, 50권 9책, 중종연간 刊) - 보물 525호

『續大學或問』(1794, 필사본, 1책, 정조친필 書頭, 奎章之印)

『經史證類大全本草』(1302, 零本 7책, 중간본, 獨樂堂印)

『古今韻會舉要』(번각본, 영본 1책, 세종년간 간행)

『國朝儒先錄』(1570, 乙亥字混入補字本, 4권 4책, 內賜本)

『唐柳先生集』(1440, 初鑄甲寅字本, 영본 6책)

『唐詩彙選』(1615, 10권 10책, 訓鍊都監字本)

『大廣益會玉篇』(乙亥字本(補木活字), 영본 1책)

『大學章句大全』(중종~선조연간, 1책, 목판본)

『大學章句大全』(明版飜刻本, 1책, 1579년 內賜本)

『東國李相國全集』(16세기 刊, 木版本混入補刻板本, 영본 4책)

『東萊先生南史詳節』(甲寅字本(15세기 후반), 25권 5책)

『東萊先生唐書詳節』(甲辰字本(初鑄甲寅字 混用), 영본 13책)

『東萊先生東漢詳節』(甲辰字本(初鑄甲寅字 混用), 30권 9책)

『東萊先生北史詳節』(甲辰字本(初鑄甲寅字 混用), 영본 6책)

『東萊先生史記詳節』(甲辰字(本文), 初鑄甲寅字(序文), 영본 3책)

『東萊先生三國志詳節』(甲辰字本(初鑄甲寅字 混用), 영본 4책)

『東萊先生西漢詳節』(甲辰字本(初鑄甲寅字 混用), 영본 10책)

『東萊先生隋書詳節』(甲辰字本(初鑄甲寅字 混用), 20권 5책)

『東萊先生五代史詳節』(甲辰字(本文), 初鑄甲寅字(後序), 10권 3책)

『東萊先生音註唐鑑』(1562 경주부 刊, 목판본, 24권 5책)

『東萊先生晉書詳節』(甲辰字, 16세기 印, 30권 6책)

『飜譯小學』(16세기 간, 乙亥字飜刻本, 영본 1책, 玉山書院 印)

『飜譯小學』(16세기 말간, 乙亥字飜刻本, 영본 2책, 藏書記: 玉山書院)

『埤雅』(初鑄甲寅字本, 20권 5책, 16세기초, 內賜本)

『西涯擬古樂府』(再鑄甲寅字本, 3권 3책, 16세기말)

『說文解字韻譜(蒙韻譜)』(16세기 刊, 木版本, 영본 2책)

『聖學十圖』(1570 경남 하동 刊, 목판본, 1책)

『小學集說』(乙亥字本, 15세기, 영본 2책, 獨樂堂 印)

『續蒙求分註』(1568, 목판본, 4권 4책)

『心經附註』(1492, 목판본, 4권 2책, 獨樂堂 印)

『兩山墨談』(1539, 목판본, 18권 4책)

『五朝名臣言行錄』(1502 청도부 간행, 庚子字飜刻本, 영본 19책)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16세기말全州, 癸未字飜刻本, 70권23책, 獨樂堂 印)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16세기말, 癸未字飜刻本, 70권 23책, 玉山書院 印)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16세기, 영본 1책, 初鑄甲寅字本, 獨樂堂 印)

『資治通鑑綱目』(16세기 중엽, 初鑄甲寅字本, 영본 137책)

『資治通鑑綱目』(16세기 후반, 再鑄甲寅字本, 영본 64책)

『佔畢齋集』(16세기, 목판본, 영본 2책)

『朱子大全』(1543, 乙亥字本, 95권 95책, 內賜本)

『朱子語類』(16세기초, 丙子字本, 140권 75책, 內賜本)

『增續會通韻府羣玉』(訓鍊都監字本, 21권 21책)

『晉書』(16세기초, 初鑄甲寅字本, 영본 24책)

『眞西山讀書記乙集上大學衍義』(16세기초 간, 乙亥字本, 영본 15책, 獨樂堂 印)

『太平廣記詳節』(16세기, 初鑄甲寅字飜刻本, 영본 3책)

『漢書』(初鑄甲寅字(補木活字), 영본 50책, 晦齋 印, 手澤本)

『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16세기간, 庚子字飜刻本, 17권 4책)

『晦庵先生朱文公詩集』(16세기 刊, 목판본, 영본 1책, 藏書記: 冊主智山家藏)

『晦庵先生朱文公詩集』(16세기 刊, 목판본, 영본 3책, 藏書記: 冊主溪亭李氏)

▷ 장서목록은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국회도서관, 1969)과 문화재청,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2004)를 참조하기 바람.

2) 옥산서원 소장 고문서

옥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는 그 형태 서지에 따라 성책류(필사원본)와 고문서(날장)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조선중기 이후 서원내지 향촌사회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일차적인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들 고문서류는 1993년 『옥산서원지』를 편찬하기 전까지 그 내용과 수량이 공개되지 않았었다. 이 서원지에서도 문서의 종류와 수량은 파악되었지만, 일부 문서만을 발췌·수록하고 개별 문서에 대한 설명이 없는 관계로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옥산서원 고문서 자료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정리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후 문화재청에서 2004년에 옥산서원 전체 유물을 조사하여 필사본 700여 책과 고문서 600여 건에 대한 간략한 서지와 해제를 보고서로 발간하여 일정 부분 참고가 된다. 단, 당시 조사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고문서 자료는 제외하였다.

(1) 성책류

옥산서원 소장 성책류(필사본)를 연대별로 보면 창건 초기인 17세기의 기록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18세기 이후의 것이다. 그 종류는 크게 서원의 인적구성과 조직·운영체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과 서원 경제관계 및 기타 일기·부조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서원 경제관계 자료가 비교적 잘 보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경제관련 자료인 『會計錄』·『都錄』 등은 수적으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① 서원의 역사를 간략히 기록한 것으로 19세기의 『考往錄』(1책)이 있다. 『傳與記』에서 보면 원래 옥산서원에는 초기 고왕록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서원 초기의 상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서원 초창기의 상황은 서원유생들의 상서·소지 등을 모은 『呈書謄錄』(1책)을 통해서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② 서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원장·유사 등 院任의 명단인 『首副任案』(7책) 및 서원의 규약인 『院規』와 17세기 『入院錄』(양동 종손택 소장), 享祀의 절차를 알 수 있는 『笏記』(2책)도 중요한 자료이다. 또 『首副任案』과 함께 서원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창건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춘추향사시 집사의 명부인 『執事記』(30책)가 있다.

③ 옥산서원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외곽 사림세력의 범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로 『尋院錄』이 있다. 이 책은 서원 내방인사가 자필 서명한 일종의 방명록으로, 기재순서는 직위(본관), 인명, 거주지, 내방일 순으로 되어 있으며 17세기 이후에는 본관이 중요시되면서

거주지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심원록은 원임안과 함께 각 서원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책으로 그 등재여부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기재된 인사는 당시 서원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당시 옥산서원의 인적교류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옥산서원은 심원록을 他官・本郷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며 전자는 千字文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玄・宇・荒・陽・爲・師 등이 缺秩이며 일부는 뒷부분이 탈락된 경우도 있지만 설립 년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비교적 잘 보관되어 총 103책이 현존한다.

④ 『本郷尋院錄』은 경주부내 인사를 대상으로 한 방명록이다. 원래 서원에 따라서는 심원록에 「本府人勿許濫書」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옥산서원에서도 초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 같다. 본향심원록은 1756년에 처음 작성되어 총 48책이 현존하는데, 여기에 등재된 인사는 당시 경주부내 대표적인 사족인 良洞의 孫・李氏가 주축이 되고 있다.

⑤ 膳錄・完議類가 있다. 먼저 『呈書膳錄』(1588~1623)은 서원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院儒들이 감사나 해당지역 지방관에 呈書한 上書 내지 所志 등을 모은 책이다. 그 내용은 대부분이 서원소속 正舍사 僧道의 僧役 면제, 현물관납 면제 또는 서원소속 선척・어염세의 면제, 漁夫・格軍・鹽干 등 원속의 면역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서원 초기의 경제적 사정의 일단면 및 서원과 지방관과의 관계 등을 엿볼 수 있다. 이외 서원운영의 규약을 기록한 것으로 『膳錄』・『山堂居接膳錄』 및 完議・重修所別辨完議 등이 있다. 이 책들은 구체적인 작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18세기 후반 내지 19세기의 것으로 보인다.

⑥ 서원초기의 2대 경제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토지와 노비에 관한 문서로, 土地案은 1694・1795년의 2책이 있고, 奴婢(推刷)案은 시대별로 7책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18세기 중후반의 『秋收記』・『打作記』가 있다.

⑦ 서원은 또한 일반적으로 원노비 외에 募入・投託・仰屬人으로 표현되는 일종의 피역인들을 광범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명단을 기재한 案은 『所屬案』・『院屬私案』 등으로 표현되지만 이를 통칭하면 院屬案이라 할 수 있다. 옥산서원에는 該邑 원속안과 他邑(영일・홍해・장기・영천) 원속안이 보관되어 있다. 또한 18세기 중반이후부터는 이들 원속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院(儒)生案』 43책, 『(都色・齋直)良下典案』 53책, 『御書閣守直軍案』 29책이 있는데, 이 案들은 1~2년 간격을 두고 작성되었으며, 서원 원속의 구성이나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⑧ 서원의 수입・지출상황을 기록한 일종의 경리장부로 『會計錄』・『都錄』・『傳與記』 등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타서원에서는 『傳與記』・『傳掌記』라 한다. 회계록은 대체로 18세기 초중반의 것으로 보이며, 『都錄』은 18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까지 총 130여 책이 있다. 이 책들을 통해 옥산서원의 대체적인 경제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刊所・遺物・食床都錄 및 重修時都錄을 따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서원소장 서책은 따로 『傳與記』(56책)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였는데 여기에는 서책 외에도 서원소장의 각종 기물 등도 포함되었다.

⑨ 서원건물 중수 시에는 그 과정을 日記로 작성하기도 하고, 扶助記・都錄・下記 등도 반드시 작성하였다. 예컨대 1839년 求仁堂중건시에는 『求仁堂重建日記』, 『講堂重建時鄉中出物置簿』・『重修錢冊』・『重修錢捧上記』・『鄉中錢入記』・『道內錢入記』 및 『賜祭時

都廳下記』, 『揭額時都廳下記』, 『額板祇延時都廳下記』, 『重修米下』가 작성되었다. 또 1905년 중건 시에도 重修都錄이 작성되었다. 1843년 無邊樓 중건 시에는 下記·用下·都錄이, 1905년 體仁廟重建時에는 都錄·重修扶助冊이 작성되었다. 이러한 대단위 건물 중수가 아닌 院內의 간단한 수리라 할지라도 都錄·下記는 작성되었는데 『大庫重修都錄』, 『書院重修日記』, 『廚舍重修記』, 『院宇修理時用下秩』, 『御書失變時下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수시 都錄·下記는 중수시간, 동원된 役丁의 수와 소요된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한국 고건축사에 중요한 자료이다. 그밖에 旁目, 道會時到記, 役費日記, 鄉里約法, 會校錄, 淸道執禾記, 享會錄 및 다수의 到記 등이 있다.

⑩ 이외에도 정확한 입수경위는 알 수 없지만 『西岳書院攷往錄謄草』·『西岳書院院儒時用案謄錄』·『西岳書院講儒付案錄』·『西岳書院講案』 등의 서약서원 관계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2) 고문서

① 戶口單子是 서원을 하나의 戶로 파악하여 소속 노비를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앞 노비안과 더불어 서원소속 노비의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② 明文은 17세기중반부터 19세기말까지의 것으로 대부분 토지에 관한 것이다. 立議·完議·完文 중 17세기 초의 立議 2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확한 연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18세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③ 薦(講)案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 사이의 것인데, 新薦案에는 入院유생의 명단, 천주 및 유생의 入格·畢講여부가 기재되어 있고, 講案에는 구체적인 교육 평가가 기재되어 있다. 대체로 서원은 17세기 중반이후부터 교육적 기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 案은 옥산서원이 19세기까지 유생들의 교육기관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上書·所志·書目·稟目 등 所志類는 대체로 서원경제에 관한 것으로 屬寺인 정혜사 승도의 면역, 良人·下典 등 원속 및 서원소속 각종 店 등에 대한 관부의 침탈에 대해 면역·면세를 호소하는 것이다. 상서를 제외한 소지·서목 등은 구체적인 작성연대를 알 수 없으나 대체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말까지의 기록으로 보인다.

⑤ 通文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것이 대부분이다. 발행처는 대체로 서원·향교 및 각 문중이었는데 그 범위는 경상좌도 전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영남에 있어서 옥산서원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통문의 내용은 서원건립과 배향·추향문제, 道會개최, 승무운동, 서원 중수시 부조, 문집 중간시 부조, 충효열에 대한 표창 문제 등이며,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적서간과 사족 상호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각종 시비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⑥ 回文은 향례일, 향회개최, 首任 薦望 등 원내 대소사가 있을 때 모임을 알리는 문서이다. 대체로 이 회문은 서원을 중심으로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문중별로 돌렸다. 祭需單子是 서원 自費로 마련한 것 외에 부운·감사 등 지방관이 하사한 것도 있었다. 良下典充定案은 서원자체에서 私募하여 발급한 案과 官에서 발급한 案 2종류가 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서원과 관의 관계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외 單子和 賭租預賣秩, 簡札類, 계약서, 영수증, 위임증, 証書 등이 있다.

▷ 구체적인 목록은 문화재청,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2004)를 참고바람.

3) 서원소장 판목 목록

서원 소장 판목은 2004년 문화재청과 2007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일괄 조사하여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이들 자료를 참고하면, 옥산서원에는 제향자 이언적의 문집인 『晦齋先生集』 외에도 『求仁錄』, 『大學章句』, 『奉先雜儀』, 『太極問辨』, 『中庸九經衍義』, 『近思錄』, 『琴坡集』, 『林居十五詠』 등 총 19종 1,121장이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無忝堂文集』, 『龜峯先生遺集』, 『蒙庵先生文集』, 『太極圖說』, 『漢史列傳抄』 등의 책판이 있었음을 문헌과 판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이들 책판은 남아있지 않다. 또한 현전하는 책판들도 결락이 많다.

책판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서원 내 문집판각과 정혜사에 분장되어 있었는데, 조사 당시에는 서원 내 세 곳에 분산 보관되어 있었다. 문집판각에는 『회재선생집』, 『구인록』, 『대학장구』, 『봉선잡의』 등을 비롯해 12종 487장이 소장되어 있었고, 경각에는 『구경연의』, 『구경연의별집』, 『금과집』, 『근사록』, 『천자문』을 비롯한 5종 609장이 소장되어 있었다. 한편 서원 옆에 유물각인 청분각 내 별실에는 『元朝五箴』과 『임거십오영』의 2종 25장이 소장되어 있었다. 이 모든 판목들은 2012년 현재, <옥산서원유물전시관>내의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

번호	분류	명칭	수량	번호	분류	명칭	수량
1	책판	求仁錄	79	11	책판	朝鮮總督府齋藤實	1
2	책판	大學章句	17	12	책판	九經衍義	208
3	책판	奉先雜儀	13	13	책판	九經衍義別集	142
4	책판	續大學或問	9	14	책판	近思錄	130
5	책판	御製續或問	4	15	책판	琴坡集	127
6	책판	太極問辨	38	16	책판	元朝五箴(大)	9
7	책판	晦齋先生遺墨	12			元朝五箴(小)	4
8	책판	晦齋先生集	163	17	책판	林居十五詠	12
9	책판	晦齋先生集別集	79	18	책판	立春祝文	1
10	책판	晦齋集	72	19	책판	千字文	1
소계						19종	1,121

4) 서원소장 자료의 가치

첫째, 옥산서원은 도산서원과 더불어 현존 우리나라 서원문고 중 가장 많은 자료를 수장하고 있다. 약 4,000책에 이르는 방대한 古書와 1,100 점의 목판, 약 1,500여 건의 고문서를 보

존 전승해 왔던 것이다. 이들 자료는 임고서원 소장전적(보물 1109호)과 필암서원 문서 일괄(보물 587호)에 비하여 시대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뒤지지 않는다. 또한 서원운영과 관련하여 당시에 바로 작성된 고문서류가 거의 대부분 소장되어있다는 점에서 이들 자료는 조선중기 이후 서원 운영내지 향촌사회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둘째, 옥산서원의 운영에는 경주 사림들 외에도 주향자인 회재의 후손들이 계속 참여해 왔기에 그 후손가에 남아있는 자료들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독락당은 회재의 별업이자 개인서재로서 사용되었던 곳으로 회재의 수택본과 그 개인에게 하사된 내사본이 다수 남아있으며, 이곳을 이어받은 이전인의 후손들이 옥산서원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흔적이 고문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이다. 또한 회재의 종택인 무침당이 있는 양동마을 역시 현재까지 회재의 후손들이 세거하면서 옥산서원의 운영에 참여했기에 다수의 자료들이 남아있다. 이처럼 옥산서원 자료는 이들 후손가의 소장 자료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고서는 회재의 수택본과 독락당 소장본(내사본) 및 옥산서원 소장본(내사본) 등은 임란이전 시기에 지어진 서적이 많이 남아있다. 그 중 일부는 일찍이 사료적 가치가 인정되어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미지정된 고서들 중에서도 귀중본으로 분류되는 것이 다수이다.

넷째, 옥산서원 고문서는 18세기 이후 작성된 것이 주류를 이루지만, 서원초기부터 작성된 자료들 또한 많이 있다. 이들 자료는 서로 연계성과 시기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서원의 교육, 출판 및 제향의식과 정치·사회활동의 구체적 실상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특히, 200건이 넘는 통문과 60여 건의 소지·상소는 옥산서원의 다양하고 활발한 언론·사회 활동을 확인시켜주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都錄類는 서원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당시 사회물가의 변동도 확인이 가능하다.

5. 향후 활용의 과제

1) 현전 소장 자료의 문화재 지정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전하는 고문서 자료들을 일괄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일이다. 옥산서원 소장 古典籍類의 경우 일부는 이미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고문서등은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는 비단 옥산서원뿐만 아니라 독락당과 양동마을 자료 모두에 해당된다.

2) 연구사업의 추진과 정례화

옥산서원은 그 지역적, 역사적 위상에 비해 전문적 연구가 미진하였는데, 이는 자료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1993년 서원지의 발간으로 옥산서원 고문서 자료의 일부가 소개되고 이로 인해 90년대 이후 옥산서원의 경제·사회·정치적인 측면과 주향자인 회재 이언적의 사상과 문학에 대한 연구가 일정부분 진척되었지만, 여전히 규명해야할 부분이 많

이 남아있다.

최근에는 『한국학자료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옥산서원 자료의 DB화가 진행 중이지만, 이 작업은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므로, 이 일에 우선하여 자료집의 발간이 시급한 실정이다. 옥산서원 전적류에 대한 목록은 몇 차례 조사를 통해 대부분 정리가 되었지만, 이를 더 연구·보완하여 전문 해제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책 고문서는 서원지(1993)에 일부만 소개가 되었기에 남은 수백 종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조속히 자료집 발간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제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곧 옥산서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창성 내지 우수성을 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 기회에 분산 소장된, 그리고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옥산서원 관련 자료들을 정밀 재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서원에서 옥산서원이 가진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시킨 주제별 연구를 매년 진행(학술세미나, 연구논문(총) 발간)할 필요성이 있다. 서원정신과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이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과제라고 볼 때 이 사업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2011년부터 <한국유교문화심층연구>의 일환으로 도산서원 자료를 활용한 학제간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2012년 내에 연구총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를 잘 살펴 옥산서원에서도 정기 세미나를 통한 홍보, 연구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세계유산 등재된 양동마을을 연계하여 진행된다면 보다 많은 내용이 축적될 것으로 보인다.

3) 기록자료의 교육, 홍보자료 활용

옥산서원은 최근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으로 인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그리하여 2010년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옥산서원유물전시관>을 새로 건립하고, 문화유산해설사가 상주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원 자체의 홈페이지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옥산서원에 관한 설명을 개인 블로그 내지 현장의 안내게시판과 관공서 홈페이지의 내용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비전문적이고 소략할 뿐만 아니라 건물위주의 설명뿐이어서 옥산서원만의 고유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점은 이들 기록 자료를 제대로 활용한 옥산서원의 교양 해설 자료, 교육·홍보자료의 편찬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관광 안내 자료를 보면 매우 소략하고, 건물과 제향인물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역사와 정신이 포함되고 경관이나 건축, 제향인물의 행적이 수요층에 따라 알기 쉽고 다양하게 정리되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각종 사진, 동영상과 함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편집, 교육자들이 힘을 합쳐 수요자에 맞는 서로 다른 홍보·교육 자료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옥산서원만의 특징을 살린 홈페이지 구축, 홍보 자료집 발간과 주변 관광지(양동마을, 독락당, 정혜사지, 주변 계곡 및 등산코스)와 연계한 코스의 개발 및 숙박시설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옥산서원은 단순 유교건축물이나 특정 인물 중심의 유산이 아닌 한국의 대표적인 정신문화유산이자, 관광명소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도산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 현황 · 과제

이 병 훈

(영남대 국사학과 강사)

1. 도산서원의 연혁 개략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번지(구: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에 위치하고 있는 陶山書院은, 1870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시에도 존속한 47개 서원 중 하나로 영남지역의 首院 역할을 해왔다.

도산서원은 1561년에 退溪 李滉이 강학과 수행을 위하여 건립한 陶山書堂과 隴雲精舍를 기반으로 하여 지어졌다. 사후에 그의 문인이었던 權好文, 琴蘭秀 등이 발의하여 서당이 있던 자리 위쪽에 서원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1574년 서원을 건립하여 위패를 봉안하고, 다음 해인 1575년에 사액되어 石峯 韓濩가 쓴 편액을 국왕이 하사하였다. 1615년에는 사림이 논의하여 月川 趙穆을 종향하였다. 도산서원은 조선후기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총본산으로서 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러한 도산서원의 위상은 1792년 퇴계의 학덕과 유업을 추모하기 위하여 陶山別科를 시행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후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1796년에 試士壇이라는 碑閣을 도산서원 앞에 세웠는데, 비문은 영의정 채제공의 글이다. 시사단은 1973년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었다.

이외에도 1963년에는 도산서원 강당인 典敎堂(보물 제210호)이, 1969년에는 別廟인 尙德祠와 三門(보물 제211호)이 각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상덕사를 지정할 당시에는 廟宇를 둘러싼 토담 역시 지정 대상이었지만, 1969년 보수공사 때 돌담장으로 모두 바꾸면서 지정항목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같은 해 5월 28일에 도산서원 전역이 사적지(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에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中丁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도산서원 경내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지대가 높아지고 남북으로 길게 축을 형성하면서 좌우에 건물들을 앉혔다. 정문을 들어가기 전 좌측에는 亦樂齋가 있으며, 정문을 들어서면 우측으로 陶山書堂, 좌측으로 隴雲精舍가 나오고 농운정사 뒤편에 下庫直舍가 있다. 중앙의 계단을 따라 오르면 進道門을 마주하는데, 그 좌우에 누각형태의 藏書庫였던 東·西光明室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진도문을 들어서면 좌우로 동·서재인 博約齋와 弘毅齋가 있고, 정면으로 강당인 典敎堂이 자리하고 있다. 강당 좌측에는 上庫直舍, 우측에는 藏板閣이 위치한다. 전교당의 뒤쪽 좌측 계단을 오르면 典祀廳이 나오고, 우측의 內三門을 들어서면 묘우인 尙德祠가 나온다. 이외에 1970년대에 건립되어 퇴계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는 유물전시관

玉振閣이 있다.

(이하 건축 관련은 문화재청(2011),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상덕사 및 삼문:정밀실측조사 보고서(상·하)』, 경상북도(1991), 『도산서원:실측조사보고서』 및 기타 사항은 도산서원 홈페이지 <http://www.dosanseowon.com> 참조).

2. 소장 자료의 전래와 현황

1) 도산서원 고전적은 몇 가지 경로를 통해 조성되었다. 이는 서적의 수납과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간행해온 각종 서책치부기를 보면 대략 알 수 있다. 우선, 도산서원이 사액될 때 나라에서 내린 ‘內賜本’이 있다. 이것이 도산서원 전적의 기초가 되었다. 이후로도 1588년, 1590년, 1793년, 1798년 등 수시로 내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치부기에는 『주자대전』, 『주자어류』, 『성리대전』 등의 성리서와 『논어』, 『춘추』, 『시전』 등 사서삼경이 내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둘째, 지방관아에서 도서를 간행하여 보낸 경우로서 대개 퇴계의 제자나 후학들이 수령을 맡고 있는 경우, 관아에서 간행했거나 비축하고 있던 도서를 보냈다. 셋째, 인근의 서원이나 문중에서 간행하여 보낸 경우이다. 넷째는 도산서원 자체의 판단에 의해 간행하거나 구입한 전적들이다. 『퇴계집』, 『송재집』, 『주자서절요』 등 문집과 성리서를 직접 간행하였다. 또한 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기류와 통문 등의 관련 자료가 남아있어서 서적 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闕里誌』, 『春秋佐傳』 등 적지 않은 책을 구입했는데, 이는 치부기에 ‘賃得’, ‘買得’으로 표기하고 있다.

2) 도산서원에는 易東書院에서 이전된 전적들이 있다. 역동서원 치부기에는 퇴계가 보낸 『성리대전』, 『통감』, 『소학집성』, 『성학십도』 등과 사서삼경 등의 서책이 상당수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인연으로 1868년 서원이 훼손될 당시 자연스레 도산서원으로 장서가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역동서원 장서는 퇴계가 생전에 보낸 서적들이 많은 까닭에 임란이전의 오래된 선본이 많으며, 이는 도산서원 장서 가운데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퇴계가 생전에 도산서당에서 소장하고 있던 手澤本이 서원의 장서에 편입되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퇴계 생전의 서적들이 그러할 것으로 짐작되지만, 명확히 구분이 되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문인이나 그 후손들이 퇴계와 관련된 전적을 서원에 헌정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師門手簡』은 퇴계가 월천 조목에게 보낸 간찰과 시문을 묶어 첩으로 만든 것으로 월천의 후손들이 서원에 헌정한 것이다.

3) 도산서원 소장 전적은 서고인 光明室에 보존되어왔다. 그러나 서원초기부터 존재했던 시설은 아니고 후대에 와서 지은 건물이며, 처음에는 동서재의 협실에 보관해 왔다. 이후 서적이 많아지면서 공간의 부족과 화재의 위험으로 서고를 신축하여, 퇴계가 역동서원 서고에 명명한 ‘광명실’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광명실 신축은 알려진 1819년(己卯)과 치부기의 乙未年과 차이가 있으므로 상고할 필요가 있다.

4) 도산서원 소장 자료는 그간 일반인은 물론 전문연구자들조차도 접근하기 매우 어려웠다. 이는 서원측이 소장도서의 반출과 일반인들의 광명실 출입을 院規로서 금지하는 등 그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왔기 때문이다. 서원측은 총칙에 광명실 개폐규정을 따로 두어 “반드시 三任(院長, 齋有司, 別有司)이 모두 모이거나 堂會시에만 개폐가 가능하고 한 두 사람으로 광명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原任에게 품의하여 처리”토록 했다. 또 인수인계조에 “서책은 별도로 장부를 비치해 두어야하고, 유사가 교체될 때는 먼저 목록을 가지고 확인하고 나서 포쇄를 하거나 당회가 있을 때 하나하나 대조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철저한 관리와 노력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도산서원 전적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5) 2003년 4월과 6월 양차에 걸쳐 광명실과 장판각에 소장된 고서, 고문서, 목판 전부를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 이는 빈번한 문화재 도난의 위험과 충해와 습해로부터 소장 전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6) 도산서원 자료는 1950년대 소장 典籍의 목록이 작성되어 소개되기 이전까지는 광명실 소장 서적 목록(傳掌記)의 기록이 전부이다. 이 전장기 역시 1940년대 이후부터는 작성된 것은 남아있지 않다. 1890년 6월 26일의 기록을 보면, 광명실에 소장된 각종 서책 현황은 성리학 관련 서적, 잡저, 문학관련 서적, 서원 관리상 필요한 제 장부나 문건, 역사 관련 서적, 일반 문집, 병법서, 향교 관련 문건과 서책 등 대략 490여 종, 2,991책이 기록되어 있다. 책판은 1796년 徐有渠가 작성한 『鏤板考』에 도산서원에 17종의 책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조사된 책판은 모두 34종 3,907판으로 18세기 말 이래로 퇴계집을 증보하면서 추가된 것과 19세기말 역동서원의 훼손으로 인해 이전되어 것이 합쳐진 결과로 보인다.

7) 1969년 시행된 典籍조사에서는 모두 907종 4,338책이 조사되었는데, 동광명실에 195종 2,136책, 서광명실에 712종 2,202책이었다. 동광명실은 주로 경서류, 사류, 유가류, 문집류 등이며, 퇴계의 수택본을 위시하여 임란이전 판본들이 비교적 많았다. 서광명실은 근래에 발간된 문집류를 주로 보관하고 있었다. 역동서원 장서는 동광명실에 보관하였는데, 퇴계가 직접 수집한 책인 12종 113책으로 임란이전 판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하여 零本이 적고, 타 서원문고나 도서관에서 보기 힘든 책들도 상당수 있었다.

3. 자료조사 현황과 기타 기록자료

1) 도산서원 소장 藏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56년 한국어문학회에서 「陶山書院藏書目錄」(『어문학』 1집, 1956)을 소개한 이래로, 1969년에는 이춘희 등이 陶山, 玉山, 紹修, 屏山書院을 현지 조사하여 『李朝書院文庫目錄』(국회도서관, 1969)을 간행하였다. 이 책에는

도산서원 동·서 광명실의 藏書목록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易東書院 藏書도 함께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된 역동서원의 장서를 당시에 도산서원으로 이관하여 보관해왔기 때문이다. 1969년 당시 조사에서는 역동서원 장서는 별도로 표시하여 목록을 작성하되, 총 수량은 구분치 않았다. 이때 조사된 수량은 907종 4,338책으로써, 고문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역동서원 소장본 및 서지사항은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국회도서관, 1969)의 「陶山書院 藏書目錄」 참조.)

2) 도산서원은 소장 자료(고문서)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1994년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에서 도산서원 소장 자료에 대한 조사를 거쳐 院規, 儀禮, 日記, 通文類 등을 정리하여 『陶山書院古文書(Ⅰ)』(1994)으로, 土地賣買文記, 노비매매문기 및 점련문기, 所志, 牌旨, 立案, 完議, 完文, 關文, 牒呈, 書目, 告目, 帖, 標記, 戶籍, 單子, 記錄類, 擇日記, 物目單子, 行祀節義, 答通, 簡札類 등을 정리하여 『陶山書院古文書(Ⅱ)』(1997)로 편간하였다. 여기에 실린 고문서는 모두 원본사진과 正書를 같이 기재하여 연구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3)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朝鮮時代 嶺南書院資料』(1999)에는 단국대 퇴계학연구소에서 간행한 자료집에 누락된 성책고문서들의 목록만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서원경제 관계 자료 등이 너무 방대한 규모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자료를 선별 수록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때문이었다. 소개된 것은 院任錄·遊院錄·執事分定記 등 서원의 인적구성과 그 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土地案·奴婢(身貢)案·秋收記·打作記·傳掌記(경리장부) 등 서원경제 관계 자료들이다.

4) 도산서원 소장 자료는 2003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 이들 기탁자료는 『陶山書院 古典籍』(2006)이라는 목록집으로 간행되었으며, 현재 유교넷(<http://www.ugyo.net>)으로 원문이미지와 해제를 서비스 하고 있다. 위 책에는 고서류 1,026종 4,605책, 고문서류(성책 : 702점 포함) 2,128점, 목판류 57종 4,014점, 서화류 11점, 기타(관모, 궤, 함, 연갑, 제복, 향상 등) 9종 30점 등 총 10,788점의 도산서원 유물의 목록과 서지사항이 조사되어 있다.

5) 도산서원과 관련한 연구는 도서의 반출이 어려운 관계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소장 자료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도산서원 장서에 대한 목록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원 소장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제 분야에 걸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부터 서원 관련 자료집과 보고서가 출간되면서 시작되었다.

▷ 참고문헌

- 한국어문학회, 「陶山書院藏書目錄」 『어문학』 1집, 1956.
-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국회도서관, 1969.
- 문화재관리국, 『도산서원 중수지』, 1970.

- 도부학, 「역락서재 재제론 ; 도산서원의 교육적 기능추구」 『퇴계학보』 4, 1974.
- 이원희, 『도산서원요람』, 1975.
- 이가원, 「도산서원 의례고」, 『퇴계학보』 37, 1983.
- 이수환,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 소수, 옥산,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2·3집, 1982.
- 서경태, 『도산서원 건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이가원, 「도산서원 십이곡」 『퇴계학보』 60, 1988.
- 김석하, 「도산서원 전임안 해제」 『퇴계학연구』 2, 1988.
- 정세환, 『조선후기 안동 도산서원의 경제기반 연구 : 도산서원 고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이건식, 「도산서원 소장 소학집설의 난상구결에 대하여」 『도솔어문』 6, 1990.
- 이수환, 「도산서원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민족문화논총』 12, 1991.
- 안동군(경상북도), 『도산서원:실측조사보고서』, 1991.
- 김연경, 「안동지방의 서원현황」 『안동사연구』 4, 1991.
- 최순희, 「조선후기 중기이후 전민매매의 실상 : 도산서원 소장 문기(명문)을 중심으로」 『중재장충식박사 화갑기념논총』, 1992.
- 광동하·장석하, 「도산서원 배치에 관한 연구 -도산서원 영건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일대학교 논문집』 9, 1993.
- 안동문화원, 『안동의 서원』, 1994.
-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陶山書院古文書(Ⅰ)』, 1994.
- 도산서원, 『선비정신의 참모습』, 도산서원관리사무소, 1996.(연간)
-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陶山書院古文書(Ⅱ)』, 1997.
- 권영한, 『도산서원과 현판』, 한빛, 1998.
- 윤천근, 『퇴계선생과 도산서원』, 지식산업사, 1999.
- 국사편찬위원회, 『朝鮮時代 嶺南書院資料』, 1999.
- 이영기, 「도산서원 현판 參祭記」, 『法曹』 48, 1999.
- 안병걸, 「도산서원」 『서원, 한국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1, 2000.
- 전영일·박용재, 「퇴계 이황의 “敬”사상을 통한 도산서원 건축공간의 고찰」 『동국논총』 39, 2000.
- 박미정, 『퇴계문집을 통해서 본 자연관과 건축관 :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우성, 『도산서원』, 한길사, 2001.
- 이상해,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반영된 퇴계의 서원 건축관」 『퇴계학보』 110, 2001.
- 김영태, 「건축과 회화 : 도산서원」 『건축』 45, 2001.
- 이경숙, 『도산서원의 관광자원 자치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상현, 「월천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논의」 『북악사론』 8, 2001.
- 남풍현, 「도산서원의 고문서에 대하여」, 『퇴계학연구』 16, 2002 ; 『한국의 서원과 학맥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설석규,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필사본 <월천선생문집>해제」 『국학연구』 5, 2004.
-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광명실소장) 월천선생문집』, 2004.
- 백세현, 『도산서원과 돈암서원의 건축적 특성 연구 : 조선중기 예학의 배경을 중심으로』, 단

- 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지역의 목판자료(1)』, 2005.
 -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고전적』, 2006.
 - 정진호, 『(도산서원)혼천의』, 안동시, 2006.
 - 서정문, 『조선중기의 문집편간과 문과형성』,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안경식, 「교육공간을 향한 퇴계의 시선」 『교육사상연구』 22, 2009.
 - 정혜림, 『도산잡영과 도산십이곡 비교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문화재청,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상덕사 및 삼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상·하), 2011.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소수서원·도산서원-』, 2011.

6) 각종 문집에서 散見되는 도산서원 관련 글.

① 도산서원과 관련한 글들은 대부분 영남지역을 유람하면서 도산서원을 들러 그 감회를 읊은 시와 도산서원에 致祭한 후 쓴 글로 크게 나뉜다. 이들은 퇴계의 문인과 후학들이 대부분이며, 정조와 장헌세자와 같이 왕실의 인물들도 있다. (「한국고전종합DB」(한국고전번역원) 및 『영남문집해제』(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참고).

- 郭鍾錫, 『俛宇集』 권3, 「陶山書院」
- 權相翊, 『省齋集』 권4, 「陶山書院士林」.
- 權周郁, 『逋庵集』 권2, 「陶山僉座」.
- 權文海, 『草澗集』 권2, (七言律詩)「陶山. 次李逢原韻述感懷」; 권5, 「陶山諸子錄」.
- 權斗寅, 『荷塘集』 권3, 「陶山士林」.
- 權好文, 『松巖集』 권3, 「陶山歸路 得辛上舍五言次之」, 「題先生陶山記後」; 속집 권4, 「次陶山梅韻」 「次憶陶山梅韻二首」; 별집 권2, 「望後二日 和裴上舍汝友遊陶山韻」
- 琴蘭秀, 『惺齋集』 권1, 「陶山祭後登天淵臺有感」; 권3, 「陶山書堂營建記事」.
- 琴輔, 『梅軒集』 권1, 「陶山書院董役之暇 吟示諸公」; 권2, 「陶山記考證」.
- 奇大升, 『高峯續集』 권1, 「陶山書堂」, 「時習齋」, 「淨友塘」, 「觀瀾軒」, 「止宿寮」, 「節友社」, 「幽貞門」, 「谷口巖」, 「天淵臺」, 「玩樂齋」, 「芙蓉峯」; 권2, 「退溪先生陶山記文跋」
- 金昌翁, 『三淵集』 권8, 「陶山書院」.
- 金道和, 『拓庵集』 권3, 「陶山書院廟變後請復」.
- 金澤龍, 『操省堂集』 권3, 「陶山書院月川趙公從享時告元位退溪李先生」.
- 金正漢, 『芝谷集』 권2, 「陶山齋儒」.
- 金邦杰, 『芝村集』 권3, 「退溪精舍山長」, 「退溪士林」, 「退溪精舍奉安陶窩先生朴公」.
- 金鴻洛, 『某溪集』續集 권2, 「陶山書院答通」.
- 金宗洛, 『三素齋集』 권2, 「陶山士林」.
- 朴在馨, 『進溪集』 권7, 「陶山至言」.
- 朴勝振, 『聽荷集』 권11, 「通陶山書院」; 권13, 「書從先祖忍庵公家藏陶山東帖後」.
- 柳台佐, 『鶴棲集』 권4, 「陶山會中」.
- 申佐模, 『澹人集』 권8, 嶠南紀行 丙子「奉審陶山書院敬述」.
- 宋秉璫, 『淵齋集』 권2, 「謁陶山書院」.

- 尹鳳九, 『屏溪集』 권2, 「謁陶山書院」.
- 李 瀾, 『星湖全集』 권53, 「謁陶山書院記」.
- 李頤淳, 『後溪集』 권7, 祝文 「陶山書院致祭時告由文」
- 李德弘, 『艮齋集』 권1, 「陶山述懷」 「陶山懷古」 「次金希仲過陶山見盆梅有感」; 권2 「訪陶山梅有感」
- 李 滉, 『退溪集』 권3, 「陶山雜詠并記」; 권43, 「陶山十二曲」.
- 李象辰, 『下枝集』 권4, 「答陶山書院文」.
- 李 選, 『芝湖集』 권1, 「陶山書院有吟」
- 李萬敷, 『息山集』 別集 권2, 地行錄 4 「陶山書院 3首」
- 李 植, 『澤堂集』 권4, 「謁陶山退溪先生祠院」.
- 李裕元, 『林下筆記』 권17, 「畫進陶山精舍」.
- 李翊鎬, 『晚圃集』, 「陶山書院通道內文」.
- 李晚寅, 『龍山集』 권6, 「柳文用所編陶山門人錄」.
- 李家淳, 『霞溪集』 권6, 「陶山齋任」; 권8, 「陶山移安告由」; 권9, 「陶山光明堂」.
- 莊獻世子, 『凌虛閣漫稿』 권1, 「禮安 陶山書院」
- 正 祖, 『弘齋全書』 권22, 祭文4 「陶山書院 致祭文」.
- 全 雨, 『睡足堂集』 권下, 「退溪書院奉安文」.
- 丁若鏞, 『與猶堂全書』 제1집 권22, 「陶山私淑錄」.
- 鄭宗魯, 『立齋集』 권6, 「敬次陶山雜詠十八首」
- 鄭 述, 『寒岡集』 권5, 「答陶山書院諸生」.
- 鄭來成, 『思軒集』 권3, 「陶山士林」.
- 鄭鎮伯, 『石農集』 권3, 「陶山書院改造主」, 「陶山書院」.
- 曹兢燮, 『巖棲集』 권15, 「答陶山書院代道東書院」
- 趙星臣, 『恬窩逸稿』 권2, 「陶山別曲」
- 趙德麟, 『玉川集』 권8, 「從弟久之家武夷陶山圖帖後」
- 趙 穆, 『月川集』 권1, 「陶山祭後登天淵臺」, 「自清涼宿陶山 歷訪李大用」; 권6, 「陶山書院尚德祠春秋常用祝文」, 「陶山書院奉安文」; 부록, 「陶山書院從享賜祭文」.
- 趙錫胤, 『樂靜集』 권1, 「過陶山書院」; 권5, 「謁陶山書院 丙子」
- 趙秉時, 『枕溪集』 권5, 「權君孟範達榮陶山四詩吟詩帖」.
- 蔡彭胤, 『希菴集』 권20, 奉使錄(己酉) 「…轉謁陶山書院…」
- 許 薰, 『舫山集』 권6, 「請復造陶山書院位版疏」; 권18, 祝文 「陶山書院復設位版告由文」
- 黃應奎, 『松澗集』 권4, 「陶山及門諸賢錄」

② 그리고 이밖에 문서로 다른 기관에 소장된 자료로 ㉠ 장서각 16점(경주 용산서원 4점, 독락당 8점, 주춘진성이씨 3점, 무실종택 1점, 미상 1점) ㉡ 한국국학진흥원 1점(간찰, 제산종택 고문서)이 있다.(이상 역사정보통합시스템 검색) 이외에 영양향교 2점, 설월당 간찰 3점이 있다.(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검색)

4. 전승 자료의 내용과 특성

1) 서원소장 고서

도산서원 고서는 경부가 98종 614책, 사부가 161종 1,108책, 자부가 63종 384책, 집부가 704종 2,499책으로 총 1,026종 4,605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산서원은 국가적 관심속에 자주 내사가 이루어졌고, 문도와 후학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도서가 수집되었다. 또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진 까닭에 임란이전 시기의 선본도 많이 소장하고 있다.

▷ 회귀, 귀중본

『國朝五禮儀』, 『國朝五禮序列』(명종·성종연간 刊)

『後漢書』(을해자본, 120권 32책 完帙), 『晉書』(초주갑인자본, 130권 43책 完帙)

『精忠錄』(1585, 재주갑인자본), 『關里誌』(1512, 13권 13책 完帙)

『性理大全書』(1570, 完帙), 『朱子大全』(1575, 복간본, 100권 76책 完帙)

『朱子語類』(1575, 병자자본(복간))

『退陶先生集』(20책, 필사본, 原稿本: 李安道, 金誠一 등)

『退溪先生文集』(52권 40책, 零本, 草稿本, 교정자: 柳雲龍, 金誠一, 柳成龍, 金垓 등)

『退溪先生文集』(27책, 零本, 草本, 1600년 이전)

『退溪先生文集』(51권 32책, 현전 最古 목판본)

『退溪先生文集』(21책 零本, 庚子本(1600))

『退溪先生文集』(27책 零本, 경자복각본)

『退溪先生續集』(초고본, 8권 4책 完, 李守淵 편, 1746)

『陶山及門諸賢錄』(초고본, 필사본)

▷ 고서의 목록은 한국어문학회, 「도산서원 장서목록」(『어문학』 1, 1956),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국회도서관, 1969),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고전적』(2006)을 참조하기 바람.

2) 서원소장 고문서

도산서원 고문서는 총 2,128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所志, 明文, 通文, 置簿記, 望記, 祭文, 座目 및 成冊 고문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고문서는 도산서원의 존립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현실적인 존재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 도산서원고문서 분류표(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고전적』(2006) 참조.)

분류	점수	분류	점수
所·筭·狀·啓類	44	詩文·記錄類	24
牒·關·通報類	39	行狀·祭文類	63
戶籍類	2	事目·節目類	13
證憑類	3	名簿類	83
明文·文記類	50	成冊古文書	702
書簡·通告類	774	其他	3

置簿記類	328	계	2,128
------	-----	---	-------

① 所志(43점) : 대개 서원소유 노비들의 소유권문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처분의 시정을 관에 진정하는 내용이 주류이다. 이외에 1855년(철종 6)에 사도세자 추존상소가 있다. 소위 萬人疏로 널리 알려진 이 상소는 李彙柄을 所首로 하고 모두 1,0094명이 참여했으며, 길이는 100M에 가깝다. 이를 통해 서원이 학문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② 明文(38점) : 田畓을 매매하거나 매도한 증명서로서 16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 전답들은 서원의 유지와 교육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③ 簡札(402점) : 『도산급문제현록』 간행과 관련해 보낸 것이 많은데, 급문제현의 후손이 급문록 간행을 축하하며, 선조의 사적을 보내니 참고하라는 내용이다. 또 간역에 부조금을 보낸다거나, 선조의 기록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보완요청도 있다.

④ 通文(357점) : 개인 내지 타 서원에서 보내온 것이며, 모두 도산서원과 관련된 것이다. 통문을 보면 도산서원은 지역사회에서 공론을 모아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그 판단자의 입장에 섰으며, 전체적으로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통문은 도산서원의 입장을 직접 반영하지는 않지만, 당시 도산서원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과 도산서원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 내용은 『도산급문제현록』 간행을 둘러싼 문제, 사도세자 추존 및 서원훼철이나 위정척사와 관련한 만인소를 제작할 당시의 상황, 한려시비·병호시비, 嫡庶간의 是非와 관련한 내용 등이 있다.

⑤ 성책고문서(702점) : 내용적으로 置簿記, 座目, 日記, 通文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많은 것은 米穀을 비롯한 제반 물자의 출납, 서원소유 토지장부, 소출과 지세납부 상황, 집사 분정, 각종 행사시 좌목, 광명실 소장 서적목록, (刊行)扶助記, 중건 및 수리시 금전출납, 所屬奴婢案, 守護軍案 등이다. 특히, 서적 목록은 당회나 포쇄시, 新舊有司遞任時 작성한 것으로 서원 소장 전적의 내력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 고문서 목록은 『도산서원 고전적』(한국국학진흥원, 2006)을, 해제는 유교넷(<http://www.ugyo.net>)의 <도산서원 고문서>를 참조 바람.

3) 서원소장 판목

판목은 책판, 시판, 서판, 현판 등이 있는데, 모두 57종 4,014점이다. 책판, 시판, 서판은 2003년에, 현판은 2007년 6월에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되었다. 책판은 28종 3,928점으로 가장 많은데, 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584년에 제작된 松齋 李堦의 『松齋先生文集』 55점이다. 『陶山及門諸賢錄』 책판은 102점으로 1914년에 제작되었지만, 筆寫校訂本, 刊役時日記와 간행과정을 기록한 각종 고문서까지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시판은 8종 43점이며, 서판은 9종 30점, 현판은 12종 13점이 있다.

번호	분류	명칭	수량
1	책판	계몽전의(啓蒙傳疑)	42
2	책판	계산세고(溪山世稿)	56

3	책판	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	26
4	책판	교남빈흥록(嶠南貧興錄)	24
5	책판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	102
6	책판	몽재유고(蒙齋遺稿)	49
7	책판	문순공퇴도이선생묘갈명(文純公退陶李先生墓碣銘)	2
8	책판	송재선생별집(松齋先生別集)	40
9	책판	송재선생속집(松齋先生續集)	21
10	책판	송재시집(松齋詩集)	55
11	책판	오가산지(吾家山誌)	37
12	책판	온계선생문집(溫溪先生文集)	119
13	책판	운암일고(雲巖逸稿)	6
14	책판	월천선생문집(月川先生文集)	109
15	책판	송계원명이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	300
16	책판	자성록(自省錄)	42
17	책판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462
18	책판	진성이씨족보(眞成李氏族譜)	10
19	책판	치재유고(恥齋遺稿)	70
20	책판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庚子本)	753
21	책판	퇴계선생문집속집(退溪先生文集續集)	150
22	책판	퇴계선생문집신판(退溪先生文集 甲辰重刊本)	1,143
23	책판	퇴계선생언행록구판(退溪先生言行錄舊版)	102
24	책판	퇴계선생언행록신판(退溪先生言行錄新版)	100
25	책판	퇴계연보(退溪年譜(新))	65
26	책판	퇴계연보(退溪年譜(舊))	40
27	책판	무서변과록(誣書辨破錄)	1
28	책판	후계집(後溪集)	2
29	시판	퇴계시(退溪詩)	5
30	시판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3
31	시판	회재시(晦齋詩)	5
32	시판	도산잡영(陶山雜詠)	8
33	시판	매화시(梅花詩)	13
34	시판	성재팔영(惺齋八詠)	4
35	시판	사시음(四時吟)	4
36	시판	이정두 근제(李廷斗 謹題)	1
37	서판	적선(積善)	1
38	서판	병명(屏銘)	9
39	서판	사물잠(四物箴)	4
40	서판	篆書體	1
41	서판	무자기 신기독(無自欺 愼其獨)	1
42	서판	송주희서(宋朱熹書)	1
43	서판	사무사 무불경(思無邪 毋不敬)	1
44	서판	징분질욕(懲忿窒慾)	1
45	서판	대보잠(大寶箴)	11
46	현판	청계서원(淸溪書院)	1
47	현판	청량정사(淸涼精舍)	1
48	현판	계현사(啓賢祠)	1
49	현판	향현사(鄉賢祠)	1

50	현판	역락서재(亦樂書齋)	1
51	현판	암서헌(巖棲軒)	1
52	현판	관란헌(觀瀾軒)	1
53	현판	광명실(光明室)	2
54	현판	도산서원(陶山書院)	1
55	현판	농운정사(隴雲精舍)	1
56	현판	시습재(時習齋)	1
57	현판	완락재(玩樂齋)	1
소계		57종	4,014

※ 출전 : 『도산서원 고전적』 (한국국학진흥원, 2006)

4) 서원소장 자료의 가치

첫째, 도산서원은 4,600여 책에 이르는 방대한 古書와 4,000점이 넘는 목판, 약 2,100여 점의 고문서를 보존, 전승해 왔다. 이들 자료는 임고서원 소장전적(보물 1109호)과 필암서원 문서일괄(보물 587호)에 비하여 시대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뒤지지 않는다. 또한 서원운영과 관련하여 당시에 바로 작성된 고문서류가 거의 대부분 소장되어있다는 점에서 이들 자료는 조선 후기 서원 운영내지 향촌사회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둘째, 도산서원 고서는 퇴계의 수택본과 역동서원 소장본 및 도산서당 소장본 등 임란이전 시기에 지어진 서적이 상당부분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서원 자체로 발간한 서적도 많았는데, 특히, 『퇴계집』, 『도산제현급문록』의 간행과 관련한 각종 필사본과 간행본이 남아있어서 조선시대 私撰 서적간행의 과정과 내용을 거의 정확히 알려준다. 또한 국내에 현존하는 『퇴계집』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목판본이 남아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셋째, 고문서는 조선시대 서원 내지 향촌사회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일차적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현전하는 고문서류는 시기적으로 18세기 이후에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서원의 재정과 관련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즉, 명문과 소지는 토지매매와 노비 신품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며, 기타 성책고문서는 각종 제향 및 도회시에 소용되는 물목을 기록한 것이다.

넷째, 서원의 인적교류 및 운영과 관련된 고문서류이다. 특히, 심원록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대부분이 남아있으며, 이외에도 집사 분정기와 건물 중수 및 수리시 일기, 치제시 일기 등이 남아있어서 당시의 준비사항과 진행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다섯째, 도산서원은 16세기 말 이래로 경상좌도의 서원과 사림들의 동향 및 그들을 이끌어가는 이념을 형성하였다. 다시 말해 그들의 중심에 서서 시비를 조정하고, 향론을 모아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로부터 접수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통문, 간찰 등)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후기 영남 내 사회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것이다.

5. 향후 활용의 과제

1) 현전 소장 자료의 문화재 지정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전하는 고문서 자료들을 일괄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일이다. 도산서원 소장 古典籍類의 경우 일부 고서와 고문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하지만, 도산서원의 역사적 위상, 소장 자료의 방대함과 다양성 및 각 자료 내용의 연계성과 연속성 등은 고려할 때 이미 보물로 지정된 임고서원, 필암서원의 자료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문화재 지정은 관리의 체계화와 안정된 재정지원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다행히 도산서원 자료는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되어 체계적 보존관리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지만 비단 연구자(기관)와 서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려면 자료의 문화재 지정은 미뤄 둘 수 없는 과제이다.

2) 연구사업의 추진과 정례화

도산서원은 그 지역적, 역사적 위상에 비해 전문적 연구가 미진하였는데, 이는 자료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퇴계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연구 성과가 나왔지만, 정작 도산서원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소략한 형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3년 도산서원 자료가 한국국학진흥원에 일괄 기탁된 이후 최근에는 유교넷을 통해 서지사항, 간략해제, 원문텍스트, 원문이미지 등이 웹서비스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높여줄 것이고, 제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는 이 기회에 분산 소장된, 그리고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도산서원 관련 자료들을 정밀 재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서원에서 도산서원이 가진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시킨 주제별 연구를 매년 진행(학술세미나, 연구논문(총) 발간)할 필요성이다. 서원정신과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이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과제라고 볼 때 이 사업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2011년부터 <한국 유교문화 심층연구>의 일환으로 도산서원 자료를 활용한 학제간 정기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물이 2012년 내에 발간될 예정이며, 추후 이러한 연구는 각 문중 및 서원 자료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한 것은 지자체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도산서원의 홍보,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되어 그 문화사적 요소들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록 자료의 교육, 홍보자료 활용

기록 자료를 활용한 교육, 홍보를 위해서는 그 분야에 맞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들 자료를 조사,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것이다. 자료집(서원지) 발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서원지들은 내용이 소략하거나, 서원 내지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자료가 취사·수록되었다. 이것은 예산의 한계로 자료집(서원지)의 지면이 제한되어 많은 자료를 수록하기 어려웠던 것도 한 요인이 된다. 앞으로 서원지 발간을 위한 조사는 유·무형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목차와 내용 범위는 연구자, 개발자, 관계자(서원, 관공서) 등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온라인에서는 모든 수집 자료를 검색,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 이들 자료를 활용한 연구와 일반인의 이용이 쉽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원과 관련된 주변의 유물, 유적, 인물 등을 소개하고 나아가 여러 답사 코스 소개(개발)와 제향인 내지 서원과 관련된 각종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관련 자료들을 함께 소개해야 한다. 이는 일반인, 교사, 연구자들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고, 서원에 대한 관심 증대와 관광 수요가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도산서원은 서원의 관광자원활용과 선비정신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타 지역의 서원들과는 달리 이미 가시적 성과를 이루고 있다.

첫째, 2001년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 개설하여 선비정신의 전승을 위해 유교제례와 유학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둘째, 홈페이지(<http://www.dosanseowon.com>)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도산서원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현장에는 문화유산해설사가 상주하면서 언제든지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어있다. 셋째,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코스도 이미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코스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넷째, 기업, 학교, 관공서, 관광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점은 이들 기록자료를 제대로 활용한 도산서원의 교양 해설자료, 교육·홍보자료의 편찬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관광 안내 자료를 보면 매우 소략하고, 건물과 제향인물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역사와 정신이 포함되고 경관이나 건축, 제향인물의 행적이 수요층에 따라 알기 쉽고 다양하게 정리되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주제와 특성, 도산서원만의 모습들이 축약적으로 편집 온축하려면 연구, 편집, 교육자들이 힘을 합쳐 수요자에 맞는 3-4종의 서로 다른 홍보·교육 자료들을 개발하여 간행하여야 한다. 도산서원만의 특징을 살린 홍보 자료집 발간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코스의 개발 및 숙박시설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도산서원은 단순 유교건축물이나 특정 인물 중심의 유산이 아닌 한국의 대표적인 정신문화유산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필암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김 희 태

(전남도청, 문화재 전문위원)

1. 필암서원의 연혁 개략

필암서원은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번지 일원(조선시대 전라도 장성부 서일면 필암리)에 위치한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 사적 제242호로 지정되었다. 제향일 매년 2·8월 중정일에 행한다.

‘筆巖’의 유래는 하서 김인후의 태생지인 황룡면 맥호리 맥동 마을 입구의 붓바위에서 유래한다. 붓바위는 붓처럼 생겨 불리운 이름이다. 풍수지리학에서는 터를 잡은 곳에 붓모양의 산[文筆山]이나 바위가 있으면 대학자가 난다고 한다. ‘필암’과 인연을 맺은 대학자를 김인후로 보고 있는 것이다. ‘筆巖’이라는 글씨는 윤봉구(尹鳳九, 1681~1767)가 썼다고 알려져 있으며 필암서원은 이 붓바위에서 연유하였다. 필암서원 건립 이전인 조선초기에 간행한 『신증동국여지승람』(1486년 간, 1530년 신증) 제36권 장성현(長城縣) 산천조에 ‘문필천(文筆川)은 장성현 서쪽 7리에 있는데, 송현에서 나온다.’는 기록도 있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70)를 배향한 서원으로 1590년(선조 23)에 하서의 문인인 기효간(奇孝諫, 1530~1593), 변성온(卞成溫, 1540~1614), 변이중(邊以中, 1546~1611) 등의 발의로 장성읍 기산리(長城府 邑西面 外岐山 鰲山南)에 창건되었다.

그러나 건립된 바로 뒤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이에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많은 지역이 선비들이 의병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다가 순절·희생되었다. 특히 장성 남문창의(南門倡義)의 수창자가 하서의 삼종형인 김경수(金景壽)이며, 하서의 문인인 기효간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당시 서원 건립의 주역들이었을 하서의 문인 대부분도 의병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또 발생되고 이때 필암서원이 병화로 불에 타버림으로서 초창기 서원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왜란의 피해와 혼돈이 어느 정도 정리 되자, 1624년(인조 2) 문인들은 하서의 학문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선사(先師)와 후학과의 학문적 연계성을 맺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원의 복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때 복설은 옛터(장성읍 기산리)에서 황룡면 필암리 증산동으로 자리를 옮겨 이설한다. 추담(秋潭) 김우급(金友弼, 1574~1643)이 필암서원상량문을 짓는다.(『秋潭先生文集』 권8)

이건 복설 이후 장성의 인근 유생[오이익 등]들은 공론으로 김인후 서원의 사액을 요청하게

된다. 즉, 1658년(효종 9) 전라도 유생들의 연명 상소로, 그 이듬해인 1659년에 조정으로부터 김인후서원에 '筆巖'이라는 액호가 내려 졌으며, 실제적인 선택은 3년 뒤인 1662년(현종 3)에 이루어졌다.(『효종실록』 권21, 효종10년 기해 윤3월 무자[28일]) 사액 이후 곧이어 1669년에는 김인후에게 '문정(文正)'이란 내려 졌다.

그뒤 1672년(현종 13) 3월에 이르러 증산동에 복설하였던 서원을 다시 현 소재지인 황룡면 필암리로 다시 옮겨 짓게 되는데, 이유는 증산동이 지대가 낮아 물난리로 흠다리가 위험해지는 등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공론이 있어 새로이 서원자리를 모색하던 중 필암리로 이 건이 결정되었다 한다. 기정익(奇挺翼, 1627~1690)이 필암서원해우상량문(筆巖書院垓宇上梁文)(『松岩先生文集』 권5)을 짓고,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이건고유문(移建告由文)(『同春堂先生文集』 권16),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하서선생봉안제문(移建後奉安河西金先生文)(『宋子大全』 권151)을 짓는다.

1697년(숙종 23) 호남 유림(창평 정유달, 나주 나천추 등)이 소를 올려 고암(鼓岩) 양자징(梁子徵, 1523~1594)을 필암서원에 배향하여 줄 것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7세기 초반은 이미 전국적으로 서원건립이 급격히 증가한 때이고, 도한 고암은 주벽인 하사의 문인이면서 사위라는 점에서 마땅히 서원에 배향할만한 인물이지는 하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그 뒤 1703년(숙종 29)에도 전라도 생원 나천형(羅天衡, 1658~?)등이 소를 올려 김하서의 문인인 현감 양자징, 처사 변성온, 처사 기효간 등 3인을 필암서원에 추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역시 허락되지 않았다.(『서원등록』 1703년 계미 10월 4일조) 1744년(영조 20) 학연루를 보수하는데 수년 뒤 화재로 불에 타자 1752년(영조 28) 중건한다. 송명흠(宋明欽, 1705~1768)이 중수상량문(長城筆巖書院廓然樓重修上梁文)(『櫟泉先生文集』 권14)을 짓는다. 1759년(영조 35)에 동재와 서재를 중수하고 1764년(영조 40)에는 문루에 단확(丹腹)을 한다.

한편 1771년(영조 47) 전라도 유생 양학연(梁學淵, 1708~?) 등은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할 것을 소청하였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하여 팔도유생 박맹원(朴孟源) 등이 김인후 문묘배향을 소청하고, 이어서 외방유생과 관학 유생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자 조정에서는 1796년(정조 20)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필암서원지』 권2, 陞廡疏條)

그뒤 1786년(정조 10)에는 전라도 진사 이경집(李敬緝, 1775~?) 등의 상언에 따라 앞서 장성 유림들에 의하여 소청된 바 있던 양자징의 필암서원 추배도 허락되었다.(『정조실록』 정조 21권, 정조 10년 병오 2월 경자[26일].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47개소의 서원만을 남겨 놓고 대대적인 서원 훼철이 단행 될 때 필암서원은 무성서원, 포충사와 함께 전라도 지역 존치 원사 3개소에 든다.

1887년(고종 24) 장성부사 김승집(金升集, 1826~?)에 의하여 서원이 중수되는 한편 서원 운영을 위항 토지 매득을 실시한다. 이때 하서의 후손들이 협력하여 동재와 서재를 중수하고 또한 강당과 문루도 함께 보수 하였다.⁸⁶⁾

86) 이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26년 광명등 건립, 고사·행랑신축, 사우·강당·양재·문루의 장대석을 설치.

2. 2차례의 『필암서원지』 발간과 자료

1) 『필암서원지』는 조선전기 학자이자 문신인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배향하기 위해 건립된 필암서원의 연혁, 강론활동, 운영실태 등 일체를 호남 유림들이 모아 정리한 기록이다.

2) 조선시대의 필암서원 자료는 서원지 형태로 집대성되지는 못하고 1949년(기축 정춘원서문, 7권 1책)과 1975년에 석판본으로 2차례에 걸쳐 3회 간행된다. 1949년본은 1책으로, 1975년본(갑인 김윤동 서문, 을묘 안중선 서문)은 4책과 3책으로 간행된다.

3) 1949년본 『필암서원지』는 1941년(신사)에 경운 기우채, 용계 김원필이 원지를 7권 1책으로 편차하고 1949년에 소산 정춘원, 금헌 나우순, 후손 김규직 등이 발간하여 널리 배포하고자 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한다. 이 서원지는 서문(기축[1949] 烏川 鄭春源), 범례(25조), 목차, 권수, 권일~권칠, 발문(屠維赤奮若[기축, 1949] 후손 圭稷, 신사[1941] 光山 金元弼)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首	鄉飲酒禮圖	禮曹 啓	奉安祝文
賜祭文	鄉約儀圖	請從祀文廟疏	先生位告由祝文
卷一	謝座圖	請從享文廟疏	先生位告由祝文
院全圖	院信圖	蒙 允	梁先生位告由祝文
淵源錄	卷二	從享時禮曹 啓	先生位告由文
陳設圖	文正公神道碑銘	百有司 錄	梁先生位告由文
祭器圖	數嚴公行狀	御書墨竹 題	梁先生位禮成祭
禮服圖	請額疏	御書墨竹 後跋	文
贈謁禮圖	三先生請配疏	仁宗大王 御製奉	祠宇重建後還安
相揖禮圖	梁先生請配疏	藏書院事實	祝文
士相見禮圖	卷三	鄉約儀節序	書籍
上梁文 四首	位田反學田	鄉射儀節	舊書籍
記文 四首	齋戒	卷五	備品
廟庭碑文	齊官	清節堂題咏	移建及重修 有司 錄
卷四	祀板	諸賢答院儒書	卷七
建置事實	院規	儒狀尾題	講案
形勝	院儀節	卷六	院籍
位置	瞻謁禮笏	立議	執綱案
祠院設備	釋菜禮笏	完文	獻誠錄
任員	相揖禮笏	祭器附祭具	
儒生	士相見禮儀節	祭需物目	
奴婢	鄉飲酒禮儀節	樂器	

필암서원지 목록(기축년[1949년] 정춘원 서문본)

1938년 강당과 고사를 개수하고 문랑(門廊)과 묘정(廟廷)을 포장.

1941년 사우를 중건하고 신문과 경장각을 수리.

1953년 산양계와 강회를 설치하고, 1956년에는 한 장사(汗丈舍)를 개수.

1967년 학연루·양재·신문·고직사를 보수하고 학연루 단청다.

1968년 필암교를 건설. 1970년 장서각, 1972년 청절당 개와(蓋瓦)와 전기설비 설치, 1973년 주변건물 8동 철거.

1975년 4월 23일에는 장성 필암서원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42호, 5월 1일에는 필암서원 문적일괄[14책 64매]이 보물 제584호로 각각 지정된다.

2000년대에 이르러 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였다. 2000~2001에는 토지 매입(12,949평), 건물 17동 보수, 유물전시관 건립 등, 2002~2003에는 오수차집관로 설치, 2004~2005에는 부지 성토, 진입로 개설, 개거·암거 등 설치, 2005~2006에는 전통 조경, 연지, 정자 건립, 2006~2010에는 유물전시관 증축, 진덕원·송의관 건립 등이다.

내용은 다음 목차에서 보는 것처럼 권수에는 사제문, 권1에는 원전도와 연원록, 권2에는 문정공신도비명, 고암공행장, 청액소, 권3에는 상량문(4수), 기문(4수), 묘정비문, 권4에는 건치사실, 유생, 노비, 원규, 권5에는 청절당제영, 제현답원유서, 권6에는 입의, 완문, 이진 중수 유사록, 권7에는 강안, 원적, 집강안 등이다

4) 1975년본 『필암서원지』

舊序：己丑(1949) 鳥川后人鄭春源謹書

序：甲寅(1974) 安東金潤東敬書, 乙卯(1975) 延昌安鍾宜謹書, 乙卯 後孫季洙盥手敬書

舊跋：屠維赤奮若(己丑, 1949) 後孫圭稷謹書, 辛巳(1941) 光山金源弼謹識

跋：：乙卯(1975) 黃州邊時淵謹跋

1975년본 『필암서원지』는 12권 4책본과 12권 3책본(天·地·人)이 전하고 있다. 이 4책본과 3책본은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편차를 달리하고 있다. 4책본이 간행된 뒤 추가 수요가 있어 3책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문은 김윤동(갑인, 1974), 안중선(을묘, 1975), 후손 김연수(을묘)가 썼고 발문은 변시연(을묘, 1975)이 썼다. 범례에 210부를 간행한 것으로 적고 있다. 1975년 5월 1일에 「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 「노비보(奴婢譜)」 「집강안(執綱案)」 등이 <필암서원 문적일괄>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587호]로 지정되는데 서원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4책본은 권수(卷首)와 권1~권3이 1책, 권4~권5가 2책, 권6~권8이 3책, 권9~권12가 4책이다. 3책본은 권수와 권1~권3이 1책(天), 권4~권7이 2책(地), 권8~권12가 3책(人)이다.

『필암서원지』는 신구(新舊)의 서문(序文)과 범례(凡例)가 실려 있는데, 구(舊) 서원지가 1949년 1책본으로 보인다. 먼저 이 책의 머리에 3개의 서문(序文)을 실었는데, 김윤동(金潤東)이 김인후를 덕을 추모한 것, 안중선(安鍾宣)이 자료를 수집한 김용계(金龍溪) 등과 비용을 마련한 후손 김연수(金季洙)를 들며 이 책의 제작배경을 설명한 것, 세 번째로 김연수의 글을 실고 있으며, 1949년에 정춘원(鄭春源)이 지은 구서(舊序)가 실려 있다. 이어 신구(新舊) 범례를 실고 있다.

이 책은 이 두 범례의 원칙을 절충하여 작성하였다. 먼저 ‘신범례’를 살펴보면 처음 옛 서원지(舊誌)가 마련되었으나 산실되어 1책이 남아 이를 바탕으로 210부를 간행한다고 하였고, 편차 체제는 구례와 다르게 크게 수정하였으며, 빠진 글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추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각 건물의 건평을 주로 달고 좌향(坐向) 등을 적었으며, 각종 원적(原籍), 「봉심록(奉審錄)」, 「참제록(參祭錄)」, 「서재안(西齋案)」, 「노비보(奴婢譜)」, 그리고 다른 고문서들은 번거롭더라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면 수록하였다고 하였다. 그 외에는 ‘구범례’를 따른다고 하였다.

이어 실린 ‘구범례’에는 임금이 하사한 어사문(御賜文)을 권 앞에 두는 것, 그림을 앞에 두고 문장을 뒤에 배치하는 원칙(先圖後文), 문정공(文正公) 김인후를 주향하고 고암(鼓巖) 양자징을 배향했으므로 「문정공신도비명」을 실고 「고암행장」을 뒤에 두는 것과 「청액문(請額

文), 「청배문(淸配文)」, 「종사문(從祀文)」, 「묘소(廟疏)」, 「백사록(百司錄)」을 순서대로 실는 등의 원칙을 기술하였다.

이 책의 세부 차례를 보면, 먼저 권수에는 치제문(致祭文), 문묘종사교서(文廟從祀敎書) 등과 서원전도(書院全圖), 연원도(淵源圖), 진설도(陳設圖) 등 각종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⁸⁷⁾

『필암서원지』는 조선시대 숙종년간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사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조선 후기 사회의 변모와 서원운영의 내용을 살피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며, 「노비보」, 「토지표시」 등과 같은 자료를 통해 서원 경제 활동의 면모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경제사 자료라 할 수 있다⁸⁸⁾.

3. 기록자료의 소장처와 조사 현황

1) 1802년 『필암서원원적(筆巖書院院籍)』 (4) - 서책 30종 234권[책], 책판[목판] 6종 625立 이 책은 표제가 원적으로 되어 있지만 ‘筆巖書院院籍’(보물 제 587호-12)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재산관련 문서로 볼 수 있다. ‘입의(立議)(1802년)’, ‘절목(節目)’에 이어 ‘서책질(書冊秩)’, ‘제기질(祭器秩)’, ‘재복질(齋服秩)’, ‘책판질(冊板秩)’, ‘답질(畓秩)’, ‘전질(田秩)’, ‘노질(奴秩)’, ‘비질(婢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서책질은 30종의 서책 목록이 수량(234권)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7종(오경백편, 좌전춘추, 아송, 규장전운, 향례합편, 삼강행실, 이륜행실)은 내사본임이 표기 되어 있다. 책판은 6종의 책판 목록과 수량(625立)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목궤(2)와 소목궤(1)가 함께 있음도 적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書冊秩

內賜 五經百篇 五卷	內賜 左傳春秋 十卷	內賜 雅頌 二卷	內賜 奎章全韻 一卷
內賜 鄉禮合篇 二卷	內賜 三綱行實 一卷	內賜 二倫行實 一卷	朱子大全 七十二卷
尤庵集 五十卷	禮記 十七卷	春秋 十卷	栗谷續集 四卷
西河集 十卷	家禮 四卷	疑禮問解 四卷	兩先生往復書 三卷
經書辨疑 二卷	天默齋集 二卷	松江集 一卷	寓軒集 二卷
遜齋集 五卷	松齋集 二卷	瀟灑園事實 三卷	河西集 八卷
羹牆錄 四卷	經國大全 三卷	鰲山人錄 一卷	草千字 一卷
小學講譜 二卷	奎章全韻玉篇 二卷		

冊板秩

87) 권1 ; 서원 연혁, 형승, 위치, 임원·유생 명단, 원규(院規), 향약, 제사 관련 의절(儀節). 권2 ; 宋時烈이 지은 「河西先生神道碑銘」과 각종 청원소, 임금의 하사문인 「御書墨竹跋」, 「鼓巖梁公行狀」, 사우 관련 기록. 권3; 淸節堂題詠, 각종 편지글, 관청의 승인문서인 完文, 府使下帖, 所志 등 고문서. 권4 ; 필암서원의 역대 「院長先生案」 「執綱案」 回通, 講員과 講官 명단과 約條文을 수록한 「文契案」, 「院籍」 등. 권5 ; 「奉審錄」. 권6~권7 ; 「參祭錄」. 권8 ; 講案. 권9 ; 「山仰契案」과 「扶成案」. 권10 ; 「有司錄」 「山仰契表誠錄」. 권11 ; 「西齋儒案」, 「奴婢譜」, 「奴婢秩」 「土地表示」. 권12 ; 서원 소유의 장서목록과 물품목록.
88) 조상순, 필암서원 연구—필암서원지 해석을 중심으로—, <文化財> 31, 문화재관리국, 1998 ; 김영민, 필암서원지, 왕실도서관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

舊文集板 二百六十一立 新文集板 三百二十三立 草千字板 十八立 楷字板 十八立
 筆法板 三立 墨竹板 二立
 大木櫃 二坐 小木櫃 一坐,

2) 1949년 『필암서원지』 - 서적 44종 282책, 구서적[고문서] 15종 24건

1949년 『필암서원지』(초판)에는 서적(書籍)과 구서적(舊書籍)으로 구분하여 목록과 수량을 제시하고 있다. 서적은 일반전적, 구 서적은 필암서원 운영관련 문서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구서적 대부분이 1975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서적은 모두 44종 282책으로 인종대왕어책(1책), 오경백편(5책, 內賜), 경국대전(3책, 내사), 주자대전(31책(산질), 일두집 4책(신2, 구2), 일재집(2책), 하서집(8책, 속 1), 사계전서(12책, 산질), 동춘집(12책, 산질), 한음문고(5책), 신재전서(9책), 송자대전(102책), 우암집(17책, 산질), 송재유묵(1책), 북양재실기(1책), 영양재유고(2책), 월봉실기(1책), 표곡실기(1책), 남계집(1책), 전재연보(3책), 만휴문집(2책), 간재예설(3책), 남전유고(2책), 존호록(2책), 율리지(3책), 집성사지(1책), 장성읍지(3책), 청금안(3책), 조선사(17책), 초천자문(1책), 과암집(7책), 전고대방(1책), 석천집(2책), 각재집(1책), 병천사지(2책), 일웅집(1책), 연체유고(1책), 희구당유고(1책), 조선역사(3책), 본원대장(1책), 백제유고(3책), 천미록(1책), 신임토역소(1책), 대학강의(1책) 등이다. 서적 가운데는 인종대왕 어책(1책)과 내사본 2종(오경백편, 경국대전) 8책이 목록상으로 보인다.

구서적은 15종 24건으로 원장안(1책), 집강안(1책), 봉심록(3책, 부 심원록 1책), 원적(4책), 문계안(1책, 부 참제록), 참제록(5책, 부 봉심록), 서재유산(1책), 원적(1책, 부 立議 서적목록 土地字號 院奴逃奴案), 노비안(1책, 부 保奴田畓及捧穀記), 완문(1철), 내통(1철), 소초(1축), 축식(1철, 부 祭需封進記 진설도), 흘기(1장), 상읍례흘(1장) 등이다.

3) 1969년, 이춘희 편, 『李朝書院文庫目錄』, 국회도서관 - 한적본 132종 595책

이 조사는 1968년 3월부터 1969년 2월까지 성균관대학교 이춘희 교수가 조선시대 미휘철 47개소 서원 가운데 남한 소재 33개소에 소장된 한적본을 조사한 것이다. 소장 도서 목록의 기술방법은 완전목록법으로 하였으며, 고종 이후에 간행된 서적은 간략 목록법으로 하였다. 필암서원 소장 도서는 도산서원(907종 4,338책), 옥산서원(866종 4,111책), 병산서원(1,071종 3,039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량이다.

4) 1975년 『필암서원지』 권 12. 장서목록 - 206종 777책

1949년 『필암서원지』가 책명과 수량만 기록하고 있는데 비하여 1975년 장서목록에는 서지사항도 추가되어 있다. 1949년 『필암서원지』에서 서적과 구서적으로 구분한 것을 1975년본에서는 구분없이 기록하였다. 다만, 앞 부분에 내사(內賜) 인종대왕어제, 내사 오경백편, 하서선생문집, 필암서원 문서 등 19종 28점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 서적 목록을 책명의 가나다순[일부 제외]으로 정리하였다. 각 문헌은 저자[편자]와 편찬 시기 권수와 책수, 서발문 찬자, 자수(字數), 재질, 장정, 판본 등 기본적인 서지사항을 기록하였다. 『필암서원지』에 실린 순서에 따라 목록만 제시한다.

筆 巖 書 院

主 享 者 : 金 麟 厚

創建年度 : 宣祖庚寅(1590)

賜額年度 : 顯宗壬寅(1662)

所 在 地 : 全羅南道長城郡黃龍面筆巖里

佳山書院誌

石版本 3卷 1冊

艮菴遺稿

木板本 4卷 2冊

艮齋先生禮說 權應斗(朝鮮)著

木板本 高敞, 昭和8年(1933)

6卷 3冊

跋 : 「庚午季夏 吳震泳」

刊記 : 「高敞元面月山里 艮復齋開刊」

高山書院誌

石版本 4卷 1冊

果菴先生文集 宋德相 著

木板本 昭和4年(1929)

4冊(零本)

及愚齋集 金寄漢(朝鮮)著

石版本 [1961年]

20卷, 續集 8卷, 合14冊

蘭石集

石版本 5卷 1冊

濫溪書院誌 朴彩箕 編

現代活字本 不分卷 1冊 白口 上下內向 2葉花紋魚尾 四周雙邊 有界 10行20字 半郭 : 16×21.4cm.

南崖集 金壽五(朝鮮)著

石版本 2卷 1冊

藍田遺稿 崔敬休(朝鮮)著

木板本 [跋 : 光武 8年(1904)]

1冊(零本)

露堂先生實記

木板本 2卷 1冊

老鍊語辭 李實(朝鮮)著

石版本 (1962年)

4卷 2冊

序 : 安邦俊

魯城園里誌 朴炳文(朝鮮)等編

木活字本 大田, 昭和8年(1933)

4卷 2冊 白口 上 2葉花紋魚尾 四周單邊 有界

10行22字 半郭 : 15.8×21.6cm.

大成壇實錄 李秉廷 編

石版本 [公州, 利仁 永慕齋, 1962]

1卷 1冊 上下向黑魚尾 四周雙邊 有界13行28字

半郭 : 15×22cm.

陶庵文集 丁敦燮 著

石版本 (1966年)

6卷 3冊

遜巖書院誌 金廷洙 編

石版本 (1959年)

上·下卷 1冊 白口 上下向 2葉花紋魚尾 四周雙邊

有界 12行30字 半郭 : 15.6×23.5cm.

東岡遺稿

石版本 1卷 1冊

桐厓先生實記 安章淳 編

石版本 全南實城, (1967年)

1卷 1冊

宣祖一孝宗時人安重獸의 事蹟

東嶽集

石版本 2卷 1冊

晚休先生文集 朴宗鉉(朝鮮)著

現代活字本 [昭和7年(1932)]

4卷 2冊(內1冊缺) 有界 10行20字

望菴先生文集 邊以仲(朝鮮)著

木板本 長城 (1962年)

6卷 2冊 白口 上 2葉花紋魚尾 四周雙邊 有界

10行25字

明心寶鑑

木板本 1冊

帽巖實紀 朴始淳 著

石版本 2卷 1冊

無如齋遺稿 金東洙 著

石版本 3卷 1冊

필암서원 도서 목록[부분](1969년, 『이조서원문고목록』)

인종대왕어제(仁宗大王御製, 內賜, 1권 1책[寫本], 崇禎4甲子跋),

오경백편(五經百篇, 內賜, 5권 5책, 嘉慶3)

하서선생전집(河西先生全集, 김인후, 전집 12권 6책, 부록 4권 2책, 속집 4권 2책)

하서선생언행록(河西先生言行錄, 김길중편, 1권 1책)

하서선생유묵(河西先生遺墨, 2권 1책) 백련초해(百聯抄解, 1권 1책)

담옹풍아(湛翁風雅, 김인후저, 김길중 편, 1권 1책)

봉심록(奉審錄, 3권 3책, 인조2년, 영조 경오, 계미준)

필암심원록(筆巖尋院錄, 1권 1책) 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 1권 1책)
 원적(院籍, 4권 4책) 문계안(文契案, 2권 2책) 노비안(奴婢案, 1권 1책)
 노비보(奴婢譜, 1권 1책) 집강안(執綱案, 1권 1책) 참제록(參祭錄)
 서재유안(西齋儒案, 1권 1책) 통문초(通文抄, 1권 1책) 상용축진설도(常用祝陳說圖, 1권 1책)

가산서원지(佳山書院誌), 간암유고(艮菴遺誥), 간재예설(艮齋禮說), 고운선생계원필경경학대장(孤雲先生桂苑筆耕經學隊仗), 국로추사(菊露秋寫), 귀성부사양공실기(龜城府使梁公實記), 간동유고(澗東遺稿), 광산김씨효열록(光山金氏孝烈錄), 경신재유고(敬愼齋遺稿), 고문진보전집(古文眞寶前集), 고문진보후집(古文眞寶後集), 급우재집(及愚齋集), 급우재속집(及愚齋續集), 근재유고(勤齋遺稿), 광산김씨보첩(光山金氏寶帖), 갈파일고(葛坡逸稿), 과암선생문집(果菴先生文集), 고산서원지(高山書院誌), 국전유고(菊田遺稿), 경양재유고(景陽齋遺稿), 노랄수사(老辣隨辭), 노성궐리지((魯城關里誌), 남죽유고(南竹遺稿), 남애집(南崖集), 노당실기(露堂實紀), 남전유고(藍田遺稿), 난석집(蘭石集), 역암집(櫟菴集), 남계원지(濫溪院誌), 늑천유고(鹿川遺稿), 난곡선생연보(蘭谷先生年譜), 노성궐리사신안지(魯城關里祠新安誌), 동강유고(東岡遺稿), 동문휘집(東文彙集), 도암문집(陶菴文集), 성단실록(大成壇實錄), 동애선생실기(桐先生實紀), 동기집(東磯集), 돈암서원지(遯巖書院誌), 동춘당선생집(同春堂先生集), 동진사지(東津祠誌), 동곡집(東谷集), 직재유고(直齋遺稿), 정재실기(貞齋實紀), 광산김씨파보(光山金氏波譜), 탁신재유고(濯新齋遺稿), 국역송강집(國譯宋江集), 금강사고(錦岡私稿), 기옹유고(基翁遺稿), 도계원지(道溪院誌), 만산유고(晩山遺稿), 명심보감(明心寶鑑), 모암실기(帽巖實記), 무여재유고(無如齋遺稿), 묵재실고(默齋實稿), 문원(文苑), 문헌보감(文獻寶鑑), 박의(博議), , 백재유고(白齋遺稿), 백파사고(白坡私稿), 백현서원지(栢峴書院誌), 병사양공실기(兵使梁公實記), 병암집(柄菴集), 병천사지(秉天祠誌), 복양재실기(復陽齋實紀), 북창고옥양선생집(北窓古玉兩先生集), 비천집(飛泉集), 사계전서(沙溪全書), 사문류취(事文類聚), 사암선생문집(思菴先生文集), 사요취선(史要聚選), 사우당집(四友堂集), 사유당유고(四留堂遺稿), 삼도실기(三道實記), 삼선생요어(三先生要語), 삼호재집(三戶齋集), 서은실기(瑞隱實記), 석농연보(石農年譜), 석담금사양세실기(石潭錦沙兩世實紀), 석애집(石崖集), 석전집(石田集), 석천집(石川集), 석헌문집(石軒文集), 선암선생실기(仙菴先生實記), 설정선생조천일기(雪汀先生朝天日記), 설정집(雪汀集), 세한재유고(歲寒齋遺稿), 소송유고(小松遺稿), 소쇄원사실(瀟灑園事實) 永放良(印), 소암유고(紹巖遺稿), 소은유고(素隱遺稿),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송사유고(宋史遺稿), 송서습유(宋書拾遺), 송석유고(松石遺稿), 송암유고(松菴遺稿), 송은유고(松隱遺稿), 송자대전(宋字大全), 송재실기(松齋實記), 송재유묵(松齋遺墨), 수분당유고(守分堂遺稿), 수원백씨세고실기(水原白氏世稿實記),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 신임토역소(辛壬討逆疏), 신평유고(莘圃遺稿), 심재집(心齋集), 아송(雅頌), 야수실기(野叟實記), 양산유고(陽山遺稿), 여면담(如面談), 여산송씨열효록(礪山宋氏烈孝錄), 연성충정공연보(延城忠靖公年譜), 연이선적약고(延李先蹟略稿), 연체당유고(聯逮堂遺稿), 영양재유고(潁陽齋遺稿), 예기(禮記), 오륜가(五倫歌), 오재집(寤齋集), 오현수언(五賢粹言), 옥산집(玉山集), 옥서실기(玉西實記), 우모정실기(寓慕亭實紀), 우암집(尤菴集), 운곡집(雲谷集), 원관헌집(遠觀軒集), 원산초고(元山草考), 월계집(月溪集), 월암서원집(月巖書院集), 유모록(孺慕錄), 포충사지(褒忠祠誌), 유학개론(儒學概論), 유헌집(游軒集), 육유당일기(六有堂日記), 은봉속집(隱峯續集), 은봉전서(隱峯全書), 이조서원문고목록(李朝書院文庫目錄), 일두선생속집(一蠹先生續集), 일재유집(一齋遺集), 자하집(紫霞集), 장담세적(長潭世蹟), 장성교지(長城校誌), 장성윤강록(長城倫綱錄), 장성읍지(長城邑誌), 장성향교지(長城鄉校誌), 장행통고(壯行通考), 장현유고(壯軒遺稿), 전남도지(全南道誌), 전남청금안(全南靑襟案), 전재연보(全齋年譜), 절당유고(節堂遺稿), 절효공실기(節孝公實記), 제하위록(霽下彙錄), 조선사(朝鮮史), 주은세고(酒隱世稿),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대전(朱子大全) (舊版), 주자어류(朱子語類), 죽산안씨세고(竹山安氏世稿), 죽

천사지(竹川祠誌), 죽천선생우계기초본(竹川先生遇溪記草本), 죽천유고(竹川遺稿), 죽천유묵(竹川遺墨), 죽천집(竹川集), 죽헌유고(竹軒遺稿), 집성사지(集成祠誌), 천미록(蘭美錄), 청강유고(晴岡遺稿), 청고집(靑臯集), 초려전집(草廬全集), 추담선생문집(秋潭先生文集), 춘우정문고(春雨亭文稿), 춘파유고(春坡遺稿), 탁와집(琢窩集), 택재유고(澤齋遺稿), 파강유고(巴江遺稿), 표곡실기(豹谷實記), 하곡유필(霞谷遺筆), 한감강록(韓鑑綱錄), 한음집(漢陰集), 해망사지(海望祠誌), 해운유고(海雲遺稿), 행원유고(杏園遺稿), 행해적독(杏海尺牘), 현주사지(玄洲祠誌), 홍무정운(洪武正韻), 화동유고(華東遺稿), 화루집(華樓集), 황명세설(皇明世說), 회봉유고(晦峯遺稿), 회봉유고부록(晦峯遺稿附錄), 후석유고(後石遺稿), 후재유고(後齋遺稿), 휘어(彙語), 흙재문고(欽齋文藁), 오산음사지(鰲山吟社誌)

5) 1985, 전남대학교 박물관, 「고문서」 제2책

필암서원 고문서는 일반문서와 재산문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고문서는 64매(한 매의 고문서에 2개의 품목이 기록된 것이 있어 내용상으로는 65건), 재산관련문서는 『노비전답안(奴婢田畓案)』, 『노비보(奴婢譜)』, 『필암서원원적(筆巖書院院籍)』(4), 『노비안(奴婢案)』 4책이다. 작성된 시기별로 보면 숙종대 1건, 영조대 1건, 순조~철종대 4건, 고종대 9건, 대한제국기 54건 이다. 고종 이전에 작성된 문서는 6건이며 이 가운데 재산관련 고문서가 4건이다. 따라서 필암서원 고문서는 재산관련 고문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원군이 서원 철폐령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서원철폐령 이후 철폐대상에서 제외된 서원의 운영 면모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전형택교수 글을 주로 참고)

일반고문서를 종류별로 대별해 보면 품목(稟目) 34건으로 가장 많고 첩정(牒呈) 14건, 소지류(所志類)가 10건, 완문(完文) 4건, 첩문(帖文) 2건, 훈령(訓令) 1건이 있다.

첩문(帖文)은 장성도호부사가 1853년에 내린 것과 1893년에 내린 것이다. 1853년에 내린 것은 철종이 복주촌(福酒村)을 혁파하라는 전교를 내림에 따라 이를 필암서원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1893년에 내린 첩문은 공노비 혁파 후 서원의 노비안(奴婢案)을 양식년(兩式年) 마다 한번씩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던 것을 식년마다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첩정(牒呈)은 노비안을 수정하여 보고하거나, 향사(享祀) 때에 제관을 차출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 서원전이나 대결(垓錢)의 면세나 서원 속촌의 잡역의 면제를 청하거나 도조(賭租)의 수납을 거부하는 작인(作人)이나 말음을 징치(懲治)해 달라는 등 관의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많다. 그리고 다른 고을의 도조를 이속 받거나 다른 고을에 있는 전답을 장성으로 이매(移買)하는 일을 승인해 달라는 내용의 것도 있다.

완문(完文)은 호포법(戶布法) 실시 후 보노전(保奴錢)의 징수가 어렵게되자 호포전(戶布錢)의 일부를 춘향(春享)의 비용으로 제공해 준다는 내용의 것, 향사 때 도로의 치수를 필암, 중동, 장자의 삼촌에 담당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것, 결가(結價) 3결을 서원에 획급한다는 내용의 것 등이다.

소지류(所志類)는 소지, 상서, 등장, 단자 등이 있다. 서원전을 경작하는 작인들이 홍수로 실농하게 되자 서원전(書院田)의 면세를 요청하는 것이 많으며, 객사 중수 때 속촌에 잡역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 것과 장의의 개체를 허락해 달라는 내용의 것, 서원을 수리하면서 본도 열읍(本島 列邑)에 부조를 청하도록 논보(論報)해 달라는 내용의 것도 있다.

품목(稟目)은 고종대 1건이며 모두 대한제국기의 것이다. 도조의 납부를 거부하는 작인을 조처해 달라는 내용의 것, 직무를 소홀히 하는 말음의 교체를 승인해 달라는 내용의 것, 서원 부근에 투장한 분묘를 이장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것, 서원 속촌의 잡역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것, 제향 대 제관 차출에 관한 것, 장성부사나 전라도관찰사에게 원이(院貳)나 흥학장(興學長)의 직임을 맡아달라고 청하는 것, 제향 때 불참한 제관을 보고하는 내용의 것, 고창에 있는 서원답(書院畓)의 도조를 이관 받도록 고창관의 협조를 구해 달라는 내용의 것, 서원 유사의 교체에 관한 내용의 것, 서원전의 복결(復結)과 대결의 면세를 요청하는 내용의 것 등이 있다. 훈령의 내용도 서원전의 복결에 관한 것이다 이들 품목은 당시 서원과 지방관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는 문서이다.

재산관련 문서는 4책으로 양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자료로서 가치는 대단히 높다. 우선은 작성연대가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중반, 19세기에 걸쳐 있어 조선후기 전 시기를 비교하여 시대적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조선후기 일반적인 재산인 서원전은 물론이고 노비, 보노, 서재유생으로부터 거두어 들인 물품의 내역이 적혀 있어 서원 경제의 구체적인 재정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원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가 같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노비전답안(奴婢田畓案)』[보물 제587-11호]은 표지에 ‘筆巖書院成冊’이라는 책명과 함께 ‘奴婢田畓案’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문서는 재임(齎任)이 바뀌면서 서원의 재산을 인계 인수하면서 작성한 것이어서 이 당시 서원의 경제와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다. 이 문서에는 ‘奴婢秩’, ‘保奴秩’, ‘田畓秩’, ‘穀物捧上秩’, ‘己未用下秩’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庚申(1680, 숙종 6)二月初五日이라고 작성연월일이 기록되어 있고, 신구 재임(齎任)의 수결이 있다.

‘奴婢秩’에는 당시 생존해 있는 노비 48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신역 부담의 의무가 있는 장노비(壯奴婢)는 29명이며 필암서원 부근에 21명이 살고 있었다. 21명 가운데 19명을 노(奴)는 사환(使喚)으로, 비(婢)는 식모(食母)로 사역하고 있었다. 48명의 노비 가운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노비의 소생이 3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속공 노비가 9명, 매득노비 1명이었다.

‘保奴秩’에는 보노 41명이 실려 있다. 보노는 서원에서 모입한 사모속으로 서원에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하는 존재였다. 필암서원의 보노 41명 가운데에는 노가 많았지만 양인도 6명이나 있었다. 이들로부터 봄과 가을에 각각 조 1두씩을 거두어 제향의 비용에 보태쓰도록 되어 있었다.

‘田畓秩’에는 논 55마지기 2되지기, 밭 26마지기 2되지기 등 모두 81마지기 4되지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들 토지에서 도조로 논에서 조 34섬 7마르 밭에서 태(太) 22말 1되를 거두어 들여 서원의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穀物捧上秩’에는 1679년 가을에 각종 서원전의 작인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도조와 보노로부터 거두어 들인 조가 기록되어 있다. 보노로 부토 받아 들인 보노조는 3섬 18말이다. ‘己未用下秩’은 1697년 8월부터 1680년 2월까지 필암서원에서 지출한 각종 경비가 기록되어 있는데, 쌀 2가마 6말 2되 8홉과 조(租) 19섬 14말 5되, 태(太) 1말 8되 5홉을 지출하고 있다.

『노비보(奴婢譜)』 [보물 제587-1호]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결락되어 있는데, 작성연대를 밝히 주는 연대는 문서의 중간부분에 ‘乙丑正月二十五日’의 기록이 있어 1745년(영종 10)에 단권으로 작성되어 그 뒤 수시로 변동 상황이 추가 기입된 것이다. 이 『노비보(奴婢譜)』는 결락 부분 다음에 매득노비와 속공노비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문서가 끝남을 아리는 際라는 글자 다음에 노비의 총계에 해당하는 생존 노비수, 도망노비수, 속공노비수가 기록되어 있다. 다음에 ‘乙丑正月二十五日’이라는 작성일자에 이어 장성도호부사의 수결이 있다. 그리고 다시 노비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 『노비보(奴婢譜)』에 기재된 총 노비수는 추록한 노비를 포함하여 모두 27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서 1746년 이후 추록노비(81명), 사망·도망·방랑한 노비를 제외 하면 1745년 당시 필암서원에서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노비는 160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전래 노비 즉 필암서원에서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노비의 자손들이었다. 이로써 보면 필암서원의 노비수는 17세기 후반에 비하여 18세기 중반에는 대폭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필암서원원적(筆巖書院院籍)』 (4)(보물 제587-12호)은 다른 원적과는 달리 ‘立議’, ‘節目’, ‘書冊秩’, ‘祭器秩’, ‘齋服秩’, ‘冊板秩’, ‘畚秩’, ‘田秩’, ‘院低家垜秩’, ‘奴秩’, ‘婢秩’, ‘逃奴秩’, ‘逃婢秩’ 등이 기록되어 있다. 1680년 작성된 『필암서원성책』과 아주 비슷하다. 집강이 교체되면서 작성한 자료인 전장기(傳掌記)로 보인다. 작성연대는 1802년(‘立議’ - 崇禎紀元後三壬戌)이다. 이 자료에는 또 復戶三結의 수입, 면세전이 규모, 서재 원생의 소납전(所納錢), 보노의 소납전 등이 기록되어 있어 『필암서원성책』과 함께 필암서원의 경제기반이나 재정상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내용을 보면, ‘立議’는 1802년 연기가 있고 당시 집강은 김정휴(金定休)이다. ‘節目’은 12조목이다. ‘書冊秩’은 30종의 서책 목록과 수량(234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사본(內賜本) 표기된 것이 7종이다. ‘祭器秩’은 鑪圓器具盖(2좌), 鑪方器具盖(2), 鑪樽具盖(2), 鑪爵具臺(2), 鑪燭臺(2雙), 鑪香爐, 鑪香合, 具盖(2), 木筥(4), 豕牲匱具盖(2)이다. ‘齋服秩’은 舊齋服(4領), 新齋服(3領), 靑齋服(2領)이다. ‘冊板秩’은 구문집(261立)과 신문집(323), 초천자문(18)묵죽판(2) 등 6종이 목록[625立]의 목록이 있다.

‘畚秩’과 ‘田秩’에는 논과 밭의 면적이 마지기로 표시되어 있고 각각의 필지에 도지액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 1802년부터 봄 가을로 쌀 3말씩을 더 거두어 들고 있다. 논이 121마지기 2되지기와 25負 5束, 밭이 34마지기 4되지기이다. ‘奴秩’, ‘婢秩’에는 노 15명과 비 13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노 4명과 비 5명은 『노비보』에 추가로 입록되어 있는 자들이었다. ‘逃奴秩’과 ‘逃婢秩’에는 노 26명과 비 23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서도 노 8명과 비 14명이 『노비보』에 추가로 입록되어 있는 자들이었다. 이 책에 실리 노비수는 1745년에 비하면 대폭 줄어 들고 있어 이 당시 노비의 감소라는 일반적인 상황을 필암서원에서도 알 수 있다.

『노비안(奴婢案)』 (보물 제587-12호)은 병자년에 작성된 보노안(保奴案)을 30명의 명안과 문서 끝에 장성도호부사의 수결이 있다. 병자년은 1846년(헌종 12)으로 보인다.

필암서원 고문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승준의 글에는 노비보(奴婢譜)를 1745년과 1746년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였지만, 전형택은 1746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고문

서> 제2책 조사보고서에는 필암서원 고문서의 작성연대가 일부 잘못 파악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재정리 하였다. 한편, 『필암서원지』에도 소장 고문서가 소개되어 있지만 원형을 잃고 있다.

안승준, 1745·6년의 필암서원 노비보(奴婢譜), <고문서연구> 41, 1993(노비보 원문 영인)
 전형택, 조선후기 필암서원의 경제기반과 재정, <역사학연구> 11, 1997
 전형택, 필암서원의 고문서, 광주광역시·향토문화개발협의회,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1995

6) 1996년,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문화재관리국, 제6집-광주직할시·전라남도-, - 54종 486책

1996년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전적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제6집-광주직할시·전라남도-편을 간행한 바 있는데, 장성 필암서원 전적은 54종 486책이 조사된바 있다.

艮齋先生禮說(전우[1841~1922], 6권 3책, 1933), 藍田遺稿(최경휴, 2권 2책, 1904),
 露堂先生實記(추적[1786~1857], 2권 1책, 1899), 魯城關里誌(4권 2책, 1933),
 晚休先生文集(박중현[1823~1900], 4권 2책, 1936), 復陽齋實記(김수로[1401~1458], 2권 1책, 1933),
 沙溪先生全書(김장생[1548~1631], 25권 10책[零本], 1924), 史要聚選(9권 5책, 조선),
 沙趣堂遺稿(최홍전[1631~1701], 4권 1책, 1898), 詳說古文眞寶大全(前集)(12권 3책, 1803),
 詳說古文眞寶大全(後集)(10권 5책, 조선), 宋名臣言行錄(前集)(13권 6책, 조선),
 宋名臣言行錄(續集)(8권 2책, 조선), 宋名臣言行錄(外集)(14권 4책[零本], 조선),
 宋朱晦菴先生名臣言行錄(前集)(10권 3책, 조선), 宋朱晦菴先生名臣言行錄(後集)(12권 3책[零本], 조선),
 宋書拾遺(송시열[1607~1689], 7권 4책, 1927), 宋子大全(송시열[1607~1689], 238권 102책, 1926),
 新補彙語(김진편, 50권 14책, 조선), 新編古今事文類聚(216권 38책[零本], 조선),
 雅誦(정조 어정, 8권 3책, 조선), 聯棣堂遺稿(潘應濩[1666~1739], 2권 1책, 1940),
 穎陽齋遺稿(윤상룡[1850~1927], 4권 2책, 1933), 禮記集說大全(19권 9책[1607~1689], 조선),
 寤齋集(이창환[1776~1844], 6권 3책, 근대), 五賢粹言(임헌희[1811~1876], 14권 2책, 1905),
 尤菴先生文集(송시열[1607~1689], 29권10책[零本], 1777), 游軒先生續集(정황[1512~1620], 5권2책, 1941)
 游軒先生集(정황[1512~1620], 4권 3책, 1941), 游軒先生集拾遺(정황[1512~1620], 1책, 1933),
 一蠹先生續集(정여창[1450~1504], 4권 1책, 1919), 一齋先生遺集(이항[1499~1576], 4권 2책, 1936),
 長城邑誌(4권 3책, 1928), 壯行通考(정황[1512~1560], 16권 8책, 1941), 全羅道靑衿案(3권 3책, 1921)
 全齋先生年譜(임헌희[1812~1876], 3권 3책, 1871)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8권 3책, 조선)
 朝鮮史(김경중 편, 14권 14책, 1936) 朱子大全(125권 65책, 조선) 朱子大全(45권 31책[零本], 조선)
 朱子語類(140권 48책, 1872) 竹川先生文集(박광전[1526~1597], 9권 4책, 1929)
 增補如面談新集(10권 6책, 중국 청) 集成祠誌(5권 1책, 1935)
 秋潭先生文集(김우급[1574~1643], 8권 4책, 1929) 河西先生言行錄(김길중 편, 1책, 근대)
 河西先生全集(김인후[1510~1570], 7권 7책, 근대) 河西先生全集續編(김인후[1510~1570], 1책, 1824)
 河西先生全集續編外錄(김인후[1510~1570], 3권 1책, 1940), 韓鑑綱目(김길중·김노수편, 2권 2책, 1936)
 漢陰先生文稿(이덕형[1561~1613], 12권 5책, 1933) 洪武正韻(16권 5책, 중국 청)
 皇明世說新話(8권 4책, 조선) 後石遺稿(오준선[1851~1931], 25권 13책, 근대)

7) 1998년, 『전남 서원의 목판』, 전라남도 -

1997년과 1998년에는 소장 목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라남도 지원으로 전남대학교문헌정보연구소에서 전남 소재 서원에 대한 목판 일괄조사(조사위원 송일기·전종주·김희태·노기준)를 실시했는데, 필암서원 소장 목판도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하서전집목판 258판, 하서선생전집 목판 392판, 초천자문 목판 18판, 무이구곡 목판 13판, 『유목』 4판, 백련초해 목판 13판, 인종필 목죽도 목판 3판이 확인 되었다. 조사 내용은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여 1999년에 필암서원 소장 목판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서 김인후의 문집은 그가 세상을 뜬지 8년만인 1568년(선조 1)에 처음 간행되어 1686년(숙종 12) 중간본과 1797~1802년에 걸쳐 세 번 간행되었다. 초간본 목판 1매, 중간본 목판 258매, 세 번째의 목판 391매로 총 650매이다.

광해군 2년(1610)에 새긴 『초서천자문』 18판(1610년)과 『해자무이구곡』 18판(1610년), 선조 1년(1568년) 새긴 『백련초해』 13판과 『유목』 4판, 그리고 인종이 김인후에게 하사한 목죽도판 3판으로 선조 1년(1568년)과 영조 46년(1770)에 새긴 것이다.

안진경체에 바탕한 김인후의 초서체 글씨는 당시 성리학자 특히 호남 학자들 사이에 전형적인 모범 글씨가 되었다. 『백련초해』는 100가지 쇠구를 한글로 해석한 것인데, 『백련초해』 한글판 가운데 연대가 가장 앞섰고 인종의 판체인 목죽도판은 판각의 변천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다.

4. 기록자료의 연구와 홍보·활용 현황

1) 필암서원에 대한 기록자료의 연구와 홍보·활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필암서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1972년에 제기(祭器)에 관한 내용으로 학위논문이 나온다. 1975년에는 필암서원 문서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 587호로 지정된다. 1949년 『필암서원지』 구서적편에 기록된 서원 관련 정책문서 14책과 고문서 64매이다. 그리고 1976년에는 향토사분야에서, 1981년에는 역사학 분야에서 필암서원 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1983년에는 소장 고문서에 대하여 전남대박물관에서 학술조사가 실시되어 고문서자료집이 간행된다. 1988년에는 목포대박물관에서 전남의 서원 사우를 조사하면서 사액 서원사우편에서 연혁, 인물, 건축,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남기숙, 이조시대 祭器에 관한 연구 -서울 문묘와 전남 필암서원의 사례중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72

이종일, 필암서원과 하서선생의 사상, <장성향토문화> 제3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장성문화원, 1976

송정현, 필암서원 연구, <역사학연구> 10, 전남대사학회, 1981

김상오,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문묘종향의 경위, 전북사학 제5집, 전북대학교사학회, 1981

변시연, 하서선생과 필암서원, <상서> 4, 1982

류정동, 하서 김인후의 天命圖에 관하여, 동방사상론고, 유송국박사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83

이상보, 하서 김인후의 국문학 연구, 어문학 제3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4

김상일, 하서선생약사, 전남대학교출판부, 1984

정익섭, 호남가단에서의 하서 김인후의 위치, 동양학 제17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7

목포대학박물관·전라남도, <전남의 서원·사우> -사액서원·사우편-, 1988

오병무, 하서 김인후의 성리철학과 異端·異說에 대한 그의 비판, 전라문화연구 3, 전북향토문화원, 1988

박준규, 하서 김인후와 그의 시문학, 어문논총 9, 전남대어학연구소, 1989

2) 다음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축과 역사분야에서 연구가 어어진다. 먼저 건축과 조경 분야에서는 건축적 특성과 공간배치, 식재현황과 정비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조상순, 필암서원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7

조상순·이상해, 필암서원의 건축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7-2, 1998.

이원호,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의 식재현황과 정비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2011.

3) 그리고 역사분야에서는 소장 고문서의 분석, 배향인물과 서원 운영 자료의 분석, 지역 유림의 동향과 추배 활동 등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안승준, 1745·6년의 필암서원) 노비보(奴婢譜), <고문서연구> 4-1, 1993.

전형택, 조선후기 필암서원의 경제기반과 재정, <역사학연구> 11, 1997

윤희면, 전라도 장성 필암서원의 정치사회적 기능, <역사학연구> 17, 2001

김덕진, 양자징의 학구당 건립과 필암서원 배향, <남도문화연구> 12, 2006.

이해준, 하서 김인후의 현양활동, 광주광역시,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1995

전형택, 필암서원의 고문서, 광주광역시,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1995

조상순, 필암서원 연구—필암서원지 해석을 중심으로—, <文化財> 31, 문화재관리국, 1998

4) 그리고 노비보에 기록된 인명에 대한 연구(어학분야), 중학교 교육과정과 향토사 학습, 관광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다.

조강봉, 필암서원지 奴婢譜의 인명연구, <口訣研究> 6, 2000.

강을희,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향토사 학습지도 방안-,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정화현, 문화재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광활용방안 -장성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경희대 관광대학원 석사논문, 2008

5) 필암서원 배향인물에 대한 연구는 주향인 하서 김인후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특히 광주시 주관으로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에 대한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단행본이 발간 된다. 그리고 하서학술재단에서도 하서의 문학과 사상을 주제로 학술논문집을 간행 하고 있

다. 또 하서의 절의정신에 대한 개인 저서도 나온다.

- 조종업, 하서 김인후 시에 나타난 자연의식의 양상, 우리문학연구 9, 1992
하서학술재단,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제1집, 하서기념회, 1994
조기영, <하서 김인후의 시문학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4
광주광역시,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문학사상>, 1995
김진웅, <인종승하와 김하서 절의>, 명성출판사, 1996
박은순, 16세기 동서당 계획도 연구, 미술사학연구 212, 한국미술사학회, 1996
신호열 옮김, <하서시선>(나랏말싸미 302), 솔, 1997
박래호, 하서 김인후선생의 관직생활과 문묘종향의 경위, 향토문화 제16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7
오종일, 문정공 하서 김인후, 동국심판현 -생애와 사상- 중, 율곡사상연구원, 1000
정병련,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성리학, 유교사상연구 제12집, 한국유교학회, 1999
하서학술재단,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제2집, 하서기념회, 2000
허경진, 하서 김인후 시선(한국의 한시 49), 평민사, 2000
안봄, 하서 김인후의 문학사상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00
백승중, 16세기 조선의 사림정치와 김인후,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2001
김진영 외, 하서 김인후 시어 색인, 이회문화사, 2002
신호열, 양재영, 하성흡, <긴 담장에 걸리운 맑은 노래>, 현실문화연구, 2002
백승중, 대숲 앞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 돌베개, 2003
조창록, 조선조 漢詩 교육의 실제와 『百聯抄解』, <동한문학> 21, 2004
이동희, 전북 순창의 훈몽재와 하서 김인후, 전주사학 9, 전주대 역사문화연구소, 2004
하서학술재단,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제3집, 하서기념회, 2005
오종일 하서선생이 천명도와 중화사상, 필암서원 산양계 학술강연 발표요지, 2005
고영진, 하서학과 호남사림의 동향, 국학연구 제7집, 한국국학진흥원, 2005
울산김씨문정공대종중·대동문화재단, 하서 김인후선생 이야기, 2007
김정수 지음, <전라도 사람들> 6 -조선시대 김인후-, 장문산, 2009
조기영 옮김, <백련초해>, 지만지고전전출, 2009
이형성, 16세기 호남사림의 학문 교류 및 논변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제48집,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09
이수우, 하서 김인후에 대한 고찰, 울산문화연구 2, 울산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2009
조기영, 하서 김인후의 <孝賦>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41, 동양고전학회, 2010
김세곤, 호남정신의 뿌리를 찾아서-義의 길을 가다-, 온새미로, 2010
안동교, 하서선생의 강학활동과 문인양성, 필암서원 산양계 특강자료
김중서, 하서 김인후 시의 표현미와 선비정신의 형상화, 한국한문학연구 47, 한국한문학회, 2011

6) 2003년에는 필암서원과 인근 거리에 있는 하서 김인후의 생가 동네(황룡면 맥호리 맥동) 유적에 대해서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김인후 신도비(神道碑, 송시열 찬)는 전라남도 기념물 제219호, 김인후 난산비(卵山碑, 윤행임 찬)는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1호로 지정(2003.10. 4.)하였다.

7) 2007년에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특별전을 개최한다⁸⁹⁾.

특별전은 2007년 9월 18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하서 세상으로 나오다>을 주제로 열린다. 2011년에 울산김씨문정공대중중에서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한 31점의 기증유물을 토대로 보물로 지정된 필암서원 소장 유물, 국립박물관(중앙, 전주, 청주, 진주), 선산유씨중회, 울산김씨문정공대중중, 필암서원, 현곡 조대섭 등 개인과 기관 단체 등에 소장된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도록을 발간하였다. 중요서원의 국립박물관 전시는 확대가 필요하다.

8)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원진각) 개관과 유물 3,795점 기증

필암서원 유물 전시관 원진각은 2008년 4월 15일 개관하였다. 규모는 538㎡(163평), 목조기와, 사업 기간은 2007.1.5~2008.4.10, 사업비는 2,650백만원(국비 1,745, 전남도비 290, 장성군비 325, 특별교부세 290)을 들었다. 전시현황은 다음과 같다.

- 입구 - 데스크 : 안내소, 수장고, 화장실 등 / 사액서원, 모신 인물, 배치도
- 전시
 - 서원이란 : 서원의 개요, 성립, 발달, 기능, 이름난 서원, 서원의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
 - 필암서원 : 연혁, 창건과 재건, 건축구조, 조직, 공부하는 모형,
 - 김인후 : 연혁, 동상, 제자, 인종과 하서, 출생과 성장, 관직생활, 문학, 학문
 - 관련유물 : 노비보, 원장선생안, 봉심록, 장서, 목판, 경장각, 장판각, 앞다지, 책장, 교지
 - 양자징 : 연혁, 향토활동, 가계보, 하서의 가르침
- 출구 - 장성소개 : 장성선비 의리, 역사, 8경, 호남정신, 홍보스크린

한편, 2008년 4월 4일에는 양영재단과 하서학술재단로부터 3,795점의 유물을 기증받기에 이른다. 양영재단은 고유물, 탁본, 고서적 등 2,394점, 하서학술재단은 고서적 등 1,401점이다.

9) 2010년에는 하서선생 탄생 500주년기념 문화축전을 장성(필암서원, 군민회관, 부조묘)과 서울(성균관대), 광주(유림회관, 대동갤러리)에서 개최(2010.8.28.~12.31)하였다. [사업비 : 225백만원(도비 100, 군비 100, 기념사업회 자담 25)]

8.28. 고유제 - 필암서원, 하서선생 부조묘

9.24. 전국 성독대회 - 필암서원, 하서 선생 전집 27명 성독

10. 8. 국제학술발표회 - 성균관대, 발표 8명(국내 4, 국외 4)

10.15. 국제학술강연회 - 광주 유림회관, 국내교수 3명

89) 국립광주박물관,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하서 세상으로 나오다>특별전Ⅵ, 그래픽네트, 2007

제1부 하서 김인후의 가계와 출사, 제2부 인종과의 만남, 제3부 조선의 성리학과 하서, 제4부 선비정신과 세, 제5부 하서와 필암서원, 제6부 하서의 문묘배향, 하서와 호남유학. 특별논고 오종일, 하서의 삶과 그 학문 윤희면, 필암서원의 기능과 의미, 하서 김인후 연보

- 10.21.~10.28./11.1.~11.7. - 서예초대전, 광주 대동갤러리/필암서원 집성관(56점)
 10.22. - 기념식, 군민회관, 참석 : 600여명(주민, 유림, 문화계)
 10.22. - 판소리, 군민회관, 하서선생 일대기 판소리 발표회(KBS1 국악한마당)
 11. 1.~12.31. - 하서 등 유교특강, 필암서원, 하서선생 등 장성의 인물
 12. 1 - 출판행사, 500주년 기념 책자(3,000부), 문집, 시집 발간

5. 전승 자료의 내용(목록)

장성 필암서원 소장 자료는 고문서와 전적, 목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성책 문서 14책과 고문서 64장은 보물 587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목판은 2종으로 나누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장성 필암서원 하서선생 문집목판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5호(1999. 7. 5. 지정), 장성 필암서원 하서유목 목판 일괄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6호(1999. 7. 5. 지정)이다.

○ 필암서원 문적일괄(보물 제587호) - 성책문서 14책

- 보물 제587-1호 필암서원 문적 일괄-奴婢譜
 보물 제587-2호 필암서원 문적 일괄-院長先生案
 보물 제587-3호 필암서원 문적 일괄-筆巖書院執綱案
 보물 제587-4호 필암서원 문적 일괄-文契案<1>
 보물 제587-5호 필암서원 문적 일괄-文契案<2>
 보물 제587-6호 필암서원 문적 일괄-筆巖書院西齋儒案書
 보물 제587-7호 필암서원 문적 일괄-筆巖書院院籍<1>
 보물 제587-8호 필암서원 문적 일괄-筆巖書院院籍<2>
 보물 제587-9호 필암서원 문적 일괄-筆巖書院院籍<3>
 보물 제587-10호 필암서원 문적 일괄-筆巖書院院籍<4>
 보물 제587-11호 필암서원 문적 일괄-長城筆巖書院成冊
 보물 제587-12호 필암서원 문적 일괄-奴婢案<題纂, 長城筆巖書院>
 보물 제587-13호 필암서원 문적 일괄-奉審錄
 보물 제587-14호 필암서원 문적 일괄-梁子澂名祝關係稟目

○ 필암서원 문적일괄(보물 제587호) - 고문서 64매[64건]

○ 필암서원 소장 전적류

- 1802년 『필암서원원적』 (4)(보물 제 587호-12) - 서책 30종(234권[책])
 1949년 『필암서원지』 - 서적 44종[282책], 구서적[고문서] 15종[24건]
 1969년 『이조서원문고목록』 (국회도서관)- 한적본 132종[595책]
 1975년 『필암서원지』 장서목록 - 206종[777책]
 1996년, 『한국전적종합조사목록』 (문화재관리국)- 54종[486책]

○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고문서

울산김씨문정공중증에서 2011년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모두 31점으로 2007년에는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특별전(9.18~11.11)을 개최하고 도록을 발간하였다.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契會圖, 1542년[중종 37](광 3869)

同湖契會圖, 1545년[인종 1](광 3870)

교지, 1668년[현종 9, 康熙 7년] 金麟厚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世子左賓客(광 3675)

교지, 1668년[현종 9, 康熙 8년] 淑人尹氏贈貞夫人(광 3876)

교지, 1669년[현종 10, 康熙 8년] 金麟厚贈諡文靖公(광 3877)

교지, 1796년[정조 20, 嘉慶 원년] 金麟厚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광 3882)(광 3883)

교지, 1796년[정조 20, 嘉慶 원년] 金麟厚贈諡文正公[道德博聞曰文 以正服之曰正](광 3886)(광 3887)

교지, 1796년[정조 20, 嘉慶 원년] 贈貞夫人贈貞敬夫人(광 3888)

署經狀, 1796년[정조 20, 嘉慶 원년], 사간원(광 3885)

署經狀, 1796년[정조 20, 嘉慶 원년], 사헌부(광 3884)

교서, 1796년[정조 20, 嘉慶 원년] 10.26 문묘배향 허락 교서(광 3889)

교서, 1796년[정조 20, 嘉慶 원년] 11. 7 (광 3891)

교서, 1796년[정조 20, 嘉慶 원년] 11. 9 (광 3892)

교첩 1572년[선조 5, 隆慶 6년] 學生金從虎今壬申年蔭取才入格(광 3871)

교첩 1603년[선조 36, 萬曆 31년] 宣務郎金南重爲宣教郎(광 3874)

沈翼賢上疏文, 1789년[정조 13]

致祭文, 1786년[정조 10, 乾隆 51년](광 3879)

致祭文, 1786년[정조 10](광 3895)

致祭文, 1796년[정조 20, 嘉慶 원년](광 3890), 국왕, 좌부승지 이면궁

致祭文, 1828년[순조 28, 道光 8년](광 3893), 효명세자, 예조좌랑 임원배

致祭文, 1855년[철종 6, 咸豐 5년](광 3894), 국왕, 능주목사 이병례

服齋傳筆歌并序文, 신희(申欽, 1566~1628)(광 3873)

仁宗大王墨竹圖[목판본](광 3868)

御畫墨竹跋文, 劉肅基, 1736년[영조 12](광 3878)

○ 懸板・記文, 柱聯 등 자료

筆巖書院 扁額, 1662년 사액, 윤봉구(1681~1767) 書

廓然樓 扁額, 송시열(1607~1689) 書

淸節堂 扁額, 송준길(1606~1672) 書

敬藏閣 扁額

祐東祠 扁額, 주자대전 집자

筆巖書院重修記, 1889(무자), 知府 金升集 무자 書, 기축 揭板

白鹿洞學規 懸板, 1710년(崇禎 기원후83 경인)

國忌 懸板. 1887년,
松江·淸陰板刻詩 懸板 외

○ 碑石, 巖刻文

筆巖書院 繫牲碑·廟庭碑(전면 계생비, 후면 송병선 찬 묘정비문)

하서 김인후 望谷壇 卵山碑(1843년[헌종 9] 건립, 尹行恂 찬, 李翊會 글씨, 윤정현 추가, 전남 문화재자료 제241호,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105 맥동마을)

붓바위[‘筆巖’ 銘 巖刻](傳 윤봉구[1681~1767]필)(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맥동마을 입구)
金麟厚先生遺墟碑(1929년 건립,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186 맥동마을)

하서 김인후 신도비(1742년[영조 18] 건립, 宋時烈(1607~1689)찬, 李緯(1680~1746) 書, 金鎭商(1684~1755) 篆, 전남 기념물 제219호,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25 맥동마을)

하서 김인후 신도비(1983년 새로 건립, 송시열 찬 비문, 화산 권용현 찬 추가, 진원 박하주 書)

하서 김인후 묘비(김수항[金壽恒] 찬, 김이소[金履素] 글씨, 12대손 김경중[曠中] 改豎)[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大麥洞 願堂山]

김령(齡) 묘갈(송순 찬)[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大麥洞 願堂山]

烈女幸州奇氏泰仁朴氏旌閭閣)1683년[숙종 9] 장성유림 건립, 전남 장성군 맥호리 186 맥동마을]

文正公河西金先生遺墟碑(전북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 훈몽재터 유허비)

魚巖書院遺墟碑(전북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

○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검색)

癸亥年[1923年]에 筆巖書院에서 光州鄕校로 發送한 通文

甲子年[1924年]에 筆巖書院에서 光州鄕校로 發送한 通文

乙丑年[1925年]에 筆巖書院에서 光州鄕校로 發送한 通文

乙丑年[1925年]에 筆巖書院에서 光州鄕校로 發送한 通文

丁卯年[1927年]에 筆巖書院에서 作成하여 各 郡에 보낸 通文

○ 한국국학진흥원[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고문서[원소장처 진성이씨 향산고택]

신축년(1961) 7월에 필암서원 집장 박하철(朴夏轍) 등 2인이 유학(幼學) 이동흙(李棟欽)에게 제관으로 초청하는 건으로 보낸 망기(望記)/17990, 문서크기(cm)39.0×48.0

○ 개인, 단체, 기관 소장 유물

連韻詩文, 1548~1549년[현곡 조대섭 소장]

連韻詩文, 1548~1549년[현곡 조대섭 소장] : 김인후가 순창에서 은거 강학할 때 수운헌 조희, 영천 신잠(1491~1544), 호음 정사룡(1491~1570) 등과 일련의 시문을 지으면 교우하였다.

次水雲亭韻, 1548~1549년[현곡 조대섭 소장]

瀟沙 筆帖(『朝鮮名賢筆帖』, 국립중앙박물관/덕수2260) : 2권으로 두 번째 권에 이언적, 조광조, 신잠, 이황, 서경덕, 정유길, 조식, , 노수신, 양사언, 휴정스님, 박순 고경명 등 조선 명현의 글 수록

서간문, 1549년[嘉靖 기유], 安瑒에게 보낸 서찰(『古簡』, 국립중앙박물관/동원 3389)

서간문, 1549년[嘉靖 기유], 安瑒에게 보낸 서찰(『簡牘』, 개인소장/2001년 퇴계 이황전 공개)

天命圖解[綾城本, 1578년 초간본](고려대학교도서관/만송貴-356)

瀟灑園四十八詠 懸板(소쇄원 제월당)

붓 1518년 기준이 하서에게 선물[필암서원 보관유물]

○ 각종 문집에서 산견되는 필암서원 관련 기사

「한국고전종합DB」(한국고전번역원)과 『전남권문집해제』 1·2(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등을 통하여 검색한 필암서원 관련기사[검색어 : 필암]는 다음과 같다. 『필암서원지』(1949/1975)에도 다수의 기문이 정리되어 있다. 추가 검색과 조사, 그리고 원전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

김우급(金友級, 1574~1643), 筆巖書院上樑文, <秋潭先生文集> 권8

김우급(金友級, 1574~1643), 筆巖書院重營後有感, <秋潭先生文集> 권6

송준길(宋浚吉, 1606~1672), 長城筆巖書院移建告由文[院享河西金先生], <同春堂先生文集> 권16

송준길(宋浚吉, 1606~1672), 答金久之[辛亥], <同春堂先生文集> 권13 ; 필암서원 상량문을 청하는 내용

송시열(宋時烈, 1607~1689), 長城筆巖書院移建後奉安河西金先生文, <宋子大全> 권151

송시열(宋時烈, 1607~1689), 答筆巖院儒[辛酉五月十三日], <宋子大全續拾遺> 권1

송시열(宋時烈, 1607~1689), 筆巖書院春秋享祝文, <宋子大全拾遺> 권8

기정익(奇挺翼, 1627~1690), 筆巖書院垓宇上梁文, 松岩先生文集 권5

김창흠(金昌翕, 1653~1722), 筆巖書院。謹次曾祖考韻, <三淵集拾遺> 권10

오대시(吳大始, 1658~1727), 擬次筆巖書院齋壁韻, 默軒詩集

신성하(申聖夏, 1665~1736), 筆巖河西金先生書院。謹次先生韻, <和菴集> 권3

윤봉구(尹鳳九, 1681~1767), 筆巖書院。次淸陰先生韻[河西金先生所享 卽長城地], <屏溪先生集> 권4

송명흠(宋明欽, 1705~1768), 筆巖書院。次淸陰先生韻, <櫟泉先生文集> 권2

송명흠(宋明欽, 1705~1768), 長城筆巖書院廓然樓重修上梁文, <櫟泉先生文集> 권14

瀟灑園事實 권8 諸賢贈章, 請配享筆巖書院疏

윤행임(尹行恁, 1762~1801), 卯山碑銘[并序], <碩齋稿> 권18

이경집(李敬緝, 1775~?) 등, 本道儒林請享鼓岩先生于筆巖書院上章(李敬緝 등), 瀟灑園事實 권8 諸賢贈章

이휘규(李徽圭[鼎圭], (1779~1857), 奉審筆巖院, 默齋遺稿 권1

송달수(宋達洙, 1808~1858), 筆巖書院。鼓巖梁公春秋享祝文, <守宗齋集> 권10

김평묵(金平默, 1819~1888), 長城途中, <重菴先生文集> 권4

김평묵(金平默, 1819~1888), 與金釋敬 祿休[丁亥七月二十日], <重菴先生文集> 권12

박기중(朴淇鍾, 1824~1898), 答筆巖書院通文, 竹圃集 권10

송병선(宋秉璿, 1836~1905), 答筆巖院儒[壬寅十月], <淵齋先生文集> 권 15

송병선(宋秉璿, 1836~1905), 筆巖書院廟庭碑, <淵齋先生文集> 권32
 송진봉(宋鎭鳳, 1840~1898), 謹次金玉汝璣烈金正三台漢過筆巖韻, 思復齋集 권1,
 구문모(具文謨, 1844~1918), 筆巖書院儒生鄭公源外二十六人(辛未八月 日), 松澗遺稿 권4 通文
 김기열(金璣烈, 1845~1914), 筆巖書院, 覺齋遺稿 권1
 조종덕(趙鍾惠, 1858~1927), 乙丑二月中丁參河西先生筆巖書院, 滄庵集 권1
 양재경(梁在慶, 1859~1918), 謹次筆巖書院清節堂韻, 希庵遺稿 권1
 김한익(金漢翼, 1863~1944), 筆巖書院祠宇重建記, 華東遺稿 권2
 김용선(金容璿, 1865~1927), 奉審筆巖書院, 省菴遺稿 권1
 조우식(趙愚植, 1869~1937), 筆巖書院奉審金河西先生, 省菴集 권2
 위계룡(魏啓龍, 1870~1948), 筆巖書院謹次重峰先生板上韻, 梧軒遺稿 권1
 위계룡(魏啓龍, 1870~1948), 筆巖書院秋亭韻, 梧軒遺稿 권1
 이정원(李正遠, 1871~1957), 筆巖書院祭享韻, 樂吾齋遺稿 권2
 안규용(安圭容, 1873~1959), 筆巖書院山仰契發起通文, 晦峯遺稿 권5
 조덕승(曹惠承, 1873~1960), 欽齋先生文集 권1, 題筆巖書院
 유흥선(柳興善, 1875~1952), 敬次筆岩書院清節堂板上韻, 東川遺稿
 김옥섭(金玉燮, 1878~1930), 奉審筆巖書院步其原韻, 慎軒遺稿 권1
 김경현(金敬鉉, 1879~1947), 筆巖書院次清陰先生韻, 沙隱遺稿 권1
 이종욱(이종욱, ?~1926), 長城筆巖書院通狀, 蒙巖集 권3
 박기청(朴淇靑, 1882~ ?), 過筆巖院慕河西金先生, 竹坡遺稿 권1
 송석의(宋錫義, 1884~1967), 筆巖書院重修韻, 松隱集
 임동선(任東宣, 1892~1960), 筆巖院舍業日訪裔孫時中, 守菴逸志
 김재석(金載石, 1895~1971), 自然堂先生筆岩廓然樓前方塘韻及感吟, 月潭遺稿 권1
 김재석(金載石, 1895~1971), 筆岩書院重修記, 月潭遺稿 권3
 여창현(呂昌鉉, 1897~1975), 答筆巖書院執綱, 雲沙遺稿
 정철환(鄭喆煥, 1901~1981), 筆岩書院重修後, 東樵文稿 권1
 정철환(鄭喆煥, 1901~1981), 筆岩書院謹次權驊先生韻, 東樵文稿 권1
 정철환(鄭喆煥, 1901~1981), 筆岩書院秋享日講, 東樵文稿 권1
 김규태(金奎泰, 1902~1966), 筆巖書院敬次清陰先生韻, 顧堂遺稿 권1
 김규태(金奎泰, 1902~1966), 筆巖書院謹次河西先生韻, 顧堂遺稿 권3
 김상진(金相晉, 1902~?), 謁筆巖書院, 碧農私稿 권1
 김상진(金相晉, 1902~?), 筆巖書院重修韻, 碧農私稿 권1
 김상진(金相晉, 1902~?), 筆巖書院享禮後京鄉多士(止)明燭達曙, 碧農私稿 권2
 고재익(高在益, 1912~1982), 謁筆巖書院, 省窩遺稿 권1
 고재익(高在益, 1912~1982), 筆巖書院齊宿吟(二), 省窩遺稿 권1
 고재익(高在益, 1912~1982), 筆巖書院春享齊宿吟, 省窩遺稿 권1
 민영석(閔泳碩) 등, 武城院發通于筆巖院, 靈光金氏四孝錄 권2
 김홍수(金鴻洙) 등, 筆巖發通, 靈光金氏四孝錄 권2

6. 향후 활용의 과제

1) 소장 자료의 종합 조사, 자료집 발간, 연구

필암서원 소장 자료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다양하게 전해져 오고, 소장처 역시 분산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자료지의 발간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몇차례 조사와 자료집이 발간되었지만,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문서 사례에서 보듯이 원형이 변형되어 소개되었거나 오류가 있기도 하였다. 전적류에 대해서는 몇차례 조사가 이루어 졌지만 원 자료의 소장 전래경위, 가치와 성격, 타 서원이나 다른 자료와의 비교 연구 등은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리라 본다.

2) 하서의 강학 활동과 학맥의 연구

필암서원 소장 자료의 종합조사, 자료집 발간, 연구와 함께 중요하게 주목하여야 할 대상이 하서 김인후의 강학 활동과 학맥의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김인후의 학문의 연원과 강학활동 과정의 추적, 다양한 자료를 망라하여 문인들과 그들이 남긴 문헌을 찾아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직 뚜렷하지 않은 김인후의 학문적인 계보와 학파의 성격을 밝혀 나가고 이러한 가운데서 필암서원과 장성, 순창 등 인근 지역의 인물과 교류활동을 규명해 나가면서 필암서원의 지역 사회에서 또는 역사적인 위상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필암서원지』(1949년) 「淵源圖」에 卞成溫, 奇孝諫, 趙希文, 鄭澈, 吳健, 梁子澂, 南彦紀, 盧適, 尹祁, 申覺, 徐台壽, 金從虎, 安璿, 金齊顏, 梁山海 등 15명이 기록되어 있고, 『필암서원지』(1975년) 「淵源圖」에 朴元恂이 추가되어 16명이 등재되어 있다. 『하서전집』 속에서는 卞成溫, 奇孝諫, 趙希文, 鄭澈, 梁子澂, 南彦紀, 盧適, 申覺, 徐台壽, 徐浩, 李至男, 吳希吉 등 12명의 문인 성명을 찾을 수 있다. 이 들 가운데 하서와 사승관계가 애매한 문인들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문인들과 그들의 제자들, 그리고 필암서원관의 관련 등에 대해서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3) 필암서원 자료의 문화재 지정 확대

필암서원 소장 자료의 종합조사와 함께 검토 할 것이 문화재 지정의 확대이다. 이미 필암서원 문적일괄 14책 64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장 목판은 하서 문집 목판과 하서유묵 목판으로 구분하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이 가운데 인종 필 목죽도 등 유묵 목판 등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추진하여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부가 도난을 당하여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러한 자료가 빨리 찾아 지기를 기대하며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도 문화재 지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 검토는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소장 전적류에 대한 정밀 조사와 함께 가치를 판단하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필암서원 소장 전적류는 몇차례에 걸쳐 정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현재의 전적류에 대한 자세한 조사기 필요한 실정이다. 1802년 필암서원 문서를 통해서도 소장 서책 가운데 내사본

(內賜本)이 7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1949년 『필암서원지』에는 『인종어제』와 『오경백편』, 『경국대전』 등 3종만 내사(內賜) 표기가 있다. 그 이후의 목록에서도 1802년 기록상의 내사 표가 있는 책명은 보이지만, 동일한 내사본인지 여부 등도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른 한가지 방향은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된 하서 김인후 관련 유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 검토이다. 다른 지정 사례와 검토해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화순 충마계회도의 경우 1591년 작품으로 가치가 있어 보물 제1722호(2011.9. 5 지정)로 지정된 바 있다. 김인후 유물인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契會圖>(1542년)와 <同湖契會圖>(1545년)는 조선 전기의 계회도로 중요한 작품이다.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契會圖>(1542년[중종 37](광 3869))는 1542년 3~7월경 사마시에 함께 급제한 동기생들이 십수년을 전후하여 대과에 급제한 뒤 모임을 가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린 그림이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정유길, 민기(1504~1568), 남응운(1599~1587), 이택(1509~1573), 김인후, 윤옥(1511~1584) 등 7명이다. 이 그림에는 홍문관 정자인 김인후가 쓴 칠언율시가 있으며 끝에 그의 자인 후지(厚之)를 썼다. 김인후에 대한 좌목은 ‘從仕郎弘文館正字兼經筵典經春秋館記事官金麟厚 厚之 本蔚山 父學生 齡’으로 기록되어 있다.

<同湖契會圖>(1545년[인종 1](광 3870))는 1545년에 임형수, 이황, 윤희, 남응룡, 민기, 이홍남, 김수, 이담, 이원록, 박승임, 노수신 등 15명이 동호에서 계회를 하고 이를 기념하여 그린 것이다. 동호는 지금의 한강을 기고 있는 용봉일대로 사가독서를 하던 곳이다. 당시 김인후의 관직을 옥과현감으로 적고 있어 잠시 제술관으로 조정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인후의 증직, 추증, 증시, 문묘배향 상소, 문묘배향 교서, 치제문 등은 조선시대 후기 문관의 관료 생활과 현양활동 등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제도사와 서원연구, 교육사 등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서 지정문화재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특히 대다수 유물들이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서원 유물의 일괄 문화재 지정을 검토해야 하리라 본다.

4) 기록자료의 교육, 홍보, 체험 자원활용

마지막으로 이들 기록자료를 제대로 활용한 필암서원의 교양 해설자료,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이 필요하다. 이미 하서 김인후라는 초등용 자료를 발간한 있긴 하지만, 보다 더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한 홍보자료를 보급하여야 한다.

역사와 정신이 포함되고 경관이나 건축, 제향인물의 행적이 수요층에 따라 알기 쉽고 다양하게 정리되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필암서원만의 모습들이 축약적으로 편집 온축하려면 연구, 편집, 교육자들이 힘을 합쳐 수요자에 맞는 3-4종의 서로 다른 홍보, 교육자료들을 개발하여 간행하여야 한다. 그럴 때 교육·체험자료로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필암서원을 공간으로 한 체험교육 활동은 몇 가지가 추진되어 왔는데, 이를 보다 더 발전시켜 가야 하리라 본다.

○ 필암서원 선비학당 운영 : 장성군에서는 학문을 숭상하고 호국충절 정신이 투철한 선비

의 고장으로서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바람직한 정신문화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필암서원에서 서비학당을 운영해 왔다. 문향으로서 전통학문 습득을 통한 예절과 도덕정신 함양과 자랑스러운 서원에서 현장감 있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1999년 4월 29일 필암서원내 청절당에서 강사(훈장, 박래호동양학연구원 원장)를 초빙하여 주 3회 2시간씩 매회 20여명이 참여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사자소학, 명심보감, 대학, 효경, 하서 김인후 등 장성출신 학자의 사상과 정신에 대한 것이다.

○ **문불여(文不如), 무불여(武不如) 장성에서의 1박 2일 캠프** : 2011년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재 생생(生生)사업은 지역의 문화재 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장 체험과 교육을 통해 문화재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 및 문화재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아 보는데 있었다.

장성군에서는 문화재 관련 단체[대동문화재단]와 함께 두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첫째는 '문불여 부불여 장성에서의 1박2일 캠프'는 초중생을 대상으로 하서 김인후 선생의 일대기, 조선 왕세자 교육 체험, 박수량 백비를 참배하며, 인종을 향한 충절, 조선시대의 왕세자 교육, 청렴정신 등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간은 2011.8월부터 2011.10월까지 매회 30명씩 7회를 실시하여 모두 183명(장성군 관내 90명, 관외 93명)이 참여 하였다. 관외에서는 광주, 보성, 무안, 경기도, 대전 등지에 참여 하였다.

○ **외국인과 함께하는“두번째 나라 한국 체험”** : 2011 문화재청 문화재 생생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두 번째 나라 한국 체험'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배울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로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기간은 2011. 9. 7(1기), 9. 28(2기)로 20명씩 2회를 실시하였는데 프로그램은 ① 필암서원 집성관 집결, 서로 인사 나누기, ②플래시상영(한국의 명절과 예절), ③한국음식 만들기 체험(떡케익, 송편 등), ④ 한국전통예절배우기(다도, 절 하는 법 등), ⑤ 문화재 탐방, 필암서원 둘러보기를 내용으로 하였다. 참여한 사람의 국적은 중국(10), 캄보디아(4), 필리핀(7), 베트남(15), 일본(4)이었다.

5) 장성 필암서원-한국의 서원을 연계한 DB와 GIS 구축

앞에서 예시한 다양한 조사와 홍보 활용 사례, 그리고 활용의 방안 등은 개별 서원이나 특정 지역의 유산으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종합적으로 활용하면서 정신이나 문화를 계승하고, 그것이 또한 시대에 맞게 이어져 가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고루 참여하면서 인식을 공유해야 하고, 특히 정보산업의 발달과도 맞춰 DB와 GIS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사를 하던 중에 민족문화백과사전을 탑재한 웹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서원 설명 편에 일부 소재처가 잘 못 기록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였다. 미훤철 47개소 중 무성서원과 필암서원이 '경상도 태인'과 '경상도 장성'으로 오기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시정 요청(2012.4.2)을 하여 '시정을 하겠다' 답변 메일을 받기는 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DB와 GIS 구축은 종합조사와 자료의 공유, 학제간 연구를 기초로 하여 진정성을 확보한 뒤에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개별

유산이 아니라 통합·융합적인 체계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장성 필암서원의 기록자료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서원'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유산'으로 국민의 인식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세계적인 보편성과 특수성은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자료 1 : 필암서원 기탁유물 목록(지정문화재 14책64매)[국립광주박물관]

연 번	유 물 명	수 량	비 고	연 번	유 물 명	수 량	비고
1	奴婢普	1책	보물 587-1호	35	稟目(12)	1매	35
2	院長先生案	1책	-2호	36	稟目(13)	1매	36
3	筆巖書院執綱案	1책	-3호	37	稟目(14)	1매	37
4	文契案(1)	1책	-4호	38	稟目(15)	1매	38
5	文契案(2)	1책	-5호	39	稟目(16)	1매	39
6	筆巖書院西齊儒案書	1책	-6호	40	稟目(17)	1매	40
7	筆巖書院 院籍(1)	1책	-7호	41	稟目(18)	1매	41
8	筆巖書院 院籍(2)	1책	-8호	42	稟目(19)	1매	42
9	筆巖書院 院籍(3)	1책	-9호	43	稟目(20)	1매	43
10	筆巖書院 院籍(4)	1책	-10호	44	稟目(21)	1매	44
11	筆巖書院 成冊(奴婢田畝案)	1책	-11호	45	稟報(1)	2매	45
12	奴婢案(題纂 長城筆巖書院)	1책	-12호	46	稟報(2)	1매	46
13	奉審錄	1책	-13호 가,나	47	稟報(3)	1매	47
14	梁子徵名에 關한 稟目(節文)	1책	-14호	48	稟報(4)	1매	48
15	西一茶山民人等狀	5枚	15-1,2,3,4,5	49	稟報(5)	1매	49
16	西一筆巖化民等狀	1매	16	50	稟告(1)	1매	50
17	民墓移葬關係文書	1매	17	51	稟告(2)	1매	51
18	府使下帖(1)	1매	18	52	稟告(3)	1매	52
19	府使下帖(2)	1매	19	53	稟告(4)	1매	53
20	大學答通	1매	20	54	稟告(5)	1매	54
21	河西族孫私信	1매	21	55	稟狀(1)	1매	55
22	上書	1매	22	56	稟狀(2)	1매	56
23	院長貳推戴辭絕書	1매	23	57	稟狀(3)	1매	57
24	稟目(1)	1매	24	58	文報(1)	1매	58
25	稟目(2)	1매	25	59	文報(2)	1매	59
26	稟目(3)	1매	26	60	文報(3)	1매	60
27	稟目(4)	1매	27	61	文報(4)	1매	61
28	稟目(5)	1매	28	62	文報(5)	5매	62
29	稟目(6)	2매	29-6-1/29-6-2	63	文報(6)	1매	63
30	稟目(7)	1매	30	64	文報(7)	1매	64
31	稟目(8)	1매	31	65	文報(8)	1매	65
32	稟目(9)	1매	32	66	文報(9)	1매	66
33	稟目(10)	1매	33	67	單子(2-1)	1매	67
34	稟目(11)	1매	34	68	單子(2-2)	1매	68

□ 자료 2 : 필암서원 기탁유물 목록(비지정문화재 10책5매)[국립광주박물관]

연번	유물명	수량	연번	유 물 명	수량
69	품 장	1매	73	봉심록(영조26년)	1책
70	문 보	1매	74	팔도유생진사심익현 상소문	1매
71	품 목	2매	75	부행장 인종어제(상자포함)	1책
72	완 문	3책	76	내사오경백편(상자포함)	5책

□ 자료 3 : 울산김씨대종회 기증유물 목록(31점)[국립광주박물관]

연 번	유 물 명	수 량	비 고	연 번	유 물 명	수 량	비 고
1	仁宗大王 墨竹圖	1		17	金麟厚 署經狀	1	
2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	1		18	金麟厚 署經狀	1	
3	東湖契會圖	1		19	金麟厚 教旨	1	
4	金從虎 教牒	1		20	金麟厚 教旨	1	
5	金從虎 教牒	1		21	尹氏 教旨	1	
6	服齊傳筆歌 并序文	1		22	金麟厚 教旨	1	
7	金南重 教牒	1		23	致祭文	1	
8	金麟厚 教旨	1		24	金麟厚 教書	1	
9	尹氏 教旨	1		25	金麟厚 教書	1	
10	金麟厚 教旨	1		26	致祭文	1	
11	御畫墨竹跋文	1		27	致祭文	1	
12	致祭文	1		28	致祭文	1	
13	御筆別本祭文跋文	1		29	墨書	1	
14	河西先生職啣	1		30	墨書	1	
15	金麟厚 教旨	1		31	墨書	1	
16	金麟厚 教旨	1		계	31건		

* 자료제공 : 국립광주박물관[학예구실]

* 본 자료는 광주박물관 제공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2단으로 편집만 바꿨다. 내용상으로는 몇 군데 확인할 곳([]부분)도 있다. 자료 1-6 筆巖書院西齋[齋]儒案書, 1-13 奉審錄[錄], 1-14 梁子徵[徵]名에 關한 稟目, 자료 3-6 服齊[齋]傳筆歌 등

도동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 현황 · 과제

백 지 국

(영남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1. 達城 道東書院⁹⁰⁾의 연혁

道東書院은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구지서로 726)에 위치한다. 寒暄堂 金宏弼(1454-1504)과 寒岡 鄭述(1543 - 1620)를 배향하고 있다.

김굉필을 향사하는 최초의 서원은 그가 죽은 뒤 60여 년 후인 1565년(명종 20)에 謫所인 전라도 순천에 건립된 玉川書院이다.⁹¹⁾ 이후 그의 고향인 현풍에서도 김굉필을 향사하는 서원 건립이 추진되어 1568년(선조원년) 비슬산 계곡에 雙溪書院이 건립되었다. 이 서원에 대한 자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탓에 건립과정이나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다만 창건 당시 文籍에 의하면 다른 여타의 서원과 마찬가지로 鄉中士林 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비롯한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다. 1573년(선조 6) 경상감사의 狀啓에 의하여 <雙溪>의 賜額과 함께 서적을 하사받았다.

쌍계서원은 任亂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당시 전란으로 인한 향촌사회의 피폐와 물력의 부족으로 10여 년 동안 중건되지 못하였다. 이후 1604년(선조 37) 현풍현 오설리 송림 보로동으로 옮겨 중건하였다. 이때 서원명을 甫老로 改名하였다. 1610년(광해 2)에 봉안하였으며, 같은해 도내 유생들의 啓請으로 <道東>으로 再賜額되었다.

도동서원의 중건에 대해서는 『道東書院重勦事蹟』을 통해 개략적인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도동서원은 이 시기 여타의 서원과 마찬가지로 김굉필의 내외손 및 一鄉士林의 공동협력 하에 감사 및 本邑과 인근 수령 등 官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되었다. 특히 김굉필의 외증손이자 당시 영남학파를 영도 해 갔던 정구와 감사의 역할이 컸다. 정구는 중건초기 區劃措施에 애를 썼으며 白鹿洞規를 모범으로 한 道東院規를 제정하고 매 朔望에 諸生에게 강마하기도 하였다. 한편 1604년(선조 37) 먼저 중건역사를 관장할 원장으로 郭奭을 천거하였고 1607년(선조 40) 안동대도호부사로 재직당시 영남학파의 중심인사였던 대구도호부사인 鄭經世와 합천군수 呂大老와 함께 重建求助通文을 내기도 하는 등 도동서원 중건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었다.

1677년(숙종 3) 생원 郭壽夏 등이 상서를 올려 서원 중건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였고, 초기

90) 2011년 7월 29일 서원의 공식명칭이 <道東書院>에서 <達城道東書院>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본문에서는 편의상 도동서원이라 표기한다.

91) 이 서원은 1564년에 김굉필의 학덕을 추모한다는 뜻에서 景賢堂을 건립하였다가 다음에 玉泉精舍와 東西齋를 건립함으로써 서원의 구조를 갖추었다. 1564년 사림의 청액으로 玉川의 사액을 받았다.(『全南의 書院·祠宇』 : 사액서원편, 1988, 127쪽.)

운영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던 정구의 從享을 청하였다. 이때의 상서에서는 정구를 비롯하여 裴紳과 朴惺의 배향을 청하였지만 정구만 윤희를 얻어 1678년(숙종 4) 3월 26일 봉안하였다.

한편 도동서원은 김굉필 당시 그와 道義之交가 있었던 현풍 출신의 곽승화·배신·곽율·원개 등 4인을 배향하기 위해 院傍에 별도로 別祠(미사액)⁹²⁾를 건립하였으나 대원군 서원철폐 때 훼손되었다.

도동서원 중건 이후 서원내의 변화나 정치·사회적 활동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다른 서원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왕조의 서원진흥책에 힘입어 활발히 활동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제향자인 김굉필이 1610년(광해 2) 동방5현으로 文廟從祀되고 영남학파를 영도하던 정구의 從享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었을 것이다. 중건초기 「尋院錄」에 의하면 첫 등재자인 정구 이후로 張顯光·許穆·李潤雨 등 당시 한강문인을 비롯한 경상도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來訪하였다. 이후에도 영남의 남인계 중요인사들의 내방이 끊이지 않았으며, 또한 부임 지방관을 비롯한 인근 지방관들도 관심에 따라 서원에 내방하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풍사람들은 유학자로서 명망이 높았던 김굉필과 정구를 道統淵源을 삼는 동시에 도동서원을 중심으로 지방유림들을 결집시키고, 나아가 안동·경주·상주권 등 도내 유림세력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였다. 이후 도동서원은 경상도 중부지역의 대표 首院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며 김굉필을 향사하는 대표 서원으로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 철폐 훼손 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다.

현재 도동서원에는 서원의 정문인 水月樓, 喚主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만든 강당인 中正堂, 각각 정면 3칸, 측면 1칸의 유생 기숙사로서 동재인 居仁齋, 서재인 居義齋, 內三門, 板木을 보관하는 藏板閣, 典祀廳 등이 있다. 경내 건축물 중 1963년 1월 21일 강당·사당과 이에 딸린 <道東書院講堂祠堂附牆垣>이 보물 제350호로 지정(1963.01.21.)되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토담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7년 10월 10일 서원 전면에 위치한 신도비, 은행나무 등을 포함한 서원 전역을 사적 제 488호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2. 소장자료의 전래와 현황

1) 도동서원은 이른바 동방5현의 首賢으로 문묘에 배향된 暄堂 金宏弼을 향사하는 서원으로 안동의 도산·병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상주의 도남서원 등과 함께 대구·성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 중부권을 대표하는 서원이다. 대원군의 사원철폐 때 훼손되지 않고 존속함으로써 옥산·도산서원 등에는 질적·양적인 면에서 미치지 못하지만 여타의 서원에 비해서는 소장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2) 도동서원은 경상도 중부권을 대표하는 서원이었던 만큼 많은 서적들을 소장하고 있었

92) 이 별사는 1695년(숙종 21)에 건립되어 곽승화·배신·곽율 등 3인을 먼저 竝享하고, 1706년(숙종 32) 원개가 追享되었다.

을 것이다. 그러나 현존 하는 자료의 부족으로 그 구체적인 목록은 알 수 없다. 다만 서원의 교육 목표 및 내용과 관련 된 서적을 중심으로 수집·보관·출판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중정당 벽에 걸려있는 「道東院規」의 내용을 통해 도동서원이 수집하거나 출판하였을 서적들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院長迎請朋徒, 不廢勸講. 冬春五經四書與伊洛諸性理之書, 夏秋史學子集. 任其所讀, 夫入院之士, 雖不能不爲科擧之事, 而科擧之外, 亦有古人, 所謂爲己之學者. …(「道東院規」)

원규의 기록을 통해 추정되는 도동서원의 도서 목록은 여타의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유교경전과 역사책, 학자들의 문집, 과거시험에 대비한 서적들을 수집·보관·출판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밖에 도동서원에서는 나라로부터 책을 하사 받거나⁹³⁾ 혹은 기증 등의 형식으로 여러 서적들을 소장 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3) 서원 관계 자료는 필사원본과 고문서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도동서원의 경우 고문서는 거의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중건 초창기인 17세기 자료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18세기 이후의 것이다. 다만 서원 초창기의 상서·소지 등 문서와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부 통문이 『道東重榘事蹟』·『各處通文謄草』 각 1책으로 묶여 보관되어 있다.

3. 자료조사 현황과 기타 기록자료

1) 광복이후 도동서원 소장 자료에 대한 최초의 조사작업은 1969년 국회도서관에서 수행하였다. 국회도서관에서는 성균관대의 이춘희 교수를 중심으로 당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서원 소장 도서의 목록을 조사·정리하여 『李朝書院文庫目錄：李朝書院文庫目錄考』를 간행하였다.

대원군의 서원철폐 당시 전국에 남겨둔 47곳의 서원 중 1969년 당시 대한민국에 존속하고 있는 서원은 모두 36곳이었다. 이 중 강원도의 褒忠祠와 忠烈書院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실재 현존 서원 수는 34곳이 된다. 지방별로 보면 경상도가 14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기도 11곳, 충청도 5곳, 전라도 3곳, 강원도 3곳 순이다. 34곳의 서원중 실지 답사하여 서책의 유무를 확인한 곳은 17곳, 서신에 의해 확인 한 곳은 서원이 4곳으로 총 21곳의 서원에서 장서(藏書)를 보유하고 있었다.

도동서원의 경우 95種 529冊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목록은 국회전자도서관에서제공 해주는 『李朝書院文庫目錄：李朝書院文庫目錄考』의 원문D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3) 도동서원의 전신인 쌍계서원은 1573년(선조 6) 경상감사의 狀啓에 의하여 <雙溪>의 賜額과 함께 서적을 하사받았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서원은 폐허 된 후 10여 년 동안 중건되지 못하다가 자리를 옮겨 중건되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나라로부터 하사받은 책들은 失傳된 것으로 보인다.“경상도 감사가 狀啓하기를, <도내 현풍에는 김평필의 서원을 설치하였고…賜額하고 서적을 頒降하소서.> 하였는데, 예조에 啓下하였다.”(慶尙道監司 狀啓 “道內玄風設金宏弼書院…乞賜額, 頒降書籍” 啓下禮曹(『宣祖實錄』 7卷, 6年 11月 甲辰條))

2) 1997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道東書院誌』를 발간하면서 도동서원에 소장된 자료를 조사하였다. 조사당시 도동서원의 경우 고문서는 거의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서원 초창기의 상서·소지 등 문서와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부 통문이 『道東重勅事蹟』·『各處通文謄草』 각 1책으로 묶여 보관되어 있다. 서원에 소장된 자료는 대부분 18세기 이후의 것으로 특히 20세기 이후의 단편적인 경제관계 자료가 다수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각 서원에는 서원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고왕록이 있는데 도동서원의 경우 확인되지 않았다.

3) 2005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는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수행 시 도동서원에 소장된 자료도 함께 조사되었다. 1997년 조사 때 보고된 자료를 외에 고서 10종 26책과 책판 1종 71판, 제기 및 현판이 28건 등이 추가로 조사되었다. 고서는 『景賢錄』·『御定奎章全韻』·『春秋左氏傳』·『五經百篇』 등의 內賜本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景賢錄』 71판이 장판각에 소장되어 있었다.

이 밖의 유물로 조선시대부터 대대로 전래되어온 祭器와 현판 등이 조사되었다. 현판은 『道東書院』·『居仁齋』·『居義齋』·『水月樓』·『喚主門』·『中正堂』 등 총 18개이며, 제기는 켜, 보, 상준, 용작, 작, 짐, 촛대, 회준 등 총 8종 30점이 있었다. 이외에 벽화 2점과 內賜本을 담은 함 2개를 조사할 수 있었다.

4) 도동서원에 소장된 자료는 전적 등의 유물은 관리인의 금고에 보관 중이며, 책판은 장판각에 보관 중이다.

[표-1] 도동서원 보존관리시설

수 장 고	有	수장고 면적	10 평
금 고	1 대	향온향습시설	無
감시카메라	(일반/적외선) 無	감시모니터	無
녹 화 기	-	감 지 기	(열선/적외선/화재) 有
경 보 기	-	무인경비시스템	有
자동소화시설	(스프링클러 등) 無	소화기	소화전 2, 소화기 4대
상근관리인력	1 명	비상근관리인력	1 명

4. 소장자료의 종류

1) 고서

『道東重勅事蹟』: 현재 도동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 서원 건립 초창기인 17세기 자료는 거의 없고 18세기 이후의 것이며 특히 20세기 이후의 자료가 다수이다. 따라서 서

원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다만 서원 중건 초창기의 상황은 서원 유생들의 상서를 모은 『도동중창사적』을 통해서 일부 파악할 수 있다.

『各處通文謄草』 景賢錄 / 01-0003~0005⁹⁴⁾ 景賢續錄補遺 / 01-0007
 道東書院土地臺帳 / 01-0006 成化十六年庚子式年司馬榜目 / 01-0008
 御定奎章全韻 / 01-0002 御定奎章全韻 / 01-0001 五經百篇 / 01-0012~0016
 有英齊完議節目 / 01-0011 全韻玉篇 / 01-0009~0010 春秋左氏傳 / 01-0017~0026

2) 고문서⁹⁵⁾

- 서원의 조직·운영 관계자료 : 서원운영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院任案』, 『入院錄』, 『參祭錄』, 『謁祠錄』, 『焚香錄』, 『敦事錄』, 『執事分定記』, 『尋院錄』 등이 있다.
- 경제관계자료 : 『土地案』, 『奴婢案』, 『院屬案』, 『月次鐵物錄』 및 『田畝案』, 『院田收稅記』, 『傳掌記』 등과 20세기 이후 경제와 관련한 단면적인 자료가 있다.
- 건물 중수 관련 자료 : 『重修物力都摠』·『補院稷案』 등이 있다.
- 기타 : 도동서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향촌사회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 현풍현 『鄉案』 2책과 최초의 향안 작성 시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鄉案設立初定規謄草」가 소장되어있다. 이 자료는 향약적인 요소를 전혀 가미하지 않은 대표적인 향규로 중요한 자료라 판단된다.
- 도동서원 고문서 목록 : 『도동서원지』 원문DB 서비스 - <http://www.kstudy.com/>

3) 책판

- 景賢錄 김광필(金宏弼) 저, 김하석(金夏錫) 편

4) 현판 : 도동원규 : 도동 서원의 원규는 1. 향사(享祀)의 날짜를 정하는 방법. 2. 원장의 자격과 임무, 3. 유사(有司)의 자격. 4. 원생의 입학 자격. 5. 자리의 순서. 6. 교육 방법과 내용, 7. 선생을 맞이하는 예절. 8. 금지사항을 8 개조로 나누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가장 엄격히 지켜졌던 마지막의 금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1. 노자(老子)와 열자(列子)와 장자(莊子) 및 불교에 관한 책과 바둑과 장기 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莊列老釋之書, 碁局博奕之戲, 皆不得入院)
2. 제주(祭酒)이외 술을 빚어서는 안 된다.(釀酒之外, 不得釀酒)
3. 제수(祭需)이외 소를 잡아서는 안 된다.(尹祭之外, 不得殺牛)
4. 신분이 천한 하녀는 재(齋)와 당(堂)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婢子, 不得出入齋堂).

94) 책별 세부 서지내용은 2005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달성군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 결과보고서』 참조.

95) 이하의 내용은 1997년 영남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한 『道東書院誌』를 정리한 것이다.

附。道東書院所藏資料目錄

1. 道東重勸事蹟
宣祖三十七年(一六〇四)
肅宗四十六年(一七二〇)
 2. 院任案
宣祖三十七年(一六〇四) ~ 一九六五
光海二年(一六二〇) ~ 一九〇七年
 3. 入院錄
庚戌(一九一〇) ~ 一九六六
 4. 入院錄
一九四〇年 丙午
 5. 薦案
光海一三年(一六二二)
正祖一五年(一七九二)
 6. 鄉案(上)
純祖一四年(一八二四)
哲宗二年(一八五二)
 7. 鄉案(下)
正祖一〇年(一七八六) 一〇月
光海二年(一六二〇)
 8. 鄉案設立初定規曆草
純祖三年(一八〇三)
 9. 奉安時諸執事分定記
肅宗一二年(一六九五)
 10. 別祠奉安時諸執事分定記
純祖一〇年(一八二〇)
正祖一五年(一七九二)
 11. 敦事錄
肅宗四十六年(一七二〇) ~ 英祖六年(一七三〇)
 12. 敦事錄
憲宗一四年(一八四八)
 13. 參祭錄
-
- ① 萬曆三十九年(光海三年、一六二二)
辛卯(孝宗二年、一六五二)三月
 - ② 庚辰(肅宗二六年、一七〇〇)二月
己亥(肅宗四五年、一七二八)八月
 - ③ 己亥(肅宗四五年、一七二八)八月
己未(英祖一五年、一七三九)八月
 - ④ 甲戌(肅宗二〇年、一六九四)二月
壬申(英祖二八年、一七五二)二月
 - ⑤ 甲午(英祖五〇年、一七七四)八月
丙午(正祖一〇年、一七八六)三月
 - ⑥ 丙午(正祖一〇年、一七八六)三月
丙寅(純祖六年、一八〇六)二月
 - ⑦ 癸未(純祖三三年、一八二三)三月
壬辰(純祖三三年、一八二三)三月
 - ⑧ 辛卯(純祖三二年、一八三二)一〇月
壬戌(哲宗一三年、一八六二)三月
 14. 焚香錄
丁未(一九〇七)八月 ~ 乙卯(一九一五)六月
 15. 謁祠錄
① 壬申(肅宗一八年、一六九二)正月
戊寅(肅宗二四年、一六九八)二月

- ② 己卯(肅宗二十五年、一六九九) 正月
 〃 癸未(肅宗二十九年、一七〇三) 一二月
- ③ 甲申(肅宗三〇年、一七〇四) 正月
 〃 丁亥(肅宗三十三年、一七〇七) 三月
- ④ 丁亥(肅宗三十三年、一七〇七) 二月
 〃 辛卯(肅宗三十七年、一七一一) 一二月
- ⑤ 辛卯(肅宗三十七年、一七一一) 正月
 〃 甲午(肅宗四〇年、一七一四) 四月
- ⑥ 甲午(肅宗四〇年、一七一四) 五月
 〃 丁酉(肅宗四三年、一七一七) 一二月
- ⑦ 戊戌(肅宗四四年、一七一八) 正月
 〃 癸卯(肅宗三年、一七二三) 二月
- ⑧ 甲辰(肅宗四年、一七二四) 二月
 〃 戊申(肅宗四年、一七二八) 二月
- ⑨ 戊申(肅宗四年、一七二八) 三月
 〃 丁巳(肅宗一三年、一七三七) 一月
- ⑩ 丁巳(肅宗一三年、一七三七) 二月
 〃 辛酉(肅宗一十七年、一七四一) 八月
- ⑪ 辛酉(肅宗一十七年、一七四一) 十一月
 〃 庚午(肅宗一十六年、一七五〇) 八月
- ⑫ 丙子(肅宗三二年、一七五六) 正月
 〃 壬午(肅宗三八年、一七六二)
- ⑬ 壬午(肅宗三八年、一七六二) 五月(丑、甲申)
 〃 癸未(肅宗三十九年、一七六三) 八月
- ⑭ 甲申(肅宗四〇年、一七六四) 九月
 〃 癸巳(肅宗四十九年、一七七三) 七月

- ⑮ 癸巳(肅宗四十九年、一七七三) 八月
 〃 丁酉(肅宗一一年、一七七七) 九月
 - ⑯ 丁酉(肅宗一一年、一七七七) 一〇月
 〃 壬寅(肅宗一十六年、一七八二) 正月
 - ⑰ 壬寅(肅宗一十六年、一七八二) 二月
 〃 壬子(肅宗一十六年、一七九二) 二月
 - ⑱ 壬子(肅宗一十六年、一七九二) 二月
 〃 庚申(肅宗二十四年、一八〇〇) 六月
 - ⑲ 庚申(肅宗二十四年、一八〇〇) 六月
 〃 庚午(肅宗一〇年、一八二〇) 二月
 - ⑳ 丙戌(肅宗一十六年、一八二六) 正月
 〃 丙申(肅宗一一年、一八三五) 一〇月
 - ㉑ 丁酉(肅宗三年、一八三七) 二月
 〃 戊辰(肅宗五年、一八六八) 二月
 - ㉒ 丁丑(肅宗一十七年、一八一七) 二月
 〃 辛卯(肅宗一三年、一八三一) 八月
 - ㉓ 壬辰(肅宗三三年、一八三三) 正月
 〃 辛丑(肅宗七年、一八四二) 一二月
 - ㉔ 壬戌(肅宗一三年、一八六二) 八月
 〃 庚午(肅宗七年、一八七〇) 六月
16. 尋院錄
- ① 丙午(肅宗三十九年、一八〇六) 〃 癸亥(肅宗一一年、一六三三)
 - ② 丁亥(肅宗一五年、一六四七) 一二月
 〃 己亥(肅宗一〇年、一六五九) 一〇月
 - ③ 庚子(肅宗一一年、一六六〇) 正月
 〃 丙辰(肅宗二年、一六七六) 二月

- ④ 丙辰(肅宗二年、一六七六)三月
 乙亥(肅宗二年、一六九五)四月
- ⑤ 乙亥(肅宗二年、一六九五)七月
 庚辰(肅宗二年、一七〇〇)十二月
- ⑥ 庚辰(肅宗二年、一七〇〇)二月
 丁亥(肅宗三年、一七〇七)三月
- ⑦ 丁亥(肅宗三年、一七〇七)三月
 壬辰(肅宗三年、一七一二)三月
- ⑧ 壬辰(肅宗三年、一七一二)四月
 丙申(肅宗四年、一七一六)三月
- ⑨ 丙申(肅宗四年、一七一六)三月
 甲辰(肅宗四年、一七二四)仲冬
- ⑩ 戊申(肅宗四年、一七二八)二月
 丁巳(肅宗三年、一七三七)二月
- ⑪ 丁巳(肅宗三年、一七三七)五月
 庚午(肅宗六年、一七五〇)九月
- ⑫ 庚午(肅宗六年、一七五〇)九月
 癸未(肅宗九年、一七六三)二月
- ⑬ 癸未(肅宗九年、一七六三)二月
 己丑(肅宗十五年、一七六九)一〇月
- ⑭ 辛亥(肅宗十五年、一七九二)三月
 丁卯(肅宗十七年、一八〇七)四月
- ⑮ 丁卯(肅宗十七年、一八〇七)四月
 甲戌(肅宗十四年、一八一四)二月

- ⑯ 甲戌(肅宗十四年、一八一四)二月
 癸未(肅宗三年、一八二三)九月
- ⑰ 癸未(肅宗三年、一八二三)九月
 己丑(肅宗九年、一八二九)十二月
- ⑱ 庚寅(肅宗三〇年、一八三〇)三月
 癸卯(肅宗九年、一八四三)三月
- ⑲ 己未(肅宗一〇年、一八五九)三月
 癸亥(肅宗一四年、一八六三)三月
- ⑳ 辛卯(肅宗二八年、一八九二)三月
 甲辰(肅宗二九〇四年、二月)
- ㉑ 戊寅(肅宗一九三八)三月
 庚戌(肅宗二九七〇)一〇月
- ㉒ 辛亥(肅宗一九七二)八月
 戊辰(肅宗二九八八)
17. 各處通文牒草
 憲宗六年(一八四〇)
18. 廟室移建時到記
 正祖一一年(一七八七)
19. 育英齋完議節目
 正祖一三年(一七八九)
20. 學稷案
 哲宗五年(一八五四)高宗四年(一八六七)
21. 補院契案
 己亥(一八九九)二月初一日
22. 補院契案
 一八九九年一八九八年
23. 補院契(收錢錄)
 己亥(一八九九)一八九九年
24. 補院契錢植本案
 辛酉(一九二二)三月初一〇日
25. 補院契錢收捧記
 戊辰(一九二八)二月二七日
26. 補院契續案
 乙酉(一九四五)三月二六日
27. 門樓契案
 甲辰(一九〇四)乙巳(一九〇五)二月
28. 本院修理案
 戊寅(一九三八)二月

29. 重修物力都摺、
純祖三年(一八〇三)
30. 重修物力都摺冊
哲宗九年(一八五八)
31. 重修時執事分定冊
哲宗九年(一八五八)
32. 道東書院重修贊助金芳名錄
一九六五
33. 道東書院補修贊助金芳名錄
一九七四
34. 道東書院重修還安記念詩帖
一九六七
35. 倉庫重修記
戊辰二月日
36. 庫室重修
戊辰 癸丑一月三日
37. 奴婢案
一七세기초~肅宗二八年(一七〇二)
38. 月次鐵物錄
丙辰~乙卯
39. 奴婢賣買文書
正祖三年(一七二九)
40. 道東書院院生案
① 戊辰 一月 ② 癸酉 二月 ③ 戊寅 正月
④ 乙丑 二月 ⑤ 丙寅 一〇月 ⑥ 己丑 十一月
⑦ 丙戌 一〇月
41. 道東書院募入案
① 戊午 一月 ② 壬戌 四月 ③ 甲子 九月
42. 道東書院資費案
① 戊午 一月 ② 癸亥 七月
43. 道東儒生案
丁卯 八月
44. 道東書院田畝大帳、
辛丑 二月日
45. 庚子量田畝案
戊午
46. 院田收稅記
壬午 正月日
47. 田畝成冊
乙丑、丁卯、戊辰
48. 道東書院土地量帳
壬申(一九三二年)、二月日

49. 本院土地量帳
乙巳~丁卯
50. 道東書院陸地實測坪數量帳
癸亥 一二月
~ 丙子 一二月
51. 道東書院田畝結卜大帳
癸未 一〇月
52. 邑西部員數坪畝斥賣冊
丁酉 三月
53. 道東書院結卜區別成冊
乙未 二月
54. 道東書院結卜區別成冊
乙未 四月
55. 道東書院土地賭租代金記
辛巳 三月
56. 本院糧米賭地散賣合賣區分記
庚辰 正月
57. 道東書院土地賭租賣買冊
己卯 九月
58. 基地稅太定式
戊辰 八月
59. 書院土地契約書案
辛卯 三月
60. 道東書院入金記
己丑 七月
61. 本院賭地冊
壬寅 三月
62. 馬山賭地冊
① 戊戌 三月 ② 庚子 正月
③ 辛丑 正月 ④ 己亥 正月
63. (本院)正案
① 丁未 正月~戊申 六月 ② 丙寅 五月~戊辰
③ 戊寅 二月 ④ 甲辰 二月~乙巳
⑤ 丙申 二月~丁酉 ⑥ 丁未 二月~戊申
⑦ 甲寅 二月~丙辰 ⑧ 乙未 三月
⑨ 己亥 二月~庚子 ⑩ 丁亥 三月日~己丑
⑪ 壬午 一〇月~甲申 ⑫ 己未 正月~甲子
⑬ 甲子 八月~丁卯 ⑭ 甲子 八月

- ⑮ 甲申 四月～丁亥
⑯ 甲午 四月～庚子
- ⑰ 甲寅 正月～戊午
- 64。 屯租記
① 甲申 一〇月
② 乙酉 九月
③ 丙戌 九月
④ 戊子 十一月
⑤ 辛卯 三月
- 65。 屯租及食狀記
① 甲午 四月
② 庚子 八月
- 66。 穗穀及現穀收支記
辛亥 一〇月
- 67。 別補
① 戊午 十一月～癸亥 十二月
② 辛亥 十一月
③ 戊寅 一〇月～己卯
④ 甲寅 十二月～乙卯
⑤ 壬申 一〇月～丁丑 十二月
⑥ 丙辰 十二月～丁巳 十二月
⑦ 庚戌 十二月
- 68。 別補(正案冊)
① 甲午 十二月
② 丙戌 十一月
③ 丙申 十二月
④ 乙未 十二月
- 69。 (本院) 春正冊
① 戊午 六月～甲子 正月
② 丙辰 十二月～丁巳 十二月
③ 庚辰 五月
④ 甲子 五月～丙子
- 70。 看穗記
① 甲子 九月
② 庚寅 九月

- ③ 戊寅 一〇月
④ 丙寅 九月
- 71。 道東書院定穗記
戊申 三月
- 72。 傳掌記
① 己未 二月
② 甲戌 四月～癸巳 三月
- 73。 雜物傳掌記
癸酉(肅宗一九年、一六九三) 八月八日
～壬申(英祖二八年、一七五二) 五月
丁亥 四月～(封己)
- 74。 道東書院書冊目錄
院中物件記
① 甲子 四月
② 甲辰 五月～庚辰
- 75。 書院物件目錄
丁亥 三月
- 76。 書院物件目錄・書冊目錄・財產收入簿
辛巳 四月～壬午
- 77。 庚子移安院會下記
己丑 七月～辛卯
- 78。 道東書院用下記
壬子 二月
- 79。 庫舍門間重建下記冊
己亥 二月
- 80。 景賢錄重刊時下記
丁未 九月
- 81。 下記抄早
丁酉 正月初四日
- 82。 文敬公宗家祭需節目
高宗一九年(一八九二年)
- 83。 道東書院奠物單子
① 己卯 十一月
② 己卯 九月
- 84。 回文
- 85。 祭文 宣祖三八年(一六〇五)～肅宗四六年(一七二〇)
- 86。 慶尙左道玄風縣儒生袞繼緒等謹齋沐再拜上書
顯宗五年(一六六四)

88. 明文 辛亥一〇月
89. 庭揖禮(封己) 丁亥(一九四七)三月
90. 抄錄 庚辰四月
91. 景賢錄本院保有及頒帙記 乙亥一二月
92. 畢齋金先生門人錄分冊記 甲戌九月
93. 畢齋門人錄：下記正案冊 己酉~丁巳
94. 本院放債冊 正祖三年(一七七九)
95. 通文 壬午九月二日
96. 明文 壬子(哲宗三年, 一八五二)八月
97. 簡札 丁卯(高宗四年, 一八五七)十一月
98. 任案錄(松潭) 壬子(哲宗三年, 一八五二)八月
99. 院任錄(松潭) 丁卯(高宗四年, 一八五七)十一月
100. 松潭書院謁祠錄
- ① 甲戌(肅宗二〇年, 一六九四)一二二月 癸未(肅宗一九年, 一七〇三)九月
- ② 癸未(肅宗一九年, 一七〇三)八月 丁亥(肅宗三三年, 一七〇七)二月
- ③ 壬辰(肅宗三八年, 一七一二)正月 乙未(肅宗四一年, 一七一五)二月
- ④ 丙辰(英祖二二年, 一七三六)二月 辛酉(英祖一七年, 一七四二)一二月
- ⑤ 壬申(英祖二九年, 一七五三)八月 甲申(英祖四〇年, 一七六四)七月
- ⑥ 癸巳(英祖四九年, 一七七三)八月 庚子(正祖四年, 一七八〇)八月

- ⑦ 庚子(正祖四年, 一七八〇)八月 辛亥(正祖一五年, 一七九二)二月
- ⑧ 辛亥(正祖一五年, 一七九二)二月 丙寅(純祖六年, 一八〇六)一〇月
101. 松潭書院尋院錄 丁亥(英祖四三年, 一七六七)
- ① 丁亥(英祖四三年, 一七六七) 辛酉(純祖一年, 一八〇二)三月
- ② 辛酉(純祖一年, 一八〇二)四月 壬午(純祖三年, 一八二二)二月
- ③ 乙卯(一八五五)七月 戊辰(高宗五年, 一八六八)九月 戊申二月
102. 松潭書院院生案
103. 松潭儒錢收合記
104. 松潭書院別有司前明文 甲申(純祖二四年, 一八二四)一二二月
- ※ ① 원임록, 입원록, 鄉錄 등은 각 2책, 2책, 3책이 더 있으나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제외하였다.
- ② 參祭錄에 연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유는 알 수 없었다. 이 중에는 송담서원 자료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③ 于支만 적어 놓은 것은 19세기말의 몇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제시대 및 최근의 자료이다.

〈本研究所特別研究員〉

□ 각종 문집에서 산견되는 도동서원 관련 기사.

『한국고전종합DB』(한국고전번역원) 및 『영남문집해제』(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88)에 수록된 도동서원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金世濂, 『東溟集』, 卷 3, 詩 「道東書院. 示居接儒生」.

南東道, 『敬庵集』, 卷 4, 「道東別祠三賢奉安」.
 安鼎呂, 『晦山集』, 卷 7, 「道東書院謁寒暄金先生」.
 禹成圭, 『景齋集』, 卷 10, 「諡道東書院講儒」.
 禹倬, 『尙賢錄』, 卷 2, 「道東書院常享」.
 李承熙, 『大溪集』, 卷 34, 「道東書院遺墟」.
 李祥奎, 『惠山集』, 卷 8, 「道東精舍士林」.
 李栽, 『密庵集』, 卷 14, 「道東書院」.
 鄭述, 『寒岡集』, 卷 11, 「道東書院奉安」.
 鄭述, 『寒岡集』續集, 卷 4, 「道東書院院規」.
 鄭述, 『寒岡集』別集, 卷 2, 「書道東書院額板下」.
 鄭宗魯, 『立齋集』, 卷 31, 「道東書院傍祠常享祝」.

3) 소장자료 발간

- ① 『景賢錄(并)續』木板本(重刊,後刷): 道東書院, 1969
- ② 『李朝書院文庫目錄: 李朝書院文庫目錄考』李春熙 著. 國會圖書館, 1969
- ③ 『道東書院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著. 嶺南大學校出版部, 1997
- ④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달성군, 2005

5. 달성 도동서원 소장자료 활용방안

1) 도동서원은 1997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한 『도동서원지』를 통해 소장 자료를 조사·정리 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연구자와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후에 조사된 자료는 보고서를 통한 목록만 공개 되고 있어 지속적인 조사·연구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조사된 자료들은 간행 및 원문DB·색인 작업등을 통해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고문서 중에는 독자적으로 그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도 있지만 다른 문서와 연관하여 이용 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자료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서들이 개별화 되어있어 문서간의 상호연관성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며 필요한 문서를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문서의 DB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나, 그러나 전문 인력의 부족과 재정적 지원 및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자체 및 서원자료 소장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연구가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고문서를 보존하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이들은 적절하게 정리하는 대책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2) 조선시대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향촌사회 교화와 여론의 형성 외에도 지식의 전달을 위해 서적을 출판하고 문고를 두어 서책과 문헌을 보존하여온 도서관적 기능도 담당하

였다. 서원의 사고는 우리나라 도서 및 인쇄, 서적의 집산(集散) 보존 등 출판문화와 도서관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우리나라 도서관의 역사를 비롯하여 출판·인쇄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장으로서 서원사고는 그 활용가치가 높다.

한편 도동서원의 경우 유물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으나 제반시설의 지원이 요구된다.

3) 현재 유교문화원형 사업은 매체기반형 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장소기반형 사업과 체험지향형 사업은 잠재적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도동서원의 경우 유교문화유산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건축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역사적·공간적 가치를 지닌 도동서원을 중심으로 한 장소 기반형 + 체험 지향형 문화산업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도동서원의 공간을 활용한 체험 및 체류형 에듀테인먼트는 통해 방문객에게 서원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상품개발을 통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다양한 원 소스 멀티유즈(OS)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병산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 현황 · 과제

이 광 우

(영남대 국사학과 강사)

1. 병산서원의 연혁 개략

屏山書院은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西厓 柳成龍(1542~1607)과 修巖 柳軫(1582~1635)을 배향하고 있다. 병산서원은 조선시대 안동부의 屬縣인 豐山縣 치소에 위치해 있던 豐岳書堂이 그 전신이다. 그 이전에는 인근에 위치한 대표적인 사족인 豐山柳氏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던 사찰이었다고 한다. 즉, 병산서원은 사찰에서 서당을 거쳐 서원으로 발전한 경우로 볼 수 있다. 『永嘉誌』에 따르면, 1563년(명종 8)에 건립되었으며 養正書堂, 伊溪書堂, 芝陽書堂, 佳野書堂, 龜潭書堂과 더불어 안동 지역의 대표적인 서당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지역 사람들의 건의로 국가에서 學田을 지급했다는 『영가지』의 기록은 당시 풍악서당의 지역적 위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풍악서당이 지금의 위치로 옮겨진 것은 1605년(선조 38)이다. 이에 앞서 풍악서당은 1572년(선조 5) 南延祿의 주선으로 지금의 병산서원 근처로 옮겨졌었다. 치소에서 가까이 위치하여 번잡한 관계로 학문 공간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때 류성룡은 「示豐嶽書院有司」(『西厓集』 卷1 詩)를 지었는데, 이 시에는 서당 이전의 뜻이 나타나 있다. 서당 이전에 있어 류성룡의 의중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풍악서당은 임진왜란으로 전소되고 만다. 이에 지역 사람들이 서당 중건을 논의하였고, 1605년 지금의 위치로 서당을 옮겨 짓게 되었다. 이 사실을 『영가지』에서는 “이 해 남쪽 뒤편 子坐午向의 터로 서당을 이 건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서원 건립 논의는 류성룡 사후 2년인 1607년(선조 40)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613년(광해군 5) 류성룡의 대표적인 문인인 鄭經世(1563~1633)를 비롯한 사람의 공의와 安聘壽·金允思 등의 노력으로 류성룡의 위패를 봉안하는 尊德祠를 세우게 되면서, 풍악서당은 지금의 병산서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1620년(광해군 12) 병산서원은 虎溪書院의 전신인 廬江書院에 류성룡의 위패를 습享 시킴으로써, 한 동안 서원의 기능이 중지되기도 했지만 1629년(인조 7)에 다시 위패가 돌아오면서 종전의 서원 기능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류성룡의 3자인 류진도 추향함으로써 지금까지 병산서원은 主享 류성룡, 從享 류진의 구도로 운영되고 있다.

병산서원은 도산서원·호계서원과 더불어 안동권의 대표적인 서원이었으나, 서원의 위세와 영향력에 비해 정치적인 문제로 비교적 늦은 시기 賜額이 이루어졌다. 이는 서원의 주향자가 南人의 영수였던 류성룡이었기 때문이다. 광해군 연간에는 그의 정적이었던 鄭仁弘

(1535~1623) 일파가 집권하였기에 사액이 어려웠으며, 이후에는 西人이 집권하였기에 사액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1863년(철종 14)이 되어서야 李啓魯 등의 건의가 수락되면서 ‘屏山’으로 사액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병산서원은 여강서원(1575), 三溪書院(1589)에 이어 안동에서 세 번째로 건립된 서원이었으며, 주향자 류성룡의 정치·학문적 업적과 비중, 그 후손인 풍산류씨 가문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안동권과 慶尙左道에서 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병산서원에 소장된 「院任錄」 「奉安錄」 「執事錄」 「焚香錄」 「入院錄」 등의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당대 명사의 이름은 이러한 대외적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아울러 병산서원은 조선후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영남 지역 여론을 집결하는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1611년 정인홍의 大北 일파가 文廟에서 退溪 李滉과 晦齋 李彦迪 위패를 撤享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류성룡의 문인이었던 金奉祖와 金允安은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晦退辨誣疏」를 올렸다. 남인과 서인 간의 禮訟論爭이 치열했던 1666년(현종 7)에는 柳元之·柳世哲 주도의 「服制疏」가 병산서원을 거점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병산서원의 위상은 고종 초 興宣大院君의 서원 輓誌에도 지속되었다. 1863년 사액 될 때와 마찬가지로 류성룡의 후손들이 중앙정계의 인사들과 어느 정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병산서원은 서원 輓誌을 피할 수가 있었다. 당시 안동 지역에서 輓誌을 피했던 서원은 병산서원이 유일하였다. 그 결과 서원 건물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존립되어, 1969년에는 병산서원이 사적 제260호로 지정될 수 있었다. 한편, 병산서원의 공식 명칭은 2011년 11월부로 ‘안동 병산서원’으로 변경된 상태이다.

2. 소장 자료의 전래와 현황

1) 병산서원은 창건 초기부터 경상도 안동권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서원이었던 만큼 많은 책자들을 수집하였고, 사액 이후에는 다수의 內賜本을 소장할 수 있었다. 당시 병산서원 소장 전적들은 서원 강당인 入敎堂 오른쪽에 위치한 西齋 안 藏書室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병산서원 소장 전적은 그 후 서애 류성룡의 유물 전시관인 永慕閣으로 이전되었다.

영모각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65년 건립되었는데, 서애 류성룡의 종택인 하회마을 忠孝堂 옆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관리의 편의를 위해 류성룡 집안 대대로 수집한 전적과 고문서, 각종 유물들을 이곳으로 옮겨 보관하였는데, 이때 병산서원 소장 자료도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다. 거기다가 영모각에는 다른 풍산류씨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적, 일대 영남 지역 사림 가문에서 보내온 자료들도 소장하고 있다. 즉 병산서원 자료뿐만 아니라, 출처가 다양한 자료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문서의 경우 자료의 성격상 어느 정도의 구분이 가능하나 일반 서책의 경우 모든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다. 한편, 영모각에 소장되었던 서책 자료의 목록은 1969년 國會圖書館에서 간행한 『李朝書院文庫目錄』의 ‘병산서원’ 편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총 1,071종 3,039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병산서원은 교육과 교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출판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1788년(정조 2)에 만들어진 『鏤板考』에 따르면 이때까지 병산서원은 모두 3종의 책자를 직접 간행하였음이 확인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지역 사회 내에서 출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모각 건립 이전까지 서원에서 만들어진 책판들은 입교당 뒤쪽에 위치한 藏板閣 안에 서가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역시 1965년 영모각이 건립되자 다른 전적 등과 더불어 서애 류성룡의 종가인 충효당으로 옮겨져 행랑채에 보관되었다. 이 책자는 수십 년간 방치되다 2004년이 되어서야 대략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문중회의를 거쳐 그해 안동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관리 되었다.

3) 병산서원에서 작성된 각종 고문서 역시 전적 자료와 더불어 1965년 영모각이 건립된 후 그곳으로 이전·보관되었다. 역시 서애 류성룡 종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다른 고문서와 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반 전적과는 달리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른 관계로 구분이 비교적 용이하나, 소장처가 불분명한 것도 많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4) 현재 병산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전적 자료 및 고문서, 그 외 현관을 비롯한 각종 동산문화재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된 상황이다. 2008년에 국보 제132호인 『징비록』 필사본, 『辰巳錄』과 『軍門謄錄』 등 보물 자료를 포함해 6,174점이 위탁되었으며, 2009년에는 전적 및 현관 3,689점을 위탁하였다. 따라서 과거 병산서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영모각으로 이전되었던 책판, 전적, 고문서 등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모두 보관되어 있다.

3. 자료조사 현황과 기타 기록자료

1) 병산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전적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영모각 건립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서원 소장 자료와 문중 소장 자료가 혼재된 채 조사되어, 병산서원이 보유하고 있던 전적의 규모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조선시대 때 간행된 『屏山書院書冊目錄』이 전해져, 당시의 소장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 할 수가 있다. 수 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이다.

1차가 1639년(인조 17), 2차가 1673년(현종 14), 3차가 1759년(영조 35), 4차가 1766년(영조 42)에 이루어졌다. 당시의 서원 유사가 특별한 분류 방식 없이 편의에 따라 소장 전적명을 기록하고, 그 전적의 현존 유무·구비 연도 대출 기록 등을 기재해 놓은 것이다. 130년간의 기록으로 19세기 이후 전적 구비와 관련해서는 알 수 없지만 초창기 병산서원의 전적 보관 규모와 운영형태를 파악 할 수 있다. 특히 병산서원에서 봉안하고 있었던 『懲毖錄』 『西厓先生別集』을 비롯하여 『梧里集』 『炭翁集』 등 일부 서적의 간행 연도와 편찬 연도 및 유통 경로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이다.(『屏山書院書冊目錄』에 기재되어 있는 전적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는 ‘朴現圭, 『屏山書院書冊目錄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書誌學報』 14, 韓國書誌學會, 1994’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2) 병산서원 소장 전적이 영모각으로 옮겨진 후 작성된 첫 번째 전적 조사 목록은 1969년 國會圖書館에서 간행한 『李朝書院文庫目錄』이다.(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國會圖書館, 1969) 이 조사의 전적 목록은 ‘屏山書院’ 편에 수록되어 있지만, 사실 영모각에 있던 종가 소유의 다른 전적 자료가 혼재된 것이다. 당시 보고된 책수는 총 1,071종 3,039책이다.

여기에는 해당 책자의 서지상황과 자료의 가치 등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이었던 병산서원이 각종 전적 자료를 소장하게 되는 경위 등도 함께 설명해 놓았다. 다만 영모각의 자료가 문중 자료와 혼재되어 있음을 감안하지 않고 분석해 놓았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병산서원에 소장되었던 전적 자료에 대해서는 1991년 文化財管理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목록이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第5輯에 수록되어 있다.(文化財管理局,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第5輯 -安東市·郡篇(下)-, 1991) 이 책자에서는 영모각 소장 자료를 소유자의 성명으로 분류하였는데, 병산서원 소장 자료는 ‘柳寧夏’ 편에 수록되어 있다. 역시 병산서원 자료와 문중 자료가 혼재된 채로 작성되었다.

4) 1981년 李樹健에 의해 한 차례 영모각 소장 고문서가 소개된 적이 있으나, 이는 병산서원이 아닌 풍산류씨 문중과 관련된 자료였다.(李樹健 編著, 『慶北地方古文書集成』,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영모각 소장 자료 중 병산서원에서 작성되었던 주요 成冊類를 포함한 고문서에 대한 소개는 1994년 韓國精神文化研究院(現 韓國學中央研究院)에서 간행한 『古文書集成』에서 확인 할 수 있다.(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文書集成』 20 -屏山書院篇-, 1994) 이 책자는 영모각 소장 자료 중 병산서원과 관련된 것을 추려내어 간행한 것으로, 병산서원의 역사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류와 고문서가 영인되어 소개되어 있다.

한편,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kostma.net>)에서는 『古文書集成』에 소개된 자료의 영인 이미지와 원문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영모각에 자료를 위탁받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도 ‘명문가의 고문서’의 풍산류씨 충효당 편으로 1,439점에 달하는 정책류와 고문서 원문·서지·이미지·해제 등의 정보를 유교넷(<http://www.ugyo.net>)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5) 병산서원에서 제작된 책판은 하회마을 서애 류성룡 종택인 충효당의 행랑채에 보관되어 오다 2004년에야 대략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문화재청,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학술용역』, 2004) 그리고 그 해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되면서 좀 더 상세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보존방안이 모색되었다.(한국국학진흥원,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1), 2005) 당시 간행된 책자에는 ‘풍산류씨 충효당’ 편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家傳의 책판과 병산서원의 책판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판의 경우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위탁되었다. 2004년에 있었던 조사에 따르면 모두

11개의 현판이 조사·보고되었다.(문화재청,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학술용역』, 2004)

6) 병산서원과 관련된 연구는 해당 자료의 개별 자료에 대한 반출과 열람이 용이치 않은 관계로 상대적인 자료적 가치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영모각으로의 이전 이후에는 문중 자료와 혼재되어 그 구분이 쉽지 않게 되었다. 병산서원의 주요 자료가 보고서와 자료집 등으로 소개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그 이전까지는 개별 연구자가 직접 열람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관련 연구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서원 역사와 운영, 교육과 사상 분야 보다는 건축학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출간된 연구 논문과 서적, 보고서, 자료집 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國會圖書館, 1969.
- 李樹煥, 「17, 18세기 安東 屏山書院의 社會·經濟的 基盤: 屏山書院 古文書 分析」 『嶠南史學』 3,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1987.
- 文化財管理局,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第5輯 -安東市·郡篇(下)-, 1991.
- 朴現圭, 「屏山書院書冊目錄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書誌學報』 14, 韓國書誌學會, 1994.
- 韓國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20, 1994.
- 文熙春, 「屏山書院의 晩對樓에 보여지는 視覺體系와 그 意味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송지성, 「병산서원에 나타난 한국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디자인학 연구집』 5, 서울디자인포럼 학회, 1999.
- 安東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서원 한국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예문서원, 2000.
- 韓國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63 - 정서본 屏山書院篇-, 2002.
- 崔敏龍, 「屏山書院의 配置形態에 관한 研究」,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권성진,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관한 조사 연구」 『論文集』 21, 서라벌대학, 2002.
- 安동하회마을보존회, 『병산서원』, 2003.
- 하현정, 유인호, 「屏山書院의 配置形態와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19-1, 大韓建築學會, 2003.
- 金우영, 「예악사상(禮樂思想)의 조형개념(造形概念)에 관한 고찰: 조선시대(朝鮮時代) 병산서원(屏山書院)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朴轍淳, 「유교의 시간과 공간관에 의한 조형개념연구: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文化재청,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학술용역』, 2004.
- 韓國국학진흥원, 『경북지역의 목판자료』 (1), 2005.
- 金형수, 「한국국학진흥원소장 병호시비 관련 미공개 자료 해제」 『2007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 韓國서원학회, 「屏山書院의 歷史와 文化」 『2008년 한국서원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2008.

7) 병산서원은 높은 지역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도내의 사람을 비롯해 중앙정계의

많은 인사들과 인연을 맺을 수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문자들을 병산서원과 주고받았는데, 각종 文集에 산전되고 있는 병산서원 관련 문자들을 채록하면 다음과 같다.(‘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嶺南文集解題』,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8’과 ‘한국고전종합 DB(<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참조)

- 權斗經, 『蒼雪齋集』 卷4 「屏山書院夜坐 同荷塘從兄賦」
- 權訪, 『鶴林集』 卷3 「屏山書院請額」
- 權復興, 『五慕齋實紀』 卷1 「玉山書院答通」
- 權準義, 『友巖集』 卷5 「屏山立教堂重修」 「屏山書院立教堂」
- 金奉祖, 『鶴湖集』 卷3 「代屏山書院儒生祭西厓先生文」
- 金宗圭, 『獨山集』 卷3 「屏山敬老案」
- 金允安, 『東籬集』 卷2 「九月到屏山書院」, 卷5 「祭文 屏山書院儒生生員李滹等」
- 柳 ㄸ 奎, 『臨汝齋集』 卷1 「屏山書院請額」, 卷4 「通諭屏院儒生文」 「屏山書院敬老會續案」
- 柳成龍, 『西厓集』 卷1 「示豐嶽書院有司」, 別集 卷1 「屏山書院 奉別金鶴峯還朝」 「屏山 與諸君校先師文集 有感呈鶴峯兄侍者」 「戊子夏 與士純諸友 會屏山 編退溪先生文集 今十三年 而諸君復會院中 輯年譜 感舊興懷 吟一律錄呈 幸各和之 以記一時之事」, 『年譜』 卷3 「屏山書院奉安文」
- 柳 珍, 『修巖集』 年譜 卷2 「祭文 屏山儒生李慶俊等」 「屏山書院從享文 洪汝河」
- 申佐模, 『澹人集』 卷8 「奉審屏山書院 敬述」
- 安慶一, 『聾窩集』 卷4 「屏山竹島」
- 安鼎呂, 『晦山集』 卷7 「屏山書院謁西厓柳先生祠」
- 李家淳, 『霞溪集』 卷8 「屏山卞孝子廷八行錄」
- 李能允, 『谷圃集』 卷5 「屏山書院」
- 李象靖, 『大山集』 卷15 「答屏山書院洞主」
- 李象辰, 『下枝集』 卷4 「屏山書院通各院文」
- 李鍾祥, 『定軒集』 卷15 「屏山書院」
- 李惟樟, 『孤山集』 卷1 「屏山書院 與諸友修正西厓先生年譜」 「病中聞諸友會屏山 有感而作」
- 李 竣, 『蒼石集』 卷2 「舟過屏山 訪先生遺迹」, 卷11 「答屏山山長」 「與屏山書院士友」 「答屏山書院士友」 「與屏山書院士友」 「答屏山書院士友」, 卷13 「屏山尊德祠復享記」, 續集 卷6 「屏山常享祝文」
- 李好閔, 『五峯集』 卷15 「屏山書院奉安西厓先生祭文」
- 張顯光, 『旅軒集』 卷4 「屏山士友」 「答屏山士友別紙」
- 鄭經世, 『愚伏集』 卷13 「答屏山文會」 「答屏山院長」 「答三書院」, 卷16 「屏山書院享祝」 「屏山書院西厓先生位版再奉安」 「屏山書院西厓先生位版再奉安祭文」
- 鄭述, 『寒岡集』 續集 卷7 「屏山院生」
- 鄭象履, 『制庵集』 卷4 「屏山書院請額」
- 鄭宗魯, 『立齋集』 別集 卷8 「祭文 安東屏山書院儒生柳璧祚」
- 鄭 弼, 『愚川集』 卷2 「忝屏山院任 謁廟後口占」 「在屏山書院 與諸友會話」 「屏山院下 小舟告成 喜賦 示同事朴汝完 李子承」 「與諸友 會屏山書院 座上走筆」, 卷3 「辭屏山洞主」
- 崔孝述, 『止軒集』 卷4 「屏山會中」

- 洪汝河, 『木齋集』 卷5 「屏山用一獻禮」, 卷7 「屏山書院修巖奉安文」
- 洪柱世, 『靜虛堂集』 上 「屏山書院」

4. 전승 자료의 내용과 특성

○ 고서 현황

자료의 특성상 병산서원의 자료와 영모각 소장 자료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屏山書院書冊目錄』이 전해져 18세기 이전의 소장 자료에 대한 대략적인 구분이 가능한 정도이다. 일단 영모각 소장 자료에 대한 일괄적인 조사는 1969년 李春熙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때 ‘屏山書院’ 편으로 총 1,071종 3,039책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책종 별로 經書 71종, 歷史 52종, 傳記 174종, 儒家 54종, 天文 3종, 醫家 4종, 道家 1종, 類書 8종, 文集 693종, 其他 11종이 있는 것으로 분류해 놓았다.(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國會圖書館, 1969) 이와는 달리 1991년 문화재관리국에서의 조사에서는 이를 소장자이자 종손인 ‘柳寧夏’ 편으로 수록하였으며(文化財管理局,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第5輯 -安東市·郡篇(下)-, 1991), 이 자료를 위탁받은 한국국학진흥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풍산류씨 충효당’ 편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춘희의 조사 목록을 바탕으로 영모각 소장 책자를 판본으로 구분하면, 鑄子本으로는 甲寅字本이 5종 31책으로 가장 많다. 그 외 活字本으로는 乙亥字, 甲辰字 등 26종 102책이 소장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618년(광해군 10) 改鑄된 戊午子本(『書典大全』 8책), 광해군 때에 만들어진 訓鍊都監木活字本을 8종 보유하고 있어 임진왜란 직후 창건된 서원의 특색을 확인 할 수 있다.

병산서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교적 늦은 시기에 사액이 이루어진 관계로, 철종 연간 이전의 內賜本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조 18~23년 각 서원에 下賜된 『論語集註大全』 등 10여 종의 丁酉字本은 금일 현존하는 사액서원에서 쉽게 확인되는 주자본임에도 영모각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모각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자료 중 회귀, 귀중본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단연 서에 류성룡에 의해 남겨진 필사본이다. 대부분이 임진왜란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란의 상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

▷ 회귀, 귀중본

- 『懲毖錄』, 柳成龍 箸, 筆寫本, 1책(국보 제132호)
- 『辰巳錄』, 柳成龍 箸, 筆寫本, 3책
- 『亂後雜錄』, 柳成龍 箸, 筆寫本, 2책
- 『芹曝集』, 柳成龍 箸, 西厓親筆本, 2책
- 『中興獻芹』, 筆寫本, 萬曆 21년(1593) 4월 28일~7월 4일, 1책
- 『軍門謄錄』, 柳成龍 箸, 筆寫本, 1책
- 『政院傳教』, 承政院 篇, 筆寫本, 萬曆 20년(1592) 12월 9일, 2책

- 『唐將詩畫帖』, 筆寫本, 1책
- 『唐將書帖』, 王必迪 等 箸, 筆寫本, 1책(이상 보물 제140호)

○ 고문서 현황

고문서 역시 문중 자료와 서원 자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자료의 특성상 고서 보다는 구분이 용이하다. 영모각 소장 병산서원 관련 주요 자료에 대한 소개는 한국정신문화 연구원에서 『古文書集成』을 통해 서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자료를 영인하여 출간한 적이 있다.(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文書集成』 20 -屏山書院篇-, 1994) 여기에서는 성책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주요 성책 및 고문서류는 다음과 같다.

- 院案要覽(3冊) : 1841년, 1853년, 1883·1896년 서원운영에 걸친 지침을 수록
- 屏山書院記事 : 院中可行條件, 院規, 節目 등 서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을 적은 문서로 1718년 李浹이 작성
- 上樑文 : 류규가 1771년에 지은 병산서원 重修上樑文
- 上疏(2冊) : 1851년, 1595년, 1665년의 상소문을 엮은 것으로 李啓魯의 서원 賜額疏와 額外儒生の 제한 등 향교운영의 폐단과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소를 수록
- 院任錄(4冊) : 1592~1640년, 1592~1716년, 1592년 이전~1807년, 1652~1671년 서원 운영을 담당한 임원 즉 院長과 有司 등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자료
- 奉安錄 : 1610~1614년 류성룡의 서원 봉안을 전후해서 임명된 여러 집사자와 有司의 명단 및 이때 작성된 祭文을 수록한 자료
- 執事錄(4冊) : 1614~1639년, 1658~1664년, 1666~1698년, 1723~1735년 병산서원의 春秋享祀 때의 집사자 명단
- 焚香錄 : 1823~1826년 朔望 때 廟宇에 焚香한 인물들의 명단
- 入院錄 : ?~1718년 새롭게 서원 원생으로 들어온 사람의 명단을 수록
- 居齋案 : 1781~1792년 入院者들이 서원에 기거하면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 인물들의 명부
- 講案 : 1789년 서원에서 원생들이 講을 한 뒤 通, 略 등 점수를 매겨 기록한 자료
- 傳與記 : 丁亥~己丑 연간 임원 교체 시 서원업무와 관계되어 주고받은 인수인계 문서
- 院奴婢(推刷)案(7책) : 1663년, 1666·1669년, 1738년, 1739년, 1750년, 1756년, 1762년 병산서원 소유 노비와 그 부모, 소생, 거주지, 收貢與否 등을 조사한 뒤 작성한 推刷案
- 祭文(2冊) : 1629년 류성룡과 류진의 위패를 봉안 할 때 작성된 제문
- 祭器 : 1615~1617년 前後 院任 간에 이루어진 祭器의 인수인계 문서
- 祭需物目 : 류성룡과 류진 제향에 필요한 물품을 기록
- 通報 : ‘屏山掌務’에게 ‘豊山書堂會中’에서 보낸 削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자료
- 敬老會案 : 1804~1811년에 작성된 豊山縣의 경로회 참여자의 명단

○ 고문서 정보 제공 현황

영모각 소장 고문서에 대해서는 이를 위탁받은 한국국학진흥원 웹사이트인 유교넷(<http://www.ugyo.net>)의 ‘명문가고문서’ - ‘풍산류씨 충효당’ 항목에서 모두 1,439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자료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고문서자료관에는 『古文書

集成』20(1994)에 수록되었던 고문서와 성책류 58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책판 목록

2004년까지 하회마을 류성룡 종가인 충효당에 보관되어 오다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된 책판은 모두 25종 1,907매이다. 여기에는 『陶山及門錄辨訂』 51매, 『陶山及門錄追辨』 1매, 『童蒙須知』 5매, 『文純公退陶李先生墓碣銘』 1매, 『文純公退陶李先生言行通錄』 3매, 『西厓先生年譜』 구판 18매, 『西厓先生年譜』 신판 74매, 『西厓先生文集』 구판 46매, 『西厓先生文集』 신판 418매, 『西厓先生別集』 구판 11매, 『西厓先生別集』 신판 83매, 『聖學十圖』 6매, 『修巖先生文集』 67매, 『修巖先生年譜』 31매, 『修巖集』 48매, 『永慕錄』 54매, 『梧里先生文集』 140매, 『梧里先生別集』 48매, 『梧里先生續集』 98매, 『梧里先生遺筆』 2매, 『愚伏先生年譜』 49매, 『臨汝齋先生文集』 224매, 『拙齋先生文集』 183매, 『懲愆錄』 244매, 『訓子拜學帖』 2매가 포함되어 있다.

○ 병산서원 소장 자료의 가치

- 병산서원에서 소장되었던 자료는 훗날 지어진 영모각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하회마을 풍산류씨 서에 류성룡 종택의 자료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자료의 출처를 구분하는데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병산서원 소장 전적 자료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단연 배향자인 서애 류성룡이 저술한 것들이다. 특히 국보로 지정된 『징비록』과 보물로 지정된 『난후잡록』 『진사록』 『군문등록』 등은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과 도체찰사 등을 역임하였던 류성룡이 전란 때 겪었던 사건과 군사 정책 등을 수록해 놓은 자료이다. 이는 전란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전해 주는 것으로 매우 높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 대부분 서원의 경우 원래의 교육적 기능보다는 지역 사림들의 사회적 활동, 배향자 후손의 문중활동,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다수 남긴데 비해, 병산서원에는 비교적 서원의 교육적 기능과 관련된 자료들이 상세하게 남아 있다. 그 중에서 ‘居齋案’과 ‘講案’ 등은 서원에서 공부를 하는 원생들의 면모와 평가 방법 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 병산서원은 안동권 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남인계 서원 중 하나였다. 따라서 이곳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원장과 서원은 봉당기 영남 지역 재지사림의 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병산서원에는 원장과 유사를 비롯한 역대 임원과 각종 집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자료는 당시 영남 지역 사림들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5. 향후 활용의 과제

이상으로 소략하나마 병산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성격과 가치 등에 대해 대략적으

로 살펴보았다. 병산서원에는 『징비록』 등과 같이 일찍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자료도 다수 소장하였었다. 아울러 영남 지역의 핵심 서원이었던 만큼, 당시 지역 사회에서의 위상과 재지사족들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필요한 연구 및 조사와 이를 활용한 각종 사업 방향들을 간략히 제시해 보도록 한다.

1) 연구사업의 추진

병산서원은 그 사회적 위상과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다양성에 비하여 연구 성과가 비례하지 못하고 있다. 서원 운영과 관련된 사례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나, 종합적인 연구는 현재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나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연구의 경우 자료에 대한 분석 보다는 건축학적, 공간적 특징을 다룬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병산서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료, 특히 병산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류 및 고문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일차적으로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영모각 소장 자료에 대하여 ‘유교넷’에서 원문·이미지·텍스트·해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고문서집성』에 수록되었던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후속되는 연구에 있어 큰 일조가 되고 있다. 다만 영모각 소장 자료가 문중과 혼재되어 있는 까닭에 이 자료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연구 성과를 배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정기적인 학술대회의 개최와 세미나, 전문 학술지 간행 등도 요구된다.

2) 자료집의 간행

병산서원 자료 중 『징비록』과 같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자료는 일찍이 여러 종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그러나 방대한 자료에 비해 다른 주요 자료에 대한 영인본 및 번역서 발간은 미흡한 편이다. 병산서원에는 서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징비록』을 제외한 임진왜란 자료도 확인된다. 이러한 자료에 대한 영인과 번역은 단순히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선조들의 삶과 문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3) 분산 자료의 종합

병산서원은 당대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만큼, 여러 인사들이 작성한 문자에서 확인되고 있다.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등을 필두로 한 관찬 사료와 개인 문집 등에서 정책과 개인적인 관계로 작성된 각종 문자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병산서원에서는 대외적 교류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대외 관계 중 작성된 通文을 비롯한 여러 문서들이 다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산견되는 병산서원에 대한 목록화와 색인 및 추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병산서원 자료의 경우 오래전부터 서애 류성룡의 후손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기에 외부로의 유출이 적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러한 자

료 역시 관심을 가지고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4)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병산서원은 우리나라에 분포한 여러 서원 중 가장 탁월한 자연적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서원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과 교양서적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병산서원이 소장한 다양한 자료를 매개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병산서원에서 작성된 서원 교육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당시 서원에서 공부를 하던 원생들의 생활 방식과 학습 방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병산서원에 소장되었던 교육관련 자료는 현재 여러 서원에서 계획 중인 서원 스테이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돈암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정 현 정

(공주대 사학과 박사과정)

1. 돈암서원의 연혁 개략

돈암서원(遯巖書院)은 1634년(인조 12) 충청남도 연산면 임리 249번지에 창건되었다. 1659년(효종 10)에 사액을 받았고,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남겨진 호서지역의 대표적 서원이다.

충청도 연산현은 광산김문의 성장과 향촌교화 활동, 그리고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등장으로 산림(山林)과 예학(禮學)의 시대인 17세기 조선 정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밑으로 걸출한 제자들을 배출하면서 명실공이 기호사림을 영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김장생이 세상을 떠나자 1632년(인조 10)에 여러 유사(有司)가 주도하고, 충청지역의 20여 군현 사족들이 호응하여 돈암서원의 창건을 발의하였다. 창건 시 사계 김장생을 주향으로 하였으며, 1658년(효종 9) 신독재 김집을 추배하였고, 1659년(효종 10) 돈암으로 사액을 받았다. 이어 1688년(숙종 14)에 동춘당 송준길, 1695년(숙종 21)에 우암 송시열을 각각 추배하였다. 이때 윤선거의 추향론도 있었으나 박세채 윤극 등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돈암서원의 건립의 유서는 김장생의 강학에서 비롯되는데, 김장생은 아버지 김계휘가 고운 사에 건립한 정회당(靜會堂)에서 교육을 받았다. 당시 정회당유안에는 100여 명의 명단이 전한다. 김장생 또한 1602년(선조 35)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아한정(雅閑亭) 유지에 양성당(養性堂)을 건립하여 30여 년간 학문연구와 후학을 양성하였다. 이후 양성당은 그를 추앙하는 각지의 유생들이 내왕하며 강학과 교류를 겸하는 곳으로 면모를 갖추었다. 당시 양성당을 왕래하던 인물들은 그의 아들 김집을 비롯하여,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등 서인의 중진들로 호서산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한편 김장생은 정묘호란 시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로서 의병과 군량의 모집에 활약하였는데, 그가 창의하여 격문을 보내자 호서와 호남의 문인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돈암서원은 이러한 강학활동, 전란 시 의병활동, 재지적 기반과 향촌사회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그의 문인들의 광범위한 활동력은 차후 김장생이 세상을 떠나자 곧바로 서원의 건립을 주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더욱이 이들이 돈암서원의 건립 당시에도 중앙 정계에 대거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돈암서원이 창건될 당시에는 지금의 연산면 임리 숲 말에 소재하였는데, 서원 서북쪽에 '돈암(遯巖)'이라는 큰 바위가 있어 이름을 돈암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881년(고종 18)에 이르러 숲 말의 지대가 낮아 홍수 때마다 서원 뜰 앞까지 물이 차므로 지대가 높은 지금

의 위치로 이견하여 오늘에 이른다(응도당은 1971년 이견).

돈암서원은 호서는 물론 기호 전체에서 김장생을 제향 한 서원 중 가장 비중 있고 영향력 있는 서원으로 인정받았다. 1659년(효종 10)에 사액을 받았고, 송준길을 시작으로 이유태(李惟泰), 권상하(權尙夏), 이재(李緯), 박필주(朴弼周) 등으로 이어지는 서원장들의 면면과, 이들이 돈암서원의 유생들과 서원의 다양한 문제에 관해 나눈 문답내용을 통해서 광범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유생도기(儒生到記)」를 분석하면 서원을 출입하는 유생들이 대략 호서 남부를 비롯하여 전북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이는 역시 이 일대가 김장생에서 송시열로 이어지는 호서사림의 실질적인 세력권임을 의미한다. 요컨대 김장생은 기호사림의 적통이자 당대 최고의 산림으로 존송 받았으며, 그를 제향한 대표적인 제향처가 돈암서원이었으므로, 이곳이 기호사림 전체의 구심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호서지역 사람들은 교류와 강론, 각종 서적의 출판, 스승에 대한 추충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대체로 같은 입장을 고수하였다. 돈암서원의 활발한 향촌활동은 주변의 다른 서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돈암서원의 권위와 영향력은 1696년(숙종 22) 송시열을 독향하는 화양동서원이 건립되면서 서인계 호서서원은 2개의 거점으로 나뉘어졌다. 차후 대원군의 훼철령에도 살아남은 돈암서원은 한말 찬명학교로 일시 운영되기도 하였다.

2. 기록자료의 소장처와 조사현황

1) 돈암서원은 그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본격적인 자료정리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원은 규모에 비해 소장하고 있는 기록 자료도 매우 희박하며, 때문에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몇몇 사례 외에는 총체적인 연구가 진척을 보지 못했다.

- 이연숙, 「돈암서원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 1993
- 서동수, 「17세기 돈암서원의 강학활동과 정치·사회적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 2002
- 충청남도, 『충남의 서원·사우』 - 돈암서원 -, 1999

그런가하면 건축부면의 연구는 매우 활발하여 돈암서원 보존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을 비롯하여, 이견으로 인한 건축학적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 서원강당 건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응도당에 관한 연구는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다.

- 논산군, 『돈암서원 기본조사 정비계획』, 논산군, 1995
- 정기철, 「돈암서원 응도당 건축원형 복원」, 선문대, 1998
- 김선구, 「돈암서원의 이견 이후 변화에 관한 연구」, 목원대 석사학위, 2001
- 김선구, 「돈암서원의 건축적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1
- 김종훈,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1

2) 현재 돈암서원에 전해지는 자료의 조사는 목록조사 정도와 다음에 소개할 장판에 대한 충남역사문화원의 조사(2007) 이외에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런데 1958년에 발간된 『돈암서원지』의 수록내용을 보면 매우 다양한 자료들이 소장하게 수록되어 있다. 당시에는 이들 자료들이 대부분 소장, 전승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돈

암서원지의 수록 자료 목록은 아래의 표와 같다.

[돈암서원지(1958년) 수록 자료 목록]

창건 및 서원관련 기록문서

創建通文(1632년 윤전 외), 上梁文(1633년, 김상헌 찬), 奉安文, 祝文, 儒生到記(1634년, 정홍명 외), 連山遯巖書院請額疏, 鳩財節目(임진 12월), 院長錄(1652년~), 雅閑亭題詠, 養性堂記(김장생 찬), 養性堂記(1603년, 정엽 찬), 養性堂後記(1883년, 김상헌 찬), 遯巖書院學契節目敍(병술 5월, 김영화), 節目, 巡營甘結本縣, 節目, 遯巖書院掾弊節目(병술 4월, 관찰사 심상훈), 養性堂十詠, 養性堂題詠, 靜會堂儒案, 連山縣儒案(1654년)

제향의절

春秋享祀儀節, 笏記, 陳設圖, 祝文, 中丁 國忌相值李丁退行告由文, 國恤中停焚香告由, 停香祀告由, 廟宇修葺告由, 신독재종향봉안문 · 봉안시유생도기 · 봉안시고문원공사게노선생문(1658년), 동춘당종향봉안문 · 봉안시유생도기 · 봉안시행례의절(1688년), 우암봉안시유생도기 · 봉안시행례의절(1695년)

통문, 문답서한

通文(1636년 김집 외), 遯巖書院祭淸陰金先生文(1652년), 與遯巖院儒(송시열), 答遯巖書院(9건, 1669-1688년, 송시열)

기문, 현판

書揭遯巖書院(송시열), 雅閑亭題詠, 養性堂記(김장생 찬), 養性堂記(1603년, 정엽 찬), 養性堂後記(1883년 김상헌 찬), 憶沙溪先生有感(이유태), 從享遯巖書院(김집), 題擬道堂壁右(유일준), 藏板閣記(1926년, 李商永), 遯巖書院重修記(1955년 군수 박유진), 遯巖書院重修記(유사 황택수), 養性堂重修記(1956년) 장

비석

遯巖書院院庭碑文(1669년, 송시열 찬), 遯巖書院移建碑文(1903년, 송병선 찬)

그런데 문제는 이들 수록된 자료들을 통하여 돈암서원의 연혁과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지금은 『돈암서원지』에 수록된 자료들 중 극히 일부분만이 전하고 대부분은 현전하지 않는 것이다. 적어도 1950년대 서원지의 편찬기간에는 목록이 확인되는 성책고문서류 만큼은 원본이 소장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다. 아마도 당시에는 이들 자료들이 필사원본, 혹은 고문서의 형태로 일부나마 보존되었을 것이며, 원본이 없을 경우 관련 인물들의 문집과 참고 자료에서 원문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을 것이다.

상권에는 서원의 창건에 서부터 청액, 금석문에 관한 기록자료, 그리고 각종 제문과 봉안문, 고유문 등 의례에 관련 된 각종 문서자료들을 상세히 정리해 놓고 있다. 또한 4명의 제향인물의 봉안 시 마다 생산된 「도기(到記)」는 전문을 모두 수록하여 각 시기별 돈암서원

의 교류 범위와 출입 인사들의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사회사적 자료로서 매우 유용하다.

하권에는 아한정제영 등의 시문과 서원의 창건·중수기문, 돈암서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정회당(靜會堂)의 유안(儒案) 등이 전반부에 수록되었다. 1654년(효종 5)에 작성된 연산현의 유안이 서원지에 수록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김집이 조현의 묘를 이장하면서 뜻을 모으고자 작성한 통문, 범서인계 인물로서 청음 김상헌을 돈암서원에서 제사 지내면서 1652년(효종 3)에 작성한 제문, 그리고 우암 송시열이 서원장으로서 돈암서원의 유생들과 나누는 문답내용도 9편이 수록되었다. 이밖에도 돈암서원학계를 비롯한 절목류들이 수록되어 있다.

3) 한편 돈암서원지에는 도서목록이 정리된 자료가 확인되는 바 서원지에 미처 수록되지 않았던 전적과 관련 문서들도 훨씬 더 많이 소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돈암서원 내에 현전하고 있는 「齋中記簿」(戊午 三月)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 자료는 서원 내 소장 전적류와 고문서, 제사도구 등의 소장 목록이다. 가장 먼저 書冊秩에는 주역을 비롯한 경서와 사서, 예서, 그리고 각종 문집류의 목록과 소장 수량이 정리되어 있다. 개인 문집 중에는 沙溪, 愼獨齋, 尤庵 등 율곡의 정통을 이으며 돈암서원에서 활동했던 기호유학의 대표적인 인물을 비롯해 퇴계 계열의 농암 김창협 등의 문집과 주요 인물의 서간첩과 기문을 소장하고 있었다. 돈암서원에 남아있는 책판으로 출간한 황강실기 등의 문집도 확인된다.

아울러 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성책고문서류도 다수 나타나는데 學規, 靑衿錄, 連山縣靑衿錄, 儒案, 院中雜簿, 靜會堂立義, (靜會堂)儒案, 院中可考, 愼齋年譜, 尤庵草稿, 先生書簡帖, 諸公書簡帖, 請享疏, 雜錄, 享禮議郎, 鄉飲酒禮笏記, 田畓收量案, 齋任案, 尋院錄, 連山縣儒案, (連山縣)靑衿錄, 尤庵先生手筆, 連山縣院生案 외 다수의 경서와 서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서책류 목록 뒤에는 祭器, 雜物의 목록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서원지 내용 중 「장판각내 장판목록」만 보더라도 『사계전서』와 『변의집람』 등을 비롯한 책판이 무려 4,168판에 이르고, 돈암서원이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출판·인쇄 문화의 전통을 이어 온 서원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상당수의 전적류가 소장되어 있었음도 판단이 가능하다. 뒤에 다시 강조하겠지만,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들 자료들의 출처를 재확인하여, 분산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4) 2007년 문화재청에서 주관하여 비지정일반동산문화재 조사사업으로 수행한 연구용역(『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2 돈암서원편, 2007, 문화재청·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돈암서원 장판각 내 책판을 전수 조사하여 그 현황과 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재는 1,841판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결국 책판도 거의 절반 이상은 훼손된 것이다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인해 전적과 고문서 등의 원 자료, 책판의 상당수가 유실되고, 훼손이 심해지고 있어 보존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논산 광산김씨 신독재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는 다수의 고문서의 기본적인 현황을 살핀 결과 문서류 200여 점이 조사되었는데 김집을 비롯한 광산김씨 문중 인물들의 교지와 시권류가 주를 차지하여 서원관계 문서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소장 전적류 중 상당수가 돈암서원에서 간행·배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장서의 종류 역시 정황상 돈암서원에 비치되었을 전적류와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현판·기문류, 금석문 등의 부가적인 기록 자료에는 더욱 관심을 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 탐문, 추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기타 관련 문중, 출입 유림의 소장문서들이 추가·확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역시 추가조사의 노력이 후속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5) 최근 여러 고문서 학술조사기관에서 각종 기록 자료의 D/B를 구축하기 시작하고, 비지정동산문화재로 조사 된 자료의 물량이 점차 축적되면서, 좀 더 발품을 팔면 해당지역 외에서도 관련 문서가 확인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러한 자료 역시 수량은 매우 적지만, 뜻밖의 소장처에서 서원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른 기관(소장처)에 소장 된 돈암서원 자료로는 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아카이브(1점), ② 전북대 박물관(2점) ③ 전북 진안군 마령면 전영선(全泳鮮) 소장(1점) ④ 논산시 연산면 광산김씨 후손가 소장(1점) ⑤ 공주시 의당면 청송심씨가 소장(1점) 등이 있다. 특히 최근 2011년에 수행된 「공주지역비지정동산문화재」 조사에서, 1631년(인조 9)에 제작된 「아한양성이정제영첩(雅閑養性二亭題永帖)」이 청송심씨가에서 확인되어 중요 자료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3. 현전 서원 전승자료의 내용

※ 돈암서원의 경우 역사성과 규모에 비해 타 서원(특히 영남지역)보다 현전 자료량이 매우 적은 실정이므로, 현전 유무를 막론하고 확인된 관련자료 목록을 일괄 소개하도록 한다.

○ 『이조서원문고목록(李朝書院文庫目錄)』 (국회도서관, 1969년)

개판(開版) 건수 : 돈암서원 3판. 소장전적 수 : 78종 245책 소장

○ 장서각 책판 총 1,841판(충남역사문화연구원, 비지정일반동산문화재, 2007)

『가례집람』 169판, 『상례비요』 32판, 『경서변의』 86판,

『사계선생연보』 3판, 『사계선생유고』 160판, 『사계전서』 953판, 『사계전서』 속 79판

『신독재연보』 13판, 『신독재선생유고』 202판, 『신독재전서』 140판, 기타 4판

○ 서원소장 고문서·성책고문서 10종

김장생 문묘배향 교지(1717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8호)

遯巖書院儒生到記 사계신독재양선생 문인록(門人錄) 院中賭地記(戊午)

齋中記簿(戊午 3月) 節目(丁酉 2月) 遯巖書院 學契案(丙戌 5月) 遯巖書院 田畝改量案

돈암서원 재임록(1990년대까지) 연산현 재임록(1990년대까지)

○ 현판·기문자료 8건

- | | |
|------------------------|------------------------|
| · 양성당기(1603년, 정엽) | · 돈암서원 상량문(1633년, 김상헌) |
| · 돈암서원 편액(1660년, 현종 1) | · 양성당 후기(1883년, 김상헌) |
| · 양성당 중수기(1956년, 황택수) | · 양성당 이건기(1971년, 송재성) |
| · 양성당 이건기(1978년, 김영완) | · 산양루 중건기(2006년) |

○ 비석·암각 3건

- | | |
|------------------------------|-------------------------|
| · 連山遯巖書院廟廷碑, 송시열 찬, 1669년 | · 遯巖書院移建碑, 송병선 찬, 1903년 |
| · 遯巖 巖刻, 논산시 연산면 임리 하림, 조선후기 | |

○ 돈암서원 발간자료 3건

『靜會堂誌』, 1909년, 金志洙 편, 규장각

· 권1 고적에 立議, 儒案, 黃岡實記, 연산읍지 중 관련기록, 8건의 儒狀 수록

· 권2 금적에 契帖序, 立議, 講規, 契案, 契帖跋, 重建記 3건, 上梁文, 堂制, 什物 및 書籍 目錄, 1909년 유희비 건립 사실 등 수록

『遯巖書院誌』, 1958

『遯巖書院誌』, 1995

4. 기타 검색 자료

1) 타 기관 소장 검색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아카이브 : 巖書院通文, 乙巳 9月
-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검색) 2건
 - ① 通文, 돈암서원에서 광주향교로 발송, 1926년(丙寅)
 - ② 望記, 돈암서원에서 박해창(朴海昌)을 석전제 헌관으로 천거, 1927년 2월 1일
- 전북 진안군 마령면 전영선(全泳鮮) 소장 : 兩湖儒通, 庚寅·戊子 1건
- 논산시 연산면 광산김씨(신독재 김집) 후손가 : 金集 致祭文(1750년, 영조 26)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청송심씨가소장 : 雅閑養性二亭題永帖, 1631년

2) 문집 등 사료검색 목록

- 『龍湖閒錄』 二, 제10책 중, 「連山遯巖書院通文」, 壬午 八月
- 靜會堂重建記, 淵齋集, 卷25, 宋秉璫
- 復次前韻 並及靜會堂復立之意, 西浦集, 卷5, 郭說
- 養性堂記, 沙溪全書
- 次韻寄題養性堂, 계곡집, 권33
- 沙溪先生養性堂十詠 계곡집, 권33
- 跋文, 書金士輔所錄養性堂詩文後, 宋子大全, 권147
- 院享錄, 遯巖書院, 沙溪全書, 권47
- 遯巖書院에 偏額을 내려 주기를 청하는 疏, 宋時烈 讚, 沙溪全書·宋子大全
- 遯巖書院冊建通文, 同春堂集 卷16, 宋浚吉
- 重峯先生改葬祠宇移建通文, 1636년, 愼獨齋遺稿, 卷5, 金集
- 遯巖書院祭淸陰金先生文, 壬辰 院長時, 同春堂集 卷17, 송준길
- 連山遯巖書院從享祭文, 유계 찬, 신독재유고 권14
- 連山遯巖書院愼獨齋先生從享祭文, 市南集 卷22
- 答遯巖書院儒生書, 乙卯 十一月, 草廬集 卷20, 李惟泰
- 告文元公沙溪老先生文, 草廬集 卷23
- 書瞻掃沙溪, 愼齋兩先生墓後, 草廬集 卷23

- 遜巖書院에 賜額하면서 내린 祭文(1660년, 현종 1), 趙復陽 讚
- 遜巖書院賜祭文, 松谷集, 卷8
- 巖書院講堂上樑文, 魯西遺稿, 卷16, 尹宣舉
- 次趙舍人仲初 復陽 送恩山 兼見示韻, 魯西遺稿 卷1, 尹宣舉
- 與朴和叔 戊午正月二十四日, 明齋遺稿 卷11, 尹拯
- 遜巖書院合享同春先生祭文, 打寓遺稿 권5, 李翔
- 連山遜巖書院尤齋宋先生奉安祭文, 睡谷集, 李奮
- 論遜巖書院配享 與連山儒生書 與伯氏及從叔參議公聯名, 竹泉集 卷13, 金鎮圭
- 答李幼成, 庚辰, 屏溪集 卷22, 尹鳳九
- 與宋聖休, 甲戌, 屏溪集 卷23, 尹鳳九
- 與蔡季能 百休○戊寅, 屏溪集 卷24, 尹鳳九
- 過花石亭 次佔畢齋韻, 櫟泉集 卷1, 宋明欽
- 答遜巖院儒任思復, 丁酉, 性潭集 卷7, 宋煥箕
- 遜巖書院移建後奉安文, 淵齋集 卷29, 祝文, 宋秉璫
- 遜巖書院營建時 上方伯書, 白石遺稿 卷2, 柳楫
- 遜巖村, 玉吾齋集 卷1, 宋相琦
- 奉安文, 沙溪全書, 권47, 宋時烈, 宋浚吉, 李惟泰 등 讚
- 答遜巖院儒, ① 乙未 三月, ② 庚子 八月, 寒水齋集 卷19, 權尙夏
- 答俞武仲書, 癸巳 八月, 草廬集 卷15, 李惟泰
- 答遜巖院生, ① 甲戌 八月 七日, ② 十月 十八日, ③ 十月 十九日, 南溪續集 卷12, 朴世榮
- 與遜巖院儒, 丁未 四月 二十六日, 宋子大全 卷120, 宋時烈
- 答遜巖院儒, ① 己酉 正月 二十三日, ② 壬子 六月 六日 ③ 壬子 十月 十六日, ④-⑥ 미상 ⑦ 甲子 二月 九日, ⑧ 丙寅 八月 十六日, ⑨ 戊辰 三月 二十三日, 宋子大全 卷120, 宋時烈
- 書示遜巖院儒, 宋子大全 卷135, 宋時烈

5. 자료 특성

돈암서원은 실제로 장관각 내 소장 책판과 현판·기문류, 금석문, 그리고 일부 성책고문서를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기록 자료는 거의 미미하다. 그러나 앞서 2장에서 검토하였듯 1958년 『돈암서원지』의 간행 시 「유생도기」 등 일부 기록이나마 수록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때문에 현재로서 돈암서원의 자료는 서원과 인연을 맺은 여러 인물들의 문집자료 등에서 발췌한 것이 주요하다.

1) 서원 관련인물의 문집자료

돈암서원은 서원의 영향력만큼이나 인연을 맺은 인물도 걸출하다.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등과 같은 호서산림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비롯하여, 노·소 분당이 첨예화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윤원거·윤문거·윤선거 형제들이 서원에서 함께 강론을 펼치고 자문을 구했다. 돈암서원의 건립과 봉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들도 바로 이들이다. 그러므로 돈암서원의 창

건에서부터 청액(淸額), 그리고 각종 제문(祭文)과 봉안문(奉安文), 상량문(上樑文), 고유문(告由文) 등 의례에 관련 된 기록들이 앞서 언급 된 여러 인물들의 문집에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또한 그들의 연보를 통해서,

- ① 1634년(인조 12) : 송시열과 함께 연산에 가서 김장생을 돈암서원에 봉향하기 위한 향례의절(享禮儀節)을 초정(草定)하다. (『동춘당집』, 송준길)
- ② 1646년 : 연산 봉황촌(鳳凰村)에 이거하여 같은 해 6월 김집을 찾아뵙고 이때 종제 윤선거와 함께 돈암서원에 가서 송시열, 이유태 등과 강론하였다. (『용서집』, 윤원거)
- ③ 1646년(인조 24) 6월 : 이유태, 윤선거와 돈암서원에 모여 강하다. (『송자대전』, 송시열)
- ④ 1646년(인조 24) : 니산 석강(石江)에 새 거처를 정하고 김집을 찾아뵙고 송시열, 이유태와 돈암서원에서 만나다. (『노서유고』, 윤선거)
- ⑤ 1647년(인조 25) : 돈암서원에서 김집을 배알하다. (『석호유고』, 윤문거)
- ⑥ 1652년(효종 3) : 윤선거, 송시열과 돈암에 모여 강학하다. (『초려집』, 이유태)
- ⑦ 1654년(효종 5) 돈암에서 송시열, 윤선거와 「의례문해」를 교정하다. (『초려집』, 이유태)
- ⑧ 1678년(숙종 4) : 부친을 따라 돈암서원을 찾아가다. (『간재집』, 최규서)
- ⑨ 1686년(숙종 12) 3월 : 돈암서원을 배알하다. (『한수재집』, 권상하)
- ⑩ 1892년(고종 29) : 연산의 김장생과 김집의 사당과 묘소를 참배하고, 돈암서원을 봉심하다. (『간재집』, 전우)

과 같이 실제 돈암서원에서 이루어졌던 그들의 행보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돈암서원은 중앙 정계의 저명인사나 호서산림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서원장으로 모시고 운영하였다. 때문에 서원의 유생들은 서원운영, 의례, 학문하는 자세 등 서원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에 관해 이들과 자주 상의 하였고, 이 때 마다 나눈 문답 중 상당수가 역시 각 인물의 문집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송시열은 1669년(현종 10)부터 1688년(숙종 14)까지 약 10여 건 이상의 문답내역이 문집에서 확인되어 가장 많다. 한편 이 중에는 과격 노론으로 정평 난 김진규(1658-1716)가 「論遯巖書院配享」에서 遯巖書院에 尤庵은 배향하되 美村 尹宣舉는 안 된다는 것을 논하여 連山 유생에게 보낸 편지도 확인된다.

2) 『정회당지(靜會堂誌)』의 발간

돈암서원지의 발간 이전 1909년에는 金志洙의 주도로 『靜會堂誌』가 먼저 발간되기도 하였다. 『정회당지』는 1909년 경 충청도 연산에 있던 靜會堂의 관련 기록을 모아 정리한 책이다. 본문에 1909년 「靜會堂遺墟碑」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 책이 1909년 이후에 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회당지 역시 다양한 원자료를 수록하고 있어 돈암서원의 참고자료로 매우 가치가 있다.

정회당은 원래 연산 일대 광산김문의 서재로 김장생의 부친 황강 김계휘(1526-1582)가 1573년(선조 6) 연산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천호산 孤雲寺에 마련한 강학장소였으며, 김장생도 어린 시절 이곳에서 학문을 쌓았다. 때문에 양성당과 함께 돈암서원의 전신으로 여겨지는데, 1634년(인조 12) 서원 건립 후에는 그 기능이 대부분 돈암서원으로 흡수되었다. 한편

1870년(고종 7)에 김계휘의 후손이 學契를 결성하고, 1883년에는 건물도 완공하였으나 1907년에 다시 화재로 소실되어 1909년에 유허비를 세웠다. 그런데 이 시기는 돈암서원에서 燦明學校(1908년 설립)로 일신하여 근대교육을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본 책은 2권 1책인데, 권1은 ‘古蹟’으로 17세기까지의 관련 기록을 모은 것이고, 권2는 ‘今蹟’으로 1870년 이후의 관련 기록이다. 권1 고적에는 立議, 儒案, 黃岡實記와 連山邑誌의 관련기록, 8건의 儒狀 등을 수록하였다. 특이 이 유장 중 1600년(선조 33)의 것은 김장생의 친필로서 김장생이 직접 정회당의 운영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① 입의는 11개 조항으로, 초시 입격인과 文理通者만을 받아들이고, 他官人은 3인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初入者는 추천을 받도록 하며, 유사 2인과 書記(僧) 1인, 庫直僧 1인을 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유안에는 金恩輝, 김장생, 閔惕 등 105인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고, 작성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다만 김은휘(1541-1611)의 생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1611년 이전임은 분명하다. 황강실기와 연산읍지에서 발췌한 부분은 김계휘가 고운사 곁에 정회당을 지어 서적을 보관하고 향당의 자제들에게 강학하였고, 감사가 쌀 3,000석을 書糧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③ 유장(儒狀) 8건은 17세기에 연산과 돈암서원의 유생들이 충청 감사 등에게 올린 것으로, 고운사 승려들의 종이를 만드는 부역과과 기타 잡역을 면제시켜 줄 것을 청하거나, 돈암서원과 감사 등 주변 사찰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고운사를 돈암서원에 환속시켜 줄 것을 청한 글이다. 유장의 끝에 유생들의 명단과 題辭를 수록하였다.

권2 금적에는 계첩서(契帖序), 입의(立議), 강규(講規), 계안(契案), 계첩발(契帖跋), 중수기(重建記) 3건, 상량문, 당제(堂制), 집물 및 서적의 목록, 1909년 유허비 건립 사실 등을 수록하였다.

① 계첩서(契帖序)는 1870년 김영웅(金永膺)이 썼다. 내용은 정회당의 유지가 남아 있고 이전의 유안과 입의 등이 보존되어 있는데, 족질인 김지수(金志洙)가 나서서 계를 만들고 집을 지어 도의를 강마(講磨)하려고 하니 군자들이 분발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② 입의(立議)는 모두 11개 조항으로 구안(舊案)을 먼저 수록하고 시의에 따라 가감한 것을 부기하였다. 고적의 입의와 비교하여 귀천과 노소를 따지지 않고 학업에 뜻이 있는 자를 계원으로 받아들인다고 한 것과 당의 건립을 도모한다는 것 등에서 차이가 있다.

③ 강규(講規)는 김장생의 학문을 따라 매년 9월 20일에 가례, 소학, 대학, 중용을 회강하며, 유안과 입의를 폭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④ 계안(契案)에는 김학현(金鶴鉉) 등 40인의 명단이 있으며, 김낙현(金洛鉉)이 강장이다. 계첩발(契帖跋)은 1870년 송병선(宋秉璿)이 쓴 것으로 김장생의 가르침을 따라 ‘근근(謹勤)’에 힘써서 사문(斯文)을 전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④ 중건기 3건은 김상현(金尙鉉), 송병빈(宋秉璿, 이상 1883년), 김낙현(金洛鉉, 1887년)이 썼으며, 상량문은 1883년 이헌영(李憲永)이 썼다.

⑤ 서책과 집물 목록은 1907년 화재로 정회당이 소실된 후 남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3) 장판각과 소장자료

현재 돈암서원에는 1922년에 건립된 장판각에 여러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 1958년의 『돈암서원지』 중 「장판각기」에 따르면 ‘사계 선생께서 돌아가신 지 292년 후 임술년에 전서(全書)가 완성되어 판각에 올리니 모두 1,793판이요, 또 유고(遺稿)와 『변의집람(辨疑輯覽)』과 『비요(備要)』에 구판(舊版)이 모두 1,137판이요, 『황강실기』와 『신독재전서』 및 유고가

모두 1,238판이니 모두 합하면 4,168판인데 4년 후인 병인년(1926년) 봄에 돈암서원에 집을 짓고 합쳐 보관하였다.’라고 하였다.

한편 소장 된 각 책판의 서문(序文)에는 각 판각의 발간 경위를 수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돈암서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서책의 간행과 출판의 모습을 복원해 준다. 예를 들어 『상례비요』는 신의경(申義慶)이 지은 상례(喪禮)의 초보적인 지침서로, 16세기경까지 주자가례가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지 않아 이를 알리기 위해 엮어낸 것이다.

이 책은 원래 1권 1책이었으나 1620년 김장생이 여러 부분을 증보하고 속례도 첨부하여 사용에 편리하게 하고, 서문을 붙여 체제를 갖추었다. 그 뒤 1648년 그의 아들 김집이 다시 1권 2책으로 교정 간행하였다. 권두에 1620년(광해군 12)에 쓴 김장생의 서문과 1648년(인조 26)에 쓴 김집의 서문이 있고, 책 끝에는 이 책이 돈암서원에서 중간하였음을 밝힌 1621년(광해군 13) 신흙(申欽)의 발문이 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 된 3종의 『상례비요』를 참고 하면(강문식 해제) 본문의 체제와 내용, 수록 된 서·발문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판본과 간행 연대는 3종이 각각 달라 간행 시기마다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① 1648년(인조 26)에 간행본 ② 1925년 간행본 ③ 미상본이 있다. 이 중 ② 1925년 간행본에는 ‘대정 12년(1923년) 3월에 지령 158호로 허가를 받아, 대정 13년 12월에 인쇄하여 대정 14년 3월에 발행하였다.’는 간행 기록이 있다. 고로 당시 돈암서원에서는 1922년 장판각의 건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례비요를 새롭게 판각하여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록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장판각 내에 소장 된 책판은 그동안 상당수가 유실되어, 2007년 『비지정동산문화재 실태조사 학술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가례집람』 169판, 『경서변의』 86판, 『사계선생연보』 3판, 『사계선생유고』 160판, 『사계전서』 953판, 『사계전서』(속) 79판, 『상례비요』 32판, 『신독재연보』 13판, 『신독재선생유고』 202판, 『신독재전서』 140판, 기타 4판으로 총 1,841판 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중 1922년에 간행된 『사계전서』 책판의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판각되어 사용된 목재의 질도 좋지 않았고 두께도 얇으며 제작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책판 중 양측 마구리가 가장 많이 빠진 것도 『사계전서』이다. 오히려 1648년(인조 26)에 간행되어 400년에 가까운 『상례비요』와 1694년(숙종 20)에 간행된 『의례문해속』, 그리고 1710년에 간행된 『신독재유고』의 상태가 더 좋은 편이다.

6. 향후 활용의 과제

이상으로 간략하게 언급한 것처럼 돈암서원은 호서지역의 수원(首院)으로서, 기호사림의 정신적 지주이자 호서예학의 중심거점지로서 역할을 다 했던 서원이다. 돈암서원은 사계 김장생의 강학장소인 양성당(養性堂)을 전신으로 성장하였는데, 이곳에서 호서사림의 주요 거목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이처럼 돈암서원은 기호 일대를 통틀어 영향력 있는 서원으로 인정

받았다.

돈암서원의 광범위한 영향력은 송준길을 시작으로 이유태(李惟泰), 권상하(權尙夏), 이재(李緯), 박필주(朴弼周) 등으로 이어지는 서원장들의 면면과, 이들이 돈암서원의 유생들과 서원의 다양한 문제에 관해 나눈 문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유생도기(儒生到記)」를 분석하면 돈암서원을 출입하는 유생들이 대략 호서 남부를 비롯하여 전북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이는 역시 이 일대가 김장생에서 송시열로 이어지는 호서사림의 실질적인 세력권임을 의미한다.

요컨대 김장생은 기호사림의 적통이자 당대 최고의 산림으로 존송 받았으며, 그를 중심으로 한 수준 높은 강학활동과 교육시스템은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는 정묘호란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그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의병이 규합되어 당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였다. 돈암서원은 그를 제향하는 대표적인 서원으로서 그의 사후에도 이곳이 기호사림 전체의 구심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과 상징적인 서원의 위상에 비해 돈암서원의 현전자료는 매우 희박한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는데, 이번과 같은 한국서원의 세계문화유산지정 준비 작업과 같은 사업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이들 자료들을 재정리하고, 신규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보다 완벽한 돈암서원의 과거와 전통이 복원되기를 기대해 본다.

1) 자료집[影印本]의 간행과 추가조사 추진

본고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돈암서원의 역사적 가치와 변천사를 확인시켜주는 역사적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서둘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들을 자료집(영인본)으로 편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서원들에 비하여 돈암서원에 집중 한 전문연구가 미진한 것도 역시 자료의 제약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자료집의 영인본 발간은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앞서 언급한 세분화 된 주제별 후속연구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적극적인 노력으로는 이 기회에 분산소장 되었거나 공개되지 않은 돈암서원 관련 자료들을 정밀 재조사하는 것이다. 돈암서원은 훼손령마저 피해 간 위상 있는 서원이었음은 물론이거니와, 한말에는 근대학교로 일신하여 교육의 열의를 버리지 않았다. 또한 일제강점기 국가적 위기에다 장판각을 설치하고 책판 등 기록 자료의 보전에 힘썼으며, 『사계전서』를 판각하는 등 서원 본연의 역할을 잃지 않았다.

물론 『돈암서원지』의 최초 간행이 1958년에서야 이루어진 점은, 다른 서원에 비해 간행 시기는 늦은 편이다. 그럼에도 당시 서원운영과 직접적으로 관계 된 고문서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은 근래에 유실 된 것으로 여겨진다. 1958년의 서원지 간행 당시만 해도 필사원본이나 고문서 형태로 보존되었을 자료는, 1995년 서원지의 재간행 시에 이미 확인이 어려운 자료도 상당수가 있다. 1950년대만 해도 필사원본이나 고문서 형태로 보존되었을 기록 자료는 대부분이 유실되었고, 장판각의 판각마저 훼손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에 연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관리 소홀과 무관심으로 산절된 이들 자료를 다시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서원유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서원장을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이 같은 의식을 공유하는 돈암서원의 여러 유사들을 중심

으로 탐문, 추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문중, 유럽의 소장문서들이 추가 확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함께 돈암서원에서 발송 된 통문류와 같이 타 기관이나 서원에 보존 가능성이 큰 문서, 그리고 각종 문집류에 수록 된 서간(書簡)이나 기문(記文), 문목(問目), 통문(通文)들도 유념하길 바라는 바이다.

최근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산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고문서·전적류가 소장처 별로 정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누적 된 정리 자료는 D/B로 구축되어 점차 일반에게도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주시하여 지속적으로 검색작업을 보충하는 것도 뜻밖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돈암서원은 호서지역의 거점서원으로서, 서원의 운영시기 돈암서원에서 생산 된 다양한 문서와 전적들이 전국의 여러 서원으로 발송되었음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를 소장하고 있는 소장처가 전국에 존재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2) 연구사업의 추진과 학술세미나의 정례화

다음으로 한국서원에서 돈암서원이 가진 독특한 문화사적 특성을 반영시킨 주제별 연구를 매년 진행(학술세미나, 연구논문(총) 발간)할 필요성이다. 서원정신과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이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과제라고 볼 때 이 사업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간략히 몇 가지를 강조하였지만 돈암서원의 역사와 변천사를 살펴보면,

정회당, 아한정, 양성당으로 이어지는 강학공간의 전통
돈암서원의 강학특성(사계 김장생의 실천 예학)과 호서산림의 성장
17세기 기호사림의 수선지지(首善之地)
정묘의병과 사회지도층으로서 문인들의 역할
서책의 출판과 간행사업(장판각)
서원의 운영과정에서 보이는 유불교류의 몇 장면(고운사)
저명학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서원운영(서원장과의 문답서)
한국 서원의 대표적인 서원건축(응도당)
개화기 근대학교로의 일신(찬명학교)

등등으로 돈암서원만의 특수한 성격을 드러내는 주제들이 많다. 차후 이들 세부 주제에 대한 연구와 발표회를 정례화 하는 것은 어떨까한다. 그러기 위하여 매년 정례적인 돈암서원 학술세미나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거나 서원 자체가 주관하여 그 결과를 논문집(자료집, 논총)으로 발간하면 좋을 것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함께 발맞출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세부 연구테마들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층의 연구동원과 활용, 돈암서원의 가치 증대와 일반인에 대한 교육, 문화자원으로서 홍보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수반하며 향후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계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록자료의 교육, 홍보자료, 서원스태이 자원활용

마지막으로 이들 기록 자료를 제대로 활용한 돈암서원의 교양 해설자료,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돈암서원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 자료는 매우 소략한 데다 그 내용 자체도 외형적 건축물이나 제향인물에 관한 서술을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실제 돈암서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통적인 사회상과 에피소드들은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향후 개발되는 홍보자료는 돈암서원의 역사와 정신이 포함되고 경관이나 건축, 제향인물의 행적이 수요층의 수준과 관심사에 따라 알기 쉽고 다양하게 정리되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거론 된 다양한 주제와 서원의 특성, 돈암서원 만의 개성적인 장면들을 활용 할 수 있는 교육, 편집, 교육 전문가들이 아웃소싱을 통해 수요자에 걸 맞는 3-4종의 서로 다른 홍보,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여 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 교육자료가 구축되었을 때 돈암서원이 비로소 서원스태이나 학생들의 교육·체험의 장으로서도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 때야 비로소 돈암서원은 단순 유교건축물이나 특정 인물 중심의 유산이 아닌 한국의 대표 정신문화유산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이 해 준
(공주대 사학과)

1. 무성서원의 연혁 개략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번지(구 : 태인현 고현내면 원촌리)에 위치하고 있는 무성서원은,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하나로 전라우도의 首院 역할을 해왔다. 사적 제166호로 지정되었다.

무성서원은 원래 887년까지 태산현감을 지낸 崔致遠(857년~?)을 제향하기 위하여 月延臺(현재 무성리 성황산 서쪽 능선)에 생사당을 지어 모시다가 이름을 泰山祠을 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태산은 태인의 고호이다. 조선 초 丁克仁(1401~1481)이 1437년(세종 19) 처가가 있는 태인에 내려와 초가 삼간을 지어 堂號를 不憂軒이라 하고, 家塾을 열어 향리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가 하면 洞中鄉飲禮를 시행하면서 고현동 향약을 창설하기도 하였다. 정극인 사후에 가숙은 鄉學堂으로 발전하였으며, 그의 사후 2년되던 1483년(성종 14)에 이곳으로 태산사가 이전되었다. 정극인과 인척이었던 訥菴 宋世琳(1479~?)은 1510년(중종 5) 향학당을 다시 정비하여 강당과 동·서제를 지어 강학을 하였다고 한다(동국여지승람). 한편 靈川 申潛(1491~1554)은 1543년(중종 38)에 현감으로 부임하여 이러한 유서와 강학적 전통을 토대로 현내에 5학당을 개설하여 흥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1549년 상주목사로 이임하자 태인현민들이 역시 생사당을 건립하여 기렸다고 한다.(태인 성황사 자료, 태인신잠선생영상, 전북 민속자료 제4호)

그러다가 1615년(광해 7)에 鄉人들은 태산서원을 건립하고 태산사에 모셔져 있던 孤雲 崔致遠(857~?)과 향학당의 지원과 향학 진흥에 공이 컸던 靈川 申潛(1491~1554)을 함향하므로서 사묘인 태산사와 향학당을 결합하는 특이한 서원의 발전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1630년에 향학당을 만든 不憂軒 丁克仁과, 향학당의 운영을 맡았던 訥菴 宋世琳(1479~?), 默齋 鄭彦忠(1479-1557), 誠齋 金若默(1500~1558), 그리고 1675년에는 역시 향학당 운영을 맡았던 鳴川 金灌(1575-1635)까지 추배하여 최치원을 주향으로 모두 7위를 제향하였다.

1695년(숙종 21) 12월 1일 도내 유림들은 청액소를 올리기로 합의하고, 다음해인 1696년 1월 5일에 청액소를 올렸는데, 2월 9일에 무성, 태산, 남천 중 「武城」으로 사액이 내리는 동시에 復戶 3결, 保奴 30명이 지급되고, 원생은 30명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그 해 11월 23일에 賜額使로 예조좌랑 유격이 파견되어 연액례를 치루었다. 당시의 연액례 사실은 무성서원 소장 고문서 중 『연액기사』에 자세하다. 이후 1783년에 사우의 단청을 새로이 하였고, 1784년(정조 8)에는 雙溪寺로부터 최치원의 影幀을 가져와 봉안하였다. 1783년 사우중수와 최치원 영정 이안 사실은 서원에 소장된 『중수일기』에 자세하다.

1825년 4월 강수재(강당)의 화재가 있어 1828년 현감 徐灝淳의 지원으로 대대적인 중창을 하였으며, 1831년에는 최치원 영정을 다시 그렸다. 1834년에는 무성서원에서 『계원필경집』을 간행하여 서원에 비치하였다. 1844년 사우를 중수하고, 1849년 강당재건에 힘쓴 현감 서호순의 불망비를 건립하였다. 1868년 서원 철폐령으로 복호·보노를 삭제하였으나, 영의정이최응의 배려로 1879년 복호·보노가 환원(1882년 불망비 건립)되고, 1884년에는 崔成在 등에 의하여 『武城書院誌』가 간행되었다. 또 1887년에는 講修齋를 창설하고, 1891년에는 絃歌樓를 건립하였다. 현가루는 논어의 양화편에 나오는 “공자가 무성(제자 자유가 다스리던 지역)에 가서서 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다(子之武城 聞絃歌之聲)”라는 구절에서 취한 것이라 한다.

무성서원은 한말 丙午義兵으로도 유명하다. 1906년 병오창의에서 최익현과 임병찬의 창 의거점이었기 때문이다. 崔益鉉과 林炳瓚(1851~1916)은 1906년 6월 4일 武城書院에 모여 강 회를 열고 최고운의 영정을 봉심하고 당시 서원소임 김기술, 유종규와 함께 강회에 참석하여 창 의토적소를 올렸다. 강회가 끝난 후 80여 명의 의사가 함께 창 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격문 을 돌려 태인, 정읍, 순창, 곡성을 점령하였으나 6월 12일 순창에서 관군의 공격을 받아 최익 현, 임병찬 등 13명은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어 감금 2년 선고를 받고, 대마도(對馬島)로 유배 되었다.

1925년 최치원 영정을 개모, 1926년 문루의 기둥과 담장 고사 수리, 1934년 사우 중수를 거쳐 1968년 사적 제166호로 지정되었다. 1983년·1989년·1993·4년·1997년에 서원을 보수 하였다. 현재 무성서원 門樓인 絃歌樓는 두리기둥을 쓴 정면 3칸, 측면 2칸 기와집이고, 그 안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단층 기와집인 강당이 있으며, 오른쪽에 4칸의 講修齋, 왼쪽에 3 칸의 興學齋가 있어 東西齋를 이룬다. 3칸인 神門을 지나면 祠宇인 단층 3칸의 태산사가 있 는데, 그 안에 주향인 최치원을 북쪽 벽에, 나머지 제향인물 6명의 위패는 좌우에 봉안하였 다.(건축 관련은 잠정등재 보고서 및 제1회 워크숍(11. 12. 12) 자료 참조)

2. 19세기말 『무성서원지』 발간과 자료

1) 무성서원은 호남지역에서는 드물게 1884년에 서원지가 간행된 곳이다. 『무성서원지』에는 당시 무성서원 유림들의 자료정리 소명과 식견이 잘 반영되어 있고, 그만큼 서원지 편찬내용도 충실하다.

- 武城書院院誌 2권 2책, 崔成在(도유사) 等編, 1884년, 武城書院開刊
- 序 : 金聲根, 鄭履源(甲申, 1884)
- 跋 : 寄亮衍, 申岐朝甲申, 1884)

상권에는 고운 최치원의 유적과 유문을 싣고 이어 제향인물의 사적, 그리고 서원의 창건에 서부터 청액, 그리고 고운의 영정 봉안 등 의례에 관련된 각종 문서자료들을 정리하여 놓고

있다. 또한 건물 중수기나 장서기, 복호와 노비문기 등도 수록하고 있다.

하권에는 토황소격문을 비롯한 시문과 사우 강당 등 건물의 창건·중수기문, 원지 발간경과, 봉심안, 갑을기사라 하여 서원의 연혁과 변천사를 정리한 글도 있다. 특히 원규, 강습례 관련의 상세한 자료들은 무성서원의 교육, 강학, 의례의 진면을 증거할 귀중한 자료들이다. 말미에는 각종 물목과 전답안, 원생록, 원지 유사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도 또 한 번의 무성서원지가 발간[武城書院誌, 金麟基 등 編, 3권 3책, 석판본]이 있어서 한말-일제강점기의 변화상이 반영된다.

武城書院院誌上目錄	
院誌上	跋
序	流觴臺碑文
桂苑筆耕序	泰山祠事蹟
流觴臺重修記	請額疏
院誌	延額禮
七賢事蹟	各邑例聘記
請額事蹟	院生關文
祭文	影幀奉安日記
祝文記	還安祝文
武城書院院誌上	桂苑筆耕開刊記
影幀奉安時呈狀	芝山處士藏書記
影幀奉安祝文	
移安祝文	
重修記	
復戶保奴還復記	

武城書院院誌下目錄	
院誌下	申先生碑文
崔先生檄黃巢書	披香亭懸板文
五賢行蹟	講堂重刊記
院宇重修上樑文	桂苑筆耕開刊記
賢宇重修記	復戶保奴還復記
重修記	靈川申先生從遊
院誌開刊記	甲乙記事
先進奉審案	白鹿洞五規
院規	一
講習禮執事	笏記
鄉飲酒禮唱笏	講習禮圖
鄉飲酒禮圖	三綱發文
陳設圖	祭物目錄
祭器目錄	備案
院生錄	院誌有司錄

2) 그런데 이 서원지에 수록된 자료들 중 많은 문서들이 현전하지 않는다. 당시에는 이들 자료들이 필사원본, 혹은 고문서 형태로 보존되었을 것이고, 서원지에 수록되지 않았던 전적

과 문서들도 훨씬 더 많이 소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무성서원지』 상 <芝山處士安在護藏書記>에 芝山處士 安在護가 1872년의 南學堂 중건과 1973년의 무성서원 강습례를 보고 집안에 소장하던 서책 수백 권을 무성서원에 기증하여 講習과 藏修의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많은 장서가 비치되었음도 알 수가 있다. 그것들이 관리 소홀과 무관심으로 하나 둘씩 산질되어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따라서 향후 보다 적극적인 탐문, 추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기타 관련 문중, 유림의 소장 문서들이 추가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추가조사 노력이 후속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3. 기록자료의 소장처와 조사 현황

1) 무성서원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 정리나 연구는 매우 적다. 그리고 학계의 관심도 주로 건축과 조경분야에 한정되어 서원 역사, 기록자료에 대한 관심은 최근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손윤희, 「무성서원의 건립과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원 석사 2002
- 최만봉, 「무성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2-4호 2004
- 정읍시, 『무성서원종합정비 기본계획』, (주)길 건축사, 2007

2) 고현동약 연구(이강오, 박익환, 백승종)나 임병찬 의병에 대한 연구(신규수, 홍순권, 강길원, 윤병석), 정극인과 상춘곡에 대한 연구 등에서 무성서원에 대하여 일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 서원 연구와 자료 정리는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와서 무성서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러한 연구 및 자료정리 부진에 대한 대안이 일부 모색되기 시작하여 직접 무성서원을 주제로 부각하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 송만오, 「무성서원 소장자료의 종류와 그 내용」, 2009, 서원학회 워크숍 발제
- 박종배,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의 講習禮」, 2009, 서원학회 워크숍 발제
- 이계형, 「무성서원과 최익현 의병의 성격」, 2009, 서원학회 워크숍 발제

3) 무성서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아니었지만,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의 태인지역의 역사문화유산 조사에서도 무성서원자료를 조사한 바 있다(당시 조사자료는 건물 4동, 비각 4동, 비석 15기, 현판 38개, 주련 23개, 문서 다수 등 : 『태인고현동 향약』 국립중앙박물관, 2009년, 36면 참조)

4) 한편 2009년 문화재청에서는 비지정동산문화재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무성서원소장문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2010, 문화재청, 공주대산학협력단 : 무성서원 문서는 송만호 교수 조사보고)하였고, 이를 통하여 현재 무성서원에 소장된 전적, 고문서자료가 고서 8점, 성책고문서 49점임을 확인하였다.

5) 그리고 이밖에 무성서원 문서로 다른 기관에 소장된 자료로 ①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31

점(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②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4점(2006 특별전-정읍편- 도록), ③ 독립기념관 소장 2점 등이 알려지고 있다.

6) 2010년의 무성서원 조사보고서와 함께 조사단은 문화재청과 전라북도·정읍시에 무성서원 고문서의 문화재지정을 권유하는 보고서를 제출(문화재위원 이해준, 문화재전문위원 옥영정·서병패, 2010. 1)하였고, 2011년에는 이치백 무성서원 원장의 결단으로 전북대 박물관에 의뢰하여 현전하는 무성서원 자료의 일괄 촬영과 목록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4. 전승 자료의 내용(목록)

※ 무성서원의 경우 영남의 대표적 서원들에 비하여 현전 자료량이 매우 적은 실정이어서 조사된 자료목록을 일괄 소개하도록 한다.

○ 서원소장 고서 8종

直軒集, 김종순(1837~1886), 木版本, 1891년 1卷1冊
肯構堂遺稿, 김중정 유고, 木版本, 1899년, 1卷1冊
漢陰集, 이덕형(1561~1613), 木版本, 일제시대, 1卷1冊(결)
東谷集, 김재희(1823~1887), 活字本, 1921년, 2冊
武城書院誌, 未詳, 木版本, 1930년, 1卷2冊
畏庵集, 김도명(1803~1873), 木版本, 1932년, 1卷1冊
全州李氏一孝三烈錄, 未詳, 活字本, 1933년, 1卷1冊,
古縣洞約誌, 1939년, 1책 秉天祠誌, 1942년 1책 湖南節義錄, 木版本, 1964년, 1卷5冊

○ 서원소장 성책고문서 49종

泰山書院院儒案, 1책 1620년 (1618년 원생안 합철)
泰山書院院生錄, 1책 1639년 (1622년, 1659년 유생안 합철) 武城書院院生案(1), 1책 1773년
武城書院院生案(2), 1책 1800년 (무성서원奴婢案(1801) 합철)
尋院錄(1), 1책 1612~1732년(총 600여 명) 尋院錄(2), 1책 1732~1771년(총 750여 명)
尋院錄(3), 1책 1780~1828년(총 570여 명) 尋院錄(4), 1책 1813~1831년(총 220여 명)
尋院錄(5), 1책 1831~1876년(총 110여 명)
奉審錄(1), 1책 1875~1915년 奉審錄(2), 1책 1962년 奉審案(3), 1책 1993년
完文(1)- 節目, 1책 1838년 完文(2)- 節目, 1책 1845년
延額記事, 1책 1696-1794년
重修日記, 1책 1783년 중수扶助記, 物力需入記, 移安獻官執事記, 奉安影幀日記 등.
武城書院祭物冊, 1책 1734년 靈昭殿秋享祭物記, 1장 1800년대말(영소전의 제례물목)
武城書院祭禮笏記, 1책 조선후기(축문) 武城書院享需櫟案, 1책 1906년
武城書院院規, 1책 1924년 武城書院享需錢殖本記, 1책 1928년 通文, 高敞鄉校 1930년
開成杜門洞祠院創建趣旨書, 閔千植, 1930년 公函, 1장 1931년 聲討文, 全州鄉校, 날장 1931년

敬通, 武陽書院, 날장 1932년 武城書院慕賢稷案(1), 1책 1932년
 武城書院慕賢稷案(2), 1책 1933년 武城書院慕賢稷案(3), 1책 1960년
 武城書院收支簿, 1책 1933년 計算書, 日高金市, 1938년
 稟告, 3장 1938년 武城書院院案(1), 1책 1946년 武城書院院案(2), 1책 1950년
 武城書院土稅未收記, 1책 1952~1956년 泰山祠復設推進黨通文, 1장 1957년(태산사 복설건)
 武城書院享需稷案序, 날장 병오년 武城書院春秋祭官錄(1), 1책 1974년
 武城書院春秋祭官錄(2), 1책 1981년 武城書院庫舍建築關係書類, 1책 1979년
 武城書院秋享祭官分定記, 1장 1980년 修補助金收支簿, 1책 1980년
 祭需記, 1책 1981년 武城書院辛未秋享祭需記, 날장 1991년 武城書院講經錄, 1책 2000년
 武城書院國寶管理委員會案, 1책, 2000년

○ 懸板・記文, 柱聯 등 자료 (51건)

武城書院賢宇重修記 신축 閔申鎬	武城書院重修記 임진 尹濟翼
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임오 金稷欽	武城書院講堂重創記 무자 金攸
武城書院重修記 병술 金永朝	武城書院重修記 병오 金秉述
武城書院重修記 무자 金光欽	武城書院重修記 기묘 宋程淳
武城書院重修記 정사 李在宇	武城書院埼盤重修記 임신 金澤
武城書院牆垣重修記 무진 金煥豐	賢宇重修及典祀所創建記 경오 金煥豐
武城書院院址復舊記 정축 金煥豐	武城書院重修記 정묘 金煥一
武城書院重修記 을미 尹秉	武城書院重修記 갑진 權直相
武城書院記 임인 金直述	講修齋重修記 을사 金麟基
絃歌樓創建記 1891 순상 閔正植	絃歌樓重修記 1903 鄭寬求
絃歌樓記 1891 관찰사 金奎弘	絃歌樓重修記 1936 전북지사 高元勳
懸板, 柱聯 외 기타	

○ 碑石 (15기)

縣監 徐候灝淳不忘碑(1849)	縣監 李定植不忘碑(1882)	領相 李公最應不忘碑(1882)
前監役 丁汝述重修義助碑(1937)	進士 崔永大永世不忘碑(정묘)	武城書院廟廷碑(1898)
創建義捐芳名錄	興學齋創建碑(1921)	通政大夫 前秘書監丞 申瑢熙不忘碑(1925)
前醫官 李慶熙不忘碑(1925)	士人 金麟基不忘碑	武城書院重修紀念碑
武城書院史蹟紀念碑	丙午倡義記續碑(1992)	

○ 전북대학교 박물관(호남기록문화시스템 검색)

告目 丁卯年 武城書院의 張大榮 등이 金承旨에게 올린 고목
 告目 甲戌年 武城書院 西齋의 姜炳先 등이 崔生員에게 보낸 告目
 望記 戊辰年 武城書院 儒會所, 崔珞均 武城書院 掌議 薦望單子
 望記 丁卯年 武城書院 儒會所, 金溶惠 武城書院 掌議 薦望單子
 望記 甲子年 武城書院 儒會所, 武城書院 道內色掌 薦望單子
 望記 甲子年 武城書院, 道內色掌 薦望單子

望記 甲戌年 武城書院, 道內 儒林의 訓長 薦望單子
 所志 1903년 全羅道の 儒生 金相浩 等이 武城書院의 院貳에게 올린 所志
 通文 癸卯年 武城書院道會所에서 全州鄉校로 보낸 通文
 通文 1924年 武城書院道會所에서 益山鄉校에 보낸 通文
 通文 丙辰年 武城書院道會所에서 金堤鄉校로 보낸 通文
 通文 丙辰年 武城書院道會所에서 金堤鄉校로 보낸 通文
 通文 癸卯年 3月 武城書院 南北道儒會에서 成均館에 私諡 요청하는 通文
 通文 1924 12月 泰仁 武城書院儒會所에서 孝烈 표창건으로 益山鄉校에 보낸 通文
 通文 壬辰年 2月에 武城書院道會所에서 孝行 표창으로 金堤鄉校에 보낸 通文
 通文 壬申年 武城書院 儒林이 咸平鄉校에 보낸 通文
 通文 壬寅年 武城書院 儒林들이 金溝鄉校에 보낸 通文
 通文 壬午年 泰仁 武城書院에서 金溝鄉校에 보낸 通文
 通文 1903年 武城書院에서 金溝鄉校에 보낸 通文
 通文 甲戌年 武城書院 儒林들이 慕聖公會에 보낸 通文
 通文 甲戌年 泰仁 武城書院 儒林들이 金溝鄉校에 보낸 通文
 通文 甲戌年 武城書院 儒林들이 金堤鄉校에 보낸 通文
 通文 戊申年 武城書院 儒林들이 泰仁鄉校에 보낸 通文
 通文 戊申年 武城書院 儒林들이 泰仁鄉校에 보낸 通文
 通文 壬辰年 武城書院都會所 權鍾豐 등이 金堤鄉校에 보낸 通文
 通文 戊辰年 武城書院 金澤 등이 京城의 慕聖公會에 올린 通文
 通文 丁卯年 武城書院 儒林 金箕述 閔在鎬 朴齊大 金澤 等이 臨陂鄉校에 보낸 通文
 任命狀 武城書院道會所 1925년
 任命狀 武城書院道會所 1933년
 通狀 慕聖公會에서 모낸 통장 1925년
 通文 용산사에 보내온 통문 1959년

○ 국립전주박물관(2006 특별전-정읍편- 도록)

上書 불명 武城書院道會所
 通文 불명 武城書院 西齋의 姜炳先 等이 崔生員에게 보낸 告目
 祭文 년대불명 2매, 武城書院

5. 자료 특성

1) 武城書院 資料의 文化財指定 價値

무성서원에 소장된 고문서자료 중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모두 15종 15책의 정책고문서로 필사원본이다. 이들 자료는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유생안류(원유안, 원생안) 4책, 2) 완문, 절목 2책, 3) 심원록·봉심안 6책, 4) 기타로 연액기사, 중수일기, 무성서원제물책 등 15책이다.(「지정조사보고서」, 문화재위원 이해준, 문화재전문위원 옥영정·서병패, 2010. 1)

① 유생안류 : 유생안은 총 4책으로 사액 이전의 태산서원 당시 원생록 2책과 무성원서원으로 사액 받은 이후의 원생록 2책이다. 그러나 합철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1618년, 1620년, 1622년, 1639년, 1659년의 5건의 泰山書院儒生案이 남아 있다. 武城書院院生案의 경우도 1773년 원생안과 1800년 원생안, 그리고 1801년의 노비안이 함께 철해져 있어 모두 7점의 유생안과 1종의 노비안이 보존된 상태이다.

② 完文과 節目 : 모두 4책으로, 1838년과 1845년 완문은 서원전답의 관리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무성서원의 경제실상 및 그 운영의 구체적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완문에 첨부된 절목에는 서원전토를 팔아 고현내 각 리별로 分給殖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06년 절목은 향수계 절목이다.

③ 심원록과 봉심록 : 심원록 5책, 봉심록 1책은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200여 년간의 무성서원 학맥과 인맥, 정치사적 성향을 가늠하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④ 기타 : 이밖에 무성서원 관련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성책문서로 특별히 주목할 것은 『延額記事』와 『重修日記』, 『武城書院祭物冊』이다. 『延額記事』는 1696년 무성서원 청액소에서부터 연액례, 폐물 등 부조기, 건물의 수리, 위패의 還安·移安 등 사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문서이다. '청액상소(柳之春 등, 1696년)를 시작으로 연액시 예관(예조좌랑 柳格)과 원임 김만해 등 직임 명단, 禮官 幣物, 各邑扶助記, 物力需入記, 청액시 유회, 사우중수, 연액시 향수, 이안제 축문, 환안제 축문 등등의 기록들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무성서원의 사액과 관련된 중요사실들을 상세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이다.

『重修日記』 1책은 1783년(정조 7) 고운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기 전에 사당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출연한 인명과 1784년 쌍계사로부터 최치원 영정을 가져오는 과정까지 영당이건 관련한 일체의 일기체 기록이다. 홍양·낙안 양읍 통문, 본읍 답통을 시작으로 1783년(정조 7) 고운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면서 이에 관련된 전 과정과 사당 중수에 참여 출연한 기관, 인명과 1784년 쌍계사로부터 최치원 영정을 가져오는 과정까지 영당이건 관련한 일체의 일기이다. 扶助記, 物力收入記, 移安獻官執事記, 奉安影幀日記, 단청중수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武城書院祭物冊』은 1734년(영조 10) 관청에서 무성서원의 제향시 공급한 제수의 물품과 수량을 기록한 문서로 사액 후 관에서 제수 공급한 물품 명목이 실려 있다.

2) 武城書院 講習禮 資料

무성서원은 한국의 서원 중에서도 창건 연혁과 변천과정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 곳이다. 즉 홍학당이라는 서당 강학과 향음주례·향약의 전통이 합쳐져 오랜 전통을 이어왔던 것이다. 무성서원의 강학례와 향약적 전통은 한국 서원의 특성을 특화할 수 있는 자료로 무성서원 강습례는 기본적으로 鄉飲酒禮의 예법에 따라 班次를 정하였으며, 크게 陳設-瞻拜-相揖-升堂-讀規-拜讀-進講-禮畢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3월 3일'과 '9월 9일'이라는 개최 시기, '강습례'라는 명칭, 虛位의 진설과 허위를 향한 瞻拜, 허위 앞에서의 拜讀 등 몇 가지 의식절차 상에서 여타 조선시대 서원 강회와 다른 독특한 면을 갖고 있다.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경서 강독을 위주로 전개된 집단적 강학 활동이라는 강회의 일반적 의미와 함께 古禮 習禮라는 특별한 禮敎的 意味를 함께 갖고 있다(박종배, 「19세기 후반 武城書院의 講習禮에 관한 일 고

찰」, 한국서원학보 제1집, 2011, 한국서원학회).

무성서원의 교육, 강학, 강습례 자료는 『武城書院誌』(1884) 하권의 院規, 甲乙記事, 그리고 상습례와 관련된 講習禮節目, 講習禮執事, 笏記, 講習禮圖 등이 있다.

『무성서원지』(1884년본, 1936년본)의 <갑을기사>는 1675년 2월의 사우 중수부터 1929년 2월 중정일의 춘향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1675년부터 1868년까지는 서원 중수나 제향 관련 기사가 院任 명단과 함께 드문드문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총 기사 수도 30건이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1871년 이후부터는 춘추 제향에서부터 원입, 강습례(향음주례 포함), 주요 인사의 봉심, 원우 수습 등의 기사가 매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갑을기사>를 통해 볼 때, 강습례는 1873년부터 1880년까지 총 20회(향음주례 2회 포함)의 강습례가 집중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후에는 한동안 행해지지 않다가 1891년 이후 1922년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873년부터 시작된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존치된 47개 서원의 하나인 무성서원이 서원의 본질적 기능인 '講學明道'의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그 시행이 결의되었고, 芝山處士 安在護는 1872년의 南學堂 중건과 1973년의 무성서원 강습례를 보고 집안에 소장하던 서책 수백권을 무성서원에 기증하여 講習과 藏修의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무성서원지』상 <芝山處士 安在護藏書記>).

<강습례절목>을 보면 반차(班次) 등 강습례 거행시의 수칙을 5개 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습례의 진행을 돕는 '都執禮, 唱執禮, 直月, 直日, 典牲, 典簿, 曹司, 典書' 등 집사명단을 <강습례집사>에 적고 있다. <홀기>, <강습례도>도 강습례의 전 과정을 이해하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1906년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최익현이 무성서원을 거점으로 起義할 수 있었던 기반도 1872년의 강습례 시행 결의에서부터 다져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원에 소장된 武城書院講經錄 1책은 그 전통을 이어 2000-2002년에 이루어진 강회를 기록한 자료이다.

3) 崔致遠 影幀 移安과 桂苑筆耕集의 간행

무성서원의 역사와 문화사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특기 사항은 바로 고운 최치원과 무성서원의 긴밀한 관련이다. 무성서원이 대원군의 서원훼철을 면하게 된 연유도 결국은 고운 최치원이라는 인물 때문이라 할 수 있고, 고운 이외의 무성서원 제향인물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지역의 '鄉賢'으로 비견되어도 좋을 만하다.

주지하듯이 무성서원이 위치한 곳은 태산현의 옛터로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최치원은 태산의 현감으로 부임하여 일화와 유적을 남겼다. 그리하여 무성서원을 찾는 많은 인사들이 고운의 행적을 기리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고, 무성서원과 직결하여서는 고운 최치원의 영정 봉안, 그리고 고운의 시문집인 『桂苑筆耕集』의 판각과 보관처로서 의미가 있다.

1783년(정조 7) 낙안·홍양향교 유생들이 통문을 보내어 쌍계사에 봉안된 영정을 이안하기를 권유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이듬 해인 1784년(정조 8)에 마침내 무성서원에 고운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자료로 『(武城書院) 重修日記』(1책 17장, 필사본)가 남아 전한다. 이 책에는 영정 이안의 전 과정과 사당 중수에 참여 출연한 기

관, 인명과 1784년 쌍계사로부터 최치원 영정을 가져오는 과정까지 영당이건 관련한 일체의 일기이다. 扶助記, 物力收入記, 移安獻官執事記, 奉安影幀日記, 단청중수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고운의 영정은 1784년 이안 이후 1831년에 새롭게 개모하였고(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23년에 한말의 저명한 화사 채용신(1850-1941)에 의하여 다시 개모되어 현전하고 있다(전북도립미술관에 위탁보관 중),

한편 『계원필경집』은 고운 최치원의 시문집이다. 원래 879년부터 4년간 고변의 幕府에서 從事巡官으로서 書記의 職任을 맡고 있을 때 지은 만여 편의 글 가운데서 정수만을 뽑아 20권으로 편찬한 四六文으로 삼국사기·해동문헌총록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 고려·조선 중엽까지 여러 차례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세한 서지자료는 전해지지 않으며, 1834년 徐有渠가 호남 관찰사로 재직 중 洪奭周의 집에 家藏된 舊本을 얻어 교정하여 全州에서 聚珍字로 간행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奎4220),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徐有渠는 校印桂苑筆耕集序(1834)에서 호남을 안찰하다가 武城書院에 들러 拜謁하였고 이때 洪奭周가 문집을 부쳐 주면서 후대로 전승할 것을 권함에 교정하여 간인하고 태인 武城書院과 陝川의 伽倻寺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현재 무성서원에는 판각이나 당시 간본이 전해지지 않는다.[校印桂苑筆耕集序, 1834년, 徐有渠, 洪奭周 撰]

고운 최치원의 생사당터로 전해지는 月延臺(현재 무성리 성황산 서쪽 능선), 影幀과 桂苑筆耕, 그리고 인접한 관련 유적지(流觴臺碑, 披香亭 등)를 아울러서 연계하는 자료 정리와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4) 鄉賢 活動 傳統과 韓末의 武城倡義

무성서원은 한말의 창 의지로서 유명하다. 병오창의, 무성창의로 일컬어지는 1905년의 최익현, 임병찬의 의병사적은 무성서원의 정신사적 위상과 지성사적 전통을 잘 보여준다.

원래 무성서원의 창건과정이나 전신인 태산사, 태산서원이 鄉賢들의 향촌활동, 특히 강학과 향약활동에 그 터전을 두고 있었다. 不憂軒 丁克仁(1401~1481)이나 그의 뒤를 이어 강학의 전통을 이어간 訥菴 宋世琳(1479~?), 默齋 鄭彦忠(1479-1557), 誠齋 金若默(1500~1558), 그리고 태인현감으로 부임하여 5학당을 개설하여 흥학의 기틀을 마련했던 靈川 申潛(1491~1554)의 행적, 역시 향학당 운영을 맡았던 鳴川 金灌(1575-1635) 등의 행적도 이 큰 틀과 결코 다름 아니다.

주지하듯이 태인 고현동 향약은 보물 제1181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무성서원 제향인물인 1475년(성종 6) 불우현 정극인의 향음주례서와 1510년 송세림의 향음주례 발문에서 보듯 고현 동약은 동린계로 도강 김, 여산 송, 영광 정, 경주 정, 청도 김씨 등이 만든 조직이다. 그리고 이는 무성서원의 전신인 흥학당과 태산사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그 활발한 활동시기도 거의 일치하며, 동약의 주도층과 서원의 운영 주도층이 거의 동일하였다. 고현동향약의 자료중 현전하는 최고의 것인 1602년의 자료에 보이는 인물들이 대부분 태산서원(무성서원)의 관련 주역들이었고, 현전하는 무성서원의 주련[勸規交恤 藍田古約]에서도 이러한 향약과의 연관이 잘 드러나 있듯이 초기 향약의 시행처로서도 주목된다.

그런가하면 모두 제향이 되지는 않았지만 인목대비의 폐출에 반대하면서 고현동에 은거한 七狂과 송정에 은거했던 十賢(1910년 채용신이 그린 七狂圖와 松亭十賢圖가 남아 전함) 등에서 보듯이 무성서원 운영주도층들은 고현동 향약이나, 의병활동을 통하여 향촌사회에서 지성사적 대표성을 가지고 존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이 이어진 것이 바로 1905년 병오 무성창의였던 것이다. 창 의 거점이 무성서원이었던 것은 무성서원의 영향력과 상징, 대표성이 인정된 결과였을 것이고, 그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무성서원의 기록들을 통해서 잘 밝혀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면암 최익현의 의병창의는 앞에서 소개한 무성서원의 강회와 유림동원력, 대표성을 기반한 것이었던 것이다.

6. 향후 활용의 과제

이상에서 간략하게 초략한 것처럼 태인 무성서원은 전라우도의 首院 역할을 해왔던 대표적 서원이다. 무성서원은 본래 태산사, 태산서원으로 존속하다가 1696년(숙종 21) 도내 유림들의 청액소로 무성으로 사액이 내렸고, 1784년(정조 8)에는 雙溪寺에서 최치원의 影幀을 가져왔다. 1834년에는 최치원의 『계원필경집』을 간행하여 서원에 비치하였으며, 1868년 대원군의 서원훼철에서도 문묘제향인인 최치원을 제향한 서원으로 유지 존속되었고, 한말 의병의 봉기지로, 또한 강화활동으로도 저명한 서원이었다.

이러한 연혁과 상징적인 위상에 비하여 볼 때 현전 자료의량은 매우 적어 극히일부 만이 전해져 온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은 크다. 그러나 이번 한국서원의 세계유산 지정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이들 자료들을 재정리,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보다 완벽한 무성서원의 과거와 전통이 복원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에서 향후 필요한 조사와 활용의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1) 現傳 古文書 資料의 文化財 指定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전하는 고문서 자료들을 일괄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일이다. 이미 이 분야 전문가들이 도지정을 권유한 바도 있다(문화재위원 이해준, 문화재전문위원 옥영정·서병패, 2010. 1). 지역연구자와 문화재위원들의 협조를 받아 하루빨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2) 資料集(影印本) 編刊과 追加 調査 推進

다음으로는 이들 지정, 혹은 무성서원의 역사적 값티와 변천사를 증거하는 자료들을 자료집(영인본)으로 편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성서원의 경우 다른 서원에 비하여 전문연구가 미진한데, 그 이유는 자료의 제약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자료집의 영인본 발간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높여줄 것이고, 무성서원의 문화사적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강조한 것처럼 많은 연구들이 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좀더 적극적인 노력으로는 이 기회에 분산소장된, 그리고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무성서원 관련 자료들을 정밀 재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성서원은 다른 서원에비하면 일찍이 1884년에 서원지를 편간하여 자료정리의 역사와 의지가 남달랐던 서원이다. 그럼에도 서원지에 수록된 자료들 중 많은 문서들이 현전하지 않는다. 더욱이 당시에는 이들 자료들이 필사원본, 혹은 고문서 형태로 보존되었을 것이고, 서원지에 수록되지 않았던 전적과 문서들도 훨씬 더 많이 소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무성서원지』 상 「芝山處士安在護藏書記」에 芝山處士 安在護가 1872년의 南學堂 중건과 1973년의 무성서원 강습례를 보고 집안에 소장하던 서책 수백 권을 무성서원에 기증하여 講習과 藏修의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많은 장서가 비치되었음도 알 수가 있다.

그간에 연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관리 소홀과 무관심으로 산질된 이들 자료를 확보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사원유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의식을 공유하는 무성서원의 僉位들이 중심이 되어 탐문, 추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문중, 유림의 소장문서들이 추가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다른 서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기회에 통문류 같이 타 서원이나 타 기관에 보존된 문서, 그리고 문집류 자료에 수록된 각종 書簡이나, 記文, 問目, 通文들도 검색하였으면 좋겠다.

3) 研究事業의 推進과 定例化

다음으로 한국서원에서 무성서원이 가진 독특한 문화사적 특성을 반영시킨 주제별 연구를 매년 진행(학술세미나, 연구논문(총) 발간)할 필요성이다. 서원정신과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이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과제라고 볼 때 이 사업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간략히 몇가지를 지적하였지만 무성서원의 역사와 변천사를 살펴보면

고운 최치원의 생사당과 태산사
불우현 정극인의 향학당 유적과 상춘곡(고현 동약)
영천 신잡의 5부학당과 생사당
7현의 흥학 행적과 무성서원
태산서원의 건립과 도내유생의 청액상소
연액의절
최치원 영정 이안과 계원필경 발간
무성서원의 중수 연혁
훤철을 면한 호남의 首院
무성서원 현가루와 계관문
무성서원의 강습례 전통
면암 최익현의 의병창의와 무성서원 - 강회와 유림 동원력

등등으로 무성서원만의 특수한 성격을 드러내는 주제들이 많다. 이들 세부 주제에 대한 연구와 발표회를 정례화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한다. 이로써 세부 연구테마들에 대한 다양한 전문

가층의 연구동원과 활용, 무성서원의 가치 증대와 일반인에 대한 교육, 홍보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수반하며, 향후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매년 정례적인 무성서원 학술세미나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거나 서원 자체(송모계나, 기념사업회 등이 주관해도 좋을 것임)가 운영하여 그 결과를 논문집(자료집, 논총)으로 발간하면 좋을 것이다.

4) 기록자료의 교육, 홍보자료, 서원스태이 자원활용

마지막으로 이들 기록자료를 제대로 활용한 무성서원의 교양 해설자료,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관광 안내자료를 보면 매우 소략하고, 건물과 제향인물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역사와 정신이 포함되고 경관이나 건축, 제향인물의 행적이 수요층에 따라 알기 쉽고 다양하게 정리되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거론한 주제와 특성, 무성서원만의 모습들이 축약적으로 편집 온축하려면 연구, 편집, 교육자들이 힘을 합쳐 수요자에 맞는 3-4종의 서로 다른 홍보, 교육자료들을 개발하여 간행하여야 한다. 그럴 때 서원스태이나 학생들의 교육·체험자료로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럴 때 무성서원은 단순 유교건축물이나 특정 인물 중심의 유산이 아닌 한국의 대표 정신문화유산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2012. 3. 12)